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순원왕후 인간의 국어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수 애

2020년 8월

純元王后 諺簡의 國語學的 研究

指導教授 裴 泳 煥

金 洙 愛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0年 6月

金洙愛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신 성 철



委 員

이 래 호



委 員

신 우 봉



委 員

강 문 증



委 員

배 영 환



濟州大學校 大學院

2020年 6月



The Study on Korean Linguistics of Queen Sunwon's Korean Old Vernacular Letters

Kim, Soo-ae
(Supervised by professor Bae, Young-hwa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20.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Bae, Young-hwan, Prof.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
.....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 초록>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3
3. 연구 대상 및 방법	5
II. 순원왕후 인간의 현황과 특징	8
1. 인간의 현황	8
2. 발·수신자의 관계 양상	15
2.1. 발신자의 생애	15
2.2. 수신자의 주변 인물	20
3. 왕실 생활상의 반영	24
4. 인간의 형식적 특징	29
III. 표기법과 음운론적 특징	35
1. 표기법의 특징	36
1.1. 합용 병서	37
1.2. 연철 표기와 분철 표기	41
1.3. 어중 유기음 표기	50
2. 음운론적 특징	58
2.1. ‘•’의 변화	58
2.2. ‘ㄹ’ 비음화와 유음화	63
2.3. 구개음화	71
2.4. 원순모음화	80

IV. 문법적 특징	86
1. 격조사와 선어말 어미의 특징	86
1.1. 격조사	86
1.2. 선어말 어미	107
2. 상대경어법	112
2.1. ‘흔다’체	115
2.2. ‘흔늑’체, ‘흔읍’체	118
2.3. ‘흔늑이다’체	122
2.4. 지위에 따른 상대경어법의 변화	125
V. 결 론	132
참고문헌	139
<Abstract>	150

■ [부록]

1. <순조대왕의 친인척 연보>	155
2. <판독문>	160

<국문 초록>

순원왕후 연간의 국어학적 연구

김 수 애

국어국문학과

국어사에서 19세기는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오는 교량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이 시기에 현대국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19세기의 국어의 모습을 제대로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19세기 왕실의 언어의 모습은 현재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순원왕후(1789~1857년) 19세기 연가는 당대 언어적 특징은 물론 왕실 언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발굴된 <순원왕후연간> 96건을 대상으로 연간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학적 특징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규장각 소장 <순원왕후어필봉서(奎27785)> 33건, <순원왕후어필(古貴2410-21)> 25건, 단국대석주선기념박물관 4건, 국립한글박물관 30건, 조용선 개인 소장 4건과 건국대박물관 1건 등 총 96건을 대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를 파악해 보고, 나아가 표기법과 음운, 문법적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먼저 <순원왕후연간>의 발·수신자와 필사 연대를 고찰하였고, 발신자인 순원왕후와 그 주변 인물에 대해 논의하였다. 순원왕후의 생애와 2대에 걸친 수렴청정에서 당시 정치적으로 일어났던 사건 등을 다루었다. <순원왕후연간>에서는 당대의 왕실 생활상과 진술하고 개인적인 정서와 정치적 사건의 결합, 치병 행위 등을 매우 현실감 있고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의 공식적인 사료에 등장하지 않는 정보들로서 개인 간에

주고받은 편지의 자료적 중요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순원왕후는 언간>을 통하여 왕실 밖에 있는 친척들과 서로의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연대감을 끈끈하게 형성하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19세기 인간의 형식적 특징의 사례로 자료적 가치가 높다. 특히 민간 사대부 여성들의 언간과는 달리 봉투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9세기 왕실 여성 언간의 봉투의 형식적 특징을 검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봉투와 내지를 별도로 두어 발신자의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준중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한편, 순원왕후의 서체는 전형적인 궁체로서 유려한 진흘림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한문 초서의 필의로 획의 움직임이 빨라서 역동적이며 세련미가 있다. 결구의 특징으로 행간이 넓고 시원한 여백은 먹빛의 청아함과 함께 어우러져 존엄한 위상이 느껴지며, 조선 왕후의 지위에서 명필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글 서예사의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한 조형성과 미학을 가지고 있다. 이는 수많은 숙련과 서사 과정이 내면 수양과 함께 순원왕후가 처해 온 상황들을 통해서 붓끝에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현대를 거치면서 한글 서예사의 핵심적인 서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순원왕후언간>의 표기적 특징으로는 첫째, ㅅ계 합용 병서의 시, ㅅ, ㅅ과 ㅂ계 합용 병서인 ㅃ, ㅃ 등이 나타난 반면에 각자병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이 시기의 다른 언간과 비교할 때, 연철 표기의 형태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순원왕후언간>의 표기가 보수적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셋째, 어중 유기음은 어중의 ㅌ의 경우는 부분 중철의 양상이 두드러지고, 어중 ㅍ은 이른바 채음소화 표기가 두드러진다. 넷째, 구개음화를 살펴본 결과 19세기 사대부가의 언간에서 대부분 이루어진 구개음화가 본 자료에서는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구개음화를 거부하려는 의식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원순모음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음운 현상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문법적 특징은 격조사와 보조사, 그리고 선어말 어미의 특징을 다루었다. 그중 주격 조사는 이 자료에서는 ‘이’와 ‘가’가 쓰였다.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이’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가’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중

세국어 이래로 대명사 ‘나’, ‘누’, ‘저’에는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하였으나, <순원왕후언간>에서는 ‘내’, ‘뉘’, ‘제’에 다시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한 양상도 보인다. 그리고 존칭의 주격 조사 ‘긔셔, 겨오셔/겨오샤’의 예도 확인된다. 그중 ‘긔셔’는 중세국어에서는 ‘띄셔’로 나타나는데, 이 자료에서는 항상 ㅅ이 탈락된 ‘긔셔’로 나타나고 있다. ‘띄셔’는 “존칭의 여격”을 표시하는 부사격 조사 ‘-띄’와 동시 ‘잇/이시-’의 활용형 ‘이셔’에서 기원한 ‘-셔’의 결합형이 높임의 주격 조사로 발전한 것이다. 부사격 조사 ‘띄’는 높임의 관형격 조사 ‘ㅅ’과 지시대명사 ‘거긔’의 결합으로부터 문법화한 것이기 때문에 ‘띄’나 ‘띄셔’에서 ‘ㅅ’은 수의적으로 탈락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그런데 이 언간에서는 이들이 모두 각각 ‘긔’와 ‘긔셔’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 밖에 주격 조사 ‘의셔’도 확인되는데 이는 현대국어에서 ‘에셔’가 단체 명사에 결합하여 주격 조사로 쓰이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목적격 조사에는 ‘을’과 ‘을’, ‘를’과 ‘를’이 보이는데, 출현 빈도는 ‘을’과 ‘를’이 압도적이다. 이러한 양상은 근대국어 후기의 전형적인 모습과 반대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또,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전반적으로 ‘의’의 사용이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이 밖의 부사격 조사에는 “의게”, ‘긔’, ‘드려’ 등도 확인된다. 또, 관형격 조사는 ‘의’로 단일화되어 있다.

한편 보조사 가운데 주제화 보조사는 ‘은/은/논/는’이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주로 선행 체언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은’과 ‘논’이 쓰이며 ‘은’은 대부분 분절되어 사용되었다. 다만, 선행 체언 가운데 ‘것’의 경우에만 연결되어 쓰였다.

<순원왕후언간>에서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습-}은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의 기능으로만 쓰이고 있는데, 이는 근대국어 후기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주제 높임의 ‘-시-’와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엇-}이 결합하는 경우는 ‘섯’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아/어 겨시-’의 구성을 취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미래, 추측, 의지를 나타내는 ‘-겻-’은 선어말 어미로 문법화되어 쓰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게 흐-’ 구문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 언간에서는 ‘-겻-’, ‘-게시-’ 보다는 축약 이전의 형태인 ‘-게 흐엿/게 흐여시-’가 더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상대경어법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친족 관계, 신분 관계,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높임 등급인 ‘흐느이다’체, 예사 높임 등급인 ‘흐옵/“흐니’체, 안 높임 등급인 ‘흐

다'체가 나타난다. 이 언간에서 상대경어법 실현 양상 가운데 특이한 모습을 두 가지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사위에게 보낸 편지에서 '헌다'체가 확인되는 점이다. 조선시대 언간에서 사위에게 보낸 편지는 대체로 '헌니'체가 일반적이데, 순원왕후가 사위인 윤의선에게 보낸 편지 30건 중에서 '헌니'체는 28건, '헌다'체는 2건이 확인된다. 순원왕후가 사회적으로 높은 직책이라도 사위에게 '헌니'체로 어느 정도 존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데, '헌다'체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런데 '헌다'체를 사용한 언간은 전날 헌종의 비 효현황후의 관례가 있었는데, 사위가 관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적혀 있다. 그렇다면 편지를 쓸 당시의 순원왕후 마음이 화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위가 헌종비의 관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했던 마음이 이 편지의 경어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셋째 사위 윤의선과 친밀한 관계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 다른 하나는 지위에 따라 상대경어법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점도 관심을 끈다. 순원왕후가 재종 동생인 김홍근에게 보낸 편지에는 '헌니'체와 '헌는다'체가 쓰이는데, 검토 결과 수신자 김홍근 신분의 변동과 관련이 있었다. 즉, 수신자의 신분이 판서일 때까지는 '헌니'체를 쓰다가 김홍근이 좌의정에 올랐을 때부터 '헌는다'체를 사용하였다. 이는 엄격한 경어법을 사용하면서도 친밀도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으로, 순원왕후가 상위자이기는 하지만 동생이 좌의정의 반열에 오른 상황에서는 지위에 대한 배려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순원왕후언간>은 국어학 측면에서는 왕실 및 사대부가에서 사용한 언어와 표기법 및 19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형태나 표현들이 나타난다. 한편, 표기법이나 음운론적 특징, 형태 등에 있어서 19세기 이전의 특징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19세기 왕실 언어의 보수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어 국어학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언간(한글편지), 순원왕후, 덕온공주, 연철·분철, 구개음화, 상대경어법.

I. 서론

1.1. 연구 목적

본 논문은 현재까지 발굴된 <순원왕후언간>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거기에 드러난 국어학적 특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즉 현재까지 알려진 <순원왕후언간> 96건을 대상으로 언간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정리해 보고, 나아가 표기법과 음운적,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왕실 언간을 여성의 언어를 통해 19세기의 왕실 언어의 일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어사 연구는 대체로 언해 위주의 간본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간본 자료는 당시의 실제 언어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언간¹⁾은 현실 언어와 좀 더 밀착되어 사용되었다. 즉, 그 당시의 주고받은 사연이므로 당연히 당시의 언어 상황이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언간의 특성은 일상성, 자연성, 구어성, 개인성, 사실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일상생활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²⁾ 그렇기 때문에 언간 자료는 간본 자료에 비해서 그 당시의 실제 사용했던 언어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언간은 특정 개인과 개인 간에 주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상·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구어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정제된 간본 자료에서 볼 수 없는 실용된 언어 양상을 살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발신자와 수신자의 지역어적인 특징과 사회 계층적 언어의 특징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알려진 언간 자료는 이래호(2015)에 제시된 2,943건과 새롭게 추가된

1) ‘언간’이란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한글로 쓰인 편지를 말한다. 그런데 언간은 단순히 편지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한글로 쓰인 모든 문서를 통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김일근(1986/1991)에서도 <조선왕조실록>에서 궁중에서 편지가 아닌, 언문으로 작성된 글을 지칭하여 ‘언간’이라고 한 기록이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순원왕후편지 또한 언간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2) 황문환(2015), 『조선시대 한글 편지 언간』, 역락, 204쪽.

것을 합치면 3,296건에 이른다.³⁾ 이들 언간은 15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두루 분포되어 있다. 또, 이들은 발신자를 기준으로 볼 때, 왕이나 왕비뿐만 아니라 일반 사대부가의 남성과 여성 등이 언간을 남겼고, 지역별로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의 분포를 보인다. 이들 언간의 계층별 지역별 분포를 통해 그 시기의 다양한 국어사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순원왕후언간>은 19세기 왕실 여성의 언어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어 국어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한편, 국어사에서 19세기의 언어는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오는 교량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이 시기에 현대국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명옥(1992)에서의 지적처럼 현대국어의 구체적인 특징이 어떠한 것이며, 교량기의 언어로서 이 시기의 국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는 아직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순원왕후언간>⁴⁾은 19세기 초·중엽에 순원왕후가 쓴 최상층의 왕실 언어라는 점에서 일반 사대부가의 언어와는 다른 왕실 여성 언어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국어가 지역 방언과 계층 방언의 총합이라고 할 때, 왕실 언어는 특정 시기의 최상층의 언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왕실의 언어는 일반 사대부가의 언어와 비교할 때 매우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순원왕후언간>에 나타난 국어학적 특징을 통해 19세기, 왕실 언어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순원왕후언간> 96건의 현황과 판독문을 제시하고 표기적 특징과, 음운의 특징 그리고 문법적 특징으로 나누어 국어학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나아가 연구된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19세기 왕실 여성 언간의 국어사적 의미를 찾는 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3) 배영환(2019), 「언간 연구의 국어사적 성과와 전망」, 『한말연구』 53, 한말연구학회, 76쪽.

4) 이하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본 자료’, ‘이 자료’나 ‘이 언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본 자료에서는 《순원왕후어필봉서(奎27785)》 33건을 <순원봉서>로, 《순원왕후어필(古貴2410-21)》 25건을 <순원어필>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30건을 <순원한글박>으로, 단국대학교 석주선 박물관에 4건을 <순원석주선>, 조용선소장 3건을 <순원개인 봉서>, 건국대 소장본 1건을 <순원건국>이라 칭한다.

1.2. 연구사 검토

근대국어는 중세국어부터 현대국어를 이어주는 교량적 시기의 국어이다. 그만큼 근대국어는 이전 시기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현대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⁵⁾ 그러나 근대국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근대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문헌 위주의 부분적인 연구가 대체적인 흐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근대국어 문헌 자료의 영인본이 간행되면서 근대국어 연구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의 역사가 짧고 연구자의 저변 인구가 확대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세국어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근대국어 시기에는 음운에서 ‘·’의 비음운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등으로 인한 모음체계의 중요한 변화를 겪은 시기일 뿐만 아니라, 문법에서도 형태소들이 소멸, 생성하고 그 기능과 의미들이 변화하여 문법 체계상의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 시기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 와서 홍윤표(1993), 황문환(2013)에서 근대국어에 대한 문헌 자료와 언간 자료 등이 집대성되어 근대국어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한편, 언간 자료는 기존의 간본 자료에 비해 여러 가지 자료적 특징이 지적되었다. 특히 언간 자료는 기존의 판본 자료에서는 보기 힘든 생생한 구어적인 표현들이 살아있다고 알려졌다. 언간은 지금까지 알려진 판본 자료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며, 조선시대 언어 현실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새로운 언간 자료들이 발굴되고 소개되면서 연구 자료의 폭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연구 방법 면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 국어사적 자료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룰 <순원왕후언간>은 조선시대 최상층의 여성이 쓴 것으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순원왕후언간>과 관련된 연구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초

5)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Ⅰ)』 국어학신서①, 태학사, 35쪽.

적인 연구와 이를 통한 본격적인 연구가 그것이다. 먼저, 기초적인 연구는 판독과 주해 연구로 1차 자료는 발신자가 직접 쓴 필사본이 된다. 이 필사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독과 주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어 본격적인 연구로 국어학적 연구이다. 언간은 간본 자료에서 보이는 규범이나 문어적인 성격과는 다른 구어적 성격을 보여 주기 때문에 국어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새로운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언간은 사적인 글이면서 실용문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단 한 사람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옛 사람들의 생활사를 잘 반영하고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런 자료들은 공적인 역사 기록과는 또 다른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 가운데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영인 자료 간행과 원문 판독이다. 이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1968)의 연구로 판독문이 없이 영인 자료만을 소개하였다. 이후 이승희(2010)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⁶⁾ 있는 《순원왕후어필(古貴2410-21)》 25건과 《순원왕후어필봉서(奎27785)》 33건 등 58건에 대해서 판독문과 영인 자료를 간행하였다. 이는 조용선(1997)에서 원문 일부를 판독한 내용도 포함한 것이다. 그리고 황문환 외(2013) 『한글편지판독자료집 3』에서 대대적인 판독 작업이 수행되어, 언간의 자료적 가치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국어학적 연구이다. 이승희(2011)에 의해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언간 57건에 대한 원문 이미지와 현대어역과 판독문을 제시하여, 언간의 역사적 배경, 국어학적 연구를 통해서 한글 문헌의 학문적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어서 김수애(2017)에서는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 4건과,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10건에 대하여 국어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19세기 중엽의 국어와 판본에서 나타나지 않는 일상 언어, 특히 왕실과 사대부가에서 사용된 언어들과 표기, 음운, 문법, 경어법, 19세기에 쓰였음에도 구개음화가 진행되지 않는 등의 특

6) 규장각에 《순원왕후어필(古貴2410-21)》와 《순원왕후어필봉서(奎27785)》의 두 종류의 자료가 있다. 이 중 《순원왕후어필봉서(奎27785)》는 총 32매로,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봉투에 넣어 한 번 더 종이로 싼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황은영(2011),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명칭 고찰」 규장각 해제에는 33매로 되어 있으나 33-1과 33-2는 하나의 편지로 파악되므로 실제로는 32매이다. <순원왕후언간>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미 학계에 소개된 규장각 소장 자료 이외에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에 소장된 편지 자료에 대한 판독과 주석 작업이 선행되었다.

이점에 중점을 둔 국어학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셋째, 그 밖의 연구이다. 먼저 정치적 측면으로 이기대(2009)에서는 수렴청정 시기의 정기적인 차대와 수렴 설치의 이원화를 수립시키고 왕과 대비의 업무 처리가 분담되어 있어서 왕이 국정을 파악하고 신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도움을 준 수렴청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임혜련(2013)에서 19세기 수렴청정의 시행 과정과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순원왕후가 당시의 정국에서 현종과 철종에게서 느낀 정치적·개인적 책임감에 대해 살피고 철종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중시했으며,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음을 논하는 등의 정치적 역할을 논하였다. 그리고 박지은(2015)은 19세기를 중심으로 제기된 당대의 다양한 정치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조선 정국을 이해하는 데 의의를 찾았다. 서체 연구에서는 이이숙(2011), 조성자(2013), 한소윤(2014)이 언간을 통한 일상생활 및 왕실 여성으로서의 한글 서체의 심미적 특징에 대한 연구로 문화적 요소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순원왕후언간>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일부에 한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국어학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바탕으로 <순원왕후언간>을 한자리에 모아서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해 보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언간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이를 토대로 표기법과 음운적 특징, 그리고 문법적 특징을 논의하면서 19세기 왕실 여성의 언어와 생활사를 국어학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국어사적 가치를 조명하고자 한다.

1.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논문은 <순원왕후언간> 96건을 텍스트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우선 <순원왕후언간>의 현황을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필사 연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한다.

먼저 <순원왕후언간>의 현황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발·수신자의 관계 양

상, 왕실의 생활상, 인간의 형식적 특징을 알아볼 것이다. 제3장, 제4장에서는 국어학적 관점에서 표기와 음운의 특징, 문법적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각 소장처별로 나누어 목록과 보관 상태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순원왕후어필(古貴2410-21)》 25건이다. 이 언간은 1834~1852년 01월 사이에 쓴 것이며, 윤순의 서첩에 1,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재종동생인 김홍근에게 쓴 것으로 단순한 일상의 안부를 묻는 것도 있지만, 순원왕후 자신이 헌종(1827~1849년)과 철종(1831~1863년) 2대에 걸쳐서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 조정과 왕실의 다양한 사건과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순원왕후의 친정 가문이 1848년 김홍근이 유배를 가게 되면서 친정 가문의 권력이 잠시 멈추는 듯 했으나, 철종이 추대되고 순원왕후가 다시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 상황은 다시 바뀌게 된다. 이들이 세도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왕실을 이끌어야 했던 한 여성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자료이다. <순원왕후언간>은 조선 후기 정치적 상황 속에서 순원왕후가 헌종대 7년간 수렴청정을 하면서 다뤄야 했던 사건들이 많은 데에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또한 순원왕후 자신의 애통한 심정과 왕실의 의례 등과 관련된 결정 등 그와 관련한 자문과 함께 철종이 왕으로서 어린 시절 학문이 미흡한 것에 대한 걱정과 보좌를 당부하는 다양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둘째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순원왕후어필봉서(奎27785)》 33건이다. 이 언간은 1842년 11월~1857년까지 쓴 것으로 봉서 형태 그대로 구성되어 있다. 재종동생인 김홍근에게 쓴 27건과, 김홍근의 아들이자 조카인 김병덕에게 5건, 김홍근의 아들이자 조카인 김병주에게 1건이다. 내용으로는 개인의 안부와 집안의 대소사, 왕실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과 김홍근이 1848년 8월 전라도 광양에 유배되었을 무렵에 그의 아들이자 조카인 김병덕에게 안부와 함께 김홍근을 걱정하며 소식을 묻는 것과 1849년 겨울 김홍근이 유배에서 풀려나자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 밖에 수렴청정을 하면서 의논할 일과, 집안의 대소사와 관련하여 축하나 위로의 말을 전하는 내용이다. 이 언간들은 ‘무신평월년칠일’이라고 적혀져 있는 한건을 제외하고는 발신일이 적혀 있지 않아서, 수신자의 관직명, 편지 내용을 통

하여 시기를 추정한 것이다.

셋째는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30건이다. 이 언간은 1834~1857년까지의 것으로 셋째 딸 덕온공주, 둘째 사위 창녕위 김병주와 셋째 사위 남녕위에게 쓴 것이다. 그 외 단국대학교 석주선 박물관의 4건으로 1840년대 쓴 것이다. 이 언간은 「조선마지막공주 덕온공주의 유물」에 소개되었으며, 둘째 복온공주의 남편 창녕위 김병주에게 1건, 셋째 사위 윤의선에게 2건, 셋째 딸 덕온공주에게 보낸 것이 1건이다. 개인 소장으로는 조용선 봉서⁷⁾에 3건이다. 이 언간은 1834~1844년까지의 것으로 윤의선에게 3건이다. 건국대학교 박물관에 1건은 1802~1856년까지의 것으로 윤의선에게 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해 온 자료와 판독문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을 <순원왕후언간>을 중심으로 국어학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우선 순원왕후와 관련된 연구로서 가계도와 생애, 그리고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의 주변 인물들을 파악하여, <순원왕후언간>이 담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올바르게 해석할 것이다.

다음은 19세기 근대국어 시기에 일어나는 표기적 특징으로 합용 병서와 연철·분철 표기의 변화 과정, 어중 유기음 표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음운론적 특징으로 ‘.’ 현상, ‘ㄹ’비음화와 유음화, 구개음화, 원순모음화의 변화와 관련해서 다룰 것이다.

이 밖에 문법적 특징으로 격조사에서 주로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등의 분포를 살펴보고, 선어말어미 등과 같은 형태소 중심의 특징과 상대경어법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19세기 왕실 언어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고, 나아가 19세기 왕실 언간이 후학들에게 역사적 연구 자료로나 국어사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7) 개인 소장 김완진 4건은 김홍근에게, 김일근 3건은 김홍근, 김현근, 김병주에게 보낸 것이다.

II. <순원왕후언간>의 현황과 특징

1. 언간의 현황

앞서 살펴보았듯이 <순원왕후언간>에 대한 연구는 국어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부분은 <순원왕후언간>에 대한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정리가 아직 미진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전하는 언간의 총체적인 정리 및 발·수신자의 현황을 비롯하여 주변 인물들의 관계 양상에 이르기까지 언간의 내용·형식·언어적 특징 등을 고찰하기 위한 객관적 사실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리는 향후 왕실 언간의 이해와 그 속에 들어 있는 어휘 및 국어학적 고찰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자료의 현황을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현전하는 <순원왕후언간>은 총 96건이며⁸⁾, 규장각에 58건,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4건, 국립한글박물관 30건⁹⁾, 조용선(1991) 봉서에 3건, 건국대학교 박물관에 1건이다. 이들 자료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 료	언간수	소장처	비고
《순원왕후어필》 (古貴2410-21)	25건	서울대 규장각	이승희(2011)
《순원왕후어필봉서》 (규27785)	33건		
《순원왕후편지》	26건	국립한글박물관	덕온공주가의 한글 1, 김수애(2019) ¹⁰⁾

8) 김일근(1986), 『언간의 연구』(서울대, 개인 등) 3건, 김완진 개인소장 <순원왕후언간> 4건은 판독문과 실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9) 이 자료들은 국립한글박물관(2019) 『덕온공주가의 한글 1-2019 소장자료총서 6』(2019년 12월 20일)을 통해서 소개하였다. 이 중에서 순원왕후 편지 총 42건을 목차에 실었고, 본문에는 30건의 판독문과 영인자료를 공개하였다. 이 자료는 2016~2019년 사이에 2차 공모와 네 차례 자료를 입수한 것 중에서, 덕온공주가의 자료는 333건이다.

《순원왕후편지》	4건		공주글시덕으시니
《순원왕후어필》	4건	단국대석주선 기념박물관	김수애(2018)
《순원왕후어필》	3건	조용선 소장	『봉서』에 수록
《순원왕후언간》	1건	건국대박물관	서울서예박물관(2002)
계	96건		

<표-1> <순원왕후언간>의 현황

이 언간들에 대한 관독은 개인 혹은 기관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첫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58건과 조용선 소장 3건이다. <순원왕후언간>은 2011년도에 황문환에 의해 기초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관독문은 『한글편지 관독자료집 3』에 수록되어 있다.¹¹⁾

둘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30건이다. 이 언간은 2019년 소장기관에 의해 기초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관독문은 국립한글박물관(2019) 『덕온공주가의 한글 1-2019 소장자료총서 6』과 김수애(2019), 국립한글박물관(2019) 『공주글시덕으시니-덕온공주집안 3대 한글유산』에 수록되어 있는데, 전자에 26건이 수록되어 있고¹²⁾, 후자에 4건이 수록되어 있다.¹³⁾

셋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4건이다.¹⁴⁾ 이 자료는 2018년에 김수애에 의해 기초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관독문은 김수애(2018)에 실려 있다.¹⁵⁾

넷째, 건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1건이다. 이 자료는 2002년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전시를 위해 정리되었으며, 그 관독문은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2002)에 수록되어 있다.¹⁶⁾

10) 김수애(2019), 「순원왕후 편지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장서각』 41, 238~265쪽.

11) 황문환 외(2013), 『한글편지관독자료집 3』, 역락. (규장각 소장 ‘古貴2410-21’ 25건은 94~135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奎27785’ 33건은 184~235쪽에 수록되어 있고, 조용선 소장본은 146~149쪽에 수록되어 있다.)

12) 국립한글박물관(2019), 『덕온공주가의 한글 1-2019 소장자료총서 6』, 국립한글박물관, 312~363쪽.

13) 국립한글박물관(2019), 『공주 글시 덕으시니: 덕온공주집안 3대 한글유산』, 국립한글박물관, 26~27쪽, 259~261쪽.

1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편(2012),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가의 유물』, 단국대학교출판부.

15) 김수애(2018), 「<순원왕후언간>의 관독과 분석」, 『인문학연구』 24,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7~36쪽.

이 관독문과 기초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봉투를 비롯한 인간의 형태서지적 특징, 발·수신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⁷⁾

연간번호	연 도	봉투,겉종이	내 용	발·수신자	봉투규격,내용규격,글씨크기 /재질/서체
<순원어필-01>	1851	근 좌합 봉	노우 지리 흐더니~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24.1x5.1cm/36.8x24cm, 2.3cm/미색한지/진흘림
<순원어필-02>	1851	좌합 기탁	춘일이 흰창흐니 ~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미상/순지/흘림
<순원어필-03>	1849	근 판서 답간 봉	일한의 엇디 디내논디~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있음,미상/순지/반흘림
<순원어필-04>	1842- 1850	봉 판서 봉	다른 말 아니흐니~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있음,미상/미상/궁체
<순원어필-05>	1841	봉 참판 입납 봉	일괴 화관흐디~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있음,미상/순지/흘림
<순원어필-06>	1842~1 850	봉 판서 기랍 함, 판서 스동	오래 미류흐턴~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있음,미상/순지/반흘림
<순원어필-07>	1851	판서	일괴 청낭흐니 ~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5.3x21cm/39.8x22.5cm,2.6cm/ 미색한지/흘림
<순원어필-08>	1850	근 판서 기탁 봉	일전 답 봉서 보고~	순원→미상 재종누나→재종동생	미상/순지/흘림
<순원어필-09>	1840	봉 참판 입납 봉	춘한이 오히려 심흐니~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미상/순지/반흘림
<순원어필-10>	1851	좌합기탁 봉, 봉서	말춘 일괴 심히 ~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있음, 미상/순지/궁체
<순원어필-11>	1851	없음	녕상은 양쥬즈디~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없음, 미상/순지/흘림
<순원어필-12>	1851	판서 답간	이 말 흐 번 흐고저~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있음, 미상/순지/반흘림
<순원어필-13>	1837	봉 부스 입납 봉	연형으로 사레를 흐니~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24.1x5.1cm/43.2x24.2cm,2.3cm /미색한지/흘림
<순원어필-14>	1844	봉 판서 기랍 봉	일한이 두극흐니~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미상/순지/흘림
<순원어필-15>	1851	근 좌합 기탁 봉	세월이 물 굿트야~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있음, 미상/순지/반흘림
<순원어필-16>	19세기 중반	없음, 봉서	문안은 작석 제절은~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미상/순지/흘림
<순원어필-17>	1843	판서 입납, 봉서	노염이 극흐니~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미상/순지/흘림
<순원어필>	1850	없음, 없음	신원의 기도~	순원→김홍근	있음, 미상/순지/반흘림

16) 서울서예박물관(2002), 『朝鮮王朝御筆』, 예술의 전당, 우일출판사, 166~187쪽. (19세기 왕실 여성의 한글편지 가운데 정순왕후, 신정왕후가 보낸 것이 서예박물관의 도록에 실려 있다.)

17) 표에서 첫 구분에 해당하는 ‘연간번호’는 개별 단위 인간을 기본으로 하여 공통된 특성에 따라서 발신자를 중심으로 명명하거나 출처를 중심으로 명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필자는 순원왕후의 인간을 발신자를 중심으로 명명하였다. 이렇듯이 발신자 중심으로 명명된 인간 명칭은 발신자를 통하여 인간을 작성한 인물이나 작성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간에는 편지의 특성상 특정 청자와의 대화 상황을 전제로 하게 되며, 봉투나 내지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신원이 드러나 있어서 대화 참여자의 상호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순원어필-18>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순원어필-19>	1851	좌상 기탁 봉, 없음	기드리던 비는~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24x5.1cm,전:24.2x36.7cm,후:24.2x36.6cm,2x2.7cm/한지/홀립
<순원어필-20>	1851-1857	근 대신 입납 봉, 없음	포숨을 어린 잘 조쳐~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미상/순지/홀립
<순원어필-21>	1849	근 판서 기랍 함	그스이평안이디너는 디~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있음/순지/반홀립
<순원어필-22>	1851	판서 기탁, 봉서	춘한이 심하니~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24.8x5.1cm전:36.5x24cm, 후:36.7x24cm,2x2.2cm/ 미색한지/홀립
<순원어필-23>	1851	판서 기랍, 봉서	신원의 기도 평등~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미상/순지/홀립
<순원어필-24>	1838	봉 참관 입납 봉	일견 입시의셔는~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있음, 미상/순지/반홀립
<순원어필-25>	1834-1849	봉 판서 기랍 함	수일은 화창하니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있음, 미상/순지/궁체
<순원봉서-01>	1850	이문니	흐엿니~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있음, 미상/순지, 한지/홀립
<순원봉서-02>	1850	근 판서 입납 봉, 스 던동 사랑	춘일브도흐디~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있음, 미상/순지, 한지/홀립
<순원봉서-03>	1846	스 던동 사랑, 봉서	일기 한난이~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미상/순지/반홀립
<순원봉서-04>	1846	없음	향니~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미상/순지/반홀립
<순원봉서-05>	1849	봉 대교 죽던 대교 죽던	네 어룬은~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병덕	있음, 미상/순지/홀립
<순원봉서-06>	1853	판부스 기탁 봉 삼계동 대신	금년 더위는~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미상/미색순지/반홀립
<순원봉서-07>	1849	판서 던동	운수를 브로와~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있음, 미상/미색한지/홀립
<순원봉서-08>	1855	근 판부스 입납 봉 봉서	기춘후한은이~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미상/순지/홀립
<순원봉서-09>	1855	없음	안악의 상변~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미상/미색순지/반홀립
<순원봉서-10>	1849	봉 디교 죽던 봉 디교	네 부공 늙 은샤를~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병덕	있음, 미상/순지/홀립
<순원봉서-11>	1842~1850	봉 판서 스동 판서	일기 극열 하니~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있음, 미상/순지/홀립
<순원봉서-12>	1849	판서 기탁 판부스	황궁이 브조 흐어~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미상/순지/반홀립
<순원봉서-13>	1850	근 판서 봉장 봉 판서 기탁	일기 증습 하니~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있음, 미상/미색한지/홀립
<순원봉서-14>	1842	봉 판서 기랍봉 봉서	드르니 상경타 못헛가~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미상/순지/홀립
<순원봉서-15>	1848	봉 기경 기탁 봉 봉서 광양	지작월 발덩시~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미상/순지/반홀립
<순원봉서-16>	1848-1849	디교 죽던, 스동 경승 덕	너는 가서 수삭 이나~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병덕	있음, 미상/한지/궁체
<순원봉서-17>	1846	던동 입납 판서 입납	마염이 심하니~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미상/순지/홀립
<순원봉서-18>	1856	근 판부스기탁 봉, 스동	윈노 핏역을 평안이~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있음, 미상/순지/반홀립
<순원봉서>	1846	니관 죽납	봉서화와 스연은~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김홍근	있음, 미상/미색한지/홀립

-19>		봉서		재종누나→재종동생	
<순원봉서 -20>	1855	근 판부스입납 봉, 이문안	한온이 브덕헌디~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미상/순지/홀립
<순원봉서 -21>	1855	봉 디교 기랍 봉, 던동	너히 부공은~	순원→김병덕 7촌고모→7촌조카	있음, 미상/순지/반홀립
<순원봉서 -22>	1841	병덕이	천만 봉미 밧 듬제를 만나니~	순원→김병덕 7촌고모→7촌조카	없음, 미상/한지/홀립
<순원봉서 -23>	1853	근 대신 기탁 봉 던동	신세의 괴운 평안헌신~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미상/순지/홀립
<순원봉서 -24>	1855	근 판부스 입납 봉 봉서	환세 평안이 하시고~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있음, 미상/한지/반홀립
<순원봉서 25>	1850	판서 입납	드르니 어제 드러와~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있음, 미상/미색한지/홀립
<순원봉서 -26>	1850	스동 판서	거일 답찰 보고 든든~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없음, 미상/순지/반홀립
<순원봉서 -27>	1847	없음, 봉서	더 적 막이 블령흐른~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미상/미색순지/반홀립
<순원봉서 -28>	1854	근 판부스 입납 봉 니문너	수일간 광의 우긴흐니~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있음, 미상/미색한지/홀립
<순원봉서 -29>	1848	봉 범초 즉납 봉, 던동 판서	금년 여롭 갖튼~	순원→김병주 7촌고모→7촌조카	없음, 미상/순지/반홀립
<순원봉서 -30>	1842	봉 판서 기랍 봉, 봉서	일한이 엄혹 흐니~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있음, 미상/순지/반홀립
<순원봉서 -31>	1853	양호, 근 판부스입납 봉	동일이 과관흐 짜~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있음, 미상/미색한지/홀립
<순원봉서 -32>	1850	근 판서 기탁 봉, 던동	일간 견비통 엇더헝가~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미상/순지/반홀립 (31과 같은 봉투에 있음)
<순원봉서 -33>	1855	던동 대신 대신	근일 청화 도관흐니~	순원→김홍근 재종누나→재종동생	있음, 미상/순지/반홀립

<표-2>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인간번호	연 도	봉투,겉종이	내 용	발·수신자	봉투규격,내용규격,글씨크기 /재질/서체
<순원한글 박-01>	1839	봉 남녕위 봉	아기가 막이 민망~	순원→덕은공주 ¹⁸⁾ 어머니→딸	24.0×28.7cm/5.0×25.0cm/ 미상/진홀립
<순원한글 박-02>	1837- 1844	답서 봉	오딩 봉서 막 보내려~	순원→덕은공주 어머니→딸	22.0×38.5cm/5.4×22.9cm/ 미상/진홀립
<순원한글 박-03>	1841	근 남녕위 봉장 봉	두 순 ~	순원→덕은공주 어머니→딸	24.2×36.3cm/5.0×24.2cm/ 미상/진홀립
<순원한글 박-04>	1837- 1844	봉 답장 봉	글시 보고 든 # 흐머~	순원→덕은공주 어머니→딸	봉투있음/미상/진홀립
<순원한글 박-05>	1837	병풍	밤 디설이 장히 오고~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병풍/진홀립
<순원한글 박-06>	1837- 1844	없음	봉서 보고 든 # 반가~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봉투있음/미상/반홀립
<순원한글 박-07>	1837- 1844	봉 도위 입납 봉	스연(辭緣)만 덕으며~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23.7×32.0cm/5.0×24.9cm/ 미상/진홀립
<순원한글 박-08>	1838- 1844	봉 도위 기탁 봉	초춘 일기 온화흐니~ 치가식도 물의 불니~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두장/봉투있음/미상/진홀립
<순원한글	1838-	봉 도위 답간 봉	봉서 보고 무스~	순원→윤의선	23.7×36.2cm/5.0×23.7cm.음/

박-09>	1843		그스이 드리오셔~	장모→셋째사위	미상/진흠림
<순원한글 박-10>	1838- 1843	봉 도위 기랍 봉	마염이 심흐니~ 분이라 흐니~ 협지:안질이 노열이~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22.5×36.7cm 협지23.4×7.4cm/5.2×24.0cm/미 상/진흠림
<순원한글 박-11>	1840	[외봉] 봉서/(뒤) 봉	궁으로 안부논~ 보앗노라 흐고~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봉투 두장, 본문 두장/미상/진흠림
<순원한글 박-12>	1841- 1844	봉 도위 기랍 봉	일간 무스훈가~ 디 아널 거시니 옳디~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22.1×40.0cm/5.0×22.1cm/ 미상/진흠림
<순원한글 박-13>	1841- 1842	봉 도위 기랍 봉	일한이 줄극흐니~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17.9×34.1cm/4.5×19.0cm/ 미상/진흠림
<순원한글 박-14>	1841- 1844	봉 도위 기랍 봉	점열의 무스이~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봉투있음/미상/진흠림
<순원한글 박-15>	1841	없음	작일 봉서 보고~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봉투없음/미상/진흠림
<순원한글 박-16>	1842- 1844	없음	일괴 브도흐니~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봉투없음/미상/진흠림
<순원한글 박-17>	1842	봉 도위 기합 봉	일월이 불뉴 흐여~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봉투있음/미상/진흠림
<순원한글 박-18>	1843	봉 도위 기합 봉	수일 눈감으로~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봉투있음/미상/진흠림
<순원한글 박-19>	1844- 1845	병풍	이 음식(飮食)이~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병풍/진흠림
<순원한글 박-20>	1848	봉 남녕위 답간 봉	작석 봉서 보고~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봉투있음/미상/진흠림
<순원한글 박-21>	1850	석촌	초춘이 거의 다흐고~ 잘흐디 못흐시니~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두장/봉투있음/미상/진흠림
<순원한글 박-22>	1850	봉 남녕위 답간 봉	세환흐여 흥춘 일~ 히 나눈 일양 디내니~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두장/봉투있음/미상/진흠림
<순원한글 박-23>	1851	더동 사랑	수일은 여름날노~ 밋음을 녹여 헤아리~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두장/봉투있음/미상/진흠림
<순원한글 박-24>	1855	근 남녕위 답서 봉	봉서 보고 기간 일괴~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봉투있음/미상/진흠림
<순원한글 박-25>	1844- 1857	근 도위 입납 봉	춘한의 년 흐여~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봉투있음/미상/진흠림
<순원한글 박-26>	1844- 1857	없음	봉서 보고 든 〃 반가~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봉투없음/미상/진흠림
<순원한글 박-27>	1845	봉 도위 기랍 봉	춘일이 브도흐나~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22.0×39.0cm/5.3×24.0cm
<순원한글 박-28>	1837- 1844	봉 도위 답서 봉	봉서 보고~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23.8×36.5cm/5.0×24.6cm
<순원한글 박-29>	1789- 1857	도위 기랍 봉	야간 평안 혼일~	순원→김병주 장모→둘째사위	22.2×40cm/5.6×22.2cm
<순원한글 박-30>	1789- 1857	도위 기간 봉	작일빚터시니~	순원→김병주 장모→둘째사위	22.2×40cm/5.6×22.2cm

<표-3>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18) 지두환(2009), 『순조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256~258쪽.

인간번호	연 도	봉투,겉종이	내 용	발·수신자	봉투규격,내용규격,글씨크기 /재질/서체
<순원석주 선-01>	1840	봉 도위 기랍 봉	야간 평안이 디내논 ~섯겨 나온 것도 ~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23.3cm×36.3cm, 23.5cm×5cm 23.3cm×36.3cm, 3.5cm×5cm
<순원석주 선-02>	1842	봉 남녕위 답서 봉	지작일 봉서 보고~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24cm×5.3cm, 39cm×24cm
<순원석주 선03>	1840	봉 도위 답간 봉	봉서 보고 야간 평안~	순원→김병주 장모→둘째사위	26.7cm×5.3cm, 40.5cm×21.5cm
<순원석주 선-04>	1840	봉 도위 기랍 봉	오늘은 성도니 든든할~	순원→턱온공주 어머니→셋째딸	23.3×32.5cm, 5×23.6cm

<표-4>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소장

인간번호	연 도	봉투,겉종이	내 용	발·수신자	봉투규격,내용규격,글씨크기 /재질/서체
<순원봉서 개인-01>	1834-1841	순지,미색,반홍립	봉서 보고~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1997.역주본 봉서, p.45.
<순원봉서 개인-02>	1834-1841	양호, 반홍립	친환으로~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1997.역주본 봉서, p.49.
< 순원봉서개 인-03>	1844	양호, 반홍립	윤의선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1997.역주본봉서, p.53.
<순원건국 -01>	1802-1856		수일 일기 ~	순원→윤의선 장모→셋째사위	건국대학교 박물관

<표-5> 조용선개인, 건국대학교 소장

2. 발·수신자의 관계 양상

2.1. 발신자의 생애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은 일찍부터 한글을 익히고 한글을 통한 문자 생활을 영위하였다.¹⁹⁾ 순원왕후는 1789년 정조의 부마(駙馬)였던 김조순(金祖淳)의 딸로 태어났다. 11살이 되던 해(1800년)에 초간택이 되어 13세가 되던 1802년에 왕비로 책봉되었으므로 성장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순원왕후의 생애는 왕실 교육 분야와 언간과 관련된 인물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 순원왕후의 성장기 교육은 왕실 일원이 되기 전 사가에서 받은 교육과 입궁 후 왕실에서 받은 교육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사가의 교육이다.

이 시기의 순원왕후는 안동김씨 집안에서 편찬한 사대부가의 가훈서 『곤범(壺範)』²⁰⁾과 계녀서에 의한 교육 등 주로 부친의 영향 속에 사대부 여성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덕목을 내면화하였다. 즉, 민간 사대부 집안에서 받는 여성 교육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안타깝게도 사가 시절 순원왕후의 교육에 대한 기록은 많이 전해지지 않는다.

둘째, 왕실로 들어간 이후의 교육이다.

순원왕후가 왕실 일원이 된 후에는 『여계』, 『후감(后鑑)』²¹⁾, 소혜왕후가 편찬한

19) 이경하(2003)는 훈민정음 창제가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왕실 중심의 한글 문헌의 간행 사업이 15세기에서부터 이루어졌고 한글 사용은 왕실에서부터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20) 교훈이 될 만한 구절과 사대부가의 묘지명을 뽑아서 편찬한 3권 3책으로 엮어진 여훈서이다. 권1은 『주역』, 『시전』, 『서전』, 『대학』, 권2는 『논어』, 『맹자』, 『중용』, 『근사록』, 『속근사록』, 『성리대전』 등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권3은 정이의 「상국후부인던」, 「효녀당시묘」와 송시열의 「광산부부인노시묘지」, 「숙인송시던」, 「명경부인니시묘지」, 김창흡의 「명경부인박씨묘지」, 신경의 「명경부인진산강시묘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

21) 중국 역대 황후들의 행적 중 귀감이 되거나 경계할 만한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한 책.

『내훈』 등을 바탕으로 왕실 여성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덕목을 교육받았다. 나아가 왕실의 계보와 구성원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왕실 인물의 삶을 기록한 『선보집략언해』 등을 많이 읽었다.²²⁾ 이러한 사가의 전형적인 사대부 여성의 교육을 통하여 민간 사대부가 지녀야 할 여성으로서의 덕목을 충분히 갖췄을 것으로 추정되며, 왕실로 들어간 이후 역시 다양한 왕실 여성 관련 교육을 통하여 왕실 여성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을 비롯하여 기본적인 교양 수준을 갖췄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순원왕후의 자질은 후에 수렴청정 기간 그녀를 지탱해 주는 버팀목으로 작용하였다.

19세기 전반 조선 왕실에서 순원왕후의 입지는 대단하였다. 순조의 비이면서 동시에 2회의 수렴청정이 이를 방증해 준다. 따라서 순원왕후의 삶과 그녀가 남긴 문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와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순원왕후는 왕실의 핵심적인 인물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기에 당면했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했다.

순원왕후²³⁾(1789~1857년)는 조선 제23대 왕 순조의 비(妃)이다. 12세인 정조 1800년(24년) 2월 26일에 세자빈에 초간택 되었다가, 정조24년 2월 26일 윤4월 9일 재간택되었으나, 정조가 49세의 나이로 승하(창경궁 영춘헌)하면서 삼간택이 연기되었다가 1802년(순조 2년) 9월 6일에 삼간택이 되었다.²⁴⁾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 김상헌의 8대손으로, 안동인 영안부원군 김조순(金祖淳, 1765~1832년)과 부인 청송 심씨 사이에 3남 1녀 중에 외동딸로 태어났다. 김조순은 1785년(정조 9년) 정시문과에 급제²⁵⁾하여 대제학을 지내는 중, 순원왕후가 왕비에 책봉되자 영

22) 육수화(2008), 『조선시대 왕실 교육』, 민속원, 31쪽.

23) 아버지 安東人 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 1765~1832년)이고, 어머니 청양부부인(靑陽府夫人)은 正郎을 지낸 심건지(沈健之)의 따님 청송 심씨(靑松沈氏)이다. 1남은 효명세자로 조만영의 딸인 풍양조씨와 혼인하였다. 아들이 즉위한 후에 익종으로 추존되었다. 2남을 어려서 졸하였다. 1녀는 명은공주로 안동인 동녕위(東寧尉) 김현근(金賢根)과 혼인 하였다. 2녀는 복은공주로 안동인 창녕위(昌寧尉) 김병주(金炳疇)와 혼인, 3녀는 덕은공주로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과 혼인하였다. 순조 2년 9월 6일 삼간택을 행하여 간택되었다. 10월 13일에 왕비에 책봉되었다. 1834년(순조 34년) 11월 13일 순조가 승하하고, 1834년(헌종 원년) 11월 18일 헌종이 즉위하고, 7년(74개월) 동안 대리청정을 시작하여 모두 66회의 차대를 열었다. 또, 순원왕후는 1849년(철종 즉위)부터 1851년(철종 2년) 12월까지 3년(31개월)간 수렴청정을 하게 되고, 1857년(철종 8년) 8월 4일 68로 승하한다.

24) 『정조실록』, 권53.

25) 정조가 기뻐하면서 ‘락순’이라는 이름을 ‘조순’으로 바꾸어서 내렸다. 친위 세력을 육성하려는 정조의 의지하에 김조순으로 하여금 세자의 안위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세자가 즉위한

돈녕 부사로 삼아 영안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어머니 심씨는 심건지의 딸로 청양 부부인에 봉해졌다.²⁶⁾

순원왕후는 1834년 순조가 승하하고 어린 헌종이 보위를 맡게 되면서 수렴청정을 하게 된다. 이후부터 순원왕후는 조정내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문제들을 언간의 수신자들에 해당하는 친정 형제나 재종형제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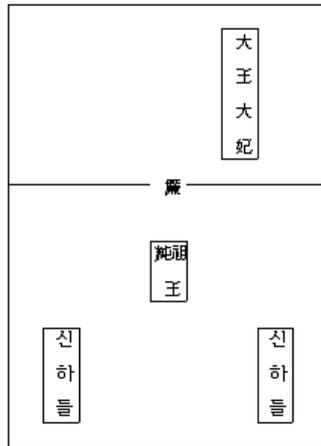
19세기 대왕대비들의 수렴청정은 세도정치와 연관지어 볼 수밖에 없다. 정순왕후에 이은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이 19세기 전반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순원왕후는 강화도에서 농사만 짓고 있던 원범을 철종으로 추대하면서 두 번째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두 차례의 수렴청정은 안동 김씨 가문을 끌어들이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부각되어 왔다. 하지만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는 언간 중에 ‘넌들 팔즈 험흔혀여<순원어필-18>’와 같이 가당치도 않은 짐을 진 것이라고 하소연하는 내용에서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에 대한 부담감을 비롯하여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순원왕후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학문적 식견이 없지만 대신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렴청정을 하겠다고도 한다. 또 하나는 “하루 이틀 1년 2년을 이와 같이 하여 지내 점차 주상이 장성한 뒤에 가서 조정이 안정되고 백성과 나라가 태평하게 된다면, 이 미망인도 돌아가 뿔 낮이 있을 것이요, 경 등도 또한 선왕을 추모하여 금상에게 보답하는 책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²⁷⁾라며 수렴청정의 이유를 밝힌 부분을 보면 순원왕후 본인도 수렴청정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순원왕후언간>은 왕실의 권력 관계와 국정 운영에 대한 정보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잠깐 밝혔지만, 역으로 이 언간은 순원왕후의 두 차례에 걸친 수렴청정을 기반으로 할 때 더욱 접근성이 좋아진다.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후 반대 세력의 공세에서도 순원왕후가 순조의 비로 간택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26) 지두환(2009), 『순조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256~258쪽.

27) 一日二日, 一年二年, 如是以過, 漸至主上長成之後, 朝廷寧謐, 民國泰平, 則未亡人有歸拜之顏. 卿等亦盡追先報今之責. 『헌종실록』 1권, 12월 16일. 두 번째 기사.



<표-6> '수렴청정절목'의 대비와 왕의 위치(位次)²⁸⁾

구분 왕	왕후	즉위시 왕의 연령	철립시 왕의 연령	수렴청정 기간	수렴청정 시작 시 왕후의 연세
성종	세조비 정희왕후 윤씨	13세	20세	7년	52세
명종	중종비 문정왕후 윤씨	12세	20세	8년	45세
선조	명종비 인순왕후 심씨	16세	17세	8개월	36세
순조	영조비 정순왕후 김씨	11세	14세	4년	56세
현종	순조비 순원왕후 김씨	8세	14세	7년	46세~52세
철종	순조비 순원왕후 김씨	19세	21세	3년	61세~63세
고종	익종비 신정왕후 조씨	12세	15세	4년	56세

<표-7> 조선시대 왕후의 수렴청정 상황²⁹⁾

구분	왕 실 의 례	인 사	민 생	관료처분, 육사	포 상	정무처리건				기 타	합계	
						과 거	지 방	수 령	경 제			
차 대	하 교 회	89	88	107	99	36	171				7	597회
							23	41	25	32		

28) 임혜련(2008), 「19세기 수렴청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0쪽.

29) 이이숙(2011), 「<순원왕후연간>의 서예미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쪽.

일 반	수 비 율	14.9	14. 7	17. 9	16.6	6.0	28.6				1.2	100%	
	하 교 횟 수 비 율	93	28	28	102	30	76	과 거	지 방	수 령	경 제	30	377회
		24.7	7.4	7.4	27.1	5.3	20.2				5.3	100%	

<표-8> 순원왕후 수렴청정기의 하교 내용³⁰⁾

위의 <표-7>을 보면 조선시대 수렴청정을 했던 왕비는 모두 여섯 명이며, 일 곱회에 걸쳐서 시행되었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수렴청정이 합법적이며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수렴청정을 하는 왕비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이는 외척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와 공식적이 권력 행사가 염려되는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수렴청정 절목’을 반포하여 순원왕후의 역할을 4가지³¹⁾로 규정해 놓고 그대로 시행하려고 노력하였다.

헌종대 절목은 정순왕후 때와 비교하여 두 가지의 내용이 달라졌다. 첫째, 순원왕후의 지위를 ‘왕대비전’이라고 하였으며, 둘째는 순원왕후가 수시로 소견할 때 당시의 시대상과 관련하여 과시관의 직무에 대해서 직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점이다.³²⁾ 순원왕후의 첫 차대는 익종 추숭(追崇)에 관련된 일과 순조의 산릉의 간심(看審)에 관한 하교와 함께 헌종의 경연과 관련한 규모를 올리도록 하교하였다.³³⁾ 이후 약 74개월(7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며 66회의 차대를

30) 임혜련(2008), 앞의 논문, 171쪽. (『일성록(日省錄)』과 『헌종실록(憲宗實錄)』을 참조하였으며, 비중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누락된 것들도 있어서 언제 하교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음을 밝힌다. 하지만 하교의 비중과 경향을 살피는 데는 필요한 것 같아서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31) 1. 수렴청정의 장소는 편전이며 승정원에서 稟旨하도록 한다. 2. 수렴청정시 왕과 대비의 位次는 순원왕후가 수렴 안쪽의 동쪽에서 남면하고, 헌종은 그 바깥쪽 중앙에서 남면하는데 신하들은 朝賀할 때 순원왕후에게 먼저 4배한다. 3. 서무 결재의 방법은 순원왕후가 직접 결재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헌종이 직접 결재하기도 하지만 慈旨를 仰稟하기도 하며, 순원왕후가 직접 하교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4. 신하들도 발 앞에서 직접 품의할 수 있다. 순원왕후가 신하들과 하청하는 것은 한달에 여섯 번 하도록 한다.

32) 『일성록(日省錄)』 憲宗 卽位年 11月 18日 己卯. “依大殿進箋之例方物物膳依前例舉行”

33) 『일성록(日省錄)』 憲宗 卽位年 11月 16日 丙午.

열었다.³⁴⁾

<표-8>에서 보면 순원왕후는 차대에서 대신들과 직접 대면하여 하교를 내리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한달에 한 번 정도의 차대에서의 하교가 그 외에서 내린 하교보다 많다는 것은 순원왕후가 주로 차대를 통해 정치적 의미를 만들고 이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순원왕후는 수렴청정 절목에 의거하여 차대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치를 했으며 나아가 투명한 국정 운영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순원왕후와는 달리 이전의 수렴청정의 사례는 이승희(2011)에서 잘 정리되었다. 조선시대 왕후들이 수렴청정을 하면서 언문 교서를 내렸는데, 인목왕후는 16건, 정순왕후는 22건으로 정승의 임명, 죄의 사면 및 처벌 등 국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장렬왕후 6건, 현종비 명성왕후는 왕의 건강, 왕비 간택과 관련된 것이고, 순원왕후는 2대에 걸친 수렴청정 기간에 언문 교서 기사는 단 3건뿐이고, 대부분 왕비 간택, 왕의 건강, 왕의 학업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차이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의 특수성과 함께 왕후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권력 의지와 관련된다. 이와 같이 순원왕후는 왕실의 의례나 임금의 신변과 관련된 문제를 인간 수신자들과 자주 의논하였다. 예를 들면 1846년 수릉과 인릉, 휘경원을 옮기는 것, 수릉의 천릉 때 현종이 직접 장지까지 따라가는 일을 말리도록 신료들에게 지시한 일, 철종을 옹립하면서 불안한 마음과 철종의 인품에 대한 평가, 철종비 간택과 관련한 견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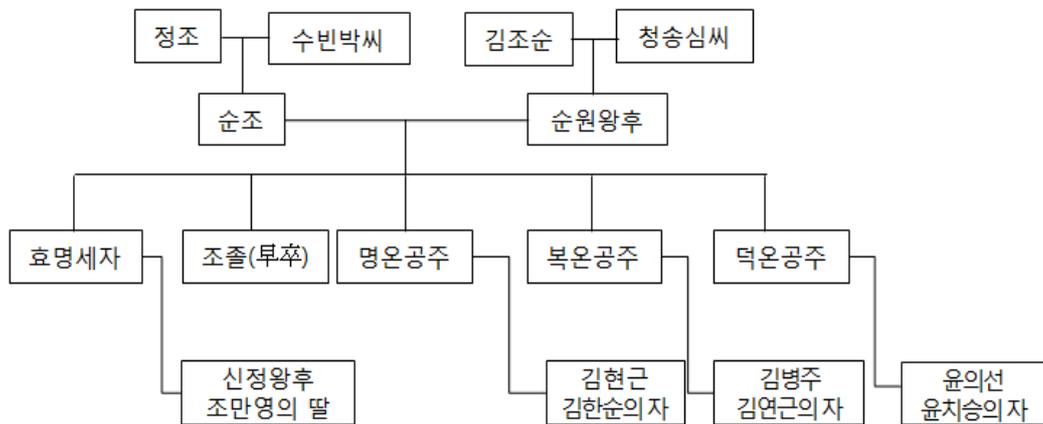
2.2. 수신자의 주변 인물

인간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반드시 존재하는 문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가장 근간이 되는 인간의 주체는 발·수신자다. 이 인간의 국어학적 고찰을 위해서는 발신자인 순원왕후와 수신자들과의 관련 양상을 검토할 필요가

34) 『헌종실록』 권1, 憲宗 卽位年 11月 18日 己卯.

있다. 특히 경어법의 변화 양상인 경우 수신자들과의 관계와 수신자들의 사회적 위치 등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양상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왕실과 사대부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언어적 특징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련 양상은 연구의 기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리는 이후 진행되는 국어학적 분석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발신자는 당연히 순원왕후(1789~1857년)³⁵⁾이다. 순원왕후는 1789년(정조 13년) 5월 15일 생으로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다.³⁶⁾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는 주로 혈연과 혼맥을 기본으로 형성되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계도가 필요해 보인다. 가계도는 아래 표와 같다.



<표-9> 순원왕후의 가계도

위의 가계도 상에 등장하는 인물 중 <순원왕후연간>의 수신인으로 밝혀진 사람은 바로 셋째 딸인 덕온공주와 둘째 사위 김병주 그리고 셋째 사위 윤의선이

35) 『列聖王妃世譜』 권9, 「순조대왕비 순원왕후」253, 조선 제23대 왕 순조의妃이다. 1834년(순조 34년) 11월 13일 순조가 승하하고, 1834년(헌종 원년) 11월 18일 헌종이 즉위하고, 7년(74개월) 동안 대리청정을 시작하여 모두 66회의 차대를 열었다. 또, 순원왕후는 1849년(철종 즉위)부터 1851년(철종 2년) 12월까지 3년(31개월)간 수렴청정을 하게 되고, 1857년(철종 8년) 8월 4일 68세의 나이로 승하한다.

36) 지두환(2009), 앞의 책, 256~258쪽. (1남은 효명세자(孝明世子)로 풍양조씨 조만영(趙萬永)의 딸과 혼인하였다. 효명세자는 아들인 헌종(憲宗)이 즉위한 뒤에 왕(익종)으로 추존되었고, 먼 훗날 어머니 풍양조씨는 신정왕후가 된다. 2남은 어려서 죽었으며, 1녀 明溫公主)는 안동인 동녕위(東寧尉) 김현근(金賢根)과 혼인하였고, 2녀 복온공주는 안동인 창녕위(昌寧尉) 김병주(金炳疇)와 혼인, 3녀는 덕온공주로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과 혼인하였다.)

다. 총 96건의 언간 중 이 세 사람이 수신자로 남아 있는 자료는 총 38건이다.

막내딸 덕온공주(1822~1844년)³⁷⁾는 조선 제23대 왕 순조와 순원왕후의 셋째 딸로, 헌종의 재위 시기인 1837년(헌종 3년)에 생원 윤치승(尹致承)의 아들 윤의선과 혼인을 하였다. 이후 덕온공주가 13살 되던 해인 1834년에 순조가 세상을 떠나고 3년 후(삼년상을 치름) 16살에 혼례를 치러 궁을 떠나 시댁인 저동(현재 서울 중구)에서 지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혼인 7년 후인 1844년(헌종 10년)년에 23세의 나이로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다.³⁸⁾ 따라서 순원왕후가 덕온공주에게 보낸 언간은 덕온공주가 혼인 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가 전부이다.

부마 창녕위 김병주(金炳疇, 1819~1853년 2월 19일 본관 安東, 봉호 昌寧尉)³⁹⁾는 부사과 김연근의 아들로 순조 34년 갑오(1834년, 도광) 11월 15일(병자) 빈전 향관, 1847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별입직과 당상직을 지냈다.

남녕위 윤의선(1823~1887년, 순조 23~고종 24년)⁴⁰⁾은 순원왕후의 셋째 사위로 윤두수의 10대 손이다. 생원 윤치승(1708~1786년)과 안동김씨 김이상의 딸 사이의 둘째 아들로⁴¹⁾ 태어났다. 1866년 가례도감 당상, 병조판서와 이조판서 등 주요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1872년에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1874년 판의금부사를 거쳐서, 1837년(헌종 3년) 6월 25일에 부마가 되었다. 순원왕후가 보낸 언간 중에 총 30건이 윤의선에게 보낸 것이다. 이는 김홍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례에 해당한다.

37) 1844년(헌종 10년) 헌종의 계비 효정왕후를 간택하는 날에 만삭의 몸으로 참석하였다가 먹은 음식의 급체로 사망하였다. 죽기 직전 아이를 낳았으나 바로 죽었다. 이후 부마인 남녕위 윤의선은 윤용구(1853~1939년)를 양자로 들여 후사로 삼았다. (고궁박물관(2017), 『국역 덕온공주 가례등록』, 민속원, 45쪽.)

38) 고궁박물관(2017), 위의 책, 40쪽.

39) 1830년 3월 28일(순조 30년)에 복온 공주(福溫公主)의 부마(駙馬) 삼간택(三揀擇)을 행하였다. 하교하기를, “복온 공주의 부마를 부사과(副司果) 김연근(金淵根)의 아들 김병주(金炳疇)로 정하였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고 창녕위로 봉작하였다.

40) 1864년(고종1년) 국장도감(國葬都監) 하현궁명정서사관(下玄宮銘旌書寫官)과 영건도감(營建都監) 제조(提調), 대왕대비전 서사관(書寫官)이 되어 일을 했으며,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었다. 이후에 상호도감(上號都監) 옥보전문서사관(玉寶篆文書寫官)을 거쳐 1866년 가례도감(嘉禮都監) 당상(堂上)으로서 일했다. 1875년(고종 12년) 주로 왕실관련 일인 왕세자책례도감(王世子冊禮都監) 서사관, 상호도감익종대왕추상존호(上號都監翼宗大王追上尊號) 서사관, 빈전향관(殯殿享官), 추상가상존호도감(追上加上尊號都監) 서사관, 추상존호금보전문서사관(追上尊號金寶篆文書寫官)으로서 일을 보았다.

41) 해평윤씨대동보간행위원회(2005), 『해평윤씨대동보』.

그 외에 남아 있는 인간들은 주로 조카들에게 보낸 것들이다. 가장 많은 인간이 남아 있는 수신자는 바로 김병덕(金炳德, 1825~1892년)이다. 김병덕은 김홍근의 아들이자 순원왕후의 조카이다. 1847년(헌종 13년)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1860년(철종 11년)에 이조판서를 거쳐 1880년(고종 17년) 평안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그후, 1884년에 우의정을 거쳐서 1885년(고종 22년)에는 좌의정에 올랐다. 김병덕은 심성이 청렴결백해서 고종 때에 세도가 안동 김씨 가문이 퇴출되었을 때에도 대신들의 신임을 받아서 건재하였다.

마지막 수신자는 조카 김병주(金炳澁, 1818~1875년)⁴²⁾이다. 김병주는 김홍근(金弘根)의 아들이고 동시에 김좌근(金左根)의 양자이다. 그는 1847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철종 9년(1858년, 함풍) 10월 24일 판의금부사·규장각 직제학에 임명되었다. 고종 1년 3월 26일 판돈녕부사, 고종 3년 형조 판서, 고종 20년 이조 참판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이어 고종 15년 5월 22일에는 남녕위 윤의선, 금릉위 박영효, 이재원 등과 함께 빈전향관(殯殿享官)으로 임명되었다. 고종 22년 판돈녕부사를 마지막으로 관료의 생활을 마무리한 인물이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신자	수신자와 관계	발·수신 연도	인간 수
김홍근	<재중동생>	1834~1851.1	31건
		1851.2.~1857	21건
김병덕	<7촌 조카>	1847~1849	5건
김병주	<7촌 조카>	1848	1건
김병주	<둘째 사위>	1789~1857	3건
윤의선	<셋째 사위>	1834~1850	30건
덕은공주 ⁴³⁾	<셋째 딸>	1837~1844	5건
계			96건

<표-10> 발·수신 연도와 인간 수

42) 철종 10년(1859, 함풍) 성균관 대사성, 철종 11년(1860년, 함풍)평안도 관찰사, 철종 12년(1861년, 함풍)형조 판서, 철종 13년(1862년, 동치)형조 판서, 철종 13년(1862년, 동치), 철종 14년(1863년, 동치) 한성부 판윤, 고종실록 7권, 고종 7년 윤10월 23일 을유 2번째기사/김병주를 예조 판서, 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 1월 17일 기유 1번째 기사/김병주를 한성부 판윤에 임명하였다. 철종 10년 기미(1859년, 함풍) 7월 5일(계유) 김병주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다.

이러한 순원왕후의 언간들은 역대 왕비의 언간과 비교하여 내용에 있어서 명확한 차별성을 갖는다. 순원왕후가 현종, 철종 2대에 걸쳐서 수렴청정을 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왕을 대신하여 정사를 돌보면서 처리해야 하는 정치적인 사안들이 많았다.

3. 왕실 생활상의 반영

순원왕후는 1802년부터 약 55년간 조선 왕실의 상징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여성이었다. 특히 순원왕후의 언간에는 왕실에서 벌어지는 생활상에 대한 다양한 단상과 왕실의 언어적 특징 및 왕실 내부의 정치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왕실 정치의 비밀스러운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⁴⁴⁾, 왕실 내에서의 치병행위에 대한 실상 등이 보이기도 한다. 특히 현종의 지나친 음주로 건강을 잃을까 염려하면서도 왕실의 후사가 걱정된다는 내용⁴⁵⁾과 수렴청정에 대한 심적 부담감⁴⁶⁾ 등 왕실 일상에 대한 개인적 정서가 나

43) 덕온공주는 어머니 순원왕후의 명으로 아버지 순조가 쓴 『자경전기』를 한글로 풀어썼다. 길이는 528센티미터이다. 그 외에도 <고문진보>의 ‘양양가’ <비파행><낙지론><적벽부><출사표> 등을 필사했다. 23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공주로서는 가장 많은 양의 한글 자료를 남겼다. 이는 조선 왕실 3대에 걸친 효성을 잘 보여주는 유물임과 동시에 덕온공주의 글씨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명품이다.

44) “갑오화변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었디혀 설위혀엿던고 시비 오라바님괴셔야 뉘가 업수이 보 니가 이실가 본고 그러하니 밋는 더가 잇더니 지금 당혀는 누를 힘이 업스니 도 텅 일이 므슨 쏘이 될디 모르게 하여시니 내가 업고져만 시비 여즐 이만 굿티니 짐작 보소 휴지 쇼화호소<순원봉서-12, 1849년, 순원왕후(재종누이)→김홍근(재종동생)>” 이렇듯 왕실여성의 언간은 왕실과 조정 내부의 비밀스러운 의견을 청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알려지면 곤란하다고 생각하여, 언간의 말미에 ‘세초호소, 쇼화호소’를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언간을 받고 확인한 후 바로 없애버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45) 홀연이 과음하신다 말이 외간기디 자자혀여 안호로 드러오니 못 잡습는 술을 었디 일도의 그리 과히 진어호실가 본고 실상 그러면 걱정이오 체훈다 미양 하시니 기 넘너로세 금슬노 닐너도 아딕은 감감하니 이순 이제야 넘어 겨시니 아기가 맞븐 거시 아니로디 그져 사롭과 다르시니 기드리는 막음이 맞븐 듯하니 어서 정궁의 탄혹을 바라디 점은것들 이시니 었더홀넨디 그도 츠역 턴의니 었디홀고 아모 더라도 튼튼이 나호면 대형이게 호엿니<순원봉서-27>

타나기도 한다.

첫째, 생생한 언어 생활과 정치적 상황의 결합을 통한 왕실의 생활상을 잘 보여준다.

(1) 가. 이 스연 보고 웃기도 우슬 거시오 오감저이도 알 거시로디 튕정으로 난 말이로
세 나는 무스이 디내니 평안이 디내게 호소 휴지 즉 세초호소<순원어필-21, 1849
년>

나. 나는 혼 늙은 형세 업는 홀어미니 내 이리흔들 뉘 뜨어시라 흐리 하여 이리하니
절분하기 측냥업니 만일 슈작이 다시 잇거든 다시 말하려 하니 회서 말고 이리
휴지는 즉시 쇼화호소<순원봉서-11>

위의 (1가)는 1847년 봄, 김홍근이 귀양 가 있을 때 보낸 것으로 안부와 함께 임금을 원망하지 말고, 군신유의를 지키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위로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대 언어문화적 요소가 들어 있는데, 명령형 종결어미 ‘-디내게 호소’와 같이 ‘흐니’체 등이 나타나고 있다. (1나)는 친정오빠 둘(김유근, 김홍근)이 세상을 떠나 김홍근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정 대신들과의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분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으며 판서로 있을 당시라 1842~1851년 1월 이전의 언간으로 ‘흐니’체, ‘호옵’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왕실의 언간들은 대개 왕실 가족을 중심으로 주고받으며 안부를 전하는 내용들이었다. 내용상으로는 개인적인 신세 한탄과 대비로서 왕실의 일을 주관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일반 사대부가의 여성들이 가족들에게 털어놓는 것과는 다른 왕실의 특수한 일상과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둘째, 순원왕후의 언간은 진솔한 개인의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예문 (2)의 언간들이 가장 대표적인데, 발신자의 솔직한 감정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어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실감나게 수용되기도 하였다.

46) 어느 때 므음과 즘이 평안홀 적이 업더니 성산이 덩명혀서 가당티 아닌 짐을 버스니 위종샤하여 경축흔 외 내 몸의 한가홀과 짐을 위하여서는 홀노 만행분이 아니니 짜짜 생각홀스록 쇠원히 내가 이리쇠원하여 호는 상을 겨셔 보디 못하시니 그도 썩테 즘니도 일 잇는 짜마다 잘 하여 내라 심히 보쳐여시니 이제 생각하여도 즘질티 아니힌가 췌흔 스연을 혼 번 베풀고져 버르기는 호고도 못하였더니 이제야 덕니<순원어필-09>

- (2) 가. 텃품의 명민 괴이호시던 거시 그린 썩이 되며 네일이 되어서니 이제야 뉘가 본
 성의 비상호시던 줄을 알 니가 업스니 앓갑고 원통호기 죽기 전 엇디 이질고 호
 갓 물욕의 드든 님군으로만 알 일이 원통원통히<순원어필-03>
- 나. 대던의셔 결단코 그린 일은 아니실 거시오 <중략> 썩썩한 고집은 약간 겨시나
 춘츰 더호시면 그도 나오시오리이다<순원어필-10>
- 다. 텃념을 호니 외견 과연 식훤타 호디 속은 것만 꺾디 못호여 답답호오이다 엇디
 만기지무를 급죽이 다 잘호실길이야 잇스오리잇가마는 보도를 자호여 ㄱ르쳐 드
 려야 될 일이니 속이 답답호오이다 이 밋음은 언제나 식훤히 트일디 모르게스오
 며<순원어필-23>

(2가)는 1849년 6월 헌종이 승하하고 사우제(四虞祭)를 지낸 후 김홍근에게 보낸 것으로, 헌종이 명석했던 성품이 아깝고, 물욕에 어두운 임금으로 비취질까봐 원통하다는 순원왕후의 감정이 잘 묘사되었다. 순원왕후는 자신이 오래 살아 있다는 것이 한탄스럽고, 철종의 성품이 어질고 잘 보필하면 종묘사직을 잘 이끄는 데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왕실의 주체로서 지녀야 할 덕목과 자질의 부족함을 염려하고 있다. (2나)는 철종을 추대한 것에 대한 불안감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철종의 고집과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매우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다)는 1851년 수렴청정을 철폐하면서 쓴 것이다. 정치적 역할을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개인의 감정이 후련함과 걱정스러움이 교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철종에 대한 실망과 기대가 복잡하게 얽혀 종잡을 수 없는 근심이 꺾진하게 나타난다.

1850년에 조카 김병주(육촌오라버니 김홍근의 아들)의 과거급제를 계기로 집안의 육촌형제들이 화목한 일가를 이루기를 바라는 순수하고 기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⁴⁷⁾ 철종 부친의 사례를 통해 왕실 사당의 운영에 관한 시각을 보여주기도 한다.⁴⁸⁾ 그리고 덕온공주의 죽음을 맞이하여 딸에 대한 애정이 잘못된 장례

47) 무결의 장방 보고 죽시 교외로 나갓다 호니 쇼동누의 즈미를 밋이 드렸는가 시브니 웃너 진스의 관복호 모양을 보니 동탕호 풍의가 교관 직명이 가즈니 외양과 니지가 꺾기 비라고 든든 것 브기 축냥업니<순원어필-08>

48) 상감의셔 능형 께 묘소의 든녀오며 대원군 궁의 거동을 호시라 호시니 그뻬는 아덕 말노 어량 치기 호여시디 스친으로 정은 그러호디 종묘 춘춘 던알쳐로 히마다 호시기는 아니실 일인 듯호

절차로 이어지는 순원왕후의 감수성이 잘 들어난 사례가 등장하기도 한다.⁴⁹⁾ 철종의 비를 간택하는 과정에서 사돈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한 순원왕후의 인식을 보여주는 언간도 발견된다.⁵⁰⁾ 뿐만 아니라 새해맞이에서 왕실의 어른으로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애민정신이 잘 반영되기도 하였다.⁵¹⁾ 그리고 인간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인 단순 안부가 잘 반영된 사례가 등장하기도 한다.⁵²⁾

셋째, 덕온공주의 병치레로 인하여 왕실 주체의 치병 행위와 그 실상이 잘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관련된 자료는 특히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순원왕후언간>⁵³⁾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 (3) 가. 마염이 심흐니 브리디 못흐더니 셔증으로 씨긋디 아니훈가 시브니 오늘은 엇더
 한디 녀이며 덕온도 일전 은진 귀운 잇고 날이 더워 그리흔디 므어서 돛져지고
 마른 안질도 잇고 조흔여 뵈기 오창열이게 므러 약방문을 내여 그제 어제ㄴ디 두
 텃 먹어시나 은진은 득던 날 밤브터 관겨티 아녜는디 이 약은 은진 말흐고 년 거
 시니 관겨티 아닐디 의심스러워 방문 보내니 보고 므러 보소 안질은 붓고 식기
 혼가지오 <중략> 다른 약은 브절업스니 보아 가며 흐면 도흘 듯히 돌입이엇나
 흐니 그리흔디 풍열인디 보아 알게 흡식<순원한글박-10, 1838~1843년>
- 나. 봉셔 보고 무스이 디내는 일 든든 깃브나 비는 아니 오고 무더워 일괴 심히 거
 복흐니 조심흔여 평안이 디내고 앓가 편지흐엿더니 거의 보아실 듯흐며 문져 스
 연의 다 흐엿니 <중략> 희소는 흐디 드물 씨도 잇고 담이 되다 흐니 묶은 담은
 아니니 나으라 그리흔디 그 말도 므러보소<순원한글박-09, 1838~1843년>
- 다. 일간 무스훈가 본덕긋셔도 엇디 브지흐시는디 이때 심스 오죽흐실가 일크라 디
 내니 <중략> 장지 오년이니 아니 이상홀가 본가 ㄴ려워흐던 거슨 낫다 흐니 혹
 뺏기는 상회슈로 뺏기니<순원한글박-12, 1841~1844년>

니<순원어필-12>

- 49) 공주의 묘지로 여러 곳을 보디 다 맛당흔 디가 업고 예는 다른 폐 업고 뿔 만타 말을 듯고 게
 로 덩흐기는 신니가 업다 흐면 모르디 잇게 되면 ㄴ춤 이셔 흐디 모히는 거시 텃니 인정의 합
 흥기 그리로 완당흔여 셔계ㄴ디 흥여 치표 덩흔ㄴ디 혼 일리오<순원어필-17>
- 50) 스돈 지목이 극난흔 거시 문혹이나 잇고 심지나 튕후흐고 상감을 잘 도와 드릴 지목이야 홀디
 <순원봉서-01>
- 51) 환세 평안히 흐시고 신경 귀운 평온흐신디 알고져 호오며 <중략> 감회 비원흐옵디<순원봉
 서-24>
- 52) 텃청흐시과져 흐 스연이니 즈니도 짐작흐려니와<순원봉서-04>
- 53) 국립한글박물관(2019), 앞의 책, 312~363쪽.

- 라. 야간 평안이 디내는 일 알고져 하니 나는 혼가지로 디내니 즈겨 태화탕을 그 스
이 먹는데 혼 텃식 두 텃식 먹었는데 머리가 알프다 하여 겨요 세 번 굶치고 드
리기를 더더로 혼다 하고 그러듯하여 시작하키는 근 이십 일이나 되디 아홉 텃을
먹고 어제 또 두통이 이셔 아니 먹었더니 눅눅하여도 하기 이경의 담텐가 하여
정괴산 먹었더니 토하여 보니 담을 만히 토하논디 담 빗치 붉은 슈박 먹고 토한
뱃 굶어 정괴산 <뒷면> 셋겨 나온 거시<순원석주선-01, 1840년>
- 마. 수일 일기 치운디 년하여 무스이 디내니 깃브나 종삭 삭일이 되니 익은 망극하
미 새로올가 브리디 못하디 나는 혼가지로 디내고 즈가도 감키는 낮게 디내니
<순원건국-01, 1802~1856년>

(3가)는 덕온공주의 두드러기와 눈병 치료를 위한 순원왕후의 고민이 들어 있
는 언간이다. 사위 윤의선에게 보낸 것으로 어의 오창렬에게 처방전을 부탁한 후
이를 보낸다는 내용이다. 딸을 걱정하는 여느 어머니의 애뜻한 심정과 안타까움
이 담겨져 있다. (3나)는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위 윤의선에게 보낸 것이다.
병을 고치기 위해 궁에 들어가 있는 덕온공주의 건강 상태가 심해졌음을 전하고
있다. (3다)는 덕온공주의 유방병이 차도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사위에게 하소
연하는 내용이다. (3라)는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소장본이다. 이는 덕온공주에
서 태화탕을 처방하라는 내용이다. 『헌종실록』 4권과 『승정원일기』 <헌종 5년
(1839년) 9월 5일 정유 3/21 기사>에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에 올린 ‘태화탕’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헌종 5년 9월 6일’, ‘헌종 5년 9월 10일’, ‘헌종 5년 9월 13
일’자 기사에도 대왕대비전과 관련된 ‘태화탕’이 언급되고 있어서 발신 연대를
1839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3마)는 건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언간으
로 발신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즈가’라고 쓴 것으로 보아서 덕온공주의 건강이
나아진 것을 기뻐하는 내용으로 사위 윤의선에게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순원왕후의 언간은 당대의 왕실의 생활상 특히, 개인적인 정서와 정치
적 사건의 결합, 진솔한 개인적 정서, 치병 행위 등을 매우 현실감 있고 생생하
게 전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조선왕실록>이나 <승정원일
기> 등의 공식적인 사료에 등장하지 않는 정보들로서 개인간에 주고받은 편지의
자료적 중요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4. 인간의 형식적 특징

19세기의 왕실 여성들의 인간은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한 편이다. 특히 이 인간들은 낱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장이 묶음 형태로 전하고 있다. 인간은 오늘날 편지와 같이 사연을 적는 내지(內紙)와 그것을 담는 봉투(封套)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간의 내지와 봉투는 사연을 적는 위치부터 특정한 부호나 용어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야 했다.⁵⁴⁾ 본 자료 또한 봉투에 넣어 한 번 더 싼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데, 예법과 격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왕실 여성들의 인간 자료의 경우, 그 이전의 인간에 나타나던 안부 중심의 내용적 형식 관련 투식성은 계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실 여성들은 인간을 통하여 진솔한 개인의 감정을 전달하였고, 왕실 밖에 있는 친척들과 서로의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연대감을 끈끈하게 형성하려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순원왕후의 인간 역시 이러한 특징들을 잘 가지고 있으며, 이는 19세기 인간의 형식적 특징의 사례로 문헌학적 가치가 높아보인다. 특히 민간 사대부 여성들의 인간과는 달리 봉투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9세기 왕실 여성 인간의 봉투의 형식적 특징을 검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다. 뿐만 아니라 봉투와 내지를 별도로 두어 발신자의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나아가 궁체로서 전형적인 진홀림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서체는 근현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한글서예사의 핵심적인 서체로 자리매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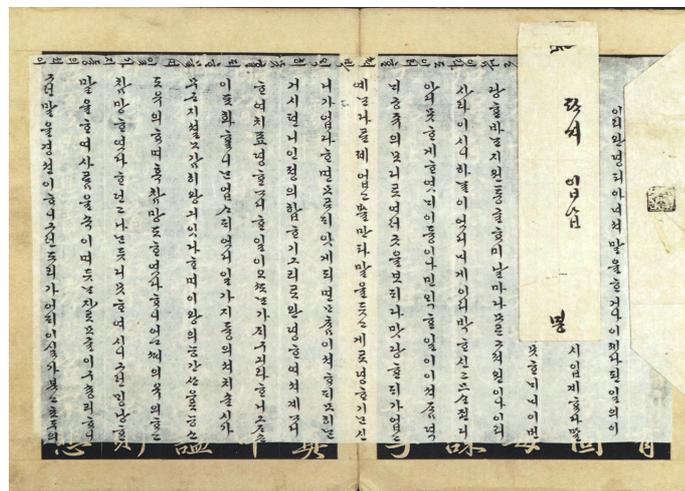
첫째, 중봉과 단봉으로 나뉘어진 봉투의 형식적 특징이 잘 남아 있다.

현존하는 민간 사대부들의 인간들 중에는 내지(內紙)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순원왕후의 인간인 경우 상대적으로 봉투와 내지(內紙)가 모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재종동생이나 사위, 딸등 가족들 사이에 오고 갔던 인간들인 경우 가족적 친밀성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봉투가 없었을 수도 있고, 인간들이 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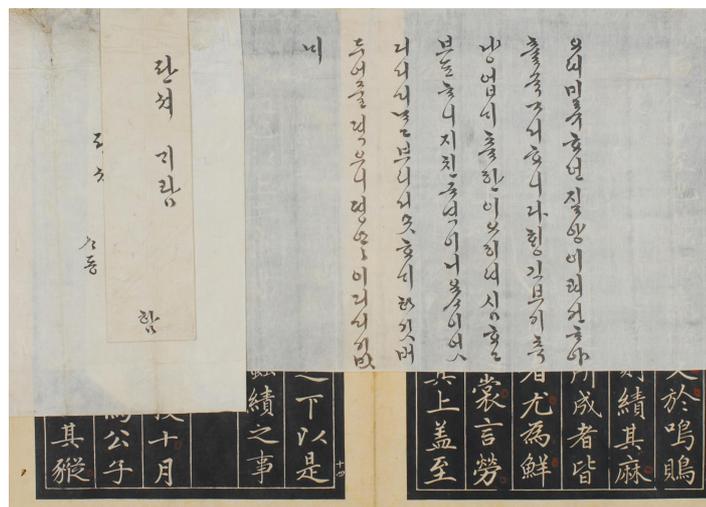
54) 황문환(2015), 『조선시대의 한글 편지 인간』, 역락, 55쪽.

내려오는 과정에서 분실했을 가능성도 있다. 순원왕후의 언간들인 경우에는 비교적 보관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봉투에 넣은 다음 한 번 더 종이에 싸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언간의 봉투와 내지는 사연을 적는 위치부터 특징한 부호나 용어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격식을 갖추었다. <순원왕후언간>의 봉투 규격은 길이 26.7cm×넓이5.3cm, 24cm×넓이5.3cm, 26.7cm×넓이5.3cm, 23.6cm×넓이5cm, 23.5cm×넓이5cm, 23.7cm×넓이5cm, 22.2×넓이5.6cm 등으로 다양하게 남아 있다.



[그림-1] 중봉의 예) 순원왕후어필(古貴 2410) 21/2-1



[그림-2] 단봉의 예) 순원왕후어필(古貴 2410) 21/1-6

위의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이 봉투의 종류는 봉투가 둘인 중봉과 하나인 단봉으로 나뉜다. [그림-1]의 경우가 중봉의 예이며, 이는 먼 지방을 왕복하는 경우나 상대방을 높여야 할 경우에 사용되는데 혼례 때 쓰이는 예장(禮狀) 같은 것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언간에서 중봉이 사용된 경우는 드물어 실물로 전하는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위의 [그림-1]에서 보듯이 내지(內紙)를 넣는 데 쓰인 봉투와 그것을 다시 싼 겉종이를 통해서 중봉의 예를 <순원왕후언간>에서 드물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⁵⁵⁾ [그림-2]의 경우가 단봉⁵⁶⁾의 예이다. 이 경우 위의 표에서와 같이 봉투를 만들기는 했지만, 내지에 맞추어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사연을 적고 일정 간격으로 접은 후 봉투는 내지의 크기에 맞추어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전하는 언간의 실물을 보면 사연을 적은 내지가 봉투와 거의 같은 크기로 접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⁵⁷⁾ 단봉의 경우 한문 간찰에서 내지가 봉투를 겹치는 방식이 빈번하였다. 이 경우는 수신자와 격식을 따지지 않거나 급하게 보낼 때 사용하였다. 언간은 친척 간에 주고받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에 내지가 봉투를 겹치는 단봉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봉투에는 대부분 관직명이 적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살펴보면, ‘디교, 판서, 니판, 판부스, 대신, 좌상, 참판, 도위, 남녕위, 석촌, 남녕위 윤공계’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내지(內紙)와 그 서식적 특징이 잘 드러난다.

내지의 크기는 대체로 23×5cm, 24.1×5.1cm, 21×5.3cm, 12.5×96cm, 24×36.8cm, 24.2×43.2cm, 26×40.3cm, 22.2×40cm 등으로 제각각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겉종이가 14~16cm 정도로 접혀서 내지를 싸고 있다. 글씨 크기는 대체로 2~2.7cm 내외이며, 반흘림, 흘림, 진흘림체로 구성되어 있다. 언간에서는 반드시 수신자가 전체되는 만큼 발신자는 적절한 예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내지(內紙) 내용의 형식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는 전문이다. 여기는 칭호와 안부를 묻는 인사말로 되어 있고, 둘째는 본문이다. 이는 주된 내용

55) 황문환(2015), 앞의 책, 57쪽.

56) 내지에 사연을 쓰고 접은 다음 그 접은 곳이 곧바로 봉투와 똑같이 중간을 기점으로 발·수신자를 쓰고 아래 봉하는 부분에 이름을 쓰고, 근봉 등을 쓰는 것이다.

57) 황문환(2015), 위의 책, 58쪽.

을 서술하고 있으며, 마지막이 후문(後文)이다. 후문은 주로 기원(祈願)의 뜻과 월일, 성명으로 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오른쪽 끝에서 바로 시작하지 않고 여백을 두고 쓴 것들이 있는데, 이는 내용을 쓰기 전에 내지가 봉투를 곁할 수 있도록 봉할 부분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거나, 내용이 넘쳐서 추가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기도 하다. 반면에 고문서 작성 시나 조선시대 언간에서 간혹 볼 수 있는 것은 시작하는 부분을 행을 바꿈과 동시에 머리부분이 본문보다 1~3자 정도 올려 쓰는 대두법이 있는데, 이는 발신자가 수신자를 대우할 때 사용하였다. 다른 대우 방법으로 간자법이 있는데 이는 행을 바꾸지 않고 단어 앞에 1~3자 정도 비워 두고 쓰는 경우이다. 대두법에서 올려 적는 글자 수가 다를 수 있는 것과 같이, 간자법에서도 비워 두는 글자 수에 차등을 줄 수 있는데 이 경우를 격간(隔間)이라고도 한다. 대두법은 통상적으로 존대의 의미이기도 하다. <순원 왕후언간>에 사용된 여백과 대두법은 화제의 전환과 수신자에 대한 존대나 겸양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겸양을 표시하고자 할 때 자신을 명명하는 글자는 다른 글자보다 절반 정도로 작게 쓰고 행의 오른쪽 끝에 치우쳐 쓰는 차소법(差小法)이 쓰이기도 한다.

글자가 잘못되어서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글자에 점이나 원을 치거나 빗금 또는 까맣게 칠하기도 한다. 이 언간에는 삭제의 흔적으로 글자를 까맣게 칠한 것들이 보인다.

글자의 반복을 나타낼 때에는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걱정 ” ”/든 ” ’처럼 재점이 사용된다. 특이한 것은 한 글자를 반복하여 쓰기도 하고 낱말을 반복하여 쓰기도 하는데 한 글자는 한 번(”), 두 글자는 두 번(” ”) 사용한다. 이렇듯 언간에서는 글자 수만큼 반복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독할 때에는 문맥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는 후문으로 본문 내용을 다 쓴 후에 우측 여백으로 돌아와 본문 내용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서 발신 일자와 발신자를 쓰고 낙관을 하는 것이다.

그외에 결종이가 추가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결종이는 주로 봉투를 싸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수신인이 거주하는 지역 이름으로 보이는 ‘광양, 던동, 스동, 계동, 이문니, 이문안’⁵⁸⁾ 등의 지명이 일반적으로 적혀 있거나, ‘봉서’ 또는 수신인의 관직명 혹은 ‘병덕이’와 같이 이름이 적힌 것

도 종종 보인다.

언간의 서체 역시 주목할만 하다. <순원왕후언간>의 가장 대표적인 서체는 진 흘림체이다. 이 서체는 19세기에 언문의 보급과 필사본의 확산으로 인해 언간과 그 언간에 사용된 서체 역시 미적 대상이 되었다. 당시 왕실 여성 언간들은 일반 사대부 여성의 언간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문헌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살다간 인물의 솔직한 생각이 담겨져 있어서 그 시대의 생활상과 사회상을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선시대 왕후들은 수렴청정을 하면서 많은 언간들을 남겼다. 이들 언간은 왕후의 품격을 담은 서체로 나타나고 있다. 순원왕후의 글씨는 획의 연결이 자연스러우면서 조화를 이루고 편안한 안정감을 준다. 필력은 자유분방하면서 능숙한 흘림체를 구사하여 수려한 필의로 고상한 인품과 위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왕후의 높은 품격을 보여준다.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 왕후들의 언간은 인목대비 김씨와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조씨, 효종의 비 인선왕후 장씨, 현종의 비인 명성왕후 김씨,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 민씨, 사도세자의 비인 혜경궁 홍씨,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 순조의 비 순원왕후 김씨, 익종의 비 신정왕후 조씨, 철종의 비 철인왕후 김씨, 고종의 비인 명성황후, 순종의 비인 순명효황후의 것이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 왕후들의 글씨를 보면 인목대비의 글씨는 17세기의 언간으로 궁체의 정형화 된 모양과는 차이가 보이는 자유롭게 흘러 쓴 민체에 가깝다. 장렬왕후의 글씨는 서서히 궁체의 정형화된 모습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인선왕후의 글씨는 궁체 흘림에 가깝게 나타나며, 인현왕후의 글씨는 ‘ㅇ’의 기필이 가늘고 세로획의 머리가 짧고 강하게 표현된 반흘림이다. 혜경궁 홍씨는 필세가 정적이고 단아한 필치의 진흘림체를 구사하였고, 정순왕후는 한글 궁체의 형태보다는 한문 행·초서의 필의가 가득찬 과감하면서도 힘찬 흘림체를 구사하였다. 신정왕후는 필획과 결구가 정갈하면서도 날카로운 느낌으로 인위적인 기교가 가미된 것 처럼 가공미를 느끼게 하며 궁체 진흘림의 전형적인 글씨이다. 철인왕후는 전형적의 진흘림에서 벗어나 간결하게 쓴 글씨이다.

58) 지금의 종로2가에서 종로3가 근처를 말한다.

반면에 순원왕후의 언간은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한문 초서의 필의로 획의 움직임이 빨라서 남성적이면서 여성적인 단아함이 합쳐져서 역동적이면서 유연함과 세련미가 있다. 문자의 자형은 강약·대소·경중 등 조화로운 울동으로 생동감이 있다. 결구의 특징으로 행간이 넓고 시원한 여백은 먹빛의 청아함과 함께 어우러져 존엄한 위상이 느껴진다. 자음과 모음의 중심축을 나누어 보면 음과 양이 서로 조화로운 형식을 이루고 있다. 장법은 허와 실이 상생하는 점과 획 사이는 형세에 따라 편안하며 행간은 옥이 구르듯 윤택한 효과를 나타낸다.⁵⁹⁾ 이는 순원왕후가 처해 온 상황들을 통해서 수많은 서사 과정의 숙련과 내면 수양이 빛 끝에 드러난다.

종합하면 순원왕후의 언간에 나타난 서체는 조선후기 왕후의 지위에서 명필이라 칭할 수 있는 한글 서예사의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한 조형성과 미학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글 서예학적으로는 정갈한 진흘림체가 대부분이고 세로쓰기를 했으며, 필선과 필치를 보면 강직한 필묵의 운필이 생동감과 유려함이 돋보인다. 순원왕후의 언간에 나타난 서체는 후대로 이어져 내려온다.

조선 말에 태어나 최근까지 궁체의 맥을 이어준 사후당 윤백영(1888~1986년)의 언간은 전형적인 궁체의 기초 자료가 될 정도로 아름답고 유려하게 잘 표현했다. 윤백영은 순원왕후의 셋째 딸 덕온공주의 손녀로 명필가 윤용구의 딸이기도 하다. 어머니 정경부인 김씨에게로 온 각종 공주 및 상궁들의 아름다운 언간을 대하면서 글씨를 많이 썼으며, 이들 언간의 필사자를 여백에 표기하고 낙관하여 남궁역을 거쳐 후대 궁체 연구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정확한 연구⁶⁰⁾와 한글서예의 금자탑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59) 이이숙(2011), 앞의 논문, 43쪽.

60) 박병천(2007), 『조선시대 한글 서간체 연구』, 도서출판 다운샘, 30쪽.

Ⅲ. 표기법과 음운의 특징

<순원왕후언간>은 주로 19세기 중엽에 작성된 것이다. 근대국어 시기의 후반기에 속하지만, 19세기를 3등분으로 시기를 나눈다면 중기에 속하며, 2등분 한다면 전반기와 후반기 양쪽으로 나뉘어야 할 것이다.

19세기 국어 연구의 기반이 되는 문헌 자료는 19세기 전 기간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 19세기 전반기의 문헌 자료는 불모지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그 자료가 거의 없지만 19세기 후반기의 문헌 자료는 그 종류와 가짓수가 많아 19세기 국어 연구 대부분이 19세기 후반기에 몰려 있는 주된 원인이다. 19세기를 3등분을 하여도, 19세기 중엽의 문헌 자료로는 『太上感應篇圖說諺解』(1852년) 등 매우 적은 숫자만이 확인된다. 이러한 편중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19세기 전 시기에 고루 분포된 언간 자료는 19세기 국어 연구 대상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데, 그중에서도 <순원왕후언간>은 19세기 중엽의 언어, 그리고 왕실 언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19세기 국어의 표기와 음운 층위 중에서 이 시기의 두드러진 표기 변화를 살펴보면 합용 병서(=된소리 표기, 이하 합용 병서), 연철, 분철 표기, 어중 유기음 표기 등이 있으며, 음운 현상에서는 ‘·’의 변화, 두음법칙과 관련된 ‘ㄹ’ 비음화와 유음화, 구개음화, 원순모음화 등이 확인된다. 특히, 치찰음 하에서의 전설모음화, 움라우트 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용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이 논의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표기 층위에서 합용 병서(=된소리 표기)와 연·분철 표기와 어중 유기음 표기는 17세기부터 구분되는 근대국어 시기에 주로 나타난 문제로 19세기 국어만의 특징은 아니다. 그러나 근대국어의 마지막 모습인 19세기 국어에서 이들 표기에 대한 논의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순원왕후언간>의 왕실 관련 편지로서 국어사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문헌 자료와 다른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음운 층위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예상된다. <순원왕후언간>은 왕실 관련 언간으로, 발신자가 직접 작성한 것인데 언해가 된

일반적인 국어사 문헌 자료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왕실 언어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음운 현상의 적용 과정에서도 국어사 문헌 자료와는 다른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부분에서도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표기법의 특징

이 언간에 사용된 자음과 모음 표기는 총 51개이다.⁶¹⁾ 이중에서 초성 표기는 총 28,245개로 42.32%를 차지하며, 이때 사용된 자음 표기(‘ㅇ’도 포함)는 19개가 나타난다. 중성 표기에는 총 28,245개로 42.32%를 차지하는데, 초성 표기와 중성 표기의 개수가 같은 것은 초성 표기에 ‘ㅇ’를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초성 ‘ㅇ’은 6,022개가 나타나며, 주지하듯이 초성에서 음가 없이 사용된 것이다. 중성에는 모음 표기(이중 모음 포함)가 총 23개가 사용된다. 중성 표기에는 총 10,259개로 15.37%로 나타나는데, 중성에 사용된 자음 표기(겹받침 포함)는 9개이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개 중성 표기에 ‘ㄹ, ㅁ’의 겹받침이 나타난다.

초·중·중성에 사용된 자음과 모음 표기와 함께 그 빈도와 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성	빈도	비율	초성	빈도	비율	초성	빈도	비율
ㄱ	3,288	11.64%	ㄷ	1,252	3.54%	ㅁ	61	0.22%
ㄴ	3,281	11.62%	ㅌ	405	1.43%	ㅂ	2	0.01%
ㄷ	3,162	11.19%	ㅋ	113	0.40%	ㅅ	37	0.13%
ㄹ	1,410	4.99%	ㅌ	417	1.18%	ㅈ	163	0.58%
ㅁ	1,594	5.64%	ㅍ	242	0.86%	ㅊ	10	0.04%
ㅂ	1,075	3.81%	ㅎ	2,929	10.37%			

61) 표기 용례와 빈도 등의 추출과 검토 과정에는 전주대학교의 소강춘 교수팀이 개발한 문자열 검색 프로그램인 ‘SynKDP(Synthesized Korean Data Processor)’(일명 깜짝새,V.1.55)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入	2,782	9.85%						
○	6,022	21.32%						

<표-11> 초성에 사용된 자음과 모음 표기의 빈도와 비율

중성	빈도	비율	중성	빈도	비율	중성	빈도	비율
ㅏ	3,668	12.99%	ㅑ	326	1.15%	ㅓ	7	0.02%
ㅓ	516	1.83%	ㅕ	20	0.07%	ㅗ	293	1.04%
ㅗ	431	1.53%	ㅗ	250	0.89%	ㅛ	1,997	7.07%
ㅛ	1,684	5.96%	ㅜ	257	0.91%	ㅝ	547	1.94%
ㅜ	259	0.92%	ㅠ	690	2.44%	ㅣ	6,254	22.14%
ㅠ	2,733	9.68%	ㅊ	127	0.45%	·	4,011	14.20%
ㅣ	150	0.53%	ㅋ	4	0.01%	·	851	3.01%
·	3,074	10.88%	ㆁ	95	0.37%			

<표-12> 중성에 사용된 자음과 모음 표기의 빈도와 비율

중성	빈도	비율	중성	빈도	비율	중성	빈도	비율
ㄱ	841	8.20%	ㄴ	13	0.13%	ㄷ	698	6.80%
ㄴ	3,333	32.49%	ㄹ	6	0.06%	ㅅ	1,084	10.57%
ㄷ	1,996	19.45%	ㅁ	704	6.86%	ㅇ	1,584	15.44%

<표-13> 종성에 사용된 자음과 모음 표기의 빈도와 비율

1.1. 합용 병서

<순원왕후언간>의 초성 표기에 나타난 자음자는 19개이다. 기본적인 ‘ㄱ~ㅎ’의 14자를 비롯하여, 초성의 된소리 표기에 사용된 ㄷ계 합용 병서 ‘ㄸ, ㅃ’과 ㅅ계 합용 병서 ‘ㅆ, ㅉ, ㅊ’이 포함된다. 초성에 나타난 대부분의 합용 병서는 중세 국어의 ㄷ계, ㅅ계 합용 병서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이 언간에서 사용된 ㄷ계가 오로지 ㄷ계를 계승한 것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들은 된소리를 표기로 나타낸 것은 명확하지만, ㄷ계로 분류된 ‘ㄸ’이 ㅅ계였다면 ‘ㅆ’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이 경우에는 각자병서 중의 하나로 판단될 여지가 다분히 존재

하여, 이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사계의 ‘ㅅ’이 아니라 ㅈ계의 ‘ㅉ’으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ㅉ’은 두 용례가 나타나는데, 해당 어휘가, ‘넙빤, ㅉ’로 중세국어의 ‘넙ㅉ-’(濫), ‘ㅉ-’(蒸)에 소급된다. 즉 구개음화를 겪은 형태로, ‘ㅉ’는 ‘ㅈ’로 합류되므로, ㅈ계가 표기에 그대로 존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단지, ‘ㅅ’과 ‘ㅉ’에 공통적으로 [마찰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러한 음성적 특징에 따라 ㅈ계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중세국어에서는 사계와 ㅈ계 등의 합용 병서로 이루어진 어두자음군이 존재하였으며, 이중 ㅈ계는 ‘ㅉ, ㅉ’ 등을 ㅈ계로 별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ㅉ’과 ‘ㅉ’이 출현하고, 17세기 후기에는 17세기 중엽에 비해 ‘ㅉ, ㅉ’의 ‘ㅉ’계가 완전히 소멸하고 ㅈ계의 ‘ㅉ’과 사계의 ‘ㅉ’이 소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세기에 와서는 ‘ㅉ’은 몇몇 문헌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이 언간 자료에서도 그러한 추세가 확인된다. 19세기에, 특히 ‘ㅉ, ㅉ’ 등의 ㅈ계는 사계에 비해 그 빈도가 훨씬 줄어 들면서 19세기 후기에 가면 사계로 거의 통일되어 간다. 그러나 ‘ㅉ’만이 예외였는데(특히, ‘이’의 ‘ㅉ’에서), 이 현상은 ‘ㅉ’이 각자병서로 인식되었던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중세국어는 각자병서는 ‘ㄱ, ㄷ, ㅂ, ㅅ, ㅎ’도 된소리 표기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언간에서 각자병서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서, 오로지 합용 병서만이 된소리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각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계 합용 병서

- 가. ㅉ : ㅉ<순원어필-14>, ㅉ치니<순원어필->, ㅉ흐니<순원봉서-12>, ㅉ이고<순원 한글박-12>, ㅉ이어<순원한글박-02>, ㅉ긋디<단국석주선-02>, ㅉ리ㅉ<순원어필-20>, ㅉ리ㅉ느<순원어필-20>, ㅉ리ㅉ<순원봉서-15>, ㅉ리ㅉ느<순원어필-20>
- 나. ㅉ : ㅉ나느<순원봉서-16>, ㅉ날 ㅉ<순원봉서-15>, ㅉ<순원한글박-11, 단국석주선-02>, ㅉ느<순원어필-17, 순원봉서-02, 04, 15, 31, 순원한글박-10>, ㅉㅉㅎ니가<순원봉서-01>, ㅉ이<순원한글박-09>, ㅉ(15회)<순원어필-14>, ㅉ보다<순원한글박-12>, ㅉㅉ<순원어필-09, 순원봉서-02, 순원한글박-11>, ㅉㅉ, ㅉ근ㅉ근<순원한글박-09>. ㅉ나<순원봉서-25, 순원한글박-11>, ㅉ니<순원봉서-08>, ㅉㅉ도<순원한글박-04>, 아모ㅉ나<순원한글박-11>, ㅉㅉ<순원봉서-03, 10, 24, 31, 순원어필-01, 09>, 이ㅉ<순원어필-10, 15, 17, 19, 22(3), 순원봉서-17, 25, 27, 31, 3

2, 33(2), 순원한글박-12, 17, 21>, 그때<순원어필-12, 순원봉서-01, 11, 12, 25>, 이째것<순원어필-02, 03>, 혼째나<순원한글박-23>, 디널 째논<순원봉서-04>, 더째논와<순원봉서-31>, 이째것<순원어필-03>, 이 째의<순원어필-12>

다. ㅅ : ㅅㅅ이-<순원한글박-04, 4회>, ㅅㅅ지(디)-<순원어필-21, 4회>, ㅅㅅㅅㅅ<순원어필-10>

ㅅ계 합용 병서는 현대국어의 된소리 표기 ‘ㄱ, ㄷ, ㅁ, ㅂ, ㅅ’ 중에서 파열음에 해당하는 표기에서만 확인된다. 마찰음 ㅅ과 파찰음 ㅅ에서는 ㅅ계가 보이지 않고 ㅂ계로만 나타나는데, 동일한 조음 방식의 문자가 반복되면 된소리에 대응되지 않는 인식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2) ㅂ계 합용 병서

가. ㅂ : ㅂㅂ<순원봉서-19>, ㅂㅂ<순원한글박-15>, ㅂㅂ나<순원어필-18>, ㅂㅂ노라<순원봉서-27, 33>, ㅂㅂ니<순원어필-17>, ㅂㅂ논<순원어필-17, 20>, ㅂㅂ더니<순원봉서-19>, ㅂㅂ<순원어필-17>, ㅂㅂ이디<순원한글박-18>, ㅂㅂ디<순원한글박-11>, ㅂㅂ버<순원한글박-08>, ㅂㅂ혀시나<순원봉서-04>, ㅂㅂ기논<순원한글박-12>, 화고로ㅂㅂ<순원봉서-12>, 애ㅂㅂ고<순원봉서-17>, 애ㅂㅂ<순원봉서-14>

나. ㅂㅂ : 하늘이 넘ㅂㅂ 거순<순원봉서-33>, 황년이나 너ㅂㅂ 너코<순원한글박-10>

(1, 2)의 예는 초성에 나타난 합용 병서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1)의 ㅅ계 합용 병서인 ‘ㅅ, ㅅ, ㅅ’ 등은 이 시기의 판본 문헌 자료에서 보이는 표기 양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언간에서 ‘ㅅ’의 빈도와 비율이 다른 된소리 표기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특정 어휘의 출현 빈도가 높기 때문이지, 다른 의미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ㅅ계 합용 병서가 된소리에 대응되는 표기임은 명백하다. 특히 ‘ㅂㅂ’은 대략 19세기 중엽 이전에서 ‘ㅅ’으로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⁶²⁾ 이 언간에서도 그러한 합류가 확인된다.

(1가)의 ‘ㅅ’이 담당하던 ㅅ계열의 된소리를 ‘ㄱ’으로 표기된 것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데, 다른 파열음 계열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2)의 ㅂ계 합용 병서는 파열음 계열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찰음과 파찰

62) 홍윤표(1994), 앞의 책, 166쪽.

음 계열의 합용 병서로, 각자병서에 대응되지 않는 것은 스계와 동일하다. ‘ㅁ’이 ‘ㅂ’이 합류한 것은 19세기 중엽 이전이지만, ‘ㅁ’이 ‘ㅂ’으로 대체로 합류하는 것은 더 늦은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아직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언간에서는 ㅂ계 합용 병서로 ‘ㅁ’이 61회, ‘ㅂ’이 2회 나타난다.

(3) 어간말 자음군

- 가. 가담<순원봉서-05>, 늪노라<순원한글박-15>, 늪으니<순원봉서-23>, ㅁ은<순원한글박-09>, ㅁ데<순원어필-09>, 애똥고<순원봉서-14>
- 나. ㅁ히일<순원봉서-04>, 만호니<순원봉서-27>

합용 병서처럼 두 개의 자음이 쓰이는 경우는 받침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이 언간에서는 오로지 (3가)에서 보듯이 ‘ㄹ, ㅂ’ 외의 자음군 표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3나)의 ‘업스니<순원어필-01>, ㄱ이업손<순원어필-24>’과 같이 자음군 중에서 뒤에 위치한 자음자를 후행하는 어미에 연철하여 적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ㄹ’과 ‘ㅂ’을 종성 위치에 가진 어휘는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이 후행할 때에는 연철 표기의 방법을 사용하여 두 자음을 다 표기하고, 자음이 후행할 때에는 두 자음을 어간말에 다 표기하였는데, 모음이 후행할 때에도 자음군을 그대로 종성에 표기하는 방향으로 통일된다. 즉, 근대국어에 와서 분철의 표기 방식이 어간말 자음군에도 확대되어 나타나는데,⁶³⁾ 이 언간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확인된다.

특히, 현대국어의 ‘ㄴ’은 중세국어에서도 종성에서 자음군으로 표기되지 않았지만, 중세국어와 같이 근대국어에서도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뒤에 올 때 ‘ㄴ’과 ‘ㅎ’이 표기상에 다 나타나고 있다.⁶⁴⁾ 즉 후행의 자음자인 ㅎ을 후행 음절에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국어와 같이 유성음 환경에서 ‘ㅎ’ 탈락하는 현상은 <순원왕후언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63) 홍윤표(1994), 앞의 책, 212쪽.

64) 홍윤표(1994), 위의 책, 209쪽.

1.2. 연철 표기와 분철 표기

중세국어, 특히, 15세기 국어의 표기법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5세기 국어의 정서법은 음소적 원리를, 즉 각 음소를 충실히 표기하려는 원칙과 각 음절을 충실히 제시하려는 원칙, 즉 음절적 원칙을 기본으로 삼았다.⁶⁵⁾ 음소적 표기는 하나의 음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음절적 표기는 하나의 음절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음절을 충실하게 표기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음절 경계를 사이에 둔 받침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자모 문자인 훈민정음을 풀어 쓰지 않고, 음절 단위로 묶어 표기하는 합자법은 필연적으로 연철과 분철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다. 훈민정음의 합자해의 이른바 모아쓰기 방식에는 용언 어간과 어미의 활용형이라든가 명사와 조사의 결합형에서 받침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표기법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국어에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되어 있어, 명사 또는 용언의 어간 말음, 즉 받침을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어미가 연결될 때,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표기법의 묘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1차적 원리로는 음소적이었지만, 정확하게는 형태음소론적 교체를 표기에 반영하는 정서법을 수립했던 것이다. 즉 실제로 발음이 나는 형태를 그대로 표기로 옮겼던 것으로, 용언과 명사의 어간 말음에 받침이 있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조사가 연결되면, 그 어간 말음의 받침 후행하는 모음의 초성으로 이동하는 연철 표기가 적용되었다.

중세국어에서는 대체로 연철이 일반적이었지만,⁶⁶⁾ 16세기 이후에는 차츰 분철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명사와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분리해서 표현(형태

65) 이기문(1972), 『국어사 개설(개정판)』, 탑출판사, 119~120쪽.

66) 중세국어, 특히 15세기에는 연철 표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몇몇 문헌에서는 간헐적이거나 분철 표기를 보이기 시작한다. 명사 어간 말음이 ‘ㄴ, ㄹ, ㅁ’, 용언 어간 말음이 ‘ㄴ, ㅁ’일 때는 예외없이 분철 표기로 나타나는 『월인천강지곡』(1449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연철 표기로 일괄되지만, 『월인석보』(1459년), 『능엄경언해』(1462년)에서는 한 자릿수의 예가, 『법화경언해』(1463년)에서는 두 자릿수의 용례가 확인된다. 그런데, 이들 문헌에서도 나타나는 분철 표기는 주로 ‘ㄴ, ㄹ, ㅁ, ㄱ’일 때 나타나는 공통점을 보인다(이익섭(1997), 『국어 표기법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5~207쪽).

소의 원형을 밝혀 그대로 표기)하는 분철 표기의 경향은 19세기⁶⁷⁾에 와서도 명사와 조사의 결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만, 연철 표기가 분철 표기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명사와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 등 모든 환경에서 일시에 변화된 것은 아니다. 즉 체언이나 용언이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어간의 발음이 어떤 자음 또는 어떤 겹받침이나에 따라 변화의 추세가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세기 국어에서 분철 표기가 완성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19세기 중엽의 <순원왕후언간>에 나타난 연철 표기와 분철 표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경향을 미리 살펴본다면,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둔 선행 형태소의 종성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접사 등이 이어지는 경우 받침 자음을 뒤로 이동하여 후행 형태소의 초성으로 표기되는 연철 표기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강하다고 하겠지만, 동일한 자음이 반복되는 중철 표기와 ‘명사+조사’, ‘용언어간+어미’의 형태소 결합에서 이들을 분리해서 제시하는 분철 표기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분철 표기는 체언 언간과 조사가 결합하는 형태소 경계에서 주로 나타나며, 용언 언간 중에서 발음이 ‘ㄱ’과 ‘ㄴ’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분철 표기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⁶⁸⁾ 중철 표기⁶⁹⁾의 예는 대체로 16세기 초 <번역박통사>, <번역노걸대>(1571년 이전)에서 몇 예가 보이기 시작하며, <呂氏鄉約諺解>(1518년), <正俗諺解>(1518년)에서 두 자릿수의 중철 표기가 나타난다.⁷⁰⁾ 중철 표기 중에서 받침의 형태와 초성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팔중성법에 의해 받침으로 쓸 수 없는 발음을 가진 단어들의 경우 받침 표기에는 팔중성법이 적용된 ‘ㅂ, ㄱ, ㄷ, ㅅ’ 등을 쓰고 초성 자리에는 기본형에서의 받침, ‘ㅍ, ㅋ, ㅌ, ㅈ, ㅊ’을 표기하는 방식이다.⁷¹⁾ 여기서서는 이러한 표기 형태를 어중 유기음 표기

67) 오가현(2010), 『19세기 후기 국어의 표기와 음운현상』, 동아대 석사학위, 17쪽. 19세기 후기 도교문헌 『過化存神』(1880년)을 보면, 연철이 13.4%, 중철이 6.5%, 분철은 80.1%로 분철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68) 배영환 외 2명(2013),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의 국어학적 연구」 『장서각』 30, 한국학중앙연구원, 232쪽.

69) 중철 표기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받침을 어간의 종성에도 쓰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의 초성에도 동일한 자음을 한번 더 쓰는 표기법을 가리킨다.

70) 이익섭(1997) 앞의 책, 216~220쪽. 배영환(2012), 「현존 최고의 한글편지 ‘신창명씨묘출토언간’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국어사 연구』 15, 국어사학회, 226쪽.

71) 이익섭(1997), 앞의 책, 217쪽.

로 따로 구분하여 독립된 장으로 다루고자 한다. 단지, 중철 표기과 어중 유기음 표기는 19세기 국어에서도 그 명맥이 유지되는데, 중세국어와 동일하게 체언이나 용언 등의 어간말 자음과 후행 음절의 두자음(頭子音)이 동일한 자음이 또는 동일한 계열의 자음을 어간말 종성 위치에 적는 중복 표기로 나타난다. 중철 표기와 어중 유기음 표기의 선행 음절 말 자음은 형태음소적 원리에 따라 어간 형태소를 밝혀 표기하고, 후행 음절의 두자음은 음소적 원리에 따라 발음을 나타내는 점에서 연철 표기⁷²⁾와 분철 표기의 성격이 혼재된 모습으로 평가된다.

(1) 중철 표기

되엿시나<순원한글박-12>, 굿씨도<순원한글박-04>

(2) 어중 유기음 표기

깃흔<순원봉서-25>, 승던빋츠로<순원봉서-17>, 빋치<순원봉서-29>, 담빋치<순원석주선-01>, 늦치<순원봉서-25>; 굿치-<순원봉서-27>, 갓초다<순원한글박-27>, 굿초<순원봉서-01>, 그릇쳐<순원어필-19>

<순원왕후언간>에서 중철 표기로 볼 수 있는 것은 앞의 (1, 2)의 경우이다. (1)은 해당 용례를 전부를 제시한 것이고, (2)는 그 일부를 제시한 것으로, (1)은 일반적인 중철 표기이고 (2)는 어중 유기음 표기에 해당하는 용례이다. 그런데 (1)의 것을 중철 표기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되엿시나’를 ‘되- + -엿(-엿-)- + -으나’이 결합된 것으로 풀이한다면 ‘ㅅ+ㅅ’을 보이는 중철 표기 용례로 설명되지만, ‘-시나’의 ‘시’를 개별 형태소로 처리하면 이때는 중철 표기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대국어의 ‘-엿-’을 고려하여, ‘-엿-’의 ‘ㅅ’이 후행의 초성에도 ‘ㅅ’이 쓰였으며, 이때 치찰음 아래에서의 전설모음화가 적용되어 ‘ㄴ’이 ‘ㄷ’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굿씨’는 된소리를 담당할 수계 합용 병서에서 ‘ㅅ’을 선행 형태소의 종성으로 옮겨 적은 것으로 유기음이 아닌 경음이므로, 굳이 분류한다면 중철 표기에 포함될 것이다.

72) 배영환 외(2015), 235쪽에서 연철 표기는 용언과 체언에 따라 표기 경향이 결정된다. 영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형에서는 대체로 연철 표기가 나타나지만, 종성 ‘ㄷ’과 ‘ㅅ’은 용언 어간과 어미 결합형에서만 아니라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에서도 연철 표기로 나타난다.

중성에 사용된 자음에 따라 연·분철 표기의 빈도와 비율이 달라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중성에 사용된 자음자 별로 연철 표기와 분철 표기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 ㄱ

‘ㄱ’은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 합성어 등의 형태소 경계에서도 분철 표기로만 나타나며, 활용형이나 파생어의 형태소 경계에서도 분철 표기가 대부분이지만, 몇몇 경우에 연철 표기로 나타나는 경우도 보인다. 활용형에서는 ‘적-’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연철 표기가 2회 나타나고 분철 표기는 3회 나타난다. 그러나 다른 활용형들은 오로지 분철 표기만 확인된다. 파생어인 ‘적- + -이’에서만 연철 표기가 4회 나타나지만, 이 경우에는 분철 표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지하듯이 한자어에서는 각 음절을 분리해서 표기하던 중세 국어의 표기법이 그래도 적용된다. 즉, 현대국어의 한자어 표기와 같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용언의 파생어 12회와 합성어 2회,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 170회 등을 포함하여 177회의 분철 표기가 확인되며, 연철 표기는 최대한 확장하여도 7회에 불과하다. 한자어를 제외하더라도 중성 말음 ‘ㄱ’은 연철 표기로 나타나는 비율이 3.8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철 표기가 나머지를 차지하는 대세임이 파악된다.

(3) 연·분철 표기

- 가. 저근<순원어필-25><순원봉서-27>, 저기<순원봉서개인-02><순원한글박-23>
<순원봉서-03><순원봉서-26>, 돛저기고<순원한글박-10>
- 나. 적어질디<순원한글박-08>, 적으니<순원봉서-17>, 적은<순원한글박-12>

• ㄴ

‘ㄴ’에서도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뿐만 아니라 합성어, 파생어 경계에서 분철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굳이 연철 표기되는 용례를 찾는다면 의존 명사 ‘이’가 연결된 음운론적 단어에서 ‘되느니로<순원봉서-33>’처럼 6회가 확인될 뿐이며, 파생어와 합성어와 함께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에서는 분철 표기가 349회가

확인된다. 단지, 활용형의 경우는 해당 용례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어느 표기법을 따를지는 알기 어렵다. 굳이, 의존 명사 ‘이’가 쓰인 경우를 연철 표기로 판단한다면, ‘ㄴ’의 연철 표기는 1.69%의 비율로 나타날 뿐이다.

(4) 연·분철 표기

가. 은근이<순원봉서-17>, 브즈런이<순원봉서-01>, 큰일을<순원봉서-09>

나. 되느니로<순원봉서-33>, 싸지니는<순원어필-02>, 똑똑하니가<순원봉서-01>, 조
조급급하니는<순원어필-01>

• ㄷ

‘ㄷ’은 종성 위치에서 음절말 평쇄음화의 적용과 달리, 즉 음가는 ‘ㄷ’이지만 표기를 ‘ㅌ’으로만 하고 있어, ‘ㄷ’의 분철 표기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ㅌ’으로 표기되지만, 중세국어에 대비하면 ‘ㄷ’에 대응되는 체언과 용언 어간에 해당된다.

체언에서는 ‘ㄷ’의 연철 표기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며, ‘ㅌ’의 분철 표기로 16회가 나타난다. 용언에서는 ‘ㄷ’의 연철 표기로 9회 나타나지만, ‘ㅌ’의 분철 표기로는 2회가 나타난다. 이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과 활용형에서 다른 양상이 주된 것임을 알 수 있다. ‘ㄷ’의 경우에는 파생어나 합성어의 경우를 찾을 수 없어, 이러한 문법 범주에서의 표기 형태에 대해 살펴보기 어렵다.

• ㄹ

‘ㄹ’은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 합성어, 파생어의 형태소 경계에서 분철 표기가 적용되고, 활용형에서는 ‘ㄹ 불규칙 용언’을 포함하여 연철 표기로만 나타나며, 분철 표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병’이나 접미사 ‘-오/우-’ 등과 관련된 용언에서는 형태소 내부(단어 내부)에서도 분철 표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전 시기의 표기 형태를 계승한 것이다.

중세국어의 ‘병’이나 접미사 ‘-오/우-’ 등과 관련된 용례로는 12회가 나타나며, ‘설움<순원봉서-12>, 널위게<순원어필-10>’ 등이 나타난다. 파생어나 합성어에서도 13회의 분철 표기로만 나타나며, 더욱이 분철 표기가 나타날 수 없는 곳에

서도 과도 분철이 2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과도 분철이 나타나는 것은 ‘ㄹ’과 ‘ㄱ’에서만 확인되지만, ‘ㄹ’과 달리 ‘ㄱ’에서는 한 어휘에서만 확인된다.

(4) 과도 분철

블위흐논<순원봉서-27>, 열연이<순원봉서-27>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에서는 오로지 분철 표기만 394회가 나타나지만, 용언의 활용형에서는 ‘ㄷ’ 불규칙 용언 포함하여 오로지 연철 표기만 136회가 나타나며 분철 표기는 한 개의 용례도 보이지 않는다.

• ㄹ

‘ㄹ’은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 용언의 활용형, 파생어 등에서 분철 표기로만 11회 나타나며, ‘ㄹ’의 ‘ㄱ’이 연철된 용례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ㄹ’의 경우에는 종성 위치에서 사용된 용례가 6회 나타나지만 모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된 경우이다.

• ㄱ

‘ㄱ’은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 합성어, 파생어 환경에서는 형태소 경계에서 분철 표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통일된다. 활용형 중에서는 1회의 연철 표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분철 표기로 나타난다. 단지, 명사형 어미 ‘-음’은 연철 표기로만 36회 나타나는데, 이러한 추세는 판본 문헌 자료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이 문헌 자료의 특징은 아니며, 명사형 어미의 특이성, 즉 명사 파생 접사에 의한 단어 형성과 명사형 어미에 의한 활용형의 형태가 동일해진다. 어느 경우에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여 분철 표기로 나타내고, 어느 경우에는 명사 파생 접사 등과 명확히 구분하여 활용형으로 구분하는 문법적 인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언간에서는 문법적 인식을 명확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음 어휘에서는 오로지 분철 표기가 나타나는데, 이는 과도 분철의 경우이다. 현대국어 ‘차마’는 중세국어의 ‘츄마’에 소급되는데, 이는 ‘츄+-아’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과도 분철

춤아<순원봉서-12><순원봉서-09><순원봉서-23>, 춤아춤아<순원봉서-12><순원봉서-12>

• ㅂ

‘ㅂ’은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 합성어, 파생어 등의 형태소 경계에서 66회의 분철 표기를 보이며, 연철 표기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활용형에서도 한 예를 제외하고 분철 표기가 4회 나타난다. 전체 개수로는 한 자릿수이지만 나타나는 경향은 분철 표기에 치우쳐 있음이 파악된다.

(6) 연·분철 표기

가. 뼈버<순원한글박-08>

나. 것집어<순원봉서-32>, 넘어시니<순원어필-01>, 잡아시니<순원봉서-32>, 잠을<순원어필-18>

• ㅅ

음절말 ‘ㅅ’은 중에서 ‘ㅅ’이 분철 표기된 용례는 모두 중세국어에서 ‘ㄷ’ 발음인 체언과 용언에 해당된다.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에서는 18회가 나타나며, 활용형에서는 ‘ㅅ’으로 표기된 용례가 2회 나타난다. 그런데 활용형에서도 연철 표기로 나타난 ‘ㄷ’이 9회가 나타나고 있어서 중세국어의 ‘ㄷ’이 무조건 분철 표기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중세국어에서 ‘ㅅ’ 발음인 체언과 용언은 모두 연철 표기로만 나타나고 있다. 이는 15세기 이후에 휴지나 자음 앞에서 ‘ㄷ’과 ‘ㅅ’의 평파열음화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그 기저형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인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원래 ‘ㅅ’인 것과 비교하면 간단히 파악되는데, 중세국어에서 ‘ㅅ’ 발음인 ‘ㅅ’의 연철 표기는 162회가 나타나며, 분철 표기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는 대부분 ‘것, 므엇’의 경우인데, ‘것’이 148회, ‘므엇’이 9회씩 나타난다. 다른 나머지는 활용형에서 보이는 연철 표기로 ‘버스니<순원어필-09>, 우섯넌<순원봉서-02>, 우슬<순원어필-11>, 우술<순원어필-21>, 뵈스니<순원한글박-10>’가 해당하는 전체

용례이다.

더불어, ‘ㅅ’의 중철 표기는, 즉 ‘ㅅ\$ㅅ’은 한 예만 보이는데, 이러한 것은 이 시기의 간본 문헌 자료에서 보이는 것과 매우 다른 경향을 보인 것이다. 왜냐하면 간본 문헌 자료에서는 중세국어의 ‘ㅅ’에 기원하는 ‘ㅅ’들이 대부분 중철 표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ㅈ

‘ㅈ’은 활용형에서는 연철 표기로 8회가 나타나며, 파생어에서 1회가 나타난다.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에서도 그러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 자료에서는 해당 용례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더불어, ‘ㅈ’의 중철 표기인 ‘ㅅ+ㅈ’도 가능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며, ‘ㅈ’의 분철 표기 ‘ㅅ+ㅇ’도 확인되지 않는다.

파생어에서의 용례는 ‘아버지’로 중세국어에서는 ‘이받- + -이’로 분석된 것이다. 현대국어의 명사 ‘아버지’와 동일한 어휘로, 중세국어로 본다면 형태소 경계에 따라서 연음화와 구개음화가 발생한 용례가 된다. 중세국어를 기준으로 하여 연철 표기의 용례로 분류하지만, 이 시기에 ‘아버지’로 어휘화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연·분철 표기와는 무관한 용례가 될 것이다.

(6) 구개음화 적용

아버지 드리고 <순원봉서-05>

‘ㅎ’은 연철 표기로만 나타나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으며, ‘ㅈ, ㅋ, ㅌ, ㅍ’의 유기음은 개별 절에서 따로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연철 표기에 관련된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각 <표-14>, <표-15>는 연철 표기와 분철 표기를 나타내는 용례를 중성에 사용된 자음자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품사	받침	고유어
체언	ㅅ	거시(13), 거시나(6), 거시니(15), 거시라(6), 거손(12), 거술(2), 거시오(3), 뜨어스로, 뜨어시라(8), 이거시(3)
용언	ㄱ	저기(4), 저근(2)
	ㄷ	허락 바다(3), 분바다, 바드실(2), 어더(3)
	ㄹ	기러, ㄱ라(2), 느리(4), 느리셔, 드러스오며(2), 드러시디, 드러도(4), 드러시나, 드러, 드렸거니와, 드렸느냐(2), 드렸다, 드러니(11), 드러시디, 드러신, 드러실(2), 드러나, 드러시고(3), 드러면, 드러시게(3), 드러신가(2), 드러시디, 드러시고(5), 드러신, 드러 것, 드러, 드러(2), 드러(2), 드러시면, 드러시니(3), 드러가던, 드러야, 드러보내소(5), 드러라(4), 드러가니(2), 드러가스(2), 드러가고, 드러가스올, 드러가고, 드러와(3), 드러오셔(2), 드러오소(3), 드러와(6), 드러오니, 드러오디, 드러오면(2), 드러와셔, 드러와, 드러며, 드러니(8), 드러실, 드러시니만, 드러시논, 드러시게, 드러가(2), 드러 거시(2), 드러디, 드러나면, 도라간(5), 더브러, 마르시고(8), 마르실디(3), 마르쇼셔, 머(3), 머보소(4), 머(3), 머면, 머시게(2), 머와, 머시면, 머와, 머고, 머 길, 머셔, 샷다가, 아르실, 아르시고(2), 아라시리, 아라드르시기도, 어지러(2), 어지리, 저머(2), 주러져시나(5), 폰라(2), 폰라먹은
	ㅁ	너머; 나쁜, 다르미(2), 브라미(2), 아니미(3), 아르미, 아니쁜
	ㅅ	이시나(4), 업스니(5), 업스나, 업스며, 우슬, 브절업슬(5), 드러시니(6), 드러시려니
	ㅈ	가즈니(3), 니즈니(2), 니즐가, 느껴(2), 저즌(2)
	ㅎ	나흐면, 너허(3), 너헛니, 노하, 노호와, 노호온(2), 노호시며, 노호디(7), 똬흔(12) 등

<표-14> 연철 표기의 예

구분	표기 방법	분석	고유어
ㄱ	분철	체언+조사	넉을, 부탁이, 속으로, 속은, 속의, 생각이
		용언	덕어, 덕으니, 덕으며, 덕으리, 덕으니, 덕을고, 덕을, 먹은가, 먹으면, 먹으니, 먹으려니와, 먹은 것, 먹은가, 먹어시나, 먹어도, 먹었니, 먹었더니, 먹을가, 먹을, 먹을넌디, 먹어, 먹어시니, 먹었논디, 먹엄죽든, 먹었더니, 먹이다, 적어질디, 적으니, 적은

ㄹ	분철	체언	겹질을, 글을, 길에, 길은, 길이, 길이야, 글이나, 날이, 날이나, 날은, 날을, 남들이, 너희들이, 둘 길이, 술에, 디스들이, 디스들이라도, 너희들이, 말은, 말이, 믿음, 믿음은, 모골이, 스알이, 스알의게로, 어제날의, 열이, 오늘에, 오늘날을, 오늘은, 오늘이, 즈너들이, 짐들의서, 정결이, 줄은, 줄을, 줄이, 찬물이, 탈은, 탁실이, 틀이, 풀은, 하늘은, 하늘이, 하늘의, 하늘이니, 오늘이야
		용언	일우니, 일위여
ㅁ	분철	체언	ㅁ음이, ㅁ음으로, 밤의, 사름이, 사름의, 사름마다, 사름이라, 사름이니, 사름은, 사름의게, 사름을, 처음으로, 처음이니
		용언	검은, 남아시니, 남으라, 남으라기, 넘어시니, 넘어, 넘으나, 넘은
ㅂ	분철	체언	겹은, 곱이, 고집이, 집이, 집이라도
		용언	넘어시니
ㅋ ⁷³⁾	분철	체언	
		용언	ㄱ득혀나, 구득혀고, ㄱ득혀, 거복혀다, 낙막홀가, 눅눅혀여도, 브떡혀니, 브떡혀디, 보득보득혀고, 싱각혀여, 싱각혀여도, 싱각혀소, 싱각혀니, 싱각혀엿는가, 싱각혀면, 어득혀, 지켜도 ⁷⁴⁾
ㄴ	분철	체언	눈의, 은근이
ㅌ	분철	용언	긱터, 긱터, 긱티야, ㄴ티, ㄴ티시니

<표-15> 분철 표기의 예

1.3. 어중 유기음 표기

어중 유기음이란 모음과 모음 사이에 유기음이 놓일 때 이 유기음의 표기 방식을 말한다. 특히 유기음을 종성으로 갖는 체언이나 용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이때의 유기음을 표기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표기는 중세국어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늦빛츨(속삼孝:3a), ‘쏟테

73) 고유어 사피동파생어 ‘ㄱ + -히-’는 ‘ㄱ+ㅎ’형 유지. => ‘ㄱ’받침에서 논의.

74) ‘딛혀 -> 딛희/히-’을 거쳐 오늘날 ‘지키-’의 한 예가 나타난다. 어휘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몽산:10b), ‘갑푼디니(월석23:98a)’ 등이나 ‘딤흔(飜老上:12a)’ 등과 같은 용례가 확인된다.⁷⁵⁾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이러한 표기 방식이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보통 근대국어로 올수록 이러한 격음의 표기 형태가 점차 늘어나는 표기의 확대가 나타나며, 결국에는 이러한 표기 방식이 일반적인 표기 방식이 된다.

근대국어의 어중 유기음의 표기 방식을 검토해 보면,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⁷⁶⁾ 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체인	용언
1유형	겨티, 쓰티, 나치, 비체	을피, 지피
2유형	겻티, 쫓티, 낫치, 빗체	읍피, 집피
3유형	겻희, 쫓희, 낫히, 빗헤	읍허, 집허

<표-16> 근대국어 어중 유기음의 표기 유형

위의 <표-16>에서와 같이 근대국어의 어중 유기음은 대체로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제1유형은 이른바 연결 표기로 ‘겨티’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처럼 이음절 이하의 초성에 나타나는 유기음을 해당 문자(츠, ㅋ, ㅌ, ㅍ) 그대로 표기하는 방법은 중세국어의 음소적 표기법을 계승한 것으로, 중세국어에 일반적인 표기의 모습이다. 제2유형은 ‘겻티’와 같이 선행 발음을 대표음 ‘ㅅ’으로 표기하고 후행 음절의 초성을 실제로 발음되는 그대로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선행 음절의 받침에 동일 계열의 평자음자를 하나 덧붙인 형태(ㅅ(ㄷ)+츠, ㄱ+ㅋ, ㄷ(ㅅ)+ㅌ, ㅂ+ㅍ)로 표기하는 경우이다. 제3유형은 동일 계열의 평자음자와 ‘ㅎ’이 연결된 형태(ㅅ+ㅎ, ㄱ+ㅎ, ㅅ+ㅎ, ㅂ+ㅎ)로 나타나는 표기 형태인데, 유기음의 계열의 자음을 선행하는 발음과 후행하는 ‘ㅎ’의 합성으로 인식하는 데에 연유한 것으로, 이른바 재음소적 표기라 불린다.⁷⁷⁾

75) 신성철(2008), 「격음의 이중 표기와 음성적 특징」, 『국어문학』, 국어문학회, 25쪽.

76) 광충구(1980), 「18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43, 국어연구회, 15~16쪽.

77) 제3유형은 <한청문감>이나 <청어노걸대>와 같이 사역원에서 간행된 역학서에 자주 나타난다고 한다.(광충구(1980), 앞의 논문, 16쪽.)

중세국어에서는 어중의 유기음의 대부분이 유기음 문자 그대로 표기되는 것이 라면, 근대국어 시기에 와서는 유기음이 두 개의 자음자로 나뉘어 표기되는 제2 유형과 제3유형이 점차 많아진다. 제2유형은 17세기에, 제3유형은 18세기 후기에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중의 유기음이 표기되는 형태가 3가지이므로, 음운과 표기의 대응 관계가 1대 3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개념 속에서, 즉 이들 표기는 음운적으로 이형태로 나타난 표기형일 뿐 모두 하나의 음운에 대응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중의 유기음 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 중엽의 <순원왕후언간>도 근대국어 후기 자료이므로, 어중의 유기음 관련 표기 양상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을 각각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각 자음자별로 하나씩 살펴보자.

● ㅈ

‘ㅈ’은 제1유형과 제2유형은 나타나지만 제3유형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제2유형은 주로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과 용언 어간과 어미의 활용형에서 나타나지만, 파생어의 경계에서도 그러한 용례가 나타난다. 그러나 형태소 내부이거나 한자어에서는 제2유형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정제된 표기 경향을 보인다.

선행 형태소 말음의 ‘ㅈ’을 ‘ㅈ+ㅈ’으로 표기한 경우는 파생어, 활용형,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에서 나타나며, ‘ㅈ’이 제1유형으로 표기된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중세국어에서는 ‘ㅈ’에 소급되는 형태가 ‘ㅈ+ㅈ’의 표기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오로지 구개음화 환경에서만 나타나며, 이 경우에도 파생어, 활용형,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의 형태소 경계에서만 제2유형으로 나타난다. ‘비치-’가 ‘빗치-’로 나타나는 용례가 있는데, 중세국어의 ‘비취-’에 소급되므로 형태소 내부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세국어의 ‘그릇-’, ‘밧-’ ‘긷-’에 소급하는 어휘들이 ‘ㅈ+ㅈ’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빗치’는 이에 유추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형태소 내부의 것이 아니라 ‘빗-’으로 인식한 것, 즉 오분석이 적용된 것이다.

형태소 경계의 ‘ㅈ’, 즉 앞의 형태소의 말음인 ‘ㅈ’을 ‘ㅈ+ㅈ’으로 나타낸 용례는 총 20회이며, 오로지 구개음화 환경에서만 나타난 ‘ㅈ’의 ‘ㅈ+ㅈ’은 8회이다. ‘ㅈ’의 연철 표기, 즉 제1유형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지만, 한자어나 형태소 내부, 그

리고 후행 형태소 초성에 ‘ㅈ’이 놓여 어중의 ‘ㅈ’으로 표기된 경우는 68회에 해당된다. 그 약간의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어중 ‘ㅈ’의 표기 양상

- 가. 것즌<순원봉서-25>, 꺾출<순원어필-20>, 꺾치<순원봉서-11>, 관작붓치<순원봉서-31>
- 나. 갓초다<순원한글박-27>, 꺾치고<순원석주선-01>, 붓쳐<순원한글박-12>, 붓쳐시니<순원한글박-12>, 붓치니<순원한글박-08>, 붓치랴<순원봉서-24>, 붓치디<순원한글박-12>, 붓치시고<순원어필-09>, 빗치논<순원봉서-17>, 낫치<순원봉서-25>, 담빗치<단국석주선-01>, 맛출<순원어필-22>, 밋쳐<순원봉서-15>, 밋차<순원봉서-30>, 꺾치고<단국석주선-01>, 빗치<단국석주선-01>
- 다. 거취를<순원어필-18>, 구차티<순원어필-02>, 괴출이니<순원어필-25>, 휘척혀려논<순원어필-19>
- 라. 거치논<순원봉서-15>, 디나치니<순원한글박-21>, ㄹ러쳐<순원어필-02>, 보채여시니<순원어필-09>

(1)은 어중 ‘ㅈ’이 표기된 각 유형의 일부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1가)에서 ‘것즌’, ‘꺾치’, ‘붓치’ 등은 주로 체언에서 확인되는 어중 ‘ㅈ’의 양상인데,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에서 ‘ㅈ+ㅈ’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때 ‘ㅈ+ㅈ’이 나타는 것은 ‘ㅈ’ 또는 ‘ㅈ’이 후행 형태소의 초성에 놓인 것이 아니라 선행 형태소의 말음에 있을 때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것즌’은 ‘겻+은’으로 분석되는데, 이때의 ‘겻’은 중세국어에서도 그대로 ‘겻’이었으며, 현대국어 ‘겻’으로 계승된다. 또한 ‘꺾치’의 경우는 ‘꺾+이’로 분석되는데 구개음화가 반영되어 ‘쓰치’와 같이 표기되어야 하지만 제2유형인 ‘ㅈ+ㅈ’으로 표기한 것이다. ‘붓치’의 경우, 역시 ‘브티’나 ‘브치’⁷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구개음화가 적용된 상태에서 ‘ㅈ+ㅈ’으로 표기된 것이다. (1나)는 용언에서의 어중 ‘ㅈ’의 예이다. ‘갓초다’나 ‘꺾치고’, ‘붓치니’ 등에서 ‘갓초-’나 ‘꺾치’, ‘붓치-’와 같이 역시 ‘ㅈ+ㅈ’의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들은 파생어, 활용형 환경,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에서 거의 ‘ㅈ+

78) 이때의 ‘붓치’는 현대국어의 ‘-붙이’이다. ‘같은 거래’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일부 명사 뒤에 붙는 것을 볼 수 있다.

ㅈ'이 일반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다만, 한자어의 경우는 형태소 경계가 놓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각각의 개별 한자음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표기하였다. 즉, '거취'의 경우, '것취'와 같은 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거치눈'과 같이 동사의 형태소 내부 환경에서는 'ㅈ+ㅈ'과 같은 제2유형의 표기는 나타나지 않으며, '빗치-'와 같은 경우에는 'ㅈ'이 선행 음절의 종성에 놓인 것으로 비슷한 환경의 다른 어휘에 유추된 표기이다.

• ㅋ

'ㅋ'의 표기 유형을 살펴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중세국어에서 종성에 'ㅋ'을 가진 어휘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종성 'ㅋ'을 가진 어휘들이 존재하는데, 이 어휘들은 빠르면 16세기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순원왕후언간>에서는 그러한 어휘의 사용이 확인되지 않아, 'ㅋ'의 표기 유형을 살피기가 쉽지 않다.

물론 현대국어에서 유기음화를 겪어 'ㅋ'에 대응되는 것처럼 'ㅎ+ㄱ', 'ㄱ+ㅎ'의 표기 유형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이 이전 시기의 'ㅋ'에 직접 소급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형태소 내부에 'ㅋ'이 나타난, '지켜도<순원봉서-31>'가 유일하게 보이지만, 이는 중세국어의 '딛ㅎ -> 딛희/희-'을 거쳐 '지키-'로 바뀐 용례이다. 최소한 이 시기에는 어휘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ㄱ' 발음을 가진 형태소에 접사 '-ㅎ다, -히'가 결합한 경우에는 'ㄱ+ㅎ'형 유지하며, 'ㅋ'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고유어의 사동·피동 파생어 'ㄱ + -히-'에서도 'ㄱ+ㅎ'형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ㅎ- + -기, 게, 고' 등의 축약형은 'ㅋ'형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중세국어의 표기 경향을 그대로 따른 것이며, 특히 이때 'ㄱ+ㅎ'으로 표기된 경우는 보지 않는다. 'ㅎ' 발음 어간에 '-기, 게, 고' 등이 결합한 경우에는 'ㅋ'형으로만 나타나며, 'ㄱ+ㅎ'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한자어에서는 각 음을 분리해서 표기하려는 경향, 즉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ㅎ 발음 어간'을 제외하면 'ㄱ 발음'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즉 형태소가 고정되는 경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용례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어중 ‘ㄱ’의 표기 양상

가. 감스가 지켜도<순원봉서-03>

나. 너코<순원한글박-10>, 노켓노라<순원봉서-08>, 도켓다<순원어필 19>, 아니커든<순원어필-04>, 니코져<순원어필-20>, 노히코져<순원어필-11>

다. 싱각햏여<순원봉서-17, 25>, 망극햏미<순원건국-01>, 용축햏오며<순원봉서-24>, 망극햏<순원봉서-25>, 죽햏<순원봉서-08>, 박햏<순원봉서-24>, 식햏라<순원한글박-04>, 죽햏다<순원어필-19>

라. 극햏의<순원봉서-04>, 작햏네햏신다<순원봉서-27>

위의 예처럼 어중 ‘ㄱ’의 경우에는 제2유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2가)에서처럼 ‘지켜도’나 (2나) 등의 경우에 ‘ㄱ’이 표기된다. 그러나 이 ‘지키-’는 중세국어에서는 ‘딕희-’나 ‘딕히-’ 등으로 나타난 것인데, 유기음화를 겪어 ‘지키-’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세국어의 ‘딕희-’를 감안하면 ‘직희-’와 같은 표기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종의 연철 형태로 나타났다. 또, ‘너코’의 경우도 특이한 예이다. ‘너코’는 ‘녕- + -고’의 결합형으로 볼 수 있는데, 유기음화를 반영한 표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넛코’ 또는 ‘넉코’ 등으로 나타나지 않고 ‘너코’와 같이 연철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유기음화의 환경이라도 ‘한자어 + 햏-’의 결합에서는 유기음화를 반영하여 표기하지 않았다. 가령, ‘싱각 + 햏-’이 결합이 ‘싱각햏-’로만 나타나고 ‘싱가카-’ 등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한자어의 경우 어원 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ㅌ

주로 선행 형태소의 종성에 놓인 ‘ㅌ’을 ‘ㅅ+ㅌ’의 제2유형으로 표기한 용례만 나타나며, 일부 형태소 내부에서도 보이지만, 대부분은 형태소 경계, 파생어 등과 같은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난다. 제3유형은 해당 환경에서 유일하게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용례에서 하나 보인다. ‘귀밧히셔<순원한글박-09>’인데,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용례가 이 하나뿐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으나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과 용언의 활용형에서 양상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형태소 내부에서 보인 제2형의 ‘ㅅ+ㅌ’은 유추에 따른 오분석의 결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기음화가 적용된 용례에서의 제2유형이 나타나 용례로는 ‘놋티’가 유일한데, 이들은 ‘놓- + -디 > 노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용례가 더 보이지 않아서 단정하기 쉽지 않으나 형태소 경계에서, 그리고 선행 형태소의 종성 위치에 자음자를 인식하여 ‘ㅅ’을 내려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도티’ 등에서는 그러한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빈도가 잦은 데에도 제2유형이 보이지 않는다. 잠정적으로, ‘놋티’는 한 번이라는 출현 빈도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지 않을까 판단해 본다.

구개음화 환경에서 과도교정(ㅈ>ㅌ)된 용례에서도 제2유형의 ‘ㅅ+ㅌ’으로 표기된 용례가 2회 나타나며, 이 외에는 제2유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보이지 않으며, 제3유형, ‘ㅅ+ㅎ’으로 나타난 경우도 없다. 단지, ‘-ㅎ다’의 파생어에서 ‘ㅅ+ㅎ’이 보일 뿐이다. ‘붙- + -어’의 활용형이 ‘조사’로 바뀐 경우에서도 제2유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문법화’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ㅎ 말음 체언’에 보조사 ‘도’가 연결되거나 ‘ㅎ 말음 용언’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다, -디 등’이 연결된 경우에도 제2유형은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ㅎ- + -디, -다’ 등의 축약형에서도 그러하다.

(3) 어중 ‘ㅌ’의 표기 양상

- 가. 꺾ㅌ신<순원어필-09>, 꺾ㅌ<순원봉서-19, 32>, 꺾ㅌ<순원어필-18>, 꺾ㅌ야<순원어필-01>
- 나. 놋ㅌ<순원어필-20>, ㅎ나ㅌ<순원봉서-01>, 도ㅌ<순원어필-24>
- 다. 꺾ㅌ<순원봉서-12>, 꺾ㅌ니<순원봉서-12>
- 라. 씨꺾ㅌ혀<순원봉서-18>, ㄷㅌ<순원봉서-19>, 그꺾ㅌㅎ니<순원어필-18>, 못ㅌ엿니<순원어필-09>, 못ㅌ<순원석주선-03>, ㅍㅌ<순원어필-09>
- 마. 귀ㅌ히서<순원한글박-09>

어중의 ‘ㅌ’의 경우는 어중 유기음 표기의 제2유형의 양상이 두드러진다. ‘꺾ㅌ’나 ‘꺾ㅌ’, ‘꺾ㅌ’, ‘꺾ㅌ’ 등에서 이러한 유형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3다)의 ‘꺾ㅌ’와 ‘꺾ㅌ니’는 ‘그치-’에서 구개음화가 과도교정된 용례이다. 중세국어의 ‘꺾-’에

소급되는 것으로, 이 시기에는 현대국어와 같은 ‘그치-’의 형태로 어휘화가 진행된 상태이다.

• ㅍ

‘ㅍ’의 어중 유기음 표기는 ‘ㅈ, ㅋ, ㅌ’에 비하여 새로운 양상이 짙게 나타난다. ‘ㅌ’에 제3유형이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에서 유일하게 나타난다면, ‘ㅍ’에서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뿐만 아니라 용언 어간의 활용형에서도 제3유형이 나타난다. 이 두 환경에서 제1유형이나 제2유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 ‘ㅍ’으로 표기되었던, 용언 어간과 파생 접사 환경에서는 이들의 형태를 각각 분리하여 ‘ㅂ+ㅎ’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제3유형이라 보기보다는 형태소를 각각 밝혀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접사 ‘-하다, -히’ 등이 연결된 파생어에서는 제3유형만 나타나며, ‘한자어’나 ‘고유어’ 모두 일정하게 분리 표기된다. 당연히 한자어에서도 각 형태를 밝혀 적고 있으며, 고유어의 형태소 내부에서도 제2유형이나 제3유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유어 형태소인 ‘베플-’의 경우에는 제2유형, 제3유형이 아닌 제1유형만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어중 유기음 표기의 제2유형과 제3유형은 주지하듯이 선행 형태소의 어간에 ‘ㅈ, ㅋ, ㅌ, ㅍ’과 같은 유기음이 올 때, 연철 표기와 분철 표기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 언간 자료에서도 그러한 전개 양상이 너무나도 정연하게 잘 지켜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ㅍ’의 어중 유기음 표기에 해당하는 용례를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어중 ‘ㅍ’의 표기 양상

- 가. 겁흘<순원한글박-07>, 녀흐로<순원어필-08>, 압흔<순원어필-02>, 압히셔<순원봉서-27>, 압히<순원건국-01>
- 나. 김히<순원어필-11>, 놉흔<순원봉서-15>, 놉흘스록<순원봉서-15>
- 다. 휘잡히논<순원봉서개인-03>, 덩히여<순원한글박-12>
- 라. 갑갑히<순원봉서-01>, 급히<순원봉서-11>, 답답히여<순원봉서-27>, 섭섭히오이<순원봉서-23>, 슈흡흔가<순원어필-15>

(4)는 어중 ‘ㅍ’의 표기 양상이다. 어중 ‘ㅍ’의 경우에는 이른바 재음소화 표기가 두드러진다. ‘겹홀, 녀흐로, 압흔’에서와 같이 체언의 형태소 내부나 형태소 경계에서 ‘ㅂ+ㅎ’이 주를 이룬다. 또, ‘눙흔’과 같이 활용형에서도 재음소화 표기가 확인된다. 또한 ‘깁히’와 같이 파생어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잘 나타난다. 아울러, ‘휘잡히-’이나 ‘덥히-’와 같은 사·피동 파생어 환경과 ‘갑잡히’와 같이 접사 ‘-하다’의 결합형에서도 어간의 말음 ‘ㅂ’은 독립적으로 표기된다.

이 언간에 나타난 어중 유기음의 표기는 문법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각 어중 유기음에 따라, 즉 ‘ㅈ, ㅋ, ㅌ, ㅍ’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2. 음운론적 특징

2.1. ‘.’의 변화

근대국어에서 모음 체계가 큰 변화를 겪게 된 것은 18세기 후기에 들어서이다. 모음 ‘.’는 앞서 16세기에 제 1단계의 소실(=비어두 음절에서의 소실)을 경험했는데, 18세기 중엽에 와서 제2단계의 소실(=어두 음절에서의 소실)이 일어남으로써 비음운화가 완료된 것으로 설명된다.⁷⁹⁾ ‘.’가 비음운화되었다고 추정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기 변화가 바로 ‘·>ㅏ’ 변화를 반영한 표기와 ‘·>ㅑ’ 변화와 반대로 ‘ㅑ’가 ‘.’로 나타난 표기이다.

국어사 문헌 자료를 검토한 연구 결과를 보면 어두 음절에서 ‘·>ㅏ’의 변화는 18세기 중엽 이후부터 현저하게 나타나며, 본래의 ‘ㅑ’를 ‘.’로 나타내는 표기도 18세기 중엽에 확인이 되어, ‘.’의 비음운화 시기를 18세기 중엽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1세기가 경과한 19세기 중엽의 <순원왕후언간>에서

79) 이기문(1972), 앞의 책, 200쪽.

는 이러한 변화가 더 현저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결론을 미리 제시하자면, 그 빈도와 비율이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는 그대로 단모음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ㅣ’와 연결되어 이중 모음 ‘ㅣ’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이 둘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단모음으로 사용된 어두 음절의 ‘·’ 관련 용례는 전체 2,811회가 나타난다. 어두 음절에서 ‘ㅏ’가 사용된 용례는 1,664회이며, 이중에서 ‘· > ㅏ’를 보이는 용례는 15회로 분석된다. ‘· > ㅏ’의 변화가 나타나는 비율은 채 1%도 나타나지 않는 0.90%에 해당된다. 또한 어두 음절에서 ‘·’가 사용된 용례는 1,147회이며, 이중에서 ‘ㅏ > ·’인 예는 53회로, ‘·’의 비음운화를 보이는 ‘· > ㅏ’의 0.90%보다 5배 높게 나타나는 4.62%의 비율을 보인다.

주지하듯이, 기존 연구에서 주로 18세기 중엽에 완성된 것으로 논의되는 ‘·’ 비음운화가 과연 18세기에 완성되었던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 1단계 변화인 비어두 음절에서 ‘· > ㅡ’가 16세기에 있었다는 일반적인 논의가 왕실 관련 문헌 자료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경향이 확인되는데, 언어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음운 변화가 일반적인 음운사 논의와 달리 진행되었기 때문이다.⁸⁰⁾ 즉, 왕실 관련 자료에서는 기존의 음운 변화와 달리 진행된 것으로, 그 진행 속도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순원왕후언간>도 왕실 관련 문헌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적은 빈도와 비율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어두 음절의 ‘· > ㅏ’가 0.90%이며, ‘ㅏ > ·’의 변화가 4.65%가 나타나므로, 19세기 중엽 문헌임에도 ‘·’의 2단계 변화는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 ㅏ’의 변화와는 반대로 나타나는 ‘ㅏ > ·’의 변화는 일종의 과도교정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 > ㅏ’의 음운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로 판단된다. 단지, ‘ㅏ > ·’의 용례보다 ‘· > ㅏ’의 용례가 빈도와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음운 변화의 초기 단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구개음화의 초기 단계에서도 과도교정의 비율이 높은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⁸¹⁾

이 언간에 나타나는 ‘·’의 변화와 관련된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0) 김주필(2004), 「18세기 중·후기 왕실 자료의 ‘·’ 변화」, 『어문연구』 1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63~64쪽.

81) 배영환(2017), 「음운 변화에 대한 과도교정의 양상 고찰」, 『한국언어문학』 100, 한국언어학회, 35~66쪽.

(1) 어두 음절 ‘·’ 관련 표기

- 가. 갓초<순원한글박-27>, 남의<순원어필 - 04>, 남 덩디<순원한글박-09>, 남들이<순원어필-02>, 남을<순원봉서-27>, 남이라도<순원어필-17><순원어필-10>, 남이에서<순원봉서-25>, 남이<순원봉서-33>, 남 기이고져<순원봉서-33>, 사패를<순원어필-13>, 타셔<순원봉서개인-03>, 타기를<순원어필-10>, 하니<순원한글박-18>, 한동안<순원한글박-04>
- 나. ㄱ르쳐<순원어필-23>, ㄱ골홀<순원어필-15>, ㄱ더면<순원어필-19>, ㄱ초<순원봉서-01>, ㄱ툰<순원봉서-29>, ㄴ리시니<순원봉서-12>, ㄴ치다가<순원어필-01>, ㄴ의<순원어필-02>, ㄴ의게<순원어필-17>, ㄴ치<순원봉서-25>, ㄴ포<순원봉서-30>, ㄴ히니<순원봉서-04>, ㄴ음을<순원한글박-23>, ㄴ라논<순원어필-10>, ㄴ라고<순원봉서-25>, ㄴ람도<순원한글박-22>, ㄴ고<순원봉서-02>, ㄴ이<순원어필-20>, ㄴ으시믄<순원봉서-27>, ㄴ연<순원한글박-03>, ㄴ세논<순원봉서-19>, ㄴ고<순원봉서-27>, ㄴ츠<순원봉서-27>, ㄴ디<순원봉서-13>, ㄴ며<순원봉서-15>, ㄴ라먹은<순원어필-17>, ㄴ라<순원어필-17>, ㄴ은<순원한글박-12>, ㅎ엿논고<순원봉서-01>, ㅅ라든니시라<순원어필-11>, ㅅㅎ여<순원어필-24>, ㅅ이 아모리<순원어필-17>, ㅅ미<순원한글박-09> 등
- 다. ㄱ디로<순원어필-22>, ㄴ히면<순원한글박-07>, ㄴ니논<순원어필-19>, ㄴ히<순원한글박-22, 3회>, ㄴ나<순원한글박-08>, ㄴ녀<순원어필-04>, ㄴ니도 <순원봉서-32, 5회>, ㄴ니<순원봉서-25, 17회>, ㄴ니가<순원봉서-07, 4회>, ㄴ니만<순원봉서-04>, ㄴ니들이<순원어필-17>, ㄴ니를<순원봉서-25, 4회>, ㄴ니들<순원어필-17>, ㄴ년들<순원어필-04>, ㄴ리논<순원한글박-15>, ㅈ 덕<순원한글박-21, 9회>
- 라. ㄱ지도<순원봉서-23>, ㄴ히고<순원봉서개인-03>, ㄴ나<순원봉서-19>, ㄴ히<순원어필-10, 3회> 등

(1가)는 어두 음절에서 ‘· > ㅏ’인 용례이다. 그런데 ‘· > ㅏ’는 적용된 어휘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갓초’와 ‘남’은 (1나)에서 보듯이 ‘ㄱ초’<순원봉서-01>와 ‘ㄴ의’<순원어필-02>처럼 ‘·’를 그대로 유지한 표기도 나타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남’이 쓰인 용례가 9회 검색 되는데, ‘ㄴ’으로 나타난 경우는 6회로 어느 쪽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즉 어휘별로 ‘·>ㅏ’가 적용된 것으로 보기로 어려우며, 초성의 자음이 ‘ㄱ, ㄴ, ㄷ, ㄹ, ㅎ’ 등으로 어떤 자연 부류로 묶을 수는 없는 그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초기 단계를 그대로 보인 것이다.

다만 (1다)에서 보듯이 ‘ㅏ>·’에서도 초성의 자음이 ‘ㄱ, ㄷ, ㅁ, ㅂ, ㅅ, ㅈ’ 등으로 자연 부류로 묶어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같지만, ‘ㅈ’에 해당하는 ‘즈니(자니)’와 ‘즈(暫)’의 경우에는 ‘ㅏ’를 유지한 용례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발견된 모든 용례는 ‘ㅏ>·’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다. 그러나 (1라)에 제시된, ‘ㄱ디, 들히면’ 등에서 보듯이 다른 자음들은 이러한 변화를 겪지 않은 용례도 함께 나타나,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사용된 이중 모음 관련 용례는 462회가 검색된다. 어두 음절에서 ‘·’가 나타난 경우는 206회이며, 어두 음절에서 ‘·’인 용례는 1회가 확인된다. ‘·>ㅏ’의 변화는 0.48%에 불과하다. 또한 어두 음절에 ‘ㅏ’가 나타난 용례는 256회가 검색되는데, 3.13%의 비율을 차지한다. ‘·’ 관련 변화의 빈도나 비율보다도 더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경향은 동일하다. 즉 과도교정을 볼 수 있는 변화가 더 많이 나타나며, 그 배수가 약 6배 정도 차이가 난다. 즉 이중 모음에서 나타난 ‘·’ 관련 변화에서도 ‘·’ 관련 용례처럼 ‘·’의 2단계 변화가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굳이 판단한다면 음운 변화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어두 음절 ‘·’ 관련 표기

- 가. 호고져 호시는 대로 호고<순원봉서-27, 1847년, 순원왕후(재종 누이)→김홍근(재종 동생)>
- 나. 기벽을<순원봉서-25>, 너러시디<순원어필-11>, 너년으로<순원어필-12>, 너외로<순원어필-22>, 비홀 디<순원봉서-10, 2회>, 디로<순원봉서-02>, 디답을<순원봉서-02>, 미양<순원봉서-15>, 빅성<순원어필-21>, 싱각이<순원봉서-12>, 직작<순원한글박-11>, 칩망홀<순원봉서-12>, 히포<순원봉서-24>, 씨긋디<순원한글박-23> 등
- 다. 니가<순원한글박-04>, 디설이<순원한글박-05>, 디스가<순원봉서-15>, 디형도 의셔<순원어필-1>, 히는<순원한글박-28>, 씨씨<순원한글박-09>, 씨도<순원한글박-09>, 찌지<순원한글박-04>
- 라. 내가<순원봉서-01>, 대던의셔<순원어필-10>, 대형왕이<순원봉서-12>, 새로오라

<순원봉서-06>, 태평호고<순원봉서-23>, 태평을<순원어필-10>, 패연호나<순원봉서개인-03>, 패호여<순원어필-01>, 패악훈<순원어필-04>, 해가<순원봉서-27>, 해롭든<순원한글박-08>, 해논<순원봉서-04>, 째 봉서<순원봉서-15>, 째가<순원봉서-21>, 째라<순원어필-25>, 째나<순원한글박-11>, 째니<순원봉서-08>, 째논<순원봉서-04>, 째도<순원봉서-02>, 째기 다<순원봉서-27>, 째째<순원한글박-11>, 썰스룩<순원어필-18>

(2가)는 ‘·i>ㅁ’는 딱 한 용례가 보인다. (2나)에서 보듯이 ‘디로’가 나타나고 있는데, 빈도로 보아도 (2나)가 대세임을 알 수 있다. (2나)의 용례로 제시된 ‘니려시디’<순원어필-11>는 중세국어 ‘느리-(降)’에 소급되는데, 두 번째 음절의 ‘i’의 영향을 받아 어두 음절이 ‘느>니’의 변화, 즉 음라우트 현상을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언간에서는 최소한 ‘내’나 ‘니’가 이중 모음으로 실현되기 보다 단모음 [e]로 실현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3다)는 ‘ㅁ>·i’ 변화가 나타난 용례이며, (3라)는 ‘ㅁ’가 표기에 그대로 유지된 경우이다. 특히, (3라)에 제시된 용례를 보면 (3다)와 동일한 어휘들을 볼 수 있다. 각 어휘별 비중을 검토하더라도 (3다)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소수에 해당하는 용례를 보일 뿐이다. (3다)의 ‘째’는 ‘ㅁ>·i’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3회가 확인되지만, ‘ㅁ’를 그대로 유지한 용례는 38회나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가 현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두 음절의 ‘·’나 ‘i’ 관련 용례를 보면, 어두 음절의 ‘·>ㅁ’ 변화가 일반적으로 18세기 중엽에 완료되었다고는 하지만,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 변화가 초기 단계에 놓였을 가능성이 확인된다. <순원왕후언간>은 왕실 관련 자료로서 국어사의 일반적인 문헌 자료와는 사회적 계층을 달리하는데, 이러한 특징이 ‘·’의 비음운화 과정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2.2. ‘ㄹ’ 비음화와 유음화

‘ㄹ’ 비음화는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 ‘ㄹ’이 올 때 ‘ㄹ’이 ‘ㄴ’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⁸²⁾ ‘ㄹ’의 비음화로도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는 ‘ㄹ’ 자음이 앞에 올 때도 후행의 ‘ㄹ’이 ‘ㄴ’으로 바뀌는 표기가 나타난다. 16세기 문헌 자료부터 나타나는 이 현상은 근대국어 시기에는 매우 강력한 표기 경향으로 나타난다. ‘ㄹ’ 비음화는 통시적으로 폐쇄음, 비음 환경으로 확산된 것으로 설명되는데,⁸³⁾ 음운 환경이 ‘폐쇄음’과 ‘비음’뿐만 아니라 ‘유음’까지 확산된 것이며, 근대국어 시기에 자음 뒤라면 ‘ㄹ’이 ‘ㄴ’으로 항상 변화하는 강력한 ‘ㄹ’ 비음화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⁸⁴⁾ 현대국어에서 ‘ㄹ’이 ‘ㄹ’ 뒤에서 ‘ㄴ’으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ㄹ+ㄹ’이 ‘ㄹ+ㄴ’으로 나타나는 것을 표기 층위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표기 층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음운 층위에서 발생한 현상인 것이다.

한편, 유음화는 ‘ㄹ’과 결합하는 ‘ㄴ’이 ‘ㄹ’로 바뀌는 현상이며, ‘ㄴ’과 ‘ㄹ’의 결합 순서에 따라서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로 나뉜다.⁸⁵⁾ 이 논의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역행적 유음화이다. ‘역행적 유음화’는 ‘ㄴ+ㄹ’ 연쇄에서 후행의 ‘ㄹ’이 영향을 끼쳐 앞의 ‘ㄴ’이 ‘ㄹ’로 바뀌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런데 역행적 유음화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ㄴ+ㄹ’ 연쇄가 ‘ㄹ-ㄹ’ 표기로 나타나는 용례는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고, ‘ㄴ-ㄴ’ 표기로 나타나는 용례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에 각각 나타나는 ‘ㄹ-ㄹ’ 표기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러한 역행적 유음화가 주류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세국어에 나타난 몇몇의 ‘ㄹ-ㄹ’ 표기 용례와 근대국어의 일부 용례를 검토하면서 ‘ㄹ-ㄹ’이 이전의 규칙이고, ‘ㄴ-ㄴ’이 새로운 규칙의 출력형으로 설명한다.⁸⁶⁾ ‘ㄹ-ㄹ’과 ‘ㄴ-ㄴ’ 표기는 중세국어의 각 문헌에서 함께 발견되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

82) 이진호(2005), 『국어음운론강의』, 삼경문화사, 122쪽.

83) 이진호(1998), 「국어 유음화에 대한 종합적 고찰」, 『국어학』 31, 국어학회, 110~112쪽.

84) 신성철(2015), 「근대국어 순행적 유음화 재고」, 『국어학』 73, 국어학회, 135쪽.

85) 이진호(2005), 위의 책, 122쪽.

86) 이진호(1998), 위의 논문, 98쪽.

먼저 발생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리고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 자료에서 ‘ㄴ+ㄹ’ 연쇄가 ‘ㄴ-ㄴ’ 표기로 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세국어의 ‘ㄹ-ㄹ’ 표기만을 중시할 이유가 없으며, ‘ㄴ-ㄴ’ 표기에 대한 설명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19세기 문헌 자료에서는 ‘ㄹ’의 비음화가 잘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ㄹ+ㄹ’ 연쇄에서도 ‘ㄹ’의 비음화가 반영된 ‘ㄹ-ㄴ’ 표기로 나타난다. 또한 현대국어에서 역행적 유음화로 설명되는 ‘ㄴ+ㄹ’ 연쇄에서도 ‘ㄹ-ㄹ’ 표기는 찾기 어렵고 ‘ㄴ-ㄴ’ 표기로만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에는 ‘ㄹ’의 비음화가 강력한 음운 현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19세기에 작성된 여러 언간을 살펴보면, ‘ㄹ+ㄹ’ 연쇄는 매우 정돈된 경향을 보이는데, ‘ㄹ-ㄴ’과 ‘ㄹ-ㄹ’ 표기로 나타나기 때문이다.⁸⁷⁾ ‘ㄹ’ 비음화가 반영된 용례와 그렇지 않은 용례가 확인된다. 또한 ‘ㄴ+ㄹ’ 연쇄에서도 그러한데, ‘ㄴ-ㄴ’과 ‘ㄴ-ㄹ’ 표기가 나타나서 이 경우에도 ‘ㄹ’ 비음화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 판단된다.⁸⁸⁾ 예를 들어, ‘ㄹ’ 비음화는 ㅁ+ㄹ, ㄴ+ㄹ, ㄱ+ㄹ의 연쇄가 각각 ‘ㅁ+ㄴ’, ‘ㄴ+ㄴ’, ‘ㄱ+ㄴ’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현대국어에서 ‘담력’이 [담녁]처럼 실현되는 것과 같이,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특이한 것은 <순원왕후언간>에서 ‘인릉(仁陵)’의 ‘ㄴ+ㄹ’ 연쇄가 ‘인능’과 같이 ‘ㄴ+ㄴ’으로 표기되는데, 이는 현재, ‘선릉’의 표준 발음이 [설릉]이지만, 일반적으로 [선능]으로도 실현되는 현상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국어의 표준어 발음과 달리 ‘ㄴ+ㄹ’ 연쇄에서는 ‘ㄴ+ㄴ’으로 실현된 것이다.

이 언간은 발신자가 ‘순원왕후’ 한 사람이어서, ‘ㄹ’ 비음화 중에서 ‘ㄹ+ㄹ’ 연쇄나 역행적 유음화의 ‘ㄴ+ㄹ’ 연쇄 등과 관련된 표기 유형이 매우 정제된 경향이 확인되는데,⁸⁹⁾ 전체적인 검토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언간에서는 역행적 유음화 관련 용례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역행적 유음화를 검토한 것은 역행적 유음화가 현대국어에서와 같이 강력한 음운 현상으로 부각된 시기가, 즉 ‘ㄹ’ 비음화가 근대국어 시기에는 생산적이며, 20세기 초기에는 역행적 비음화가 생산적인데, 19세기 후기 이후에 ‘ㄴ+

87) 신성철(2014ㄴ), 『발신자의 사회적 성격에 따른 19세기 한글 편지의 표기와 음운』, 『어문논집』 57, 중앙어문학회, 122쪽.

88) 신성철(2014ㄴ), 위의 논문, 122쪽.

89) 신성철(2014ㄴ), 위의 논문, 122~123쪽.

ㄹ' 연쇄에 적용되던 음운 현상이 'ㄹ' 비음화에서 역행적 유음화로 교체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⁹⁰⁾

이 언간에서 검출된 'ㄹ' 비음화 용례는 대부분 한자어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 언간에 나타난 비음화 관련 표기에서는 'C+ㄹ' 연쇄가 'C-ㄹ' 표기로만 나타나는 것은 'ㄱ+ㄹ' 연쇄와 'ㄴ+ㄹ' 연쇄의 각각 28회씩이며,⁹¹⁾ 'C-ㄹ', 'C-ㄹ' 표기가 같이 나타난 것은 'ㄴ+ㄹ'과 'ㄹ+ㄹ', 'ㅇ+ㄹ' 연쇄에서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향은 'ㄹ'이 표기에 남아 있는 것은 7회뿐이며, 나머지는 'ㄴ'으로 표기된다.

'ㄱ+ㄹ' 연쇄가 28회, 'ㄴ+ㄹ' 연쇄가 35회, 'ㄹ+ㄹ' 연쇄가 9회⁹²⁾, 'ㅇ+ㄹ' 연쇄가 28회, 'ㅇ+ㄹ' 연쇄가 29회로, 합계 129회의 관련 용례가 나타난다. 'C-ㄹ' 표기가 122회이며, 'C-ㄹ' 표기가 7회씩 발견되는데, 이 자료에서는 'C-ㄹ' 표기가 예외적인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그 빈도와 비율이 적다. 'C-ㄹ' 표기가 나타나는 비율은 5.43%에 불과하다. 이 자료가 19세기 중엽에 작성된 것을 고려하면, 'C-ㄹ' 표기는 이 시기에 힘을 잃은 상태였음이 파악된다.

(1) 'ㄱ+ㄹ' 연쇄

가. ㄱ-ㄹ 표기(28회): 녁냥이<순원어필-19, 力量>, 녁냁<순원봉서-11, 歷歷>, 독노호니<순원봉서-31, 篤老>, 작난이나<순원봉서-02, 作亂>, 측냥티<순원봉서-15, 2회, 測量>, 측냥업<순원봉서-33, 17회, 測量>, 측냥이<순원봉서-29>, 측냥<순원석주선-02>, 탁냥티<순원봉서-25, 度量>, 흑닐흔디<순원봉서-30, 酷烈>

(2) 'ㄴ+ㄹ' 연쇄

가. ㄴ-ㄹ 표기(31회): 관낙호여<순원봉서-07, 觀樂>, 관네희<순원한글박-15, 慣例/冠禮?>, 근냁이니<순원어필 06, 3회, 筋力>, 근니<순원봉서-11, 近來>, 년노호고<순원어필-22, 年老>, 단녀호니<순원어필-10, 端麗>, 면네의<순원봉서-14, 緬禮>, 문니도<순원봉서-31, 文理>, 번난호니<순원봉서-14, 煩亂>, 산난호여<순원봉서-03, 散亂>, 신노의<순원봉서-19, 臣僚>, 신니가<순원어필 17, 神理, 원냥을<순원어필-25, 2회, 元良>, 원노<순원어필 13, 4회, 遠路>, 원니훈<순원봉서-21,

90) 신성철(2014), 「근대국어 유음화 재고」, 『어문연구』 4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6쪽.

91) 'ㅂ+ㄹ' 연쇄는 보이지 않으며, 'ㅂ#ㄹ'에서 'ㅂ-ㄹ' 표기가 보인다. 음운론적 단어에 해당된다.

92) 여기의 'ㄹ+ㄹ' 연쇄는 한자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고유어에서의 'ㄹ+ㄹ' 연쇄는 더 많은 용례를 보인다. 후술된다.

遠離>, 인력으로<순원봉서-27, 2회, 人力>, 인능<순원석주선-02, 仁陵>, 천능이
<순원봉서-17, 遷陵>, 턴니<순원봉서-12, 3회, 天理>, 편노<순원봉서-28, 偏老>,
한난이<순원봉서-03, 寒暖/寒煖>, 작헌네하신다<순원봉서-27, 酌獻禮>

나. ㄴ-ㄴ 표기(4회): 근력은<순원봉서-12, 筋力>, 안락하여<순원봉서-23, 安樂>, 근
력이<순원봉서-31, 筋力>, 한란이<순원한글박-06, 寒暖/寒煖>

다. ㄴ#ㄴ 표기(2회): 천 니<순원봉서-15>, 천 니나<순원봉서-31, 千 里>

(3) ‘ㄹ+ㄹ’ 연쇄

가. ㄹ-ㄹ 표기(7회): 불뉴하여<순원한글박-17, 2회, 不留>, 일낭기청호<순원봉서-18,
日亮氣晴/日朗氣清>, 털넘<순원어필 23, 2회, 撤簾>, 동팔능<순원봉서-08, 2회,
東八陵>

나. ㄹ-ㄹ 표기(2회): 필력이<순원어필 18, 筆力>, 진명갈력하여<순원어필 22, 盡命
竭力>

다. ㄹ#ㄹ 표기(5회): 흘 니<순원어필-17, 里>, 뒤질 니는<순원봉서-25>, 알 니가
<순원어필 03>, 그만하실 니는<순원어필-18>, 도화흘 니는<순원어필-17>

(4) ‘ㅍ+ㄹ’ 연쇄

가. ㅍ-ㄹ 표기(28회): 녀너(-)<순원봉서-02, 26회, 念慮>, 심너가<순원봉서개인-02,
心慮>, 엄넙과덩하여<순원어필 20, 嚴立課程>

(5) ‘ㅂ+ㄹ’ 연쇄

가. ㅂ#ㄹ 표기(3회): 이십 니<순원봉서-14, 里>, 십 니<순원봉서-14>, 삼십 니식
<순원봉서-14>

(6) ‘ㅇ+ㄹ’ 연쇄

가. ㅇ-ㄹ 표기(28회): 경녁이<순원봉서-13, 經歷>, 동낙하시기<순원어필 23, 同樂>,
쇼동누의<순원어필 08, 小東樓>, 둥난하오니<순원어필 16, 重難>, 밍낭호<순원
어필 17, 孟浪>, 상니<순원봉서-14, 相離>, 상니지회로<순원봉서-18, 相離之懷>,
싱냥이나<순원어필 16, 生涼>, 용너하고<순원봉서-17, 2회, 用慮>, 용널(-)<순원
어필 18, 2회, 庸劣>, 정냥의<순원어필 07, 正郎>, 정니(-)<순원봉서-29, 6회, 情
理>, 창능<순원봉서-08, 昌陵>, 청낭하니<순원어필 07, 3회, 晴朗>, 향니(-)<순

원어필 09, 4회, 向來>, 황년이냐<순원한글박-10, 黃連>

ㄴ. ㅁ-ㄴ 표기(1회): 동란이<순원봉서-07, 冬暖>

(7) 고유어의 ‘ㄴ+ㄴ’ 연쇄

가. ㄴ-ㄴ 표기(4회): 흥여실라<순원봉서-02>

나. ㄴ-ㄴ 표기(103회): 걸닌<순원봉서-07>, 글너진<순원봉서-18>, 날노(3회)<순원어필-17, 18, 순원한글박-23>, 널니<순원봉서-14>, 놀나<순원봉서-15>, 놀남(4회)<순원봉서-8, 14, 15, 29>, 날너(4회)<순원어필-03, 17, 순원봉서-27, 순원한글박-10>, 아닐년가<순원봉서-27>, 달나(2회)<순원어필 19, 순원봉서-04, 순원한글박-04>, 달너시니<순원어필-10>, 돌니논<순원봉서-19>, 대신들노브터<순원봉서-33>, 들니(3회)<순원어필-19, 순원봉서-15(2)>, 애들나(2)<순원어필-19, 순원한글박-15>, 말나(3회)<순원어필-17, 순원봉서-17, 19>, 말낭말낭<순원한글박-12>, 말너<순원봉서-17>, 말노(3회)<순원어필-04, 11, 12>, 몰나(5회)<순원어필-19, 순원봉서-02, 09, 19, 순원한글박-28>, 물너<순원한글박-04>, 물니논<순원어필-19>, 발나<순원한글박-10>, 별너(2회)<순원봉서-13, 31>, 별노(2회)<순원한글박-09, 28>, 블니디<순원한글박-08>, 블나<순원한글박-08>, 살나<순원봉서-27>, 살니시고<순원봉서-12>, 무근지설노<순원어필-17>, 업슬는가<순원봉서-20>, 되실너니<순원어필-15>, 실노(7회)<순원어필-01, 15, 22, 순원봉서-04, 24, 22, 33>, 진실노<순원봉서-24>, 실니<순원어필-17>, 슬너<순원어필-04>, 알년디<순원봉서-15>, 알너니와<순원봉서-01>, 알니니<순원봉서-23>, 알논<단국석주선-02>, 올라(2회)<순원봉서-09, 순원한글박-10>, 올너이다(3회)<순원어필-01, 19, 순원봉서-24>, 올너(2회)<순원어필-01, 순원봉서-16>, 먹을년디<순원한글박-09>, 일념<순원봉서-15>, 일노(10회)<순원봉서-01, 15, 19, 20, 29, 순원어필-20(3), 21, 22>, 절노(2회)<순원어필-21, 순원봉서-19>, 줄노(7회)<순원봉서-04, 15, 27(2), 32, 순원한글박-10, 20>, 신질노<순원어필-03>, 질노<순원봉서-10>, 흘노(3회)<순원어필-08, 09, 순원한글박-09>, 흘니고<순원봉서-15>, 엇더흘년디<순원봉서-27>, 불나<순원한글박-08>, 실노도<순원어필-22>

(1~6)에 제시된 ‘C-ㄴ’ 표기는 선행 한자음에 받침이 있는 경우 후행 한자음의 초성 위치에 놓인 ‘ㄴ’이 ‘ㄴ’으로 교체된 용례이며, ‘C-ㄴ’ 표기는 이러한 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1)의 ‘ㄱ+ㄹ’ 연쇄에서는 ‘ㄱ-ㄹ’ 표기로만 나타나는데, 현대국어와 같이 비음 동화가 적용되어 ‘ㅇ-ㄹ’ 표기로 나타난 용례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2)의 ‘ㄴ+ㄹ’ 연쇄에 제시된 용례들은 대부분 2음절 한자어이다. 현대국어에서는 이들에게 역행적 유음화가 반영되어 ‘ㄹ-ㄹ’ 표기형으로 나타남에도, 이 언간에서는 그러한 용례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현대국어에서 주로 삼음절 한자어에서 나타나는 ‘ㄹ’ 비음화가 적용된 ‘ㄴ-ㄹ’ 표기만이 나타난다. 이 언간 자료의 작성자에게는 역행적 유음화라는 음운 규칙이 인식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3)의 ‘ㄹ+ㄹ’ 연쇄도 현대국어에서와 다른 경향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는 한자어만 제시하나, ㄹ-ㄹ 표기보다는 ㄹ-ㄴ 표기가 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구(句) 단위에서도 ㄹ-ㄴ 표기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는 현대국어에서 제시되는 ‘ㄹ’ 앞에는 ‘ㄹ’만이 올 수 있는 음운론적 제약이 크게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에 제시된 고유어에서도 ‘ㄹ-ㄹ’ 표기는 하나이며, 나머지는 모두 ‘ㄹ-ㄴ’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설명에 힘을 덧붙인다.

(4)의 ‘ㅁ+ㄹ’ 연쇄에서는 ‘ㅁ-ㄹ’ 표기로만 나타나며, (5)의 ‘ㅂ+ㄹ’ 연쇄에 해당하는 어휘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위 명사가 사용된 음운론적 단어에서 해당 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는 예외 없이 ‘ㅂ#ㄹ’ 표기를 보이고 있다. ‘ㄱ+ㄹ’ 연쇄에서 ‘ㄹ’ 비음화가 적용된 ‘ㄱ-ㄹ’ 표기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비음 동화까지 적용된 용례가 확인되지 않듯이, ‘ㅂ#ㄹ’ 연쇄의 음운론적 단어에서도 비음 동화가 반영된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6)의 ‘ㅇ+ㄹ’ 연쇄에서도 ‘ㅇ-ㄹ’ 표기의 1회를 제외하고, ‘ㅇ-ㄴ’ 표기로 나타난다.

현대국어에서 ‘ㄹ’ 비음화가 적용되는 환경(ㄱ+ㄹ, ㅁ+ㄹ, ㅂ+ㄹ, ㅇ+ㄹ)과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환경(ㄴ+ㄹ), 그리고 아무런 음운 현상도 적용되지 않는 환경(ㄹ+ㄹ)까지도 19세기 중엽의 <순원왕후언간>에서는 ‘C-ㄹ’의 표기를 유지하기 보다는 ‘C-ㄴ’으로 표기하는 경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폐쇄음 ㄱ과 ㅂ, 비음 ㄴ, ㅁ, ㅇ뿐만 아니라 유음 ‘ㄹ’ 뒤에서도 ‘ㄹ’은 그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ㄴ’으로 바뀌는 ‘ㄹ’ 비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근대국어 시기에는 ‘ㄹ’ 비음화가 아주 강력한 음운 현상으로 적용된 것이다.

덧붙여, 근대국어에서 ‘ㄹ’ 비음화가 강력한 음운 현상으로 ‘C+ㄹ’ 연쇄에서 적

용된 것이라면, 이른바 ‘ㄹ’ 두음법칙도 ‘#+ㄹ’ 환경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C’와 ‘#’을 하나로 묶으면 이들은 하나의 음운 현상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⁹³⁾ <순원왕후언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ㄹ’ 비음화가 휴지 앞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8) ㄹ 두음법칙

가. #+ㄹ 표기(87회): 낙궤(落字)<순원어필-10, 2회>, 낙막(落寞)<순원한글박-23>, 낙혈(落血)<순원한글박-15>, 낙업(樂業)<순원어필-20>, 낙척(落拓)<순원봉서-15>, 납월(臘月)<순원어필-24>, 냥(兩)<순원봉서-01, 2회>, 냥도(兩朝)의셔논<순원어필-19>, 냥반(兩班)이<순원어필-20>, 냥(量)대로<순원한글박-21>, 녀쥬(驪州)로<순원어필-21>, 녀장(力壯)혀여<순원봉서-23>, 녀냥(力量)이<순원어필-19>, 녀녀(歷歷)흔<순원봉서-11>, 년(連)혀여<순원한글박-25, 6회>, 년면(連綿)혀니<순원어필-02>, 녀부스(領府事)논<순원봉서-04, 5회>, 녀상(領相)<순원어필-15, 3회>, 녀문(禮文)의<순원어필-12>, 노인(老人)<순원봉서-33>, 노독(路毒)(3회)<순원봉서-07, 16, 18>, 노쇼(老少)<순원봉서-01>, 노력(老力)<순원봉서-20>, 노흔(老昏)<순원어필-11>, 노성(老成)<순원봉서-31>, 노신(勞神)혀여<순원봉서-02>, 노老<순원봉서-01, 2회>, 노숙(老熟)혀니<순원어필-02>, 노염(老炎)<순원봉서-21, 2회>, 녹용(鹿茸)<순원한글박-28, 2회>, 노히(了解)<순원어필-11>, 노량(料量)<순원어필-22>, 누類의<순원어필-02>, 누가 녹종형데(六從兄弟)<순원어필-08, 3회>, 누陸상궁<순원어필-12, 2회>, 누십(六十)<순원한글박-20, 2회>, 누월(六月)<순원어필-03>, 누순(六旬)<순원봉서-28>, 누칠(六七)년<순원어필-14>, 누실(六室)을<순원어필-12>, 누감(輪感)<순원어필-23, 3회>, 누구(凜懼)<순원봉서-33, 2회>, 누털(凜綴)<순원한글박-15>, 누디(陵地)<순원봉서-08>, 누형(陵幸)<순원어필-12, 2회>, 누(陵)<순원어필-17, 2회>, 누소(陵所)<순원봉서-17, 2회>, 니(利)코져<순원어필-20>, 니점(痢漸)<순원봉서-14, 2회>, 니변(痢便)<순원봉서개인-03>, 니질(痢疾)<순원봉서개인-03>

나. #+ㄹ 표기(4회): 렐읍(列邑)의<순원어필 15>, 린한(麟漢)의<순원봉서-24>, 량의<순원봉서-28, 涼意>, 리왕<순원봉서-31, 來往>

다. #+ㄹ 표기(1회)<○→ㄹ>: 진압홀 량이<순원어필 19, 樣>

93) 신성철(2019), 「어두의 어중 ㄹ→ㄴ 현상의 통시적 고찰 : ㄹ 비음화와 통계적 방법론, 『국어문학』 71, 국어문학회, 89~91쪽.

- 마. #+○ 표기(7회)<ㄹ→○>: 양호(兩湖)의<순원어필 21>, 연차(聯筵)ㄹ디<순원어필 19>, 연스(練祀)가<순원봉서-13>, 염종슈(廉宗秀)로<순원어필 20>, 유의(留意)ㅎ 시던<순원봉서-31>, 울당(栗糖)<순원봉서개인-03>, 입명(立命)<순원어필 18>
- 바. 비어두(<ㄹ→○>, 1회): 눈척가 용여(用慮)들<순원어필-16>

(8다)의 ‘진압홀 량이’는 ‘樣’에서 유래한 ‘양’이어야 하는데, 선행한 관형형 어미 ‘ㄹ’의 영향으로 ‘○>ㄹ’을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8마)는 현대국어의 ㄹ 두음법칙을 보이는 용례이다. 어두에 오는 한자의 원래 음은 ‘ㄹ’을 초성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두에 ‘ㄹ’을 두음으로 가진 한자가 오면 ‘ㄹ’이 ‘ㄴ’으로 바뀌거나 탈락한다. 이때 ‘ㄹ’이 탈락하는 조건은 ‘ㄹ’ 뒤에 오는 중성이 /i/ 모음으로 시작하거나 /y/ 로 시작할 때이며, 현대국어에서는 소위 ‘ㄹ’ 두음법칙이라 부른다.⁹⁴⁾ 이 언간에서는 이러한 현대국어와 같은 ‘ㄹ’의 두음법칙도 적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8가)에서 보듯이 중성이 /i/ 모음으로 시작하거나 /y/ 로 시작하더라도 ‘ㄴ’을 탈락시키지 않은 용례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현저한 음운 현상이라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8마)에서 보듯이 현대국어의 소위 ‘ㄹ’ 두음법칙이 적용 가능한 것임은 분명하다.

이 언간에서 ‘ㄹ’ 두음법칙에 관련 용례를 보면, ‘ㄹ’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용례가 4회이며, ‘ㄹ’ 두음법칙이 적용된 용례가 87회가 나타난다. ‘ㄹ’ 두음법칙이 반영되지 않은 용례는 4.40%의 비율을 보인다. 우리가 앞에서 ‘ㄹ’ 비음화 적용된 용례 즉, ‘C-ㄴ’으로 표기된 용례가 122회, 반영하지 않은 ‘C-ㄹ’ 표기가 7회로, ‘ㄹ’ 비음화가 반영되지 않은 용례가 5.43%임을 확인하였다. ‘ㄹ’ 두음법칙에서 미반영된 용례가 4.40%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동질적임이 확인된다. (8다)의 ‘○>ㄹ’ 용례와 (8라)의 ‘ㄹ>○’ 용례를 각각 ‘ㄹ’ 유지와 ‘ㄹ’ 두음법칙 반영 용례에 포함하면 각각 4회와 94회가 되어, ‘ㄹ’ 두음법칙 미반영 용례는 4.08%로 볼 수도 있다.

94) 신승용(2013), 『국어음운론』, 도서출판 역락, 223쪽.

2.3. 구개음화

근대국어의 시기에 일어난 중요한 음운 변화의 하나로 구개음화를 꼽는데, 이 중에서 ㄷ 구개음화는 중앙어에서 17세기와 18세기 교체기에 일어난 것으로 소개된다.⁹⁵⁾ 구개음화는 비구개음이 ‘ㅣ’나 ‘y’ 앞에서 구개음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의미하는데, 구개음화는 적용을 받는 자음의 종류에 따라, ‘ㄷ 구개음화’, ‘ㄱ 구개음화’, ‘ㅎ 구개음화’의 세 부류로 나뉜다.⁹⁶⁾

19세기 중엽의 자료인 <순원왕후언간>에서는 ㄷ 구개음화 관련 용례는 확인되지만, ‘ㄱ’이나 ‘ㅎ’의 구개음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ㄱ 구개음화는 ㄱ계열이 구개음 ㄱ계열로 바뀌는 현상임에 반하여, ‘ㅎ’은 ‘ㅅ’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ㅅ’을 구개음은 아닌 치조 마찰음이므로, 구개음화가 아닌 다른 현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ㅅ’이 ‘ㅣ, y’ 앞에서 음성적으로 구개음의 변이음 ‘ㅈ’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역사적으로 ‘ㅅ’이 구개음으로 실현되었을 때 ㅎ 구개음화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⁹⁷⁾

<순원왕후언간>에서는 ㄷ 구개음화를 제외하고는 ㄱ 구개음화나, ㅎ 구개음화가 분석되지 않으므로, 이 장에서는 구개음화의 명칭 아래, ㄷ 구개음화와 관련된 용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구개음화의 각 유형별 빈도 및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시대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할 것이다. ㄷ 구개음화(이하, 구개음화)는 중앙어에서 17세기와 18세기 교체기에 일어난 것으로 논의된다. 19세기 중엽에 작성된 <순원왕후언간>에서는 구개음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혀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구개음화와 관련된 해당 전체 용례는 2,041회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 중에서 41개가 어떤 의미인지, 또는 대응 한자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형태들이어서, 분석된 전체 용례는 2,000회만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구개음화 환경에 놓인 용례를 모두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ㄷ, ㅌ + ㅣ, y’ 또는 ‘ㅈ, ㅊ, ㅊ + ㅣ, y’ 등을

95) 이기문(1972), 앞의 책, 197쪽.

96) 이진호(2005), 앞의 책, 126쪽.

97) 이진호(2005), 위의 책, 127쪽.

포함하였다. ‘ㅈ’은 이 문헌 자료의 초성자로 163회나 나타나지만, ‘ㄷ, ㅅ’에 연결된 용례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ㅉ’은 이 문헌에서 2회 발견되는데, 이전 시기의 ‘ㅉ’에 대응된 어휘들이 변화된 것이다.

(단위 : 회)

	변화 유형	전체 (2000)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문법 (경계/문법)	
구개음화	ㄷ > ㅈ	61	28(13/15)	5(0/5)	28
	ㅌ > ㅊ	33	2(0/2)	8(8/0)	23
과도교정	ㅈ > ㄷ	52	18(4/14)	22(0/22)	12
	ㅊ > ㅌ	3	1(0/1)	1(1/0)	1
그 대 로	ㄷ	895	365(269/96)	301(0/301)	229
	ㅌ	153	3(0/3)	79(5/74)	71
	ㅈ	587	135(67/68)	72(4/68)	380
	ㅊ	216	32(9/23)	7(5/2)	177

<표-17> 구개음화 전체 빈도⁹⁸⁾

위의 <표-17>을 보면 구개음화는 ‘ㄷ > ㅈ’의 변화뿐만 아니라 ‘ㅈ > ㄷ’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ㄷ > ㅈ’ 방향의 변화는 말 그대로 출력물이 구개음을 산출하므로 구개음화임을 분명하며, ‘ㅈ > ㄷ’ 방향의 변화는 구개음화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를 과도교정이라 부르는 관례를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

먼저, 구개음화는 1,142회의 해당 용례 중에서 94회만이 구개음화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구개음화 발생 비율은 8.23%에 다다른다. 그런데 구개음화가 채 10%도 도달하지는 못하는 8.23%은 18세기 중엽의 왕실 관련 문헌인 『어제』와 『경세문답』에서 나타나는 8.66%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18세기 후기 문헌인 『운음』의 88.90%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인다.⁹⁹⁾ 과도교정은 해당 용례 858회 중에서 55회가 발생하여 6.41%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구개음화의 비율과 큰 차

98) 구개음화의 빈도와 비율은 김주필(2005), 「18세기 어제류 문헌과 왕실 문헌의 음운변화 - ㄷ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12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1쪽에 언급된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 논의에 제시된 도표도 김주필(2005)의 것을 그대로 따랐음을 밝힌다. 단지, 검색은 소강춘 교수팀이 개발한 문자열 검색 프로그램인 ‘SynKDP(Synthesized Korean Data Processor)’(일명 감작새, V.1.55)를 사용하였다.

99) 김주필(2005), 위의 논문, 34~35쪽, 39~40쪽.

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순원왕후언간>과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사대부가 언간의 구개음화 확산 비율과 비교하면, 이 언간의 구개음화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786년부터 1856년에 작성된 <추사가 언간>에서는 543회의 해당 용례 중에서 466회에서 구개음화가 반영되어 85.8%의 비율을 보이는 확산 과정이 확인되며,¹⁰⁰⁾ 1830년부터 1850년대 초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김성일가 언간> 중에서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김진화 언간>에서는 173회 중에서 160회가 구개음화가 반영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구개음화가 100%에 가까운 92.49%의 비율을 보인다. 왕실 관련 자료나 문헌 자료의 성격이 같은 사대부가 언간에서도 구개음화의 비율이 80% 이상 나타나고 있음에 비하여, <순원왕후언간>에서는 채 10%가 안 되는 8.23%는, 아직 왕실 여성 언간에서는 그리 활발하지 못한, 초기 단계에 놓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매우 높다.

2.3.1. 구개음화

<순원왕후언간>의 구개음화는 8.23%, 과도교정이 6.41%에 해당된다.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구개음화 중에서 ‘ㄷ>ㅈ’인 경우는 956회 중에서 61회가 발생하여 6.38%의 비율을 보이며, ‘ㅌ>ㅊ’은 186회 중에서 33회로 17.74%로 나타난다. 과도교정 중에서는 ‘ㅈ>ㄷ’이 639회 중에서 52회로 8.14%이며, ‘ㅊ>ㅌ’은 219회 중에서 3회로 1.37%을 보일 뿐이다.

고유어에서는 792회 중에서 44개가 나타난 7.77% 비율을 보이는데, 어휘 형태소에서는 399회 중에서 31개로 5.56% 비율을 보이며, 문법 형태소의 393회 중에서 13회가 나타나 3.31%로 빈도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율에서는 어휘 형태소나 문법 형태소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자어에서는 300회 중에서 50회가 나타나 16.67%로 이 문헌의 구개음화 실현 비율 8.26%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나지만, 한자어의 과도교정은 670회 중에서 13회로 4.33%로, 평균치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0) 윤희선(2016), 「19세기 전기 언간의 구개음화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9쪽.

고유어에서 ‘ㄷ>ㄷ’에 해당하는 용례는 895회인데, 어휘 형태소는 365회이고, 이 중에서 어두 음절인 경우가 269회, 비어두 음절이 96회이며, 문법 형태소에서 301회, 한자어에서 229회가 확인된다. 그리고 구개음화가 반영된 ‘ㄷ>ㅌ’은 61회인데, 어휘 형태소에서 28회이며, 이 중에서 어두 음절이 13회, 비어두 음절이 15회씩 분석된다. 그리고 문법 형태소에서 5회, 한자어에서 28회의 구개음화 적용 용례가 각각 확인된다. 이 중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되거나 과도교정으로 표기 변화가 나타난 용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구개음화 ㄷ>ㅌ: 61회

가. 어휘 형태소(28회): 건져<순원어필-10>, 주러져시나<순원한글박-12>, 그만져만<순원한글박-12>, 저러혀여습느니이다<순원어필-01>, 저러혀여도<순원봉서-02>, 저러<순원어필17>, 저러된<순원봉서-04>, 저러타<순원봉서-31>, 저러타<순원어필22>, 저러타<순원봉서-04>, 저러타<순원봉서-08>, 저러흔<순원봉서-27>, 저러들<순원봉서-19>, 저러<순원어필-19>, 어지러<순원봉서-12>, 달나지고<순원봉서-04>, 지켜도<순원봉서-31>, 어두어지고<순원봉서-33>, 싸여지라<순원한글박-04>, 싸지니논<순원어필21>, 어지시니<순원봉서-21>, 싸지디<순원어필-02>, 어지리<순원어필-22>, 싸지디<순원봉서-23>, 글너진<순원봉서-18>, 적어질디<순원한글박-08>, 뒤질<순원봉서-25>, 질<순원석주선-01>

나. 문법 형태소(4회): 굽굽지<순원봉서-02>, 찌지<순원한글박-04>, 구지<순원어필-18>, 압셔지<순원봉서-25>

다. 한자어(28회): 스저의<순원봉서-08>, 전갈을<순원한글박-04>, 소무전고흔<순원봉서-06>, 일호반점<순원봉서-23>, 정석이<순원어필10>, 정청혀디<순원봉서-19>, 정청ㄷ디<순원봉서-17>, 정청ㄷ디<순원봉서-17>, 질정을<순원어필18>, 제슈<순원어필02>, 아모죠히<순원봉서-08>, 무지흔<순원봉서-15>, 심지가<순원봉서-02>, 환턴회지홀<순원봉서-05>, 지속<순원봉서-30>, 브지어턴혀고<순원봉서-11>, 심지나<순원봉서-01>, 심지도<순원어필-07>, 지량이<순원어필-15>, 슈직혀니<순원어필-19>, 청직이논<순원한글박-04>, 진죽<순원석주선-02>, 진작<순원한글박-23>, 진압홀<순원어필-19>, 진덩이나<순원어필-11>, 진면스 의도<순원어필10>, 즈질<순원봉서-29>, 정상이니<순원어필-25>

(2) 구개음화 ㅌ>ㅊ: 33회

- 가. 어휘 형태소(2회): 디나치니<순원한글박-21>, 거치논<순원봉서-15>
- 나. 문법 형태소(8개, 경계 포함): 붓쳐시니<순원한글박-12>, 붓쳐<순원한글박-12>, 붓치시고<순원어필09>, 관작붓치<순원봉서-31>, 끄치<순원봉서-11>, 붓치니<순원한글박-08>, 붓치라<순원봉서-24>, 붓치디<순원한글박-12>
- 다. 한자어(23회): 담착호고<순원봉서-25>, 화창호나<순원석주선-02>, 화창호니<순원어필25>, 탕적이<순원어필21>, 첨으로<순원봉서-27>, 청직이논<순원한글박-04>, 체<순원어필22>, 체한다<순원봉서-27>, 추후야<순원어필-02>, 이욕추락호는<순원어필-04>, 치제호신다고<순원한글박-19>, 치하호니<순원어필-09>, 처치호소<순원어필-04>, 치하로<순원봉서-10>, 유치의<순원봉서-09>, 치표<순원어필-17>, 소치로<순원봉서-23>, 처치호소<순원어필-04>, 칩교논<순원어필-18>, 칩교로<순원한글박-23>, 돈척호여<순원어필-11>, 신칙<순원어필-20>, 침침호면<순원어필-20>

(3) 구개음화 ㅍ>ㅑ: 2회

- 어휘 형태소(2회): 넘뻘<순원봉서-33>, 뻘<순원한글박-10>

(3)의 어휘 형태소는 중세국어에서 각각 ‘넙뻘-’와 ‘뻘-’로 소급되는 어휘들인데, 이들이 ‘ㅑ’으로 나타난 경우이다. 이들은 된소리를 담당한 표기로 판단된다. 또한 이 언간에서는 [ㅑ]의 음가를 담당한 사계열의 ‘ㅑ’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그 분포가 특정 어휘에 치우쳐 있어서, ‘l, y’에 연결된 어휘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도 구개음화가 적용된 용례이므로, 구개음화가 반영된 빈도와 비율을 계량할 때 같이 포함하여야 하지만, 구개음화가 적용되기 이전의 해당 용례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전체 빈도와 비율에서는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2.3.2. 과도교정

여기서의 과도교정은 ㄷ 구개음화의 진행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난 경

우를 가리킨다. 즉 ‘ㅈ, ㅊ + ㅣ, y’가 ‘ㄷ, ㅌ + ㅣ, y’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개음화를 인식하여 과도하게 교정, 즉 바꾼 표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중앙 문헌에서는 이른 용례로는 17세기 중·후기부터 나타나는데, ㄷ 구개음화와 함께 그 과도교정의 용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¹⁰¹⁾ 이러한 특징은 18세기 초기 문헌에도 거의 그대로 나타나는데,¹⁰²⁾ 19세기 중엽의 <순원왕후언간>에서도 ‘외간ㅍ디, 성복ㅍ디, 말관ㅍ디’ 등처럼 ‘ㅍ디’와 같은 문법 형태소에서도 과도교정된 용례가 나타난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변화 유형	전체	고유어		한자어
			어휘 (어두/비어두)	문법 (경계/문법)	
과도교정	ㅈ > ㄷ	52	18(4/14)	22(0/22)	12
	ㅊ > ㅌ	3	1(0/1)	1(1/0)	1
그 대 로	ㅈ	587	135(67/68)	72(4/68)	380
	ㅊ	216	32(9/23)	7(5/2)	177

<표-18> 과도교정 관련 빈도

이 언간에서는 과도교정이 55회 나타나는데, ‘ㅈ>ㄷ’은 52회이며 ㅊ>ㅌ이 3회이다. 이 중에서 고유어의 ‘ㅈ>ㄷ’은 40회, 한자어에서는 12회가 분석된다. ‘ㅊ>ㅌ’에서는 고유어가 2회, 한자어가 1회가 나타난다.

고유어에 나타난 ‘ㅈ>ㄷ’ 변화된 용례 중에서 어휘 형태소는 18회이고, 이 중에서 어두에서 나타난 경우가 4회, 비어두에서 나타난 경우가 14회이다. 그리고 문법형태소 문법에서 22회가 나타난다. 이에 대한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과도교정 ㅈ>ㄷ: 52회

가. 어휘 형태소(28회): 더히들<순원어필-20>, 더히도<순원어필-20>, 더히들이<순원어필-20>, 도희가<순원봉서-04>, ㅍ디로<순원어필-22>, 아딧도<순원 한글박-22>, 아딧<순원어필-16, 9회>, 아딧은<순원봉서-11, 3회>

나. 문법 형태소(22개): 출숙ㅍ디<순원어필-06>, 밤ㅍ디<순원봉서-04>, 정청ㅍ디

101) 《경민편언해》(1656), 《어록해》(1669), 《박통사언해》(1667), 《역어유해》(1690) 등에서 ㄷ구개음화와 과도교정의 예가 보인다.

102) 《오륜전비언해》(1721) 쓴허지디(四, 21b), ㅍ르티니(五, 38a), 되고녀(五, 24b) 등.

(2)<순원봉서-17(2)>, 성복ㄴ디<순원봉서-2>, 이썸ㄴ디<순원어필-22>, 외간
 ㄴ디<순원봉서-27>, 가례ㄴ디<순원봉서-31>, 스우ㄴ디<순원어필-03>, 연차
 ㄴ디<순원어필-19>, 이제ㄴ디<순원어필-18>, 뇨ㄴ디<순원한글박-09>, 말관
 ㄴ디라도<순원봉서-33>, 슈령ㄴ디라도<순원봉서-33>, 말ㄴ디<순원봉서-01>,
 진강ㄴ디<순원봉서-02>, 빅성ㄴ디라도<순원봉서-15>, 이십ㄴ디<순원봉서-0
 2>, 양주ㄴ디<순원어필-11>, 덩훈ㄴ디<순원어필-17>, 서계ㄴ디<순원어필-1
 7>, 어제ㄴ디<순원한글박-10>

다. 한자어(12회): 즈더ㅎ니<순원어필-12>, 덩덩<순원한글박-15, 2회, 漸漸>, 덩
 열<순원한글박-15, 漸熱>, 도덩<순원봉서-28, 2회>, 오덩<순원한글박-02>,
 영구둔형ㅎ개<순원어필20>

(3가)는 어휘 형태소에서 나타난 ‘ㅈ>ㄷ’, 즉 과도교정 용례를 제시한 것인데,
 특이하게도 특정 어휘들에서 과도교정이 확인된다. (3나)의 문법 형태소를 보면
 현대국어의 ‘까지’로 연결되는 ‘ㄴ디’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과도교정이 인식의
 차원에 발생한 과도한 수정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라 하겠다. 구개음화라는
 음운 현상을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언중이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어휘
 에 대해서도 구개음화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하여 이전의 형태로 되돌린 것인데,
 이 인간에서는 이러한 고유어에서의 과도교정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별로 적용되는, 통일된 모습의 과도교정이 나타난다.

문법 형태소 ‘ㄴ디’의 경우에는 과도교정된 용례만 확인된다. 하지만 어휘 형태
 소인 ‘아딧’의 경우에는 과도교정이 되지 않은 ‘아직’이 3회가 확인된다는 차이점
 을 보이기도 한다.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이 어휘별로 어느 정도 적용된 용례
 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휘별 과도교정이 <순원
 왕후언간>에 나타난다는 것은 왕실 관련 언간의 특징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은 경우에 따라서 문헌마다 구개음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처럼 초기 단계에 실현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순원왕후언간>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 해당하면서도 발신
 자가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구개음화를, 특히, 몇몇 어휘에서 거부하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과도교정 ㅈ>ㅊ: 3회

- 가. 어휘 형태소(1회): 이만 ㄱ티니 짐작<순원봉서-12, 1849년, 순원왕후(재종누나)→ 김홍근(재종동생)>
- 나. 문법 형태소(1회, 경계 포함): ㅈ터 겨시니<순원봉서-12, 1849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 다. 한자어(1회): 텅구<순원어필-20, 1851년~1857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4)는 ‘ㅈ>ㅊ’의 과도교정된 용례를 모두 보인 것이다. 먼저, 고유어에서 ‘ㅈ>ㅊ’의 과도교정은 2회로 어휘 형태소 ‘ㄱ티니’에서 1회가, 문법 형태소의 경계에 서 ‘ㅈ터’에서 1회씩 발견되며, 한자어에서도 ‘텅구’ 1회가 나타나는데, 대응하는 한자는 ‘請求’이다.

이상으로 <순원왕후언간>의 구개음화 확산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 언간에서 구개음화와 관련된 용례는 총 2,041회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ㅈ’는 2회만이 보이는데, ‘ㅈ>ㅊ’ 구개음화가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구개음화 환경에 놓인 용례의 총합으로 ‘ㄷ, ㅌ + ㅣ, y’, ‘ㅈ, ㅊ, ㅈ + ㅣ, y’ 모두를 포함한 숫자이다. 이 중에서 미상, 인명(한자 모름) 등으로 인하여 판단 유보(?>?)인 41회¹⁰³⁾를

103) 미상 41개 용례는 다음과 같다.

이더가 아라 이더가 다<순원봉서-15>, 엄넙과뎡혀 신칙 엄넙과뎡혀 영구뎡헝헝개<순원어필-20>, 뎡고지증이 분시 뎡고지증이 잇다<순원봉서-15>, 한뎡의 윈노 한뎡의 평안이<순원봉서-05>, 뎡약도 이시니 뎡약도 먹으려니와<순원봉서개인-03>, 외도 못혀여시니 외도 물의가<순원봉서-04>, 고도 판사가 고도 훈장<순원어필-19>, 도병기 음식이 도병기 과정으로<순원한글박-19>, 세나디나 혀니 세나디나 아닐가<순원봉서개인-02>, 별장 업스오며 별장 주인도<순원어필-20>, 외입장인가 다 외입장인가 보다<순원한글박-02>, 장지 혀니 장지 오년이니<순원한글박-12>, 저 저녁은 저 시<순원한글박-10>, 급작저히 되였논디 급작저히 괴운을<순원봉서-02>, 점열의 점열의 무스이<순원한글박-14>, 즉지로 일을 즉지로 닛고<순원봉서-01>, 상지다를 혀니 상지다를 상지를<순원한글박-07>, 은진은 먹어시나 은진은 묵던<순원한글박-10>, 은진 약은 은진 말하고<순원한글박-10>, 은진 일전 은진 괴운 <순원한글박-10>, 문영진의 깃브다 문영진의 일은<순원한글박-02>, 진후 그스이 진후 범절이<순원한글박-21>, 진식이 나 진식이 감미<순원한글박-21>, 질치 길 질치 넘녀<순원봉서-15>, 질번기병이니 본디 질번기병이니 이려헝가<순원봉서-19>, 넘거집 상담으로 넘거집 슈가<순원봉서-27>, 흰창혀니 춘일이 흰창혀니 괴운혀시고<순원어필-02>, 창도흙과 허확창도흙과 아히들<순원어필-24>, 혼창이 도위도 혼창이 교집혀여실<순원한글박-27>, 처 서독이 처 ㅈ시도<순원봉서-06>, 흙쳐 제브터 흙쳐 겨시다<순원봉서-08>, 휘척혀려는 대신 휘척혀려는 괴미를<순원어필-19>, 미체혀려 망극 미체혀려 브리디<순원한글박-13>, 육초의 굵굵히 육초의 소금<순원한글박-12>, 쉼이혀여도 일노 쉼이혀여도 쇼가<순원봉서-01>, 영엇치 씨인 영엇치 붓두겁

제외하면 전체 2,000회의 용례가 검색되었다. <순원왕후언간>의 경우 어두 음절은 빈도수가 높은 ‘덕-’은 구개음화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다. 비어두 음절에서는 ‘엇디-’가 많이 나타나는데 ‘엇지-’로 구개음화가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 문법 형태소 ‘-디’도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한자어에서도 ‘中’에 대응되는 ‘똥, 똥춘, 똥망, 똥간 똥제, 똥궁, 똥간’ 등과 같이 ‘중’으로 실현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순원왕후언간>과 비슷한 시기의 두 언간을 살펴보면, 1786년부터 1856년에 쓴 <추사가 언간>은 543회 중 466회가 구개음화되어 85.8%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⁴⁾ 1830년부터 1850년대 초에 쓴 <김성일가 언간>은 남편이 아내에게 쓴 언간에서 173회 중 160회가 구개음화가 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언간에 나타나는 언어는 경상북도 안동 지방의 양반 계층의 언어로 보인다. 1830년부터 1840년에 쓴 <김진화 언간>에서는 구개음화 비율이 거의 100%로 나타나고 있다. <추사가 언간>이나 <김성일가 언간>과 시기는 비슷하지만 <순원왕후언간>은 이들 언간과는 달리 발신자가 1인이므로 가문들의 언간에서 다양한 세대와 성별의 발신자가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발신자에게 나타나는 언어가 <추사가 언간>은 중부지방 방언이고, <김성일가 언간>은 동남지방 방언에 속한다.

그러나 <순원왕후언간>에는 중앙 방언이나 지방 방언이 아닌 왕실 언어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언간과는 차이를 보인다. 순원왕후는 12세부터 69세까지 궁중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궁중 언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순원왕후의 언어에는 음운 변화가 늦게 적용되는 궁중 언어의 특성이 발견된다. 또한 당시 문헌¹⁰⁵⁾에서 보이는 음운 변화의 늦은 전개와 궁중 생활을 통한 개인어의 형성과 보수성으로 인한 구개음화 비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순원한글박-12>, 어량치기 어량치기 허여시<순원어필-12>, 질치 길 질치 녀녀<순원봉서-15>, 치순 일가지똥의서 치순 시가무근지설노<순원어필-17>, 치순이논 허고 치순이논 구괴롤<순원어필-17>.

104) 윤희선(2016), 앞의 논문, 29쪽.

105) 이래호(2001), 「장서각 소장 유일본 『어제』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장서각』 5, 한국학중앙연구원, 250쪽.

2.4. 원순모음화

순음 ‘ㄱ’ 아래서 모음 ‘ㅡ’가 ‘ㅓ’로 변하는 원순모음화는 17세기부터 순음 ‘ㄱ, ㅅ, ㅈ’ 아래에서 비원순모음이 원순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원순모음화 현상은 중세국어에서도 산발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17세기 초기에 주로 발생하기 시작하며, 17세기 『역어유해』(1690년)에서 널리 확산된 양상이 확인되므로 중앙어에서는 17세기 말엽에 거의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⁰⁶⁾ 20세기 초에 어간 내부의 원순모음화 현상은 매우 일반화된 현상이다. 기존의 연구에 언급된 원순모음화의 예는 이미 17세기 말에 중앙에서 간행한 간본 자료에도 나타나는데,¹⁰⁷⁾ 18세기 말이 되면 이미 원순모음화는 상당 부분 확산된 것으로 나타난다.¹⁰⁸⁾ 그러므로 19세기 중엽의 <순원왕후언간>에서 원순모음화가 반영된 용례의 빈도와 비율이 현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혀 그러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 특징이 드러난다.

원순모음화 예를 몇 가지의 변화 유형으로 분류하여 용례를 추출하고 [순음성] 자질을 가진 자음 ‘ㄱ, ㅅ, ㅈ’에 후행하는 ‘ㅡ’가 ‘ㅓ’로 변한 유형, ‘·’가 ‘ㅓ’로 변한 유형의 원순모음화가 반영된 경우와 ‘ㅡ’, ‘·’, ‘ㅓ’, ‘ㅓ’가 각각 그대로 나타나는 유형, 마지막으로 ‘ㅓ’가 ‘ㅡ’로, ‘ㅓ’가 ‘·’로 바뀌는 유형의 변화, 즉 비원순모음화가 나타난 경우로 분류하였다.

이 자료에서 원순모음화와 관련된 순자음은 ‘ㄱ, ㅅ, ㅈ, ㅊ’가 나타나며, 모음들은 ‘·, ㅡ, ㅓ, ㅓ, ㅓ, ㅓ, ㅓ, ㅓ’ 등이 나타난다. 그런데, ‘ㅊ’은 ‘ㅊ디(지)-, ㅊ이-, ㅊㅊㅎ-’만 보여서 원순모음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환경에서만 나타나며, 순자음과 ‘ㅓ’와의 연쇄도 검색되지 않는다. 한자어에서 원순모음화, 비원순모음화

106) 이기문(1972), 앞의 책, 202쪽.

107) 왜학서와 한학서를 통해 살펴본 김주필(2009)를 보면 ‘으→우’ 변화가 왜학서인 『첩해신어』(1676년)에서는 전체 3.96% 확산된 것으로 나타나고, 『인어대방』(1790년)에서는 94.81%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학서의 경우 이것보다는 현저히 낮은 『오륜전비언해』(1721년)에서는 17.68%, 『박통사신석언해』(1764년)에서는 40.48%, 『중간노걸대언해』(1795년)에서는 10.96%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108) 이재립(2015), 「<김성일 종가 한글편지>의 표기와 음운현상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4쪽.

가 반영된 용례를 보면, ‘붕우’를 제외하고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특징도 확인된다.

각 용례의 빈도와 비율을 살펴보기 전에, <순원왕후언간>에 나타난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순모음화 관련 특징

- 가. ㅁ, ㅂ, ㅍ(ㅅ) + ㅛ, ㅜ, ㅜ, ㅛ, ㅜ, ㅛ, ㅜ, ㅛ(기)의 결합이 가능하지만, ‘ㅅ’은 ‘ㅅ디(지)-, ㅅ이-, ㅅㅅㅎ-’에서 나타나며, ‘기’와도 순자음과의 연쇄가 없다.
- 나. 원순모음화 또는 비원순모음화는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하며, 주로 어두 음절, 어휘별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단, 비어두 음절의 아모, 관작붓치 등도 일부 나타난다.
- 다. 원순모음화 또는 비원순모음화는 한자어 ‘붕우’를 제외하면 한자어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 라. ‘ㅛ>ㅜ’의 용례는 현대국어 ‘아무’가 포함되거나 관련된 어휘에서만 나타난다.
- 마. ‘ㅜ>ㅛ’의 용례는 ‘무순’(1회, <참고> 무순(19회))이 보이며, ‘무섭-, 무겁-, 무덤-’ 등과 ‘부디, 관작붓치, 붕우’으로 나타난다.
- 바. ‘ㅛ>ㅜ’는 ‘므든’(1회, 染, <참고> 무더(3회))만 제외하면 ‘믄-(問), 믄-(덮거나 입다, 被)’과 ‘브절없-(3회), 블상-(다수)’ 등에서 나타나며, 이때 ‘ㅛ’를 유지한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띄어’(空)도 나타난다.
- 사. 원순모음화 또는 비원순모음화는 비어두 음절(아모, 관작붓치 등 제외)와 형태소 경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형태소 경계는 주로 ‘명사형 어미 -ㅁ + 은, 을’ 결합에서 나타난다.

<순원왕후언간>에서는 (5)와 같이 원순모음화 관련 특징을 보이지만, 원순모음화가 반영된 용례의 빈도와 비율은 현저히 낮아서 이 시기의 간본 자료와 명백한 차이점을 보인다.

이는 ‘ㄹ’ 비음화를 제외한 ‘ㅛ’의 2단계 변화, 구개음화 등에서도 분석된 음운 현상의 확산 추세로 동일 시대의 간본 자료, 또는 사대부가 언간 자료와는 이질적인 확산 과정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것은 왕실 관련 언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각 음운 현상이 왕실 관련 언간 전체에, 그리고 각 시기별로, 또는 왕

이나 왕후 등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검토하여야 정확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단지, <순원왕후언간> 즉 왕실 언간 중에서 여성의 언간, 즉 왕실 여성 언간은 근대국어 시기에 생산적이었던 음운 현상이 사대부가 언간이나 간본 자료 등에 대비하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는 경향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왕실 언간에서 각 음운 현상이 어느 시기부터 시작되고, 확산 과정은 어떠한지, 즉 그 빈도와 비율을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순원왕후언간>에 나타난 음운 현상의 국어사적 가치가 명백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순원왕후언간>에 나타난 원순모음화 관련 용례는 1,457회가 검색된다. 이 중에서 원순모음화와 관련된 ‘· > ㅓ’를 겪은 용례는 33회이며, ‘ㅡ > ㅓ’를 겪은 용례는 11회가 분석된다. 비원순모음화와 관련된 ‘ㅓ > ㅡ’는 33회이며, ‘ㅡ > ㅓ’를 겪은 용례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용례는 ‘ㄱ, ㅂ’에서만 나타나는데, ‘ㄱ’ 아래에서 ‘· > ㅓ’가 33회, ‘ㅡ > ㅓ’가 7회, ‘ㅓ > ㅡ’가 17회이다. ‘ㅂ’ 아래에서는 ‘ㅡ > ㅓ’가 4회, ‘ㅓ > ㅡ’가 16회 나타난다. ‘ㄷ’ 아래에서는 원순모음화나 비원순모음화를 겪은 용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변화 유형	전체(1,457)			합계
		ㄱ	ㅂ	ㄷ	
원순모음화	· > ㅓ	33	0	0	33
	ㅡ > ㅓ	7	4	0	11
비원순모음화	ㅓ > ㅡ	0	0	0	0
	ㅓ > ㅡ	17	16	0	33
그 대 로	·	122	52	4	178
	ㅡ	75	219	9	303
	ㅓ	329	352	14	695
	ㅓ	99	85	20	204

<표-19>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관련 빈도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이 반영된 비율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순모음화 반영된 비율은, 해당 용례 525회 중에서 44회에서 반영되어 8.38%를 차지하며, 비원순모음화는 해당 용례 932회 중에서 33회가 나타나서 3.54% 비율을 보인다. <순원왕후언간>에 나타난 원순모음화 비원순모음화가 나타난 비율이

각각 8.38%와 3.54%로 산출되는데, 아직 이 인간의 원순모음화 관련 변화는 초기 단계에 놓인 것으로 분류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해당 음운 변화가 완료 또는 완성된 시기를 초과한 기간에 작성된 자료라 할지라도, 음운 변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동일한 시기의 다른 자료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연구 과정에 해당 비율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원순모음화 ·>ㅛ: 33회

가. ㅁ(33): 아모<순원봉서-02, 9회>, 아모디<순원봉서-18>, 아모가<순원어필-18>, 아모도록<순원어필-10>, 아모라타<순원봉서-16, 5회>, 아모려도<순원봉서-08, 3회>, 아모리<순원봉서-01, 10회>, 아모리나<순원어필-17>, 아모리도<순원봉서-25>, 아모조록<순원봉서-08>

나. ㅅ(0): 없음.

(2)에 제시된 ‘·>ㅛ’의 원순모음화 용례를 보면, 오로지 ‘ㅁ’에서만 확인되고, 또한 비어두 음절의 동일한 어형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ㅁ’에서는 21.29%의 비율로 원순모음화가 발생하지만, 동일한 어형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할 듯하다. 즉, 이 시기는 ‘·’의 비음운화 과정 중에서 16세기의 1단계 변화 이후로 3세기가 지난 뒤이므로, 비어두 음절에서 ‘·’는 ‘ㅛ’로의 변화 과정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 변화는 이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이전에 이미 완료된 것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자료에서 ‘아ㅁ’나 ‘아ㅅ’나 그리고 현대국어의 ‘아무’로 나타난 어형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의 방증이 될 것이다.

(3) 원순모음화 ㅁ>ㅄ: 11회

가. ㅁ(7): 무순<순원어필-12>, 무거워<순원한글박-12>, 무겁고<순원어필 07>, 무더워<순원한글박-09>, 무서운<순원어필-22>, 무섭다들<순원한글박-18>, 무섭디<순원봉서-33>

나. ㅅ(4): 부더<순원한글박-18, 2회>, 관작붓치<순원봉서-31>, 붕우<순원어필-21>

원순모음화 ‘一>ㅍ’는 ‘ㅁ’ 아래에서는 8.53%의 비율로 나타나며, ‘ㅂ’ 아래에서는 1.79%의 비율로 반영된다. ‘ㄹ’에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ㄹ’을 제외하고 원순모음화가 발생한 ‘ㅁ, ㅂ’만을 대상으로 계량하면 원순모음화의 발생 비율은 3.61%를 보일 뿐이다. 용례 중에서 ‘무순’(1회, <참고> 무순(19회))만을 제외하면, 나머지 다른 용례들은 원순모음화가 반영된 형태만 확인된다. 특히, ‘·>ㅁ’를 이전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이 자료에서의 실질 원순모음화는 3.61%라는 비율로 설명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존의 논의에서 원순모음화에 ‘·>ㅁ’와 ‘一>ㅍ’를 함께 포함시키므로 여기에서도 그 전례를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

(4) 비원순모음화 ㅍ>ㅁ: 33회

가. ㅁ(17): 무르시-<순원봉서-04, 2회, 問>, 무르와<순원봉서-07, 3회, 被>, 무를<순원봉서-04, 問>, 무든<순원어필-03, 染>, 무러<순원봉서-17, 4회, 問>, 무러보소<순원한글박-09>, 무르면<순원어필-15, 問>, 무릅디<순원봉서-15, 被>, 무던<순원한글박-10, 宿>, 무-<순원봉서-04, 2회, 問>

나. ㅂ(16): 무절업-<순원봉서-27, 3회>, 무상<순원봉서-09>, 무상<순원봉서-21, 4회>, 무상호-<순원봉서-09, 4회>, 무상무상<순원봉서-29, 2회>, 무그러오미<순원봉서-29>, 무여<순원한글박-15>

비원순모음화에 제시된 용례를 보면, 특정 어휘에 편중된 경향이 확인된다. 또한 ‘무든’(1회, 染, <참고> 무더(3회, 染))만 제외하면, 한 용례씩 나타난 ‘무던, 무그러오미, 무여’ 등도 비원순모음화가 반영된 이전의 어형, 즉 ‘무-, 무그림-, 무-’ 등으로 표기된 용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5) 형태소 경계 용례: 10회

아니무<순원봉서-27>, 나무<순원봉서-07>, 디내시무<순원어필-10>, 호무<순원어필-10>, 망이호무<순원봉서-17>, 뽕으시무<순원봉서-27>. 불평호무<순원봉서-27>, 무상호시무<순원봉서-33>, 현스호물<순원봉서-15>, 무상호물<순원한글박-23>.

(5)는 명사형 어미 ‘-음’에 조사 ‘은, 을’이 결합한 경우이다. 이때 ‘ㄱ’이 연철 표기되면 원순모음화가 적용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이 자료에서 확인된 형태소 경계에 나타난 유일한 환경이다. 그런데 이들에게서도 원순모음화는 하나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IV. 문법적 특징

1. 격조사와 선어말 어미의 특징

1.1. 격조사

1.1.1. 주격 조사¹⁰⁹⁾

<순원왕후언간>의 주격 조사로는 ‘이/가’, ‘의셔’, ‘겨오셔/겨오샤’, ‘의셔’가 쓰이고 있다.

형태론적 측면에서 근대국어의 특징 중의 하나인 주격 조사 ‘가’의 형태가 17세기 후반부터 문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¹¹⁰⁾ 처음에는 주로 ‘이’모음이나 하향이중모음 뒤에서 쓰이다가 18세기 중반부터는 다른 모음 뒤에서도 쓰이기 시작하였다. 현대국어와 같이 자음 뒤에서는 주격 조사 ‘이’, 모음 뒤에서는 ‘가’가 결합하는 것으로 확립된 것은 19세기 말이다.

<순원왕후언간>에서 쓰이는 주격 조사는 ‘이’와 ‘가’이다.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이’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가’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1) 가. 고요히 드리 안자 다시 운수 트이기가 기드리어는 거시 아니라<순원어필-01>

나. 상인 니외가 숙성호고 무결이가 관후흔 틀이 뵈더라 하니 다형 것거호니<순원어필-09>

다. 대관 거취가 심히 경솔호디 당자의 소견이 그리나 호고져 호엿는디 그는 모르게 습<순원어필-11>

109) <순원왕후언간>에서 보격조사는 주격 조사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보격조사는 따로 나누어 설명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주격 조사 함께 언급하기로 한다.

110) 16세기 후반 정철의 어머니가 쓴 언간에 나타난 ‘비가 세니러셔’의 ‘-가’를 주격 조사 ‘-가’의 최초 예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 다. 미슴의 간계가 이러듯 혀 명식 업는 지물을 드리며 말고져 홀 제는<순원어필-20>
- 라. 이 죄가 이시면 죄벌이 맛당하디<순원어필-21>
- 마. 내 뜻이 우리 김시와는 아니코져 혀미 두 후와 냥 도위가 분수의 과한 거시 두려워 슬흔 일이로세<순원봉서-01>
- 바. 터이 즉금 집안 부즈분인터 인기가 그러하려니 맞는 듯 마는 듯 하니<순원봉서-12>

(1)은 근대

국어의 ‘이’나 ‘ㅣ’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 ‘가’ 결합하는 예이다. 후기 중세국어에서부터 이들 모음 뒤에서는 주격 조사가 ‘Ø’의 형태로 나타났었는데, 이 언간에서는 이러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한다.

- (2) 가. 턴즈의 특이하시미 츄츄가 더하시고 지량이 느시면 영명지쥬가 되실너니 원통
앗갑고 블상 한심하니 국골홀 분이오며<순원어필-15>
- 나. 부모 후 도천스가 지똥하며 천만 심신희올 일이니<순원어필-15>
- 다. 거동이 과란혀 그러하디 눈감과 희소가 대치혀 무인블통하고<순원어필-18>
- 라. 이번 묘궁 던알은 가부가 엇더하고 그도 알고 시비<순원어필-18>
- 마. 가. 즈너가 거관폐덕홀 일이 업스니 엇디 거취를 덩하디 모르디<순원어필-18>
- 바. 이거시 녕상의 흥이오 봉패가 되여습느니이다<순원어필-19>

(2)는 ‘이’나 ‘ㅣ’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을 제외한 나머지 모음들의 예를 보인 것이다. (1마, 바)는 ‘ㅣ’모음으로 끝나고 있지만 이 시기 ‘ㅣ’, ‘ㅐ’, ‘ㅑ’ 등이 단모음으로 된 것을 고려한다면 (2가, 라)의 모음들과 큰 차이가 없다. 홍윤표(1994)에서 주격 조사 ‘가’는 대체로 모음이 ‘ㅣ’나 하향이중모음 아래에서 실현된다는 제한적 분포를 가지고 있고 18세기 중엽부터 그러한 조건이 해소되었다고 한 바 있다.¹¹¹⁾ <순원왕후언간>에서 그러한 조건이 해소되어 있다.

111) 그러나 실제로는 비이계 모음에서 주격 조사 ‘가’ 결합의 제한이 풀리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말엽부터이다. 그 예로 1685년(숙종 11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어제 거동의 니광하가 통네 막혀 압히 인도홀 제 보옵고<숙휘-07>”를 들 수 있다. 한글편지에서는 이 시기부터 비이계 모음에

한편 중세국어 이래로 대명사 ‘나’, ‘누’, ‘저’에는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였으나, <순원왕후언간>에서는 ‘내’, ‘뉘’, ‘제’에 다시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한다.

(3) 가. 내가 도위 블상호를 혼째나 니즐가 본가<순원한글박-23>

나. 이제야 뉘가 본성의 비상호시던 줄을 알 니가 업스니<순원어필-03>

다. 제가 뿌디 뉘가 뿌디 망측 인스로세<순원봉서-15>

(4) 가. 내 이리흔들 뉘 므어시라 흐리 하여 이리흐니 절분하기 측냥업니<순원봉서-11>

나. 이를 조이도 아녜터니 제 스스로 하고 나니 췌타 홀 거시오<순원어필-02>

(3가)는 1인칭 대명사 ‘나’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인 ‘내’에 (3나)는 미지칭의 인칭대명사 ‘누’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뉘’에, (3다)는 3인칭 재귀대명사 ‘저’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제’에 다시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한 것이다.¹¹²⁾ 기원적으로 주격(또는 관형격) 조사가 ‘내’, ‘뉘’, ‘제’에 다시 주격 조사가 결합한다는 것은 이미 언중들은 이미 이들이 주격형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곧 언중들에게 ‘내’, ‘뉘’, ‘제’는 하나의 어휘로 인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4)의 경우에는 ‘가’가 쓰이지 않았다. 이들이 주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인지 ‘내’, ‘뉘’, ‘제’의 ‘이’가 주격 조사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3)의 예를 본다면 (4)의 예들은 주격 조사 ‘가’가 생략된 형태로 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

서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하는 예들이 종종 나타난다.

112) 이러한 형태는 판본이나 언간에서 모두 18세기부터 등장한다. 다음은 판본과 언간(또는 필사본)에서 각각 최초로 등장하는 ‘내가’, ‘뉘가’의 예이다.

가. 關氏니 너 췌이 되나 내가 關氏니 後入 남편이 되나<악학습령,980>

나. 떨어져 보내디 못하여 하 하니 내가 뿌니 한아비기 엇줍고 브디 어더 주쇼셔 하여라<송준길가-71>

가. 뉘가 오늘날 이러흔 흥년을 만나 내 북녁 빅성으로 하여금 거둬 기근에 걸닐 줄을 뜻하여 시리오<어제유함경도남관북관대소사민윤음,4a>

나. 뉘가 막즈물 이가 이셔 흐디 아니흐느냐<선부군언행유사,30b>

다음은 주격 조사 ‘이’의 예이다.

(5) 주격 조사 ‘이’

- 가. 내 즈너를 닛고 싱각이 업손 줄노 아디 마소<순원한글박-20>
- 나. 일후 한란이 고르디 못혀여 그러흔 듯 답답 브리디 못혀며<순원한글박-06>
- 다. 츄일이 흰창흐니 기운흐시고 이스이논 견비통은 엇더흐시니잇가 브리디 못혀오며<순원어필-02>
- 라. 이 압흔 므읍이 더 늙어 미리 엇더혀여시리라 못혀디<순원어필-02>
- 마. 짚이 이제야 덩혀게시니 식훤 깃브오이다<순원어필-07>
- 바. 인정이 응당 그러홀 거시니 깃브고<순원어필-02>
- 사. 이거시 내게논 스업이니<순원어필-10>

(5)는 각각 선행자음에 따라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예들을 보인 것이다. 선행 자음이 ‘ㄱ, ㄴ, ㄷ, ㅁ, ㅂ, ㅇ’일 때는 항상 분철이 되어 나타나지만, ‘ㅅ’일 경우에는 (5사)와 같이 연철이 된다.

그렇지만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도 ‘이’가 결합하는 예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예는 드물다.

(6) 터이 즉금 집안 부즈분인디 인기가 그러혀려니 밋논 듯 마논 듯하니<순원봉서-12>

- (7) 가. 모모혀여 모르논 터이 아니니 그러디 마더면 시븐 므읍이 잇더니<순원봉서-04>
가. 우리 집 터히 된 밋 이째 엇디 인스 도리의 못 혀리라 할가 보니<순원어필-17>
나. 응당 혀염죽흔 일노 비로셔시니 놀납디 아닌 배 아니로디 숨을 내쉬엿디<순원봉서-15>

(6)은 명사 ‘터’와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예를 보인 것이고, (7)은 역시 명사 ‘터’와 보격조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이 자료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예외 없이 주격 조사와 보격조사 ‘가’가 결합한다. 그러므로 일견 (6)은 예외적인 존재로 보인다. 그러나 (6)과 (7)의 ‘터’는 중세국어에서부터 (7나)와 같이 ‘ㅎ’ 종성체언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격 조사 및 보격조사 ‘이’가 결합하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기원적으로 ‘ㅎ’ 종성체언이었던 경우에는 (7가’)와 같이 ‘ㅎ’을 유지한 ‘터히’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6), (7가)와 같이 ‘ㅎ’이 탈락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¹¹³⁾ 곧 (6), (7가)는 일견 모음으로 끝난 체언에 조사 ‘이’ 결합한 형태로 보이지만 ‘ㅎ’ 종성 체언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곡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7나)의 ‘배’는 ‘바+ㅣ(보격조사)’로 분석할 수 있는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ㅣ’가 결합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7나) 한 예만 보인다.

이 언간에서 존칭의 주격 조사로는 ‘긔셔’와 ‘겨오셔/겨오샤’의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8) 주격 조사 ‘긔셔’

- 가. 유상긔셔 태평ㅎ시고 오월이나 보니 텃성이 순전이 착ㅎ시니<순원어필-03>
- 나. 오라바님긔셔 더째 막이 불평ㅎ시다 ㅎ더니 이스이는 쾌춌ㅎ신가<순원어필-09>
- 다. 우리 상감긔셔 성심이 도로ㅎ시면 양춘이 도라와 여전홀 거시니<순원봉서-15>
- 라. 당신긔셔 ㅎ여 먹이는 것보다 나은가<순원봉서-27>
- 마. 판관긔셔 감세 더 거시고 즈너도 신긔 엇더ㅎ디 알고져 ㅎ며<순원봉서개인-02>

(9) 주격 조사 ‘겨오셔/겨오샤’

- 가. 정묘겨오셔도 둥간은 만히 회오ㅎ시는 성님도 겨오시디 뵙 ㅎ디 아니신 말씀이 올너이다<순원봉서-24>
- 나. 마마겨오샤도 열예쾌할ㅎ실 거시오<순원봉서-24>

(8)은 ‘긔셔’의 예이고 (9)는 ‘겨오셔/겨오샤’의 예를 보인 것이다. (8)의 ‘긔셔’는 중세국어에서 ‘띄셔’로 나타나는데, 이 언간에서는 항상 ㅅ이 탈락된 ‘긔셔’로 나타나고 있다. ‘띄셔’는 “존칭의 여격”을 표시하는 부사격 조사 ‘-띄’와 동시 ‘잇/이시-’의 활용형 ‘이셔’에서 기원한 ‘-셔’의 결합형이 높임의 주격 조사로 발전한 것이다.¹¹⁴⁾ 부사격 조사 ‘띄’는 높임의 관형격 조사 ‘ㅅ’과 지시대명사 ‘거긔’의 결합으로

113) 목적격 조사가 결합한 ‘터홀’이 <순원왕후언간>에서도 ‘넌들 팔즈 험흔ㅎ여 이리흔 터을 당ㅎ여 종샤를 위ㅎ여 마디뫓 이 거조를 ㅎ니<순원어필-18>’와 같이 ‘터을’로 나타난다.

부터 문법화한 것이기 때문에 ‘찌’나 ‘찌셔’에서 ‘ㅅ’은 수의적으로 탈락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그런데 <순원왕후언간>에서는 이들이 모두 각각 ‘긔’와 ‘긔셔’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¹¹⁵⁾

(9)의 ‘겨오셔/겨오샤’는 기원적으로 ‘겨시-’에 ‘-습-’의 이형태인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한 ‘겨오시-’에 연결어미 ‘-어’가 결합한 것으로 이들 형태는 17세기부터 보인다.¹¹⁶⁾ <순원왕후언간>에서 ‘겨오셔/겨오샤’는 (9)의 예가 전부일 정도로 드물게 쓰였다. 이승희(2000)에서는 ‘겨오셔/겨오샤’는 특별히 극존칭을 해야 할 대상과 결합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하였는데, (9)의 ‘마마’, ‘정묘’가 ‘상감’, ‘유상’보다 특별히 극존칭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긔셔’와 ‘겨오셔/겨오샤’가 결합하는 체언들을 보았을 때 대우 관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한편 <순원왕후언간>에서는 ‘의셔’가 주격 조사로 쓰이는 일이 있다.

(10) 주격 조사 ‘의셔’

- 가. 마마겨오샤도 열에 쾌할호실 거시나 우리 집들의셔 이런 생각 아니면 뉘가 손
 붓치라 할가 보오니잇가<순원봉서-24>
- 나. 외간의셔 내 시비가 만타 호고 우원 범스가 갑오년 굿디 아니니 노흔호여 그러
 혼가 보다<순원어필-11>
- 다. 수처의셔 내게 봉서호며 이번 칭경 광탕지던을 브란다 호고 텃청호시과져 혼 스
 연이니 <순원봉서-04>
- 라. 세상의셔 죄가 가타 호는디 비티 못홀 거시니 네희가 내 말을 박절이 알 듯호디
 미양<순원봉서-29>
- 마. 대던의셔 결단코 그른 일은 아니실 거시오<순원어필-10>
- 바. 우희셔 브라 호여 거시니 척춘지디가 왕토 아닌 디 업스니<순원어필-17>

114) ‘찌셔’는 중세국어세 탈격으로 쓰이다가 17세기 특정 문헌에서부터 주격 조사로 해석될 수 있는 예들이 발견된다.

가. 당 싱원찌셔 조귀 혼 못 마늘 보내여다<병자일기 76>

나. 太守 솔오른 출하리 半程이나 모실 썬슬 信使찌셔 구티여 말리는 故로 太守 | 비를 저어
 나아<침해신어(초간본)8:31a>

115) 이승희(2010), 앞의 책, 97쪽.

116) ‘겨오셔/겨오샤’의 또 다른 형태인 ‘겨옵셔’에 대해 김현주(2013)에서는 동사 ‘겨-’에 선어말 어미 ‘-습시-’가 융합하여 이루어진 동사로 보았다.

(10)의 밑줄 친 부분은 문장의 주어로서 ‘의셔’는 주격 조사로 쓰였다. 현대국어에서 ‘에셔’가 단체 명사에 결합하여 주격 조사로 쓰이는 것과 비슷한데, <순원왕후언간>에서는 단체 명사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기도 한다. (10가~라)의 ‘우리 집들’, ‘외간’, ‘수쳐’, ‘세상’은 단체 명사라 할 수 있는데 (10마)의 ‘대던’과 (10바)의 ‘우ㅎ’은 모두 단체 명사라 하기 어렵다. ‘대던’은 “임금이 거처하는 궁전”에서 “대전에 거처하는 임금”을 뜻하고 ‘우ㅎ’ 역시 ‘임금’을 뜻하기 때문에 개인을 뜻하는 명사에 ‘의셔’가 결합하여 주격 조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의셔’가 결합하는 명사는 ‘대던’, ‘우ㅎ’과 같이 높임의 대상인 경우도 있지만 (10가~라)는 높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가’와 ‘의셔’, ‘겨오샤/겨오셔’가 높임과 안높임의 대응을 이룬다면 ‘의셔’는 높임의 표현 의도가 중화된 경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2. 목적격 조사

<순원왕후언간>에서 목적격 조사는 ‘을’, ‘을’, ‘를’, ‘를’이 쓰이는데, 먼저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1) 목적격 조사 ‘을’, ‘을’

- 가. 이씨것 하장을 아니 혀여습<순원어필-02>
- 나. 내가 도위 블상혀를 흔째나 니즐가 본가<순원한글박-23>
- 다. 곤절이 브라는 거술 흔 휴지로 보고 디답을 흔가 혀여<순원봉서-27>
- 라. 드른 것 업스니 프어술 빅흔 거시 이실가 본고<순원봉서-02>
- 마. 혀나히나 혀여 주어셔는 게 쫓출 다라 누고는 시기고 누고는 못 흔다<순원어필-20>

(11가, 나)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다음에 ‘을’이 결합한 예를 (11다~마)는 ‘을’의 예를 보인 것이다. (11가, 나)와 같이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에는 ‘을’이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만 (11다, 라)와 같이 ‘것’, ‘므엇’과 같이 ‘스’으로 끝

나는 체언에만 ‘을’이 결합한다. (11마)와 같이 ‘꽃출’과 같은 예외적인 예도 보이기 는 하나, 대체적으로 선행체언의 말음이 ‘ㅅ’일 경우에만 ‘을’이 결합하고 연결 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명사형 어미가 결합된 용언의 명사형이나 ‘ㅅ’으로 끝나는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될 때는 (11나~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연결이 된다. <순원왕후언간>에서 ‘을’과 ‘을’은 더 이상 모음조화에 따라 결합하는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 관계가 아니라 ‘을’은 ‘ㅅ’으로 끝나는 어휘에만 결합하는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가 되어 버린 것이다.

(12) 목적격 조사 ‘를’, ‘를’

- 가. 스연은 보고 덩희상드려 연유를 이르고 슈분을 드리라나 하여 물너 보내여 주라
 훈죽<순원한글박-04>
- 나. 내 가서 증손녀를 생각 밧 보아시니<순원어필-25>
- 다. 밧그로 죄를 엄쳐하려 하시다가 그리하신 일을 었디 잘홀가 보니<순원한글박-02>
- 라. 운수를 브르와 회환고토히여 동기 즈달이 관낙하여 디내니<순원봉서-07>
- 마. 병시는 대과를 하니 외오셔 괴희하고 대신괴셔 깃거하시라 깃브디<순원봉서-33>
- 바. 그는 도위를 위하여 아니하는 일이니<순원한글박-23>

(13) 가. 위인이 이리하고 어이 이 터을 당한 줄만 설우니 견딜 수 잇는가<순원어필-18>

- 나. 하늘의 명도 타기를 괴구이 하여 이 터를 거둬 당하여 흥쇠가 여긔 이째 달너
 시니<순원어필-10>

(12)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결합하는 ‘를’과 ‘를’의 예를 보인 것이다. (12가~다)는 ‘를’의 예, (12라~바)는 ‘를’의 예이다. 중세국어에서 ‘를’과 ‘를’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에 따라 선택된 이형태 관계였다. 그런데 (12가)의 ‘연유’, (12나)의 ‘증손녀’와 같이 음성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도 ‘를’이 결합하고 (12다)의 ‘죄’와 같이 양성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도 결합한다. ‘를’도 마찬가지로여서 ‘운수’, ‘도위’와 같이 음성 모음이나 ‘대과’ 같

은 양성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도 모두 결합한다. <순원왕후언간>에서는 ‘를’과 ‘를’은 모음조화에 따라 결정되는 이형태가 아닌 것이다.

한편 (13)의 ‘터’에 결합하는 목적격 조사는 ‘을’과 ‘를’ 모두 결합하는 특징을 보인다. (13가)는 일견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을’이 결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격 조사에서 본 바와 같이 ‘터’가 ‘ㅎ’ 중성체언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격 조사, 보격조사 ‘이’가 결합하는 것과 같이 ‘을’이 결합하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13나)는 ‘ㅎ’이 이미 탈락하여 ‘터’로 굳어진 상태로 인식되는 형태에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근대국어 후기의 자료에서 목적격 조사 ‘을’과 ‘을’, ‘를’과 ‘를’의 선택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인다. 그런데 <순원왕후언간>에서는 이러한 경향성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순원왕후언간>의 목적격 조사 형태의 분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 체언 말음의 음운론적 환경	을			을			를	를
	분철	연철	중철	분철	연철	중철		
자음	0	7	1	176	2	0		
모음				1	0	0	27	61
계(187)	0	7	1	177	2	0	27	61
비율	3.74%			96.26%			30.68%	69.32%

<표-20> <순원왕후언간>의 목적격 조사 형태의 분포

<표-20>을 보면 ‘을’과 ‘을’ 가운데 ‘을’이 압도적임을 볼 수 있고, ‘를’과 ‘를’ 가운데 비교적 ‘를’이 우세한 것을 볼 수 있다. 곧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에는 ‘을’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는 ‘를’이 결합하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는데,¹¹⁷⁾ 이 자료에서는 그러한 경향성과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목적격 조사

117) 언간을 대상으로 목적격 조사와 주격격 보조사의 단일화를 다룬 김성옥(2018)에서는 16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의 언간에서는 주격격 ‘은/은/는/는’과 목적격 ‘을/을/를/를’이 체언말의 음절구조에 따라, 즉 체언 말음이 폐음절이면 주격격과 목적격이 각각 ‘은/은>은’과 ‘을/을>을’로의 변화 과정을 보이는데 반해 개음절일 때는 16세기 언간에서 19세기 언간에 이르는 동안 줄곧 ‘·’가 있는 ‘는’과 ‘를’로의 모습이었다고 하였다.

결합의 특이성을 살펴보기 위해 비슷한 시기의 <김성일가 언간>과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김성일가 언간>의 목적격 조사 형태의 분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 체언 말음의 음운론적 환경	을			을			를	를
	자음	연철	중철	분철	연철	중철		
자음	0	67	3	531	25	3		
모음				29			183	40
계	0	67	3	560	25	3	183	40
비율	10.64%			89.36%			82.06%	17.94%

<표-21> <김성일가 언간>의 목적격 조사 형태의 분포

<김성일 언간>에서 ‘을’과 ‘을’을 비교할 때 ‘을’이 압도적인 것은 <순원왕후언간>과 같다.¹¹⁸⁾ 그러나 ‘를’과 ‘를’을 비교하였을 때는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순원왕후언간>에서는 ‘를’이 30.6%, ‘를’이 69.32%를 차지하는 반면, <김성일 언간>에서는 ‘를’이 82.06%를 ‘를’이 17.96%를 차지하여 <순원왕후언간>과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김성일 언간>은 근대국어 후기의 목적격 조사 결합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순원왕후언간>은 ‘를/를’의 결합에서 근대국어 후기의 전형적인 모습과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특이하다 할 수 있다.

1.1.3. 부사격 조사

1.1.3.1. 처소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는 ‘의’, ‘에’가 주로 쓰이며 드물게 ‘의’도 쓰인다.

(14) 부사격 조사 ‘의’

118) <김성일 언간>에서도 선행 체언의 말음이 ‘ㅅ’일 때 ‘을’이 결합하는데 김성일 언간에서 ‘것’과 ‘무엇/무엇’ 등의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많아 ‘을’이 10.64%를 차지한다.

- 가. 진강의 든니고 강혹 말숨을 즈로 호소<순원봉서-02>
 나. 더째 등연의 뵈오니 신관이 노상 혈식이 업고 막이 패호여 겨시니<순원어필-01>
 다. 이 음식이 도병기 과경으로 부부인 가묘의 치제 호신 다고 박동서 드렛기 보게 보내나 곳어 먹엄죽든 아니히<순원한글박-19>
 라. 즉금은 두 곳의 서 와시니 판셔 드려 물정도 과연 그러 호며<순원봉서-04>

(15) 부사격 조사 ‘에’

- 가. 막음이 도티 못 호셔도 술에 붓치 시고 식스는 뵈히 아니 겨신가 보니 그리 호신 즉<순원어필-09>
 나. 몇 돌 길에 빋쳐 와 안힐티 못 호고 그러 툇 디내 니 엇더 호고 넘 너 며<순원어필-24>
 다. 즈 딜 들 상상 경계 호여 귀 눈에 닉 게 호 읍<순원봉서-33>
 라. 즈 니 막 음 인 들 남 이 에 서 정 성 이 압 셔 지 뒤 질 니 는 업 술 거 시 니<순원봉서-25>

(16) 부사격 조사 ‘의’

- 가. 가 화는 보 고 져 드 려 시 니 귀 호 여 압 히 노 코 보 니 괴 절 호 고 진 짓<순원건국-01>
 나. 블 긴 호 고 가 온 터 로 썩 리 는 거 시 분 명 될 거 시 니 우 히 덕 되 디 아 닌 말 숨 은<순원봉서-27>
 다. 길 히 서 홍 보 를 드 르 시 고 경 참 비 통 호 여 겨 실 거 시 오 니<순원봉서-09>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전반적으로 ‘의’의 사용이 우세하며, 적은 예이지만 ‘에’도 사용된다.¹¹⁹⁾ (14)는 ‘의’의 예이며, (15)는 ‘에’의 예이다. (16)은 ‘의’가 결합된 예인데, 이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전부이다. (14)의 ‘의’와 (16)의 ‘의’는 중세국어에서 ‘뵈, 뵈, 갓, 우 호, 압, 밧 기, 뵈, 밧, 새 박, 나 조 호’ 등 특정 체언에만 결합하였으나¹²⁰⁾, 근대국어에 와서는 중세국어에서 ‘에/애’를 취하던 체언과도 결합할 수 있다.

<순원왕후언간>에서는 처격을 나타내는 조사로는 ‘의’가 가장 많이 쓰이며

119) <순원왕후언간>에서 처소를 표시하는 부사격 조사 ‘에’는 12회 나타난다.

120) 박형우(2010), 「15세기 특이처격어에 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57, 한민족어문학회, 165~188쪽.

(16)에서 보이는 ‘익’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언간에서 처소를 나타내는 주된 부사격 조사는 ‘의’라 할 수 있다.¹²¹⁾ 한편 (15)의 ‘에’와 함께 모음조화에 따라 선택되던 부사격 조사 ‘애’와 중세국어에서 보이던 ‘ㅣ’ 모음 다음에 나타나던 부사격 조사 ‘예’는 이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의’, ‘에’, ‘익’에 ‘셔’가 결합한 (14라)의 ‘의셔’, (15라)의 ‘에셔’, (16다)의 ‘익셔’도 볼 수 있다.

1.1.3.2. 상대

부사격 조사 가운데 상대를 나타내는 여격 조사로는 ‘의게’, ‘긔’, ‘드려’ 등이 쓰인다.

(17) 부사격 조사 ‘의게’

- 가. 또 구긔 님즈가 놈의게 푼라먹은 것 아니오<순원어필-17>
- 나. 나도 판셔의게 좁 아니 닐러시니 두고 보소<순원한글박-10>
- 다. 너가 대스로이 전갈을 햏여 느려간다 햏여도 부마의게 미안되여 그만 일의 황송
햏게 그리햏가 보니<순원한글박-04>
- 라. 봉셔햏와 스연은 보아시니 이대로 햏려니와 공판의게 봉셔햏여 대신의게 돌니는
거슨 심히 성실티 아니햏<순원봉서-19>

(18) 부사격 조사 ‘긔’

- 가. 심히 므음이 햏연햏읍기 이 말을 대신긔 쟤랑코져 햏디 날마다<순원어필-07>
- 나. 이 초를 잡아시니 판셔긔도 보내려니와<순원봉서-32>
- 다. 판셔긔 햏 스연은 보고 넌들 그 일이 의외오 어척업슨 줄 모르디 아니나<순원봉서-11>

(19) 부사격 조사 ‘드려’

- 가. 햏석쑤 과거햏엿다 햏기 의심을 과연 햏여 날드려도 니르디 아니코 햏엿는가 미
안햏터니 츄후야 알고 그러티 아닌 줄 아라시니 나도<순원어필-02>
- 나. 오창열이드려 이 말을 햏고 므려 보소<순원석주선-01>

121) 중세국어에서 보이던 ‘ㅣ’ 모음 다음에 나타나던 부사격 조사 ‘예’는 이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 둥난호오니 놀드려 못죽음도 어렵습고 눈척가 용여들 호오시는가 보옵더이다<순원어필-16>

라. 내 소견은 므춤내 올흔 줄을 모르기 판서드려도 움기디 아니코 업시 호엿더니
<순원봉서-04>

(17)은 ‘의게’, (18)은 ‘긔’의 예이다. ‘의게’와 ‘긔’는 각각 안높임과 높임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동일 체언에 대하여 ‘의게’가 결합하기도 하게 ‘긔’가 결합하기도 하는데, 이는 화자와 여격의 조사가 결합하는 체언의 관계가 상대적이거나 체언이 지칭하는 인물이 다르기 때문이다. 존칭의 여격을 표시하는 부사격 조사는 중세국어 이래로 ‘스그에’, ‘째’, ‘스긔’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존칭의 관형격 조사 ‘스’과 ‘긔’를 의미하는 지시대명사 ‘그에/게/거긔’의 결합에서 기원한 것이다.¹²²⁾ 그런데 <순원왕후언간>에서는 형태적 측면에서 앞에서 살펴본 존칭의 주격 조사 ‘긔셔’와 함께 ‘씩’에서 시 탈락한 ‘긔’의 형태로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9)의 ‘드려’는 안높임의 체언에만 결합한다. 따라서 ‘의게’, ‘드려’는 ‘긔’가 높임에서 대립을 이루고 있다. ‘드려’는 중세국어에서 주로 ‘니르-’(謂) 등의 화행동사와 함께 쓰였다. 이 자료에서도 (19가)와 같이 ‘니르-’와 함께 쓰인 예가 있지만, (19나)의 ‘말을 호-’, (19다)의 ‘못(묻)-’과 같은 화행동사가 쓰인 경우도 있다. (19라)는 ‘움기-’와 함께 쓰였는데, 이 예는 ‘판서에게도 (말을) 움기지 았고 았엿더니’ 정도로 이해된다. 이때 ‘움기다’는 ‘말을 움기다’ 정도로 해석되므로 ‘움기-’ 역시 ‘더러’ 다음에서 화행동사로 쓰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1.3.3. 비교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는 ‘에셔’, ‘보다’, ‘궂티’ 등이 있다. 중세국어에서 비교를 나타내는 구문에 사용되는 조사로는 ‘라와’, ‘두곤’, ‘에’, ‘에셔’, ‘론’ 등이 있었다.¹²³⁾ 그러나 ‘라와’, ‘두곤’¹²⁴⁾, ‘론’의 예는 <순원왕후언간>에서는 더 이

122) 이승희(2010), 앞의 책, 162쪽.

123) 각각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抖擻호야 오온 모미 히요미 서리두고 더으니<금삼 2:61b>

나. 조히 히샤 光明 조^호샤미 珮雪돌해 더으샤미 三十一이시고<법화 2:14a>

상 나타나지 않고 대신 ‘보다’가 나타난다.

(20) 가. 남즈의 스업이 이에서 꽤대흔 거시 업술 듯흐니<순원봉서-15>

나. 그는 이에서 더흐니 혼가지로 처치흐소<순원어필-04>

다. 수일 칩기 심동이에서 못흐디 아니흐니 브리디 못흐니<순원한글박-25>

라. 즈니 므음인들 남이에서 정성이 압셔지 뒤질 니는 업술 거시니<순원봉서-25>

(20)은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쓰인 예문이다. (20가~다)는 정도 서술어가 (20라)는 우세 서술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세국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20)에 쓰인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의 형태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세국어에서부터 ‘에’, ‘에서’가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여 왔다. (20가, 나)의 ‘이에서’는 ‘이(대명사)+에서(부사격 조사)’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20다, 라)의 ‘심동(深冬)이에서’, ‘남[他]이에서’에서 ‘에서’를 분석해 내면 ‘심동이’, ‘남이’가 남는데, 이때의 ‘이’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에서’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이’ 형태를 가진 것이 특별히 떠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를 접미사로 보기도 어렵다. 한 가지 방법은 ‘이에서’ 자체를 부사격 조사로 보는 것이다. 이 ‘이에서’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대명사) + 에서(부사격 조사)’에서 유추되어 나왔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가능하다면 (20가, 나)의 ‘이에서’는 ‘이(대명사) + 이에서(부사격 조사)’로 볼 가능성도 있다.

다음은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보다’의 예이다.

다. 各別히 勞心호믄론 더으니라 <중략> 이런드로 닐오더 속절업시 안갯다 니르디 말라 오히려 各別히 勞心호믄론 더으니라 흐니라<금삼 4:30b>

라. 南閣浮提 中에 혼 아드리어나 혼 쓰리어나 혼 남진 종이어나 혼 겨집 종이어나 브려 부텃디 出家호야도 八萬四千 浮圖寶塔 세요므라와 더어<월석 23:76b>

124) 중세국어에서 활발히 쓰이던 ‘두곤’은 18세기까지 연해류, 일기류, 인간류, 역학서류 등에서 발견되지만, 19세기를 기점으로 하여 그 기능이 거의 쇠퇴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에는 많은 문헌에서 ‘두곤’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몇몇 자료에서만 나타난다. ‘두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순원왕후언간>은 이러한 ‘두곤’의 역사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 (21) 가. 일견 일강의 드러와 겨실 때 보니 신관이 향니보다 니도이 씨긋혀 뵈시니
 <순원봉서-18>
- 나. 판서의 혼자 소견보다는 나을 거시니 그런 생각 뜻은 다시 내디<순원봉서-25>
- 다. 당신괴셔 혀여 먹이는 것보다 나은가 이 먹음은 겨시리<순원봉서-27>
- 라. 창구는 두어 번 나 보던 때보다 크기 담비대 물부리 구무만이나 실혀나<순원한
 글박-12>

(21)은 ‘보다’와 함께 정도 서술어와 우세 서술어가 나타나 비교 구문을 형성하고 있다. ‘보다’는 역사적으로 동사 ‘보-’의 활용형 ‘보다가’에서 문법화하여 18세기 중엽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⁵⁾ 또한 박진호(2008)에서는 ‘보다가’에서 ‘가’가 탈락한 ‘보다’, 그리고 여기에 ‘ㄴ’, ‘ㄹ’이 결합한 ‘보단’, ‘보담’이 1860년대 문헌에 나타나므로 ‘보다’가 늦어도 19세기 중엽에는 생겼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언간에서는 17세기 중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¹²⁶⁾ 18세기 말에 한 예를 보이다가¹²⁷⁾ 19세기부터 점차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21)의 예들은 중세국어에서 ‘두곤’ 구문에서 확인되던 다양한 유형에 속한다. 따라서 ‘두곤’에 의한 비교 구문은 <순원왕후언간>에서 모두 ‘보다’로 대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1.3.4. 출발점, 지향점(수단 등), 함께함 등

<순원왕후언간>에서 출발점, 지향점(수단 등), 함께함 등을 나타내는 조사는 ‘브터’, ‘로셔’, ‘와/과’ 등이 쓰였다.

125) 홍윤표(1976), 「비교 구문에서 격어미와 후치사」, 『학술원 논문집』 15, 222쪽.

126) 이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가. 나는 거월브터 원편 녀피 올흔편보다가는 더워 인척이나 신 심원이나 증을 잡디 못혀
 혀며<송준길가-25>

나. 형님겨오셔도 서울보다가는 가족이 와 겨신 듯혀나 뵈올 길도 업고 문안도 즈로 모르니
 섭섭혀며<선찰-9-112>

(가)의 <송준길가-25>는 1668~1698년 사이에 쓰인 편지이며, (나)의 <선찰-9-112>는 1660~1708년 사이에 쓰인 편지이다.

127) 이에 해당하는 예는 “이 속보다는 압뒤 품 두 품식 주리라 혀려라<추사가-11>(1793년)”이다.

(22) 가. 신년브터는 기력이 월월일일 강건하며<순원어필-23>

나. 승지가 봉서 가지고 가시면 절노 아래로셔 알 일이 아닌가<순원봉서-19>

다. 혼жат 물욕의 르든 님군으로만 알 일이 원통원통히<순원어필-03>

라. 동동히 니를 것 업는 거시 쳐는 눈으로 보니 알너니와<순원봉서-01>

마. 하늘의 호고져 호시는 대로 호고 인녁으로 호디 못함과 썩긋티니 민망호여도
견딜 거시오<순원봉서-27>

바. 아모리 되던니 관망호고 놉과 긋티 안져시라<순원봉서-25>

(23) 지명일은 스도한다 호니 전과 스이 더욱 섭섭홀 분이 아니라<순원어필-05>

(22가, 나)는 출발점을 나타내는 ‘브터’와 ‘로셔’의 예이다. ‘브터’는 ‘논’, ‘야’와 같이 보조사가 결합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근대국어에 출발점을 나타내는 ‘셔’도 있었는데 이 언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22다, 라)는 지향점 또는 자격, 수단 등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으)로’의 예이다. (22마, 바)는 함께 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과’의 예이다.¹²⁸⁾

한편 (23)의 ‘과’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23)은 수신인인 김홍근(재종동생)이 지방으로 부임하게 됨에 따라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된 것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면서 ‘전과 스이 더욱 섭섭홀 분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더욱 섭섭홀-’라는 정도 서술어구가 등장함에 따라 이들을 비교 구문으로 볼 수 있고, 비교의 대상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예문에 대해 이승희(2010)에서는 “모래는 사조를 한다고 하니 전보다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더욱 섭섭할 뿐만 아니라”로 해석하고 있다. “전보다 미래의 사이가 더 멀어질 것” 정도로 이해되어 여기에서 ‘과’는 비교구문의 조사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1.4.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로는 ‘의’가 확인된다.

128) ‘과’의 경우 근대국어 후기에 선행어의 음운론적 조건과 관계없이 ‘과’나 ‘와’가 쓰이기도 하였는데 <순원왕후언간>에서는 모두 선행어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와’, ‘과’가 결합된다.

- (24) 가. 정남의 혼인의 빚 되디 아니터니<순원어필-07>
 나. 내 몸의 한가흠과 집을 위하여셔는<순원어필-09>
- (25) 가. 불행이 내 집의 패악한 죽식이<순원어필-04>
 나. 네 삼촌 덕거는 지금 의외 꿈갓터니<순원봉서-29>
 다. 각각 제 궁의 니코져 하여<순원어필-20>

(24)는 관형격 조사 ‘의’의 예를 보인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관형격 조사는 ‘스’, ‘이/의’가 사용되었는데, ‘스’은 근대국어에서 관형격 조사로서의 기능을 잃고 합성어의 표지로서만 사용되었다. 이 언간에서는 그마저도 사용되고 있지 않다. 또한 모음조화에 따라 ‘이’와 ‘의’가 교체되던 것도 ‘·’의 소멸에 따라 <순원왕후언간>에서는 ‘이’도 사용되지 않아 관형격 조사는 ‘의’로 단일화되어 있다. (25)는 ‘나’, ‘너’, ‘저’에 각각 관형격 조사가 결합된 ‘내’, ‘네’, ‘제’를 보인 것이다. 근대국어에서 관형형 ‘내’ 등에 다시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내의’ 같은 형태들이 사용되었으나¹²⁹⁾, <순원왕후언간>에서는 ‘내의’와 같은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24나) ‘내 몸의 한가흠’의 ‘의’는 소위 주어적 속격으로 해석할 만한 예이다.

1.1.5. 접속 조사

접속 조사는 중세국어 이래 ‘와/과’와 ‘호고’가 사용되었는데 이 언간에서는 ‘와/과’만 사용되었다.

- (26) 가. 혼 던 하는 말노 결단하는 거시 엇더홀고 게 의심이 업스면 너형의 초관을 조
상과 부모를 이육츄락하는 거술 슬녀 둘 길이 업스니<순원어필-04>

129) 관형형 ‘내’, ‘네’ 등에 다시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예들은 다음과 같다.

- 가. 季秋애는 네대로 禰예 祭호더 내의 生日로써 祭호노니<가례언해 10:41a>
 나. 帝ㅣ 굴으샤더 뒤 내의 采를 若호리를 呑호고<서전언해 1:5b>
 다. ㅁ읍을 싱각호야 언노를 여러 총명을 널니므로 卞 내의 ㅁ져 힘쁠 거술 삼으면 중국이 반석의 평안호미 잇고<어제조훈언해, 13b>
 라. 出入을 내의 師로 부터 虞호야 庶言이 同호거든 곧 繹호리라<서전언해 5:34a>

- 나. 눈감과 희소가 대치혀 무인불통호고<순원어필-18>
- 다. 판관과 아히들 애빨 일 답답 민망하니<순원봉서-14>
- 라. 뜻이 우리 김시와는 아니코져 흐미 두 후와 냥 도위가 분수의 과하는 거시 두려
 위<순원봉서-01>
- 마. 기록 년간 상소와는 그때 말도 다 드러시디<순원봉서-11>

(26가~다)는 ‘과’의 예를 (26라, 마)는 ‘와’의 예를 보인 것이다. (26)에서 보듯이 접속 조사의 ‘와/과’는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의 ‘와/과’와 기능과 다르지 않다. 또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다음에는 ‘과’,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다음에는 ‘와’가 사용되어 중세국어와 달리 접속되는 마지막 체언에는 접속 조사를 결합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순원왕후언간>의 접속 조사는 현대국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1.1.6. 보조사

<순원왕후언간>에서 주제화 보조사는 ‘은/은/는/는’이 사용되었다.

- (27) 가. 오늘은 판관괴서 감세 더 겨시고<순원봉서개인-02>
 - 나. 남이 브라도 보디 못홀 듯하니 블상하시문 그때 조상이시고 훤혁하기는 이때
 아닌가<순원봉서-33>
 - 다. 홀 만흔 거스 잘하여 주시옵쇼서<순원어필-23>
 - 라. 김명희는 실노 지승덕혀 소년으로브터 저러하여습느니이다<순원어필-01>
 - 마. 디교는 엇더하디 모르디 질실 툇후키는 극진하던 터이니 앗갑고 심히 서운하옵
 더이다<순원봉서-20>

주제화 보조사는 모음조화와 관계없이 자음 뒤에서는 (27가)와 같이 ‘은’이 쓰인다. 명사형 어미 다음에서는 (27나)와 같이 연결되어 쓰인다. 그리고 (27다)와 같이 선행 체언이 ‘것’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은’이 쓰인다. 따라서 ‘은’은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교체를 한다고 할 수 있다.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27라)와 같이 대부분 ‘는’이 결합하는데 예외적으로 (27마)와 같이 ‘는’이 결합하는

한 예가 보인다.

주제화 보조사의 분포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 체언 말음의 음운론적 환경	은			은			는	는
	자음	연철	중철	분철	연철	중철		
자음		9		198	7	1		
모음							227	1
계	0	9	0	198	7	1	227	1
비율	10.64%			89.36%			82.06%	17.94%

<표-22> 주제화 보조사 ‘은/은/는/는’의 분포 양상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화 보조사는 주로 선행 체언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은’과 ‘는’이 쓰이며 ‘은’은 대부분 분철되어 쓰인다. 연철되어 쓰이는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 체언이 ‘것’일 때 ‘은’,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용언의 명사형일 때 ‘은’이 결합하는 경우이다. ‘는’이 결합하는 것은 (27라)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이다. 주제화 보조사의 분포는 근대국어 보조사의 분포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¹³⁰⁾ 이러한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목적격 조사의 경우 ‘를/를’의 분포가 근대국어 목적격 조사의 분포와 차이가 있었음과 비교된다.

다음은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단독, 한정을 나타내는 보조사, 선택을 나타내는 보조사, 한도를 나타내는 보조사의 예들이다.

(28) 가. 상감을 잘 도아 드릴 지목이야 홀디 아모리 하여도 ㄹ초 그 속을 알 길이 업스

니<순원봉서-01>

나. 약 찌힌 후야 나오니 발서 찌히디 못힌 줄 애들나 하여다<순원한글박-15>

다. 나는 거월 넘후부터야 담성하기와 희소가 나오나<순원한글박-26>

라. 한만흔 출입은 못 하여도 궁의야 때때 드러오디 못홀가<순원한글박-11>

130) 김성옥(2018), 「근대국어에 주제격 ‘은/은/는/는’과 목적격 ‘을/을/를/를’의 단일화에 대한 일고찰」, 『국어국문학』 183, 국어국문학회, 5~35쪽.

마. 오라바님괴셔야 뉘가 업수이 보니가 이실가 본고<순원봉서-12>

(29) 가. 도령의셔 다 원통이 아라 원정곳 느리면 잘혀여 준다 하여시니<순원봉서-04>

나. 극진이 어지러 뵈니 혼도곳 잘혀여시면 현군이 될 듯허더<순원봉서-12>

(28)과 (29)는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의 예를 든 것이다. (28)의 ‘야/이야’는 선행 체언의 모음과 자음에 따라 교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순원왕후언간>에서는 중세국어 ‘ㅅ’에서 변화한 ‘ㅅ’는 보이지 않는다. <순원왕후언간>의 ‘야’는 근대국어의 일반적인 모습처럼 체언뿐만 아니라 (28다,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다음에도 결합하였다.

(30) 가. 당 슈상만 쓰라든니시라 허옵더니잇가<순원어필-11>

나. 텃성이 순전이 착혀시니 잘만 보도하면 아모 넘너가 업슬 듯허더<순원어필-03>

다. 혼갓 물욕의 므든 님군으로만 알 일이 원통원통히<순원어필-03>

라. 내가 업고저만 시뵈<순원봉서-12>

(30)은 단독 한정어 ‘만’을 보인 것이다. ‘만’은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까지 체언, 부사, 조사, 연결어미에도 결합하였는데, (30나)는 부사, (30다)는 조사, (30라)는 연결어미에 결합한 예이다.

(31) 가. 그스이 봉서나 허자 하여도 편지 혼 당도 뵈 일위여 빠디 못하여<순원어필-03>

나. 도첩이나 아라 잘혀셔 청건혀시기 조이오며<순원어필-01>

다. 게가 칩디나 아닌가 허너<순원어필-03>

(31가, 나)는 최소 선택을 나타내는 ‘나/이나’의 예이다. 이 자료에서도 선행 체언의 모음과 자음에 따라 교체되었다. (31다)는 연결어미 ‘-디’에 결합된 예이다.

(32) 가. 밤이 조용히기 봉서 빠더니 이 말그디 혼터 뵈너<순원봉서-01>

나. 조조급급하니는 일이 속속하여 도흔 디도 잇거니와 희도 비경하니 믿음대로 못
될 일도 그러할가 보오니잇가<순원어필-01>

(32)는 한도를 나타내는 ‘ㄹ디’와 포함을 나타내는 ‘도’의 예를 든 것이다. (32나)의 ‘도’는 중세국어 이래 현대국어까지의 용법과 큰 차이가 없다. (32가)의 ‘ㄹ디’는 이 시기 ‘ㅅ지’ 정도로 나타나야 할 것인데 ‘ㅅ’, ‘ㅅ셔’가 ‘ㄹ’, ‘ㄹ셔’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ㅅ지’의 어두음이 ‘ㄹ’ 평음으로 나타났고, ‘ㄹ지’가 아닌 ‘ㄹ디’로 나타난 것은 ㄷ 구개음화를 의식한 과도교정의 결과로 파악된다.

(33) 가. 신명은 아니 관겨홀 거시 업습마는 조심흔는 믿음이야 다르미 업스오이다<순원어필-02>

나. 너편니 스업이 어이 잇스오리잇가마는 하늘과 명도 타기를 괴구이 하여<순원어필-10>

다. 아모 짜니 능디 덩홀 제 닐 도쿄져 혼는 믿음이 업스며 디스들이라도 다 그러하여스오련마는 미양 피신 후 그 뒤 오라디 아녀 이러타 저러타 호오니<순원봉서-08>

문장에 결합하는 ‘마는’은 평서형어미와 의문형 어미와에 각각 결합하는 예가 등장하며 (33다)의 ‘-련마는’과 같이 중세국어 ‘-건마는’에 소급할 형태도 등장한다. (33다)는 ‘아무 때나 능지를 정할 때 그 누군들 좋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 것이며 지사들이라도 다 그러하였겠지만 매양 모신 후에는 그 뒤에 오래지 않아서 이렇다 저렇다 하니’ 정도로 해석된다. 이때 쓰인 ‘-련마는’은 일반적인 의미와 조금 다르게 쓰인 것으로 생각된다.

‘-련마는’은 일반적으로 ‘조건이 충족되면 이러한 결과가 기대되는데, 아쉽게도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기대하는 결과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나타낸다. ‘-련마는’은 선행하는 조건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련마는’의 의미와 차이가 있다.

1.2. 선어말 어미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는 중세국어에서부터 현대국어까지 큰 변화가 없으며 <순원왕후언간>에서도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으므로 ‘-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습-}은 근대국어 후기에는 모두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로 변하였다. <순원왕후언간>에서도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의 기능으로만 쓰이고 있다.

(34) 선어말 어미 {-습-}

가. 믿음은 내 기출 즈손의 비호여 몇 비가 더흔 줄 모르게습는다 깃븐 믿음으로
덕스오나 정신이 흐릿흐릿하니 낙즈도 이실 듯호오이다<순원어필-10, 1851년, 순
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나. 날이 가 새히 되여습기 과세 평안이 호신 일이나 아자 줌 덕스오며 어제 공폐
로 소회흔 거시 열시민인가 보오니 홀 만흔 거손 잘호여 주시옵쇼셔<순원어필-2
3, 1851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34)에서 {-습-}이 결합한 서술어의 이른바 객체에 해당할 수 있는 목적어나 부사어는 높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4)의 언간은 모두 재종누나인 순원왕후가 재종동생인 김홍근에게 보낸 편지인데, 김홍근에게 모두 ‘호쇼셔’체를 쓰고 있다. 김홍근이 좌의정과 판서 벼슬에 있었을 때 순원왕후는 ‘호쇼셔’체를 쓰는데, 여기에서 {-습-}은 이 언간의 수신자인 김홍근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¹³¹⁾

선어말 어미 {-오-}는 근대국어에서 소실되었는데 <순원왕후언간>에서는 다 음과 같은 예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131) 청자 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상대경어법에 포함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35) 선어말 어미 {-오-}

가. 츠츠 쁘노라니 번거흔 스연이 만흐니<순원봉서-27>

나. 게도 쏘 분간이 겨시고 인품 선악이 몹아흐며 다 올흔 줄노 아니 아르셔 내 뜻
밧노라 저리한다<순원봉서-27>

다. 효스의 나옵신 턴의를 도로혈 길이 업스니 처분하옵시면 만항이라 헝기 알외노
란 헝여 겨시기 내가 대던의 봉서헝여 마르시고<순원봉서-19>

라. 당신괴셔도 스저의 겨실 제브터 흙쳐 겨시다 헝기 당신 므음 우원이 므음이 겨
셔로라 헝시기 인헝여 결단헝 일이로디<순원봉서-08>

마. 형님은 녀편 너니 응당 도화헝실 겨시로디 이썩헝 것 하장을 아니헝 여습<순원어필
-02>

바. 공도는 적고 스정이 만하 그러 헝 었헝 디 그는 모로디 엇헝 던헝 디 년천 헝 여 더
업수이 아라 그러 헝 듯도 헝 고 쏘는 가레 헝 디 헝 여 쥬년이<순원봉서-31>

(35가)의 ‘-노라니’는 ‘-느- + -오- + -라#(헝) + -니’의 구성으로, 여기에 쓰인 선어말 어미 ‘-오-’는 1인칭 주어와 일치하는 기능을 지녔다. 화자 자신의 어떤 행위가 다른 일의 원인이나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현대국어 연결어미 ‘-노라니’는 바로 이러한 구성으로부터 발전한 것이다¹³²⁾. (35나, 다)의 ‘-노라’는 역시 ‘-느- + -오- + -라’ 구성으로 선어말 어미 ‘-오-’가 쓰였는데 여기에서는 주어가 1인칭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35나)의 ‘-노라’는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목적이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현대국어 연결어미 ‘-느라(고)’로 발전하였다. (35라)의 ‘겨셔로라’는 “마음이 계셨노라”로 해석되므로 ‘겨시- + -엇- + -느- + -오- + -라’의 구성에서 ‘-오-’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에서는 ‘겨셨노라’로 나타나야 하는데, ‘겨셔로라’로 나타나는 것이 특이하다. (35마, 바)는 ‘-오디’의 ‘-오-’를 확인할 수 있다. ‘모로디’(모르- + -오디)의 예를 제외하면 <순원왕후언간>에서는 서술격 조사 ‘이-’나 형용사 ‘아니-’ 다음에서만 예외 없이 ‘-오디(→로디)’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드물게는 선어말 어미 {-겨-}의 쓰임도 보인다.

132) 이승희(2010), 앞의 책, 226쪽.

(36) 가. 오라바님 병환이 ㄱ비압디 아니시다 하니 드런 디는 오래러니와 죽히 놀납고
민박홀가<순원봉서-14>

나. 그스이 평문 드런 디 쏘 날포 되니<순원봉서-15>

(36)의 ‘드런’은 동사 ‘듣-’에 선어말 어미 ‘-어-’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것이다. 중세국어에서는 “기간”을 의미하는 의존명사 ‘디’ 앞에 쓰인 관형사형 어미 ‘-ㄴ-’에 선어말 어미 ‘-거/어-’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근대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 ‘-거/어-’의 쓰임이 점차 축소되었으나 여기에서와 같이 이전의 양상을 그대로 간직한 예들도 여전히 보인다.¹³³⁾

‘-엇-’과 ‘-어시-’는 <순원왕후언간>에서 선어말 어미로 문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37) 가. 돌임이엇나 하니 그러흔디 풍열인디 보아 알게 흡시<순원한글박-10>

나. 흔 텃식 두 텃식 먹엇는디 머리가 알프다 헝여<순원석주선-01>

다. 이왕의 능 간산으로 능소도 유의헝며 혹 참망도 헝엿다 하니 어느 째의 유의헝고 참망헝엿다 헝던고<순원어필-17>

라. 그는 전에 업던 일이니 그만치 먹어시니 긋치고<순원한글박-09>

마. 텃품의 명민 괴이헝시던 거시 그린 씩이 되며 네일이 되어시니 이제야 늬가 본 성의 비상헝시던 줄을 알 니가 업스니<순원어필-03>

(37)은 선어말 어미 ‘-엇/엿-’과 ‘-어시/여시-’의 예를 보인 것이다. ‘-엇/엿-’은 후행하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될 때, ‘-어시/여시-’는 매개모음을 포함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나타난다. 중세국어에서 상태의 지속 또는 진행을 표시하던 ‘-아/어 잇-’이 16세기 후반 이후로 완료, 더 나아가 과거를 표시하게 되었는데, (37)에서는 모두 축약된 ‘-엇/엿-’과 ‘-어시/여시-’의 형태로 과거(또는 완료)를 표시하고 있다.

133) 이승희(2010), 앞의 책, 137쪽.

한편 ‘-어 겨시-’의 형태로 과거를 표시하는 예들도 등장한다.

(38) 가. 신관이 노상 혈식이 업고 막이 패호여 겨시니 그스이 불평이논 디내여 겨신가
시브디<순원어필-01>

나. 그리 작덩호여 겨시면 봉셔논 엇디호고 뉘게로 던호며 대던의 드리라 홀고<순
원봉서-17>

다. 망극 원통홈과 그째 경식이야 엇디 다 형언호며 수계 더스라도 두어 겨시면 이
리 지원 극통이 탈호여 겨실 거시니<순원봉서-12>

(38)은 ‘-아/어 잇-’의 주체 높임 형태인 ‘-아/어 겨시-’이다. 이 역시 과거(또는 완료)를 표시하며 현대국어로는 ‘하였으니’ 정도로 해석된다. <순원왕후연간>에서 주체 높임의 ‘-시-’와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엇-}이 결합하는 경우는 ‘섯’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38)과 같이 ‘-아/어 겨시-’의 구성을 취하는 것이 특징적이다.¹³⁴⁾

한편 미래, 추측, 의지를 나타내는 ‘-겻-’은 선어말 어미로 문법화되어 쓰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게 호-’ 구문으로 쓰이기도 한다.

(39) 가. 수일간은 저기 동정이 잇다 호니 만항호나 소세호고 내 눈의 뵈여야 막음을 노
케 호엿넌<순원봉서-03>

나. 즈너도 그리호시면 도켓다 호엿는가 그 요건 득당홀 줄 모르게 호엿넌<순원봉
서-19>

다. 아모 디라도 튼튼이 나호면 대항이게 호엿넌<순원봉서-27>

(40) 가. 이거시 내 속의 잇는 말을 썩 호여시니 정니가 이리호여야 올티 아니호겻나
<순원봉서-32>

134) “강관의 당티 아니타 호기 디답을 강관의 가호기 호여실라 호고 시버도 썩 므어시라 홀디 몰나 아 호엿노라 호시기 우섯넌<순원봉서-02>”에서 ‘섯’의 형태가 보이기는 하나, ‘올다’의 활용형인 ‘우섯네’가 아니라 ‘웃다’의 활용형인 ‘웃었네’이다. 이승희(2010)에서 “강관 자리에 당치 않다고 하기에 (상감께서) 대답하기를 강관에 가하다고 하였으나, (말을) 하고 싶어도 또 무어라 할지 몰랐다 하하기에 웃었네”로 해석하였다.

- 나. 쏘는 진정 권미니 길순이 올라오면 청원이 되겠다 ㅎ고 올 분이라 ㅎ니 나도
판서의게 좀 아니 닐러시니 두고 보소<순원한글박-10>
- 다. 집이 이제야 덩ㅎ게시니 식환 깃브오이다<순원어필-07>
- 라. 응당 올라오며 바로 묘하로 가게시니 짐작의 하월 어느 날이나 오게슌느니잇가
<순원봉서-09>

근대국어 시기에는 ‘-게 시키다’라는 의미의 사동구문과는 다른 ‘~게 되다’의 의미를 지닌 ‘-게 ㅎ-’ 구문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게 ㅎ-’ 구문은 선어말 어미 ‘-엇/어시-’와 결합하여 (39)와 같이 ‘-게 ㅎ엿/게 ㅎ여시-’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ㅎ-’가 생략되어 ‘-게엿/게여시-’로 바뀌고, 다시 축약을 거쳐 (40)과 같이 추측, 화자의 의미, 미래를 표시하는 선어말 어미 ‘-겻/게시-’로 발전하였다. ‘-겻-’은 후행하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될 때, ‘-게시-’는 매개모음을 포함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나타난다. 이 언간에서 ‘-겻-’, ‘-게시-’보다는 축약 이전의 형태인 ‘-게 ㅎ엿/게 ㅎ여시-’가 더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다음은 통합형 선어말 어미 ‘-리러-’, ‘-리로-’의 축약과 관련된 것이다.

- (41) 가. 예셔 냥 즈던 용녀ㅎ고 말나시기 아니노라 ㅎ시면 순편ㅎ실디 부디 가셔셔 봉
서 보고 말녀노라 ㅎ신다 ㅎ니<순원봉서-17>
- 나. 요스이는 도로혀 폐간이 퍼이니 내 이 말을 박절 무정이 알넨디 모르디 혈심
툭곡으로 ㅎ는 거시니 그리 알고 노호와 마소 즈니<순원봉서-15>
- 다. 권상은 즈작지규로 무스티 못ㅎ니 심히 애드라운 사람이올녀이다<순원어필-01>

(41가)의 ‘ㅎ실디’는 ‘ㅎ- + -시- + -리- + -로디’에서 ‘ㅎ시리로디’*ㅎ실로디>하실디’와 같은 생략과 축약 과정을 거친 형태이다. (41나)의 ‘알넨디’는 ‘알- + -리- + -더- + -ㄴ#디’로 분석할 수 있는데, 축약 과정을 ‘-리런디’가 ‘-르런디’로 축약된다. 근대국어 표기법에 따라 어중의 ‘ㄹㄹ’이 ‘ㄹㄴ’으로 표기된 것이 ‘-르넨디’이다. ‘-리런디>-르런디’는 현대국어의 연결어미 ‘-르는지’로 이어진다.

(41다)의 ‘사름이올너이다’는 ‘사름 + -이- + -오- + -리- + -러- + -이- + -다’로 분석할 수 있는데, ‘-오리러이다’가 역시 축약 과정을 통해 ‘-르러이다’로 축약되고 ‘르르’이 ‘르니’으로 표기된 것이 ‘-르너이다’이다.

2. 상대경어법

‘상대경어법’이란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높이거나 낮추는 경어법을 말한다. 이 자료에 나타난 경어법의 사용 양상을 살펴 보기에 앞서 우선 경어법의 체계와 종결어미의 사용 양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순원왕후언간>에 나타나는 주변인물들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화자와 청자의 관계, 친족관계, 신분관계를 파악하고, 그 관계에 따라서 상대경어법이 사용된 양상을 구분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시기와 관직에 따라 달라지는 등급을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전제로 경어법 등급체계의 변화를 표로 제시하고, 언어외적으로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재종누나와 재종동생, 장모와 사위, 고모와 조카,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서 사용된 상대경어법의 등급 변화도 살펴보고자 한다.

16~19세기까지 본고에서 참고한 상대경어법 체계¹³⁵⁾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높임등급	흐느이다체	흐느이다체	흐느이다체	흐느이다체
예사높임등급	흐니체	흐니체	흐읍체	흐읍체
			흐니체	흐니체
안높임등급	흐느다체	흐다체	흐다체	흐다체

<표-23> 조선시대 언간의 상대경어법 체계

135) 이래호(2014), 「조선시대 한글편지에 나타난 청자경어법의 특이례 고찰」, 『한국언어문학』 91, 한국언어문학회, 65쪽.

<표-23>은 조선시대 언간에만 나타난 예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승희(2005)에서 17~19세기의 높임등급에는 ‘흐느이다’체, 예사높임등급의 ‘흐너/흐옵’체, 안높임등급의 ‘흐다’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흐옵’과 같은 형태로 ‘-옵’이 쓰인 자리는 하위자인 딸이 어머니에게, 남동생이 누나에게 보낸 언간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딸이나 아들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사용하는 ‘흐느이다’체 보다는 낮은 등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친족 관계에서 좀 더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언간을 중심으로 상대경어법 연구가 활발한 이유는 발·수신자에 따라서 다양한 상하 관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상대경어법을 결정하는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경어법의 성립 요소에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성립되는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따라 그 관계가 결정되는 데 사회적 계층과 성별, 나이, 친족관계, 친밀감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이래호(2014)에 따르면 언간의 상대경어법의 결정은 발신자가 수신자보다 항렬이나 직책이 가거나 수신자보다 약간 낮을 때 수신자에게 ‘흐너’체, ‘흐옵’체를, 발신자가 수신자보다 항렬이나 직책이 많이 낮을 경우 수신자에게 ‘흐느이다’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이례로 상위자와 하위자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대경어법의 어미보다 높은 등급의 어미를 사용하는 예들로, 발신자가 상위자이고 수신자가 하위자인데도 청자에게 ‘흐느이다’체나 ‘흐너’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승희(2005)에서도 부모 자식, 숙질 관계에서는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안높임 등급의 ‘흐느다’체를,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높임 등급의 ‘흐느이다’체를 사용하는 데에 거의 예외가 없다고 한다. 이는 항렬에 따라 상하가 엄격히 구분되는 관계 이기에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혹 상위자가 중간 등급의 ‘흐너’체나 높임의 ‘흐느이다’체를 사용한 예가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는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한 예외적인 경우이다. 반면 동기나 부부의 경우는 상하 관계가 보다는 느슨하다.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보통 ‘흐느이다’체를 사용하면서도 중간 등급인 ‘흐너’체를 사용한 경우가 보이며, 상위자는 하위자에게 주로 흐너체를 사용하거나 높임의 흐느이다체를 사용한 예도 보인다. 동기나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는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로 인식되기에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¹³⁶⁾

위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상대경어법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에 따른 상대경어법 사용 양상의 등급별 어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감탄형)	명령형
‘한다’체	-는다, -다	-냐.	-자, -노라	-어라, -여라
‘흐옵’체	-옵, -오	-옵		-옵
‘하니’체	-니, -뇌	-는가, -고	-ㅁ시, -쇠, -세	-소
‘하느이다’체	-오이다, -느이다	-가, -잇고		-쇼서

<표-24> 19세기 국어의 문장 종결 형식¹³⁷⁾

본 자료에서 ‘한다’체, ‘하니’체, ‘흐옵’체, ‘하느이다’체의 화계는 발신자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난다.¹³⁸⁾

<표-24>와 같이 19세기 국어의 종결 어미 사용과 본 자료의 종결 어미 사용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다, -라, -는다, -니, -옵, -습’와 같이 평서형어미가 나타난다. 또한 ‘-는가, -르가, -고’와 같이 의문형어미와 ‘-쇠, -ㅁ시’와 같이 청유형어미, ‘-어라, -여라, -소, -쇼서’ 등과 같이 명령형어미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흐옵’체에서는 모든 문장이 ‘-옵’으로 끝나고, ‘-옵’은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어미에 모두 나타나고 있다. 황문환(2010b)은 ‘흐옵’류가 명령형에 쓰인 예들은 18세기 초 <동춘당 후손가 언간>의 밀양박씨가 쓴 언간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¹³⁹⁾

다음 절에서는 상대경어법 체계의 특징, 즉 상대경어법의 실현 양상과 이를 통해서 언어외적으로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장모→사위], [고모→조카], [어머니→딸]에

136) 이승희(2005), 「조선시대 한글편지에 나타난 친족 간의 청자높임법 사용 양상」,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71쪽.

137) 이유기(2001),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문장종결형식의 연구』, 역락, 215쪽.

138) 본 자료에서 ‘흐옵’체는 ‘하니’, ‘하느이다’체와 다른 화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황문환(2010), 앞의 책과 같이 ‘흐옵’체를 따로 설정하였다.

139) <이동표가 언간>에서 ‘-옵’이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에 두루 쓰이고 있음을 볼 때, ‘흐옵’체의 형성은 이를 근거로 17세기 말로 바로 잡을 수 있다. (배영환 외(2013)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의 국어학적 연구」, 『장서각』 30, 한국학중앙연구원, 222~254쪽.)

게 보낸 언간에서 어떠한 상대경어법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1. ‘훈다’체

‘훈다’체는 중세국어에서 현재시제 평서문이 ‘-는다’로 나타났으나 근대국어에서는 ‘-는다’로 쓰인다. 그리고 ‘훈다’체는 신분이나 사회적 관계, 친족 관계에 있어서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자이며, 상하 격차가 뚜렷할 때 나타난다. 조선시대 양반가 언간인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에서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러히고, 꺾업다’와 같이 종결어미 ‘-고’와 ‘-다’가 나타나 ‘훈다’체의 사용 양상을 볼 수 있다. 본 자료에서도 순원왕후가 조카들과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훈다’체가 나타난다. 즉, 세대상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사용한 것이다. ‘훈다’체의 사용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언간번호	시기	발신인(나이)	수신인(나이)	관직명
<순원봉서-05>	1849	순원왕후(60세)	김병덕(24세)	대교/대비
<순원봉서-10>	1849	순원왕후(60세)	김병덕(24세)	대교/대비
<순원봉서-16>	1848	순원왕후(59세)	김병덕(23세)	대교/왕후
<순원봉서-21>	1848	순원왕후(59세)	김병덕(23세)	대교/왕후
<순원봉서-22>	1841	순원왕후(52세)	병덕이(16세)	왕후
<순원봉서-29>	1848	순원왕후(60세)	김병주(22세)	범조/왕후
<순원한글박-01>	1839	순원왕후	덕온공주	공주/왕후
<순원한글박-02>	1837~1844	순원왕후	덕온공주	
<순원한글박-03>	1841	순원왕후(52세)	덕온공주	
<순원한글박-04>	1837~1844	순원왕후	덕온공주	
<순원한글박-15>	1841	순원왕후(52세)	윤의선	대교/왕후
<순원석주선-04>	1840~1843	순원왕후	덕온공주	
<순원봉서개인-02>	1837~1841		윤의선	대교/왕후

<표-25> 훈다체

- (1) 가. 금년 여름 꺾툰 무전 흑염이 업서시니 엇디들 디내엿느니 근일은 청냥흐니 여러 집 무고하고 네 소솔도 잘 디내느니 브리디 못훈다 네 삼촌 덕거는 지금 의외 썸 꺾트니 흘 말이 업다 <중략> 처음 놀납고 어히업던 막음이 진정흐이나 게 슈토 도티 못훈다 하니 넘녀된다 동성 즈질 정니야 그 측냥이 이실가 보냐 무관이 무

모흔 정니 너모 슬허홀 듯 블상블상 닛디 못흔다 평안이 갖다 말은 드러시니 그
스이 또 소식 드렸느냐 평안이 디내기나 밋는다 허수 헤헤혀여 아모라타 업더라
나는 지금 글시 쓰려 하면 안시 현황 고이혀여 일절 편지도 못 하였더니 오늘이
야 덕는다 각 집 봉서 던혀여라<순원봉서-29, 1848년, 순원왕후(7촌 고모)→김병
주(7촌 조카)>

나. 네 어른은 원노 한덩의 평안이 회환 상봉하니 환턴희지홀 거시니 식훤 깃브리
측냥업다 이제야 네 아버지 드리고 과세 평안평안이 하여라<순원봉서-05, 1849
년, 순원왕후(7촌 고모)→김병덕(7촌 조카)>

다. 글시 보고 든든하며 일양들 디내는 일 알고 깃브며 나는 입시 든너왔다 <중략>
한동안 든니다가 병장을 하거나 하고 ㄱ려 게나 하라 하여라 디셔로 덕는다 슈라
는 아직 아니 먹어다 스알이 걱정걱정하더란다<순원한글박-04, 순원왕후(어머니)
→덕은공주(셋째 딸)>

라. 작일 봉서 보고 든든 반가운 밋 일후 덤열흔디 무스이 디내는가 시브니 다형이
며 드러니 본택 기셔 낙혈도 하시고 늑털이 디내신다 하니 죽히 초전하라 브리이
디 못흔다 어제는 곤던 관네를 순성하시니 경형하기 엇디 다 덕으리 그스이 도위
들 드러오면 도위 즈리는 비여 섭섭하기 측냥업더라 덕은은 함창이 뺨 되디 아니
터니 <중략> 애들나 하였다 나는 당 청성티 못하니 늑노라 그러흔디 괴롭다 일
괴 덤덤 더워 올 거시니 무스이 디내기 밋는다<순원한글박-15, 1841년, 순원왕후
(장모)→윤의선(셋째 사위)>

(1)은 조카, 사위, 딸에게 쓴 편지의 일부로, ‘흔다’체의 양상을 보여준다. (1가)
는 순원 왕후가 조카 김병주¹⁴⁰⁾에게 보낸 편지이다. 종결형으로 ‘넘너된다, 못
다, 밋는다, 덕는다, 업더라’와 같이 평서형어미 ‘-다’와 ‘-라’가 나타나며, ‘드렸
느냐’의 의문형어미 ‘-냐’, ‘던혀여라’의 명령형어미 ‘-어라’ 등이 나타난다. 이는
‘흔다’체의 어미로 볼 수 있다. (1나)는 순원왕후가 조카 김병덕¹⁴¹⁾에게 보낸 편
지이다. ‘측냥업다’의 평서형어미 ‘-다’와 ‘하여라’의 명령형어미 ‘-어라’가 나타난
다. 여기에서 순원왕후는 상위자이면서 윗세대이고 1세대 아래이면서 하위자인

140) 1847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고종 22년 판돈녕 부사를 지냈다.

141) (金炳德, 1825~1872년, 순조 25~고종 29년)은 순원왕후의 조카로 김홍근의 아들이며, 1847년
(현종 13년)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1860년(철종 11년)에 이조판서, 1880년(고종 17년) 평안도 관
찰사를 역임한 후, 1884년에 우의정을 거쳐서 1885년(고종 22년)에는 좌의정에 올랐다.

조카들에게 ‘훈다’체를 사용하고 있다. (1다)는 순원왕후가 덕온공주에게 보낸 것으로, ‘든녀왔다, 덕는다’의 평서형어미 ‘-다, -ㄴ다’가 나타나고, ‘주어라, 흐여라’와 같이 명령형어미 ‘-어라, -여라’가 나타나 전형적인 ‘훈다’체를 보여준다. (1라)는 순원왕후가 사위 윤의선에게 보낸 편지이다. ‘못훈다, 측냥업더라, 흐엿다, 밋는다’의 평서형어미 ‘-다’와 ‘-라’가 나타난다.

황문환(2010)에 따르면 17세기 언간 자료에 ‘흐옵’류가 간헐적으로 나타나며 18~19세기에도 여전히 언간에서 확인된다. 발수신자 관계도 [아들→어머니], [장모→사위], [형수→시동생]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중간등급으로 볼 수 있다. ‘훈니’체¹⁴²⁾ 역시 [장모→사위]에게 중간등급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순원왕후언간>에서는 [장모→사위]에게 ‘훈니’체와 ‘훈다’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훈니’체를 사용한 여러 편의 편지 중에서 두 건에서만 ‘훈다’체가 발견된다. 윗세대가 1세대 낮은 아랫세대에게 보낸 것으로, 순원왕후가 사회적으로 높은 직책이라도 사위에게 ‘훈니’체로 존대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전통은 16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훈다’체를 사용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을 살펴 보면 사위인 윤의선의 부친의 위독함에 대한 염려와 덕온공주에 대한 걱정의 답서이다. 답서 전날 현종의 비 효현황후¹⁴³⁾의 관례가 있었는데, 사위 윤의선이 관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적혀 있다. 그렇다면 편지를 쓸 당시의 순원왕후 마음이 화계에 영향을 주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언간은 글로써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경어법을 사용하게 된다. 사위가 현종비의 관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했던 마음이 이 편지의 경어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셋째사위 윤의선과 친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언간에서 ‘훈다’체가 사용된 언간은 모두 13건이 확인된다. 이 중에서 규장각 소장본에 6건으로 조카 김병덕과 김병주에게 보낸 것이다. <순원봉서-05, 10, 16, 21> 4건의 봉투에는 ‘디교 기람, 디교 즉던’, 길종이에는 ‘던동 판셔’, ‘리문안 대신’, ‘스동정승덕’ 또는 ‘디교¹⁴⁴⁾’라는 관직명이 적혀 있으며, 모두 김병덕에게

142) 요스이 기별 하 모르니 아히들호고 앓디 인논고 분별호너 우리도 수문니어 인너<순친김씨묘-048, 1550~1592년, 신천강씨(장모)→채무이(사위)>

143) 효현황후(1828~1843년)는 현종의 첫째 부인으로 1837년에 왕비 책봉을 받고, 3년 후인 1841년 4월 16일에 관례를 치렀다.

보낸 것이다. <순원봉서-22> 또한 같은 것으로, 1841년 집안의 喪事가 생겨서 안타깝다는 내용으로 봉투에는 없고, 겹종이에 ‘병덕이’라고 적혀 있다. 이로써 김병덕에게는 5건의 편지를 보냈고, 그중에 이름이 적힌 것은 1건이다.

나머지 하나는 1848년에 7촌 조카이면서 재종오라버니 김홍근의 아들 김병주에게 보낸 것으로 봉투에는 ‘범초 즉남¹⁴⁵⁾’, 겹종이에는 ‘던동 판서’라고 적혀 있다. 이와 같이 봉투에 수신인이 잘 드러난다. 이 가운데 ‘던동 판서’, ‘리문안 대신’, ‘스동정승덕’은 김홍근의 관직으로 이 편지들은 모두 김홍근에게 편지를 쓰면서 같이 동봉한 것이다.

2.2. ‘흐니’체, ‘흐읍’체

이승희(2004)에서 명령형어미는 16~18세기까지 ‘-소’로 나타나다가 19세기에 새로운 명령형어미 ‘-게’가 등장하면서 ‘-소’와 ‘-게’의 공존기를 거쳐 현대국어에 와서는 중부 방언의 경우 ‘-게’만 남게 되었다. 19세기의 ‘흐니’체는 신분과 사회적 지위, 친족관계에서 화자와 청자가 비슷한 경우에 ‘흐니’체가 나타난다.

상위자와 하위자의 종결어미 사용에서 기대되는 경어법은 ‘흐다’체 정도이지만, 본 자료에서는 ‘흐니’가 사용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지만 상위자가 하위자를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조금 높여 ‘흐니’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본 자료에서 ‘흐니/흐읍’체가 나타난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간번호	시기	발신인(나이)	수신인(나이)	관직명
<순원어필-03>	1849	순원왕후(60세)	김홍근(53세)	판서/대비
<순원어필-04>	1842~1850	순원왕후(미상)	김홍근(미상)	판서/왕후
<순원어필-05>	1841	순원왕후(52세)	김홍근(45세)	참판/대비
<순원어필-06>	1842~1850	순원왕후(60대)	김홍근(50대)	판서/대비
<순원어필-08>	1850	순원왕후(61세)	김홍근(54세)	판서/대비
<순원어필-09>	1840	순원왕후(51세)	김홍근(44세)	참판/대비
<순원어필-12>	1851.1(흐읍체)	순원왕후(62세)	김홍근(55세)	이조판서/왕후

144) 1848~1849년에 김홍근의 아들 김병덕은 규장각 대교였다.

145) 범초는 김병주의 호다.

<순원어필-13>	1837	순원왕후(48세)	김홍근(41세)	부스/왕후
<순원어필-14>	1844	순원왕후(55세)	김홍근(48세)	판서/대비
<순원어필-17>	1843	순원왕후(54세)	김홍근(47세)	판서/대비
<순원어필-18>	1850	순원왕후(61세)	김홍근(54세)	미상/대비
<순원어필-21>	1849	순원왕후(60세)	김홍근(53세)	판서/왕후
<순원어필-24>	1838	순원왕후(49세)	김홍근(42세)	참판/대비
<순원어필-25>	1834~1849	순원왕후(미상)	김홍근(미상)	판서/왕후
<순원봉서-01>	1850	순원왕후(61세)	김홍근(54세)	없음/왕후
<순원봉서-02>	1850	순원왕후(61세)	김홍근(54세)	판서/대비
<순원봉서-03>	1846	순원왕후(57세)	김홍근(50세)	영부스/왕후
<순원봉서-04>	1846	순원왕후(57세)	김홍근(50세)	영부스/왕후
<순원봉서-07>	1849	순원왕후(60세)	김홍근(53세)	판서/왕후
<순원봉서-11>	1842~1850	순원왕후(60대)	김홍근(50대)	판서/대비
<순원봉서-12>	1849	순원왕후(60세)	김홍근(53세)	판서/대비
<순원봉서-13>	1850	순원왕후(61세)	김홍근(54세)	판서/왕후
<순원봉서-14>	1842	순원왕후(53세)	김홍근(46세)	판서/대비
<순원봉서-15>	1848	순원왕후(59세)	김홍근(52세)	판서/대비
<순원봉서-17>	1846	순원왕후(57세)	김홍근(50세)	판서/대비
<순원봉서-19>	1846	순원왕후(57세)	김홍근(50세)	판서/왕후
<순원봉서-25>	1850	순원왕후(61세)	김홍근(54세)	판서/왕후
<순원봉서-26>	1850	순원왕후(61세)	김홍근(54세)	판서/대비
<순원봉서-27>	1847	순원왕후(61세)	김홍근(51세)	미상/미상
<순원봉서-30>	1842	순원왕후(53세)	김홍근(46세)	판서/대비
<순원봉서-32>	1850	순원왕후(61세)	김홍근(54세)	판서/대비
<순원한글박-05>	1837	순원왕후	윤의선	
<순원한글박-06>	1837~1844	순원왕후	윤의선	
<순원한글박-07>	1837~1844	순원왕후	윤의선	
<순원한글박-08>	1837~1844	순원왕후	윤의선	
<순원한글박-09>	1837~1843	순원왕후	윤의선	
<순원한글박-10>	1837~1843	순원왕후	윤의선	
<순원한글박-11>	1840	순원왕후	윤의선	
<순원한글박-12>	1841~1844	순원왕후	윤의선	
<순원한글박-13>	1841~1842	순원왕후	윤의선	
<순원한글박-14>	1841~1844	순원왕후	윤의선	
<순원한글박-16>	1842~1844	순원왕후	윤의선	
<순원한글박-17>	1842	순원왕후(53세)	윤의선	
<순원한글박-18>	1843	순원왕후(54세)	윤의선	
<순원한글박-19>	1844~1845	순원왕후	윤의선	
<순원한글박-20>	1848	순원왕후(59세)	윤의선	
<순원한글박-21>	1850	순원왕후(61세)	윤의선	
<순원한글박-22>	1850	순원왕후(61세)	윤의선	
<순원한글박-23>	1851	순원왕후(62)	윤의선	
<순원한글박-24>	1856	순원왕후(67세)	윤의선	
<순원한글박-25>	1844~1857	순원왕후	윤의선	
<순원한글박-26>	1844~1857	순원왕후	윤의선	
<순원한글박-27>	1845 이후추정	순원왕후	윤의선	
<순원한글박-28>	1837~1844	순원왕후	윤의선	
<순원한글박-29>	1879~1856	순원왕후	김병주	
<순원한글박-30>	1879~1856	순원왕후	김병주	
<순원석주선-01>	1840	순원왕후(51세)	윤의선	
<순원석주선-02>	1840	순원왕후(51세)	윤의선	
<순원석주선-03>	1840	순원왕후(51세)	윤의선	

<순원봉서개인-01>	1834~184	순원왕후	윤의선	
<순원봉서개인-02>	1834~1841	순원왕후	윤의선	
<순원봉서개인-03>	1844	순원왕후(55세)	윤의선	
<순원건국-01>	1802~1856		윤의선	

<표-26> ‘하니’체, ‘흐옵’체

(2) 가. 신원의 기도 평안하니 일 알고져 하며 거동이 과란하여 그러하니 눈감과 헐소가 대치하여 무인블통하고 혼 번 알코 낫디 아녀 이삼 촌 대통들 하니 즈니 감긔나 디나디 아니하니 일궈니 나는 희가 밧고이고 선대왕 슈갑년이 되시니 감구신비 엇더타 업서 통원 망극할 분이로세 그스이 감히로 괴로이 디내고 편지나 흘 므음이 어는 때 업서실고마는 과연 필력이 긴 스연 흘 길 업서 못 하였니 작하로 즈너를 니즌 때 업스디 혐의의 갖가와 이제그디 와시니 이러흔 줄 아는가 <중략> 긴 말 다 쓸 길도 업고 형언티 못할 말을 니르 다할 길 업서 아니하니 드러와서 보아주어야 하게시니 지리히 구지 말고 드러오소 척교는 이시려니와 문져 알게 하니 이왕의 므음을 다시 입명 아니키로 단덩하여셔도 그러티 못할 거시니 그리 아소 후세라도 아모가 슈렴 두 번 하여 나중은 첫 번만 못하였다 꾸지람 듯디 아니케 흐소 속의 그득흔 말을 다 못 하니 이번 묘궁 던알은 가부가 엇더하고 그도 알고 시브 이 편지 삼일야로 쓰나 말이 못 되여시니 짐작 보소<순원어필-18, 1850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나. 봉서 보고 야간 평안하니 깃브며 나도 혼가지로 디내니 이말은 다 아랏니 죄가 용사티 못할 터이면 엇디홀고 앓가 두 번 편지 보고 고이하여나 아니하니 하니 <순원석주선-03, 1840년, 순원왕후(장모)→김병주(둘째사위)>

다. 스연만 덕으며 무스이 디내는가 시브니 깃브며 즈겨는 오늘도 혼가지니 답답하여 하니 상지다를 상지를 붓가 것 검은 겹질을 벗겨 버리고 속 프른 겹질 잇는 지 들히면 약이 되고 맛도 관겨티 아니타 하니 니일은 그리 달히라 흐소<순원한글박-07, 1837~1844,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위의 (2)는 본 자료에 나타나는 ‘하니’체의 양상이다. (2가)는 김홍근에게 쓴 편지의 일부이다. 여기서 종결형으로 ‘분이로세’의 감탄형어미 ‘-세’가 나타나고, ‘하였니’의 평서형어미 ‘-니’와 ‘민망한가’의 의문형어미 ‘-는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짐작보소’와 같이 명령형어미 ‘-소’가 나타나는데 이는 전형적인 ‘하니’체의 양상이다. (2나)는 순원왕후가 둘째사위 창녕위 김병주¹⁴⁶⁾에게 보낸 것으로 ‘디내니,

아랫니, 흐니'의 평서형어미 '-니', '엇디홀고'의 의문형어미 '-르고'가 나타난다. (2다)는 사위 윤의선¹⁴⁷⁾에게 보낸 것으로 덕온공주가 병을 앓고 있어서 차도가 없는 덕온공주를 걱정하며 '치가시(담배침)를 종기의 치료약으로 쓰는 민간요법과 약차(뽕나무 가지를 묶은 것)를 달이는 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답답하여 흐니'의 평서형어미 '-니', '달히라 흐소'의 명령형어미 '-소'가 나타나 전형적인 '흐니'체의 종결어미를 보여준다.

본 자료에 나타나는 '흐니', '흐읍'체는 모두 31건으로, 김홍근에게 보낸 편지의 봉투나 겉종이에는 '참판, 부스, 니판, 판서, 던동, 이문니' 라고 적혀 있다. 여기에서 '던동, 이문니' 등은 김홍근이 살았던 동네 이름이고, '니판, 참판'은 관직명이다. 둘째사위 김병주에게 보낸 편지의 봉투에는 '봉 도위 답간 봉', '도위 기람 봉', '봉 도위 기간 봉'이라고 적혀 있고, 셋째사위 윤의선에게는 '봉 남녕위 봉장 봉'이라 적혀 있다.

상대경어법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성립되는 상하관계에 따라서 경어법 등급이 결정된다. 이 자료에서 순원왕후는 동생 김홍근이 관직을 가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어느 정도 존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순원왕후는 사위들에게 '흐니'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조선시대 다른 언간에도 장모가 사위에게 일반적으로 '흐니'체를 사용하는 데에서 연관된다. 이렇듯 사위를 존대하는 경우는 사위들이 관직에 오른 경우에 사회적 관습을 염두에 두어서이기도 하다. 장모가 상위자임은 분명하지만 딸을 맡긴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사위는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흐니'체로 대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상대경어법 등급 결정의 주요 요소인 [친밀감]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사위는 세대상으로는 아랫세대이지만, 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만큼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존대를 한 것은 외부적인 상황 등에서 화자가

146) 김병주(金炳疇, 1819~1853년, 본관 安東, 봉호 昌寧尉) 순원왕후의 둘째 사위이며, 부사과 김연근의 아들로 순조 34년 갑오(1834년, 도광) 11월 15일(병자) 빈전 향관, 1847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별입직과 당상직을 지냈다.

147) 윤의선(1823~1887년, 순조 23년~고종 24년)은 순원왕후의 셋째 사위로 1872년에 판돈령부사를 거쳐서 1837년(헌종 3년) 6월 25일에 부마가 되었다.

규범적인 측면으로 청자와의 관계와 사회적 지위가 화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3. ‘흐느이다’체

‘흐느이다’체의 경우 15세기~16세기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17세기 이후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겸손함의 표시로 선어말 어미 ‘-습-’이 결합된 ‘흐옵느이다’가 나타나지만 서로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는 않았다. 18세기 경우는 간본에서는 ‘흐느이다’의 빈도가 높고, 한글편지와 <인어대방> 등 일부 간본에는 ‘흐옵느이다’의 빈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말까지도 ‘흐느이다’¹⁴⁸⁾와 ‘흐옵느이다’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19세기 언간에 친족관계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형수가 시동생에게 쓰인 예가 나타난다. 19세기에 사회적 관계에 의해 상대경어법 등급의 사용이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화자보다 청자의 지위가 높거나 화자와 청자 모두 높은 지위에 있는 경우에 주로 ‘흐느이다’체가 사용된다.¹⁴⁹⁾

이 언간에서 순원왕후가 동생인 김홍근에게 ‘흐느이다’체의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언간번호	시기	발신인(나이)	수신인(나이)	관직명
<순원어필-01>	1851	순원왕후(62세)	김홍근(55세)	좌의정/왕후
<순원어필-02>	1851	순원왕후(62세)	김홍근(55세)	좌의정/왕후
<순원어필-07>	1851	순원왕후(62세)	김홍근(55세)	판서/왕후
<순원어필-10>	1851	순원왕후(62세)	김홍근(55세)	좌의정/왕후
<순원어필-11>	1851	순원왕후(62세)	김홍근(55세)	없음/대비
<순원어필-15>	1851.2	순원왕후(62세)	김홍근(55세)	좌합/대비
<순원어필-16>	19세기 중반	순원왕후(미상)	김홍근(미상)	미상/대비
<순원어필-19>	1851	순원왕후(62세)	김홍근(55세)	좌상/왕후
<순원어필-20>	1851~1857	순원왕후(60대)	김홍근(50대)	대신/대비

148) <남원고사, 1864>, <성경직해, 1892>, <턴로력당, 1894> 등에서 ‘흐느이다’로 나타나고, 한글편지나 <정정인어대방, 1882>은 ‘흐옵느이다’로 나타난다.

149) 이승희(2004), 「국어의 청자높임법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86쪽.

<순원어필-22>	1851	순원왕후(62세)	김홍근(55세)	좌의정/대비
<순원어필-23>	1851	순원왕후(62세)	김홍근(55세)	판서/대비
<순원봉서-06>	1853	순원왕후(64세)	김홍근(57세)	영의정/대비
<순원봉서-08>	1856	순원왕후(66세)	김홍근(59세)	판부스/대비
<순원봉서-09>	1856	순원왕후(66세)	김홍근(59세)	대신/대비
<순원봉서-18>	1856	순원왕후(66세)	김홍근(59세)	대신/대비
<순원봉서-20>	1855	순원왕후(66세)	김홍근(59세)	판부스/대비
<순원봉서-23>	1853	순원왕후(64세)	김홍근(57세)	대신/대비
<순원봉서-24>	1855	순원왕후(66세)	김홍근(59세)	판부스/대비
<순원봉서-28>	1854	순원왕후(65세)	김홍근(58세)	영의정/대비
<순원봉서-31>	1853	순원왕후(64세)	김홍근(57세)	영의정/대비
<순원봉서-33>	1855	순원왕후(66세)	김홍근(59세)	대신/대비

<표-27> 흥녕이다체

(3) 안악의 상변 천만 의려 뵈기니 오죽 참석비절하시라 흥 말미 업습고 경악하고 위인이 앓갑고 불상하니 어인 일인디 지금 거긔말 곳투여 고이호오이다 상히 병 잇다 말은 듯디 못하고 마시는 거시 과하다 흥디 더 지경이 될 줄은 몰나습더니이다 밝은 변변 먹디 아니코 그리 디내어시니 스스로 알며 저즌 일이니 절통 애통스오이다 드리고 간 칙직 저믄 손이라 흥니 큰일을 당호여 초종을 엇디호여 엇디 디내며 형님 경상 춤아 생각디 못호계습는이다 덕각도 엇디 갓는디 불상 닛디 못호계습 응당 올라오며 바로 묘하로 가게시니 짐작의 하월 어느 날이나 오계습는니잇가 길히서 흥보를 드르시고 경참 비통호여 겨실 거시오니 괴력도 손상호여 겨실 거시니 넘너 노히디 못호오며 다행이 유치의 아들이 잇는 줄이 괴라도 만행호옵디이다<순원봉서-09, 1855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위의 (3)은 순원왕후가 김홍근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종결형으로 ‘고이호오이다, 몰나습더니이다, 애통스오이다, 못호계습는이다, 오계습는니잇가, 만행호옵디이다’와 같이 ‘-오이다, -니이다, -는이다, -니잇가’ 등의 어미가 나타난다. 이때 ‘-이-’는 중세국어의 ‘-이’의 후속형으로 볼 수 있다. 즉, 여기서는 수신자인 김홍근을 매우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공손한 표현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특수 상황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래호(2014)에서 첫째, 상위자의 개인적 처지이다. 친족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 상위자임이 명백할지라도 상위자가 처한 개인적 특수 상황에 따라 하위자에게 극존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가 아들에게 극존대하는 경우는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라있는 경

우에 그러한 관직에 맞게 존대해 주기 위해서이다.

셋째, 사회적 관습으로 장모와 사위의 관계가 해당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신자	상대경어법	발신연대	나이	관직명	건수
김홍근(1796~1870) 육촌동생	‘흐니, 흐옵’체	1834~1851.1	44~55세	참판, 판서	31건
	‘흐나이다’체	1851.2.~1857	55~61세	좌의정, 영의정	21건
김병덕(1825~1872) 7촌조카	‘흐다’체	1841~1849	22~24세	규장각대교	5건
김병주(金炳澁, 1818~1875) 7촌조카	‘흐다’체	1848	22세	대교	1건
김병주(金炳疇, 1819~1853) 둘째사위	‘흐니’체	1840년대		당상직	3건
윤의선(1823~1887) 셋째사위	‘흐니’체	1834~1850			28건
	‘흐다’체	1841			2건
덕온공주(1822~1844)	‘흐다’체	1834~1844			5건

<표-28> 상대경어법

<표-28>을 보면 발신자인 순원왕후가 수신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듯이 조카와 사위, 딸에게 ‘흐다’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친족 관계에서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왕실이나 사대부가의 언간에서 많이 나타난다.

예사높임등급의 ‘흐니’체의 경우는 화자와 청자의 신분이 다를 때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사용한다. 이 자료에서는 친족 관계에서 동생 김홍근과 사위 김병주에게 ‘흐니’체를 사용하고, 사위 윤의선에게는 ‘흐니’체와 ‘흐다’체가 나타난다. ‘흐니’체는 신분 관계나 친족 관계에 있어서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재종동생 김홍근에게는 ‘흐니’체와 ‘흐는이다’체의 교체가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등급 결정면에서 특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4. 지위에 따른 상대경어법의 변화

이 연간에서 특이한 상대경어법의 양상은 순원왕후가 김홍근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된다.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상대경어법이 일률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김홍근은 하위자이지만 동일한 세대이다. 대체로 ‘흐니’체 정도가 기대되지만 ‘흐느이다’체를 사용하기도 한 것이다. 또 ‘흐니’체와 ‘흐느이다’체를 한 편지 안에서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즉, ‘흐니’체만 나타나는 편지가 있는 반면 ‘흐니’체, ‘흐읍’체와 ‘흐느이다’체가 동일한 편지 안에서 화계가 일정하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고정적인 ‘흐니’체, ‘흐읍’체와 ‘흐니’체와 ‘흐느이다’체의 교체를 보이는 두 편지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4) 가. 일전 답봉서 보고 평안이 디내는 일 알고 든든 깃브며 무결의 창방 보고 즉시 교외로 나갓다 흐니 쇼동누의 즈미를 막이 드렸는가 시브니 옷니 진스의 관복흔 모양을 보니 동탕흔 풍의가 교관 직명이 가즈니 외양과 너지가 꺾기 브라고 든든 깃브기 측냥업니 병계는 녀흐로 잠간 보아시더 즈니 아들은 지금 보디 못흐여시니 교관을 보니 더 굵거운 막음이 잇니 늑가 늑종형테 슈복이 당원흐고 화목 일가 꺾기를 조이더 내 막음 꺾기는 아막 쉽디 못홀 듯흐니 내가 홀노 착흔 듯흐니 이 말이 엇더 혼고 웃게 빼 보내니 교관 보고 깃거 줌 덕너<순원어필-08, 1850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나. 근일 청화 도균흐니 괴운 평안흐시고 침담지절이 엇더흐신디 브리웁디 못흐오며 녀변셔도 평안흐신디 노인이 공관이 어려울 듯 일콧스오며 병시는 대과를 흐니 외오셔 괴회흐고 대신괴셔 깃거흐시라 깃브디 늑종형테 빠디니 업시 계화룰 다 썩져시니 인인마다 흠션홀 거시니 실노는 아모 막음 업시 깃븐 줄은 아디 못흐고 블안흐오이다 <중략> 사름은 모르나 하늘은 께 보시니 엇디 무섭디 아니흐오리잇가 조상괴셔는 국가의셔 블망지혈통으로 그 즈손 되느니로 현발 탁용흐시거니 실즉 후손이야 므순 일크랄 일이 업시 이러트시 환혁하여 남이 브라도 보디 못홀 듯흐니 블상흐시른 그 때 조상이시고 환혁하기는 이때 아닌가 <중략> 병시는 약흐도 아니코 임전흐여 뵈

니 다형호읍더이다 어제 처음으로 영은을 보니 든든하디 그뉘의도 조심하는 심회가
만습더이다<순원봉서-33, 1855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위의 예문은 순원왕후가 김홍근에게 쓴 편지의 일부이다. (4가)에서는 종결형으로 ‘축냥업니, 보내니, 덕니’와 같이 평서형 어미 ‘-니’, 가 나타난다. 이러한 어미는 전형적인 ‘하니’체로 볼 수 있다.

반면 (4나)는 ‘하느이다’체가 나타나는 것의 예로 순원왕후의 재종동생인 김홍근의 아들이자 조카인 김병시(金炳始)가 대과에 급제했을 때, 축하와 기쁨을 전하는 내용이다. 종결 형식으로 ‘불안호오이다, 다형호읍더이다, 만습더이다’와 같이 평서형어미 ‘-이다’가 나타나고 있으며, ‘아니호오리잇가’와 같이 의문형어미 ‘-잇가’도 나타나 ‘하느이다’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즉, 동일한 수신자에게 ‘하니’체를 사용하다가 ‘하느이다’체를 사용하여 등급 전이가 일어난 것이다. 동일한 발신자가 동일한 수신자에게 어느 순간 등급이 바뀌는 것을 위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등급 전이가 일어난 것은 상대경어법 측면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즉, 상위자인 순원왕후와 하위자인 김홍근은 고정적으로 ‘하니’체가 쓰일 가능성이 있지만 어떠한 변수로 인해 경어법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한 변수를 먼저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발신자와 수신자 측면에서 신분상의 변동이다.

첫째, 이들 변수는 발신자인 순원왕후의 경우, 수렴청정이 경어법의 변동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즉, 수렴청정을 할 경우 최고 지위에 오른 것이므로 하위자인 김홍근에게 ‘하느이다’체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평소 ‘하느이다’체를 쓰다가 수렴청정 후 ‘하니’체를 썼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수신자의 신분 변동에 의한 경어법의 변동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발신자와 수신자의 신분 변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발신자의 수렴청정 기간의 신분 변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왕후	연대	수렴청정시작/철령 시 왕의 연령	수렴청정 기간	왕후의 연령
헌종	순원왕후	1935-1841	8세/14세	7년	46세~52세
철종	순원왕후	1850-1852	19세/21세	3년	61세~63세

<표-29> 순원왕후 수렴청정 기간

위의 <표-29>는 순원왕후가 수렴청정한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주지하듯이 순원왕후는 두 번에 걸쳐 수렴청정을 하게 된다. 1차는 헌종 시기이고, 2차는 철종 시기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김홍근에게 쓴 편지는 ‘흐니’체도 있지만 ‘흐느이다’체도 존재한다.

(5) 가. 연형으로 사폐를 흐니 섭섭흔 밧 윈노 병당의 왕반 엇디홀디 넘너 브리이디 못
 흐며 완빅 시에는 병이 만하로라 흐더니 온 후는 고공의 구실을 면흐니 식환흐야
 괴운 강건흐가 오라바님괴로 듯기논 흐디 오늑 삭 힘노니 브리디 못흐니 그스이
 가국이 평안홀 거시니 잘 든너오소 집의 므슨 연고들이 잇딘가 시브티 말 아니흐
 니 브디 만길이 든너오게 흐소 도강만 흐면 성식이 쫓게 흐엿기 두어 즈 덕니
 <순원어필-13>

나. 노우 지리흐더니 수일은 청흔 듯흐니 괴운 평안흐시니잇가 더째 등연의 뵈오니
 신관이 노상 혈식이 업고 므이 패흐여 겨시니 그스이 불평이논 디내여 겨신가 시
 브티 향념 경경흐오며 침담은 엇더흐시니잇가 <중략> 김명회도 대항도 여턴지은
 으로 별이흔 은수를 넘어서니 고요히 드러 안자 다시 운수 트이기가 기드라이는
 거시 아니라 즈에 분수의 디내게 놀치다가 곳티야 다시 덕거흐니 실노 고이흔 사
 람이올너이다 사람이 조조급급흐니는 일이 속속흐여 도흔 더도 잇거니와 히도 비
 경흐니 므옴대로 못 될 일도 그려홀가 보오니잇가 김명회는 실노 지승덕흐여 쇼
 년으로브티 저러흐여습느니이다 물정 되어 가는 거슬 보아 오니 거의 미리스를
 알 듯흐터 씨티디 못흐기 썸긋스오이다<순원어필-01>

(5가) 1837년에 김홍근이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기 전에 보낸 것으로 봉투에는 ‘부스’라고 쓰여 있으며, 종결형으로 ‘못흐니, 덕니’와 같이 평서형어미 ‘-니’가 나타나고, ‘든너오소’의 명령형어미 ‘-소’가 나타나 ‘흐니’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5나)에서는 ‘썸긋스오이다’의 평서문어미 ‘-이다’가 나타난다. ‘평안흐시니잇가,

보오니잇가'와 같이 의문형어미 '-잇가' 등이 나타나 '흐느이다'체의 전형적인 모습이 보인다. 이로써 두 개의 경어법이 모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언간에서는 수렴청정과 관련된 순원왕후의 신분의 변동에 따라 등급 전이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수신자의 신분 변동 차원에서 경어법의 변동을 가져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죄인 신분일 때 고정적으로 '흐니'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6) 직작월 발명 시 노염이 더욱 극심흐니 근 천 니 원도의 엇디 작형홀고 병둥이나 일
 념이 노히디 아니터니 무스이 득달흐여 큰 탈은 업시 디낸다 흐니 불헿 둥 다형이
 나 게 슈도가 노상 도터 못흐다 흐니 분시 덩고지증이 있다 흐던터 엇덜고 념이로
 세 <중략> 남즈의 스업이 이에서 쾌대헌 거시 업술 듯흐니 한 번 투비 관겨홀 거
 시 업느니 이전 그리 든닐 쟈 므슨 일에 걸닐가 넘너흐던 므음으로는 요스이는 도
 로혀 폐간이 썩이니 내 이 말을 박절 무정이 알닌디 모르디 혈심 통곡으로 흐는 거
 시니 그리 알고 노호와 마소 <중략> 그스이 평문 드런 디 쏘 날포 되니 침담지절
 이 엇더흔디 추기 점긴흐니 굶거오며 브리디 못흐니 디교 간다 흐니 먼 길 질치 넘
 너 되나 일변 든든흐터 주셔 오니 거류 낭정이 그음업술 거시니 민망히 나는 알키
 골몰흐여 썩날 쟈 봉셔 흔 줄도 못 흐엇니 <중략> 제가 뿌디 뉘가 뿌디 망축 인스
 로세 이 말을 아니려다가 뻗티 이 봉셔 쇼화호소 무신 팔월 념칠일<순원봉서-15>

위의 (6)은 1848년 김홍근이 광양으로 유배 갔을 때의 것으로 봉투에는 '봉서 광양'이라 적혀 있고, 내용에 유일하게 날짜가 적힌 언간이다. 종결형으로는 '흐 엇니'의 평서형어미 '-니', '두디마소, 디내소, 쇼화호소'의 명령형어미 '-소'가 나타나고, '잇는가'의 의문형어미 '-는가', '인스로세'의 감탄형어미 '-세'가 나타난다. 이러한 어미들은 전형적인 '흐니'체로 볼 수 있다. 유배당시 편지에서는 경어법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다음에서 수신자의 지위로 관직의 변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관직의 변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필사 연대가 확실한 언간을 대상으로 필사 연대와 김홍근의 관직 상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간번호	연대	관직명	경어법/비고
<순원어필-25>	1834~1849	미상	'하니'체
<순원어필-13>	1837	전라감사/헌종4	'하니'체
<순원어필-24>	1838	전라감사/헌종4	'하니'체
<순원어필-09>	1840	홍문관 부제학/헌종6	'하니'체
<순원어필-05>	1841	평안도 감찰사/헌종7	'하니'체
<순원봉서-30>	1842	형조판서/헌종8	'하니'체
<순원어필-04>	1842~1850	미상	'하니'체
<순원어필-06>	1842~1850	미상	'하니'체
<순원봉서-11>	1842~1850	미상	'하니'체
<순원어필-17>	1843	형조판서/헌종9	'하니'체
<순원어필-14>	1844	병조판서/헌종10	'하니'체
<순원봉서-19>	1846	호조판서/헌종12	'하니'체
<순원봉서-17>	1846.5	호조판서/헌종12	'하니'체
<순원봉서-03>	1846.12	영부스/헌종12	'하니'체
<순원봉서-04>	1846	영부스/헌종12	'하니'체
<순원봉서-27>	1847	호조판서/헌종13	'하니'체
<순원봉서-15>	1848.8	유배지/헌종14	하니체/귀양감
<순원어필-21>	1849.봄	유배지/헌종14	'하니'체
<순원봉서-12>	1849.6	유배지/철종원년	'하니'체
<순원어필-03>	1849.11	유배지/철종원년	'하니'체
<순원봉서-07>	1849.12	관직무/철종원년	'하니'체
<순원어필-08>	1850	관직무/철종1	'하니'체
<순원어필-18>	1850.1	관직무/철종1	'하니'체
<순원봉서-25>	1850.초	관직무/철종즉위년	'하니'체
<순원봉서-01>	1850 ¹⁵⁰⁾	한성부판윤/철종즉위년	'하니'체
<순원봉서-02>	1850	이조판서/철종즉위년	'하니'체
<순원봉서-26>	1850	이조판서/철종1	'하니'체
<순원봉서-32>	1850	이조판서/철종	'하니'체
<순원봉서-13>	1850.여름	이조판서/철종1	'하니'체
<순원어필-12>	1851.1	이조판서/철종1	'하옵'체
<순원어필-23>	1851.2 ¹⁵¹⁾	좌의정/철종1	'하느이다'체
<순원어필-10>	1851.3	좌의정/철종1	'하느이다'체
<순원어필-02>	1851.봄	좌의정/철종1	'하느이다'체
<순원어필-15>	1851.5	좌참/철종1	'하느이다'체
<순원어필-19>	1851.7 ¹⁵²⁾	좌상/철종1	'하느이다'체
<순원어필-22>	1851.6	좌의정/철종1	'하느이다'체
<순원어필-01>	1851.여름 ¹⁵³⁾	좌의정/철종1	'하느이다'체
<순원어필-11>	1851.7	좌상/철종1	'하느이다'체
<순원어필-07>	1851.9	좌의정/철종1	'하느이다'체
<순원어필-20>	1851~1857	미상	'하느이다'체
<순원봉서-23>	1853.1	영의정/철종3	'하느이다'체
<순원봉서-06>	1853.여름	영의정/철종3	'하느이다'체
<순원봉서-31>	1853	영의정/철종3	'하느이다'체
<순원봉서-28>	1854	영의정/철종4	'하느이다'체
<순원봉서-33>	1855	판부스 ¹⁵⁴⁾ /철종5	'하느이다'체
<순원봉서-24>	1855	판부스/철종5	'하느이다'체
<순원봉서-20>	1855	판부스/철종5	'하느이다'체
<순원봉서-09>	1856	판부스/철종6	'하느이다'체
<순원봉서-08>	1856	판부스/철종6	'하느이다'체
<순원봉서-18>	1856	판부스/철종6	'하느이다'체
<순원어필-16>	19세기 중반	미상	'하느이다'체

<표-30> 김홍근의 관직 변동

위의 <표-30>은 김홍근의 관직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김홍근의 관직은 1837년에 전라감사(참판)를 시작으로 1840년에 홍문관부제학(참판), 1841년 평안도감찰사(참판), 1842년 형조판서, 1844년 병조판서, 1846년 호조판서, 1848년 유배가서 1849년 풀려났다. 1850년 1월 21일 한성부 판윤을 거쳐서 1850년 10월 25일~1851년 1월 27일까지 이조 판서, 1851년 2월 좌의정, 1853년 1월 영의정을 거쳐서 1855~1857년까지 판부사를 지냈다.

이 시기의 순원왕후가 보낸 편지를 관직과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대순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언간은 1837년에 보낸 것이고, 가장 늦은 시기의 언간은 1856년에 보낸 것이다. 김홍근의 관직과 편지를 일람해서 시대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흐니’체가 사용된 것은 1837~1850년까지의 언간이다. 이 가운데 참판일 때 4건이 확인되고, 형조판서일 때 2건, 병조판서일 때 1건, 호조판서일 때 3건, 영부사(1846년)일 때 2건, 한성부판윤(1850년)일 때 1건, 이조판서(1850~1851년)일 때 6건, 시기가 미상일 때 4건으로 모두 ‘흐니’체가 확인된다.

반면, ‘흐느이다’체가 사용된 것은 1851년 이후의 것으로 좌의정(1851~1852년)일 때 9건, 영의정 4건, 판부사(1853~1856년)일 때 6건, 미상일 때 2건으로 모두 21건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김홍근이 좌의정으로 관직의 변동에 따른 특정한

150) 승정원일기 2474책 (탈초본 121책) 현종 14년 6월 27일 기사 20/23 기사 1848년 道光(淸/宣宗) 28년 金興根에게 관직을 제수함, 규장각 원본 ○兵批, 再政. 兼慶尙道兵馬水軍節度使單金興根. 1850(철종 1) 한성부 판윤, 이조판서.

151) 1851년(철종 2년, 2월 25일 임오년) ○又啓曰, 備邊司郎廳來言, 今日賓廳日次, 而領議政權敦仁有身病, 左議政金興根, 右議政朴永元, 俱未肅拜, 不得來言 [會] 云矣, 敢啓. 傳曰, 知道.

152) 1851년(철종 2년, 2월 25일 임오년) ○又啓曰, 備邊司郎廳來言, 今日賓廳日次, 而領議政權敦仁有身病, 左議政金興根, 右議政朴永元, 俱未肅拜, 不得來言 [會] 云矣, 敢啓. 傳曰, 知道.

153) ○吏曹啓曰, 今此大報壇祭遣大臣攝行祭時, 時·原任大臣中當爲填差, 而領議政權敦仁, 行判中樞府事金道喜·朴晦壽, 俱有身病, 左議政金興根, 右議政朴永元, 俱未肅拜, 領中樞府事鄭元容藥院都提調, 例不得填差, 無可差之員, 何以爲之? 敢稟. 傳曰, 宗親·儀賓中填差.

154)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에 둔 종일품(從一品) 관직인 판사(判事)로 정원은 2원이다. 위로 영사(領事: 正一品) 1원이 있고, 아래로 지사(知事: 正二品) 6원, 동지사(同知事: 從二品) 8원, 첨지사(僉知事: 正三品) 8원, 경력(經歷: 從四品) 1원, 도사(都事: 從五品) 3원이 있다. 총재(冢宰: 吏曹判書)·종백(宗伯: 禮曹判書)·사마(司馬: 兵曹判書)를 지내지 않는 자는 판사로 임명(任命)될 수 없었다.

시기부터 ‘ㅎㄷ이다’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좌의정 이후(1851년 이후)부터 ‘ㅎㄷ이다’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5) 가. 녕상은 양쥬ㄹ디 가시니 돈척ㅎ여 아직 올 길은 업스니 <중략> 몸소 일이 다르니
그령성 닉는 거시 아니 되옵느니잇가 좌상 아니 쓴다 ㅎ고 외간의셔 내 시비가
만타 ㅎ고 우원 범스가 갑오년 ㄹ디 아니니 노흔ㅎ여 그러흔가 보다 남으라기
측냥업다 ㅎ나 드르면 우슬 분 디내옵느이다 오감저은 생각 마르시고 정성으로
국스 ㅎ시옵<순원어필-11>

나. 금년 더위는 소무전고흔 듯ㅎ니 <중략> 녕변으로 비릇ㅎ여 다 희년을 디낼 거
시니 든든 경희ㅎ오이다 모히여 이락ㅎ신 둥 일변 감구지회 새로오라 일궤스오며
그스이 녕변 공무의 번극이 업셔 안한ㅎ고 년스의도 걱정이나 업는가 브리디 못
ㅎ며 더위 하 몹시 디내여 정신이 모손ㅎ디 스연 츠셔 업스니 짐작 보시옵 가실
제도 편지 못ㅎ엿기 줌 덕습느이다<순원봉서-06>

(5가, 나)는 모두 대체로 ‘ㅎㄷ이다’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ㅎㄷ이다’체를 사용한 시기를 보면 1851년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1851년 2월에 김홍근은 좌의정에 오른다. 즉, 좌의정 시기부터 ‘ㅎㄷ이다’체가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1851년 편지 봉투에 ‘좌합’, ‘던동 대신 판부스’, ‘좌의정’ 등 관직명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왕실 특성상 일반 사대부가에서 사용되는 경어법보다 좀 더 엄격했을 것이고, 우리 사회가 신분이 엄격히 구분되는 사회였으므로 상대경어법 등급의 결정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듯이 상위자인 발신자가 하위자인 수신자의 관직이 달라짐에 따라서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높은 등급의 경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왕실의 최고 어른이고 더구나 가문의 큰 누나라고 하는 상위자라고 하더라도 좌의정과 같은 지위에 오를 때는 매우 높임 등급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순원왕후언간>은 지금까지 규장각에 소장된 <순원왕후어필봉서(奎27785)> 33건, <순원왕후어필(古貴2410-21)> 25건으로 총 58건과 단국대석주선기념박물관 4건, 국립한글박물관 30건, 조용선 소장 4건, 건국대박물관 1건 등, 총 96건에 달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96건의 <순원왕후언간>을 대상으로 발·수신자 별로 언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표기법과 음운, 문법적 특징 등 국어학적 논의를 하였다. 본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순원왕후언간>의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필사 연대, 생애와 2대에 걸친 수렴청정, 언간의 내용을 판독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정치적으로 일어났던 사건 등을 토대로 발·수신자와 작성 시기를 밝혀내고,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의 주변 인물들을 파악하였다. 수렴청정 과정에서는 왕과 대비의 역할 규정을 ‘수렴청정절목’의 제정을 바탕으로 시행하였으며, 대비의 권한과 지위를 설정하여 국정 운영의 방법을 명문화하였다. 순원왕후는 56년간의 궁중 생활 중에 10여 년간 수렴청정을 하였다. 순원왕후는 언간을 통해 당대의 왕실의 생활상, 특히 정치적 사건의 결합, 왕실 밖에 있는 친척들과 서로의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연대감을 끈끈하게 형성하려는 진솔한 개인적 정서 등을 매우 현실감 있는 언어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공식적인 사료에 등장하지 않는 왕실 생활상이 드러나는 것으로 개인 간에 주고받은 편지의 자료적 중요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순원왕후언간>의 필사, 원문 도판의 시기는 1839~1843년으로 보이며, 규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특히 민간 사대부 여성들의 언간과는 달리 봉투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봉투와 내지를 별도로 두어 발신자의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왕실 여성 언간 봉투의 형식적 특징을 검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19세

기 인간의 형식적 특징의 사례로 문헌학적 가치가 높다.

내지의 형식은 전문, 본문, 후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문은 기원의 뜻과 낙관을 썼는데, 전문은 칭호와 안부를 묻는 인사 말, 본문은 주된 내용의 서술, 후문은 기원의 뜻과 낙관(월일 성명)을 썼는데, 오른쪽 끝에서 바로 쓰지 않고 여백을 두고 썼다. 그리고 말미에 운용구가 후손을 위해 편지가 유입된 유래와 경위를 기록하여 유물에 가치를 더욱 높여 주고 있다.

순원왕후의 서체는 현대서예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한문 초서의 필의로 남성적이면서 역동적이며 세련미가 있다. 그리고 전형적인 궁체의 진흘림체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전형적인 궁체의 기초 자료가 된다. 이는 근현대를 거치면서 한글서예사의 핵심적인 서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제3장에서는 표기적 특징과 음운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표기적 특징으로 첫째, 합용 병서이다. 중세국어에서는 ㅅ계와 ㄴ계 등의 합용 병서로 이루어진 어두자 음군이 존재하였으며, 이중 ㄴ계는 ‘ㄴᄃ, ㄴᄉ’ 등을 ㄴ계로 별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ㅁ’과 ‘ㅆ’이 출현하고, 17세기 후기에는 17세기 중엽에 비해 ‘ㄴᄃ, ㄴᄉ’의 ‘ㄴ’계가 완전히 소멸하였고, ㄴ계의 ‘ㄴᄂ’과 ㅅ계의 ‘ㅆᄂ’이 소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세기에 와서는 ‘ㅁ’은 몇몇 문헌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이 언간 자료에서도 그러한 추세가 확인된다. 19세기에, 특히 ‘ㄴᄃ, ㄴᄉ’ 등의 ㄴ계는 ㅅ계에 비해 그 빈도가 훨씬 줄어 들면서 19세기 후기에 가면 ㅅ계로 거의 통일되어 간다. ‘ㄴ’만이 예외였는데(특히, ‘以’의 ‘ㅁ’에서), 이 현상은 ‘ㅆ’이 각자병서로 인식되었던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ㅅ계 합용 병서는 현대국어의 된소리 표기 ‘ㄱ, ㄲ, ㅋ, ㅌ, ㅍ’ 중에서 파열음에 해당하는 표기에서만 확인된다. 마찰음 ㅅ과 파찰음 ㅆ에서는 ㅅ계가 보이지 않고 ㄴ계로만 나타나는데, 동일한 조음 방식의 문자가 반복되면 된소리에 대응되지 않는 인식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언간에서 ㅅ계 합용 병서는 ㅅ, ㅆ, ㅆ과 ㄴ계 합용 병서 ㄴ, ㄴ 등이 나타난다. 반면에 각자병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연철 표기와 분철 표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경향을 미리 살펴보았다.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둔 선행 형태소의 종성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접사 등이 이어지는 경우, 받침 자음을 뒤로 이동하여 후행 형태소의 초성으로 표기되는 연철 표기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자음이 반복되는 중철 표기와 ‘명사+조사’, ‘용언 어간+어미’의 형태소 결합에서 이들을 분리해서 제시하는 분철 표기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분철 표기는 체언 언간과 조사가 결합하는 형태소 경계에서 주로 보여진다. 또한 용언 언간 중에서 말음이 ‘ㄱ’과 ‘ㄴ’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분철 표기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중철 표기와 어중 유기음 표기는 19세기 국어에서도 그 명맥이 유지되는데, 중세국어와 동일하게 체언이나 용언 등의 어간말 자음과 후행 음절의 두자음(頭子音)이 동일한 자음이 또는 동일한 계열의 자음을 어간말 종성 위치에 적는 중복 표기로 나타난다. 중철 표기와 어중 유기음 표기의 선행 음절 말 자음은 형태음소적 원리에 따라 어간 형태소를 밝혀 표기하고, 후행 음절의 두자음은 음소적 원리에 따라 발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연철 표기와 분철 표기의 성격이 혼재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셋째, 어중유기음은 어중의 ‘ㅌ’의 경우는 부분 중철의 양상이 두드러지는데, ‘쓏터’나 ‘긏티’, ‘긏터’, ‘긏터’ 등에서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쓏터’나 ‘긏티’의 경우는 ‘그치-’의 예로 볼 수 있는데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긏터’, ‘긏티’ 등에서는 부분 중철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어중 ‘ㅍ’의 표기 양상의 경우에는 이른바 재음소화 표기가 두드러진다. ‘겹 흘, 녀흐로, 압흔’에서와 같이 체언의 형태소 내부나 형태소 경계에서 ㅂ+ㅎ이 주를 이룬다. 또, ‘놉흔’과 같이 활용형에서도 재음소화 표기가 확인된다. 또, ‘깁히’와 같이 파생어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잘 나타난다. 아울러, ‘휘잡히’나 ‘뎡히’와 같이 파생어 환경에서, 그리고 ‘갑갑히’와 같이 ‘-ㅎ’에서도 어간의 말음 ‘ㅂ’을 분명히 표기한 것이 나타난다. 이로써 어중 유기음의 표기는 문법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각 어중 유기음(‘ㅌ, ㅋ, ㅌ, ㅍ’)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다음은 음운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째 ‘·’ 변화의 출현 양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모음으로 사용된 어두 음절의 ‘·’ 관련 용례는 전체 2,811회가 나타난다. 어두 음절에서 ‘ㅏ’가 사용된 용례는 1,664회이며, 이 중에서 ‘· > ㅏ’를 보이는 용례는 15회로 분석된다. ‘· > ㅏ’의 변화가 나타나는 비율은 채 1%도 나타나지 않는 0.90%에 해당된다. 또한 어두 음절에서 ‘·’가 사용된 용례는 1,147회이며, 이 중에서 ‘ㅏ > ·’인 예는 53회로, ‘·’의 비음운화를 보이는 ‘· > ㅏ’의

0.90%보다 약 5배 높은 4.62%의 비율을 보인다. 국어사 문헌 자료 연구를 살펴 보면 어두 음절에서 ‘·>ㅏ’의 변화는 18세기 중엽 이후부터 현저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1세기가 경과한 19세기 중엽의 <순원왕후연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 빈도와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다. 왕실 연간의 보수성을 알 수 있는 특징이라 하겠다.

둘째, ‘ㄹ’ 비음화와 유음화 현상이다. ‘ㄹ’ 비음화는 ㅁ+ㄹ, ㄴ+ㄹ, ㄱ+ㄹ의 연쇄가 각각 ‘ㅁ+ㄴ’, ‘ㄴ+ㄴ’, ‘ㄱ+ㄴ’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현대국어에서 ‘담력’이 [담녁]처럼 실현되는 것과 같이,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뀐 것이다. <순원왕후연간>의 특이점은 ‘인릉(仁陵)’의 ‘ㄴ+ㄹ’ 연쇄가 ‘인능’과 같이 ‘ㄴ+ㄴ’으로 표기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선릉’의 표준 발음이 [설릉]이지만, 일반적으로 [선능]으로도 실현되는 현상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국어의 표준어 발음과 달리 ‘ㄴ+ㄹ’ 연쇄에서는 ‘ㄴ+ㄴ’으로 실현된 것이다. 이 연간은 발신자가 ‘순원왕후’ 한 사람이어서, ‘ㄹ’ 비음화 중에서 ‘ㄹ+ㄹ’ 연쇄나 역행적 유음화의 ‘ㄴ+ㄹ’ 연쇄 등과 관련된 표기 유형이 매우 정제된 경향이 확인된다.

셋째, 구개음화의 발현 양상이다. ‘ㄷ’구개음화의 확산 비율을 바탕으로 왕실 어른으로서의 언어의 변화를 파악하고, 수신자들의 언어를 관찰하여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왕실 언어의 음운 변화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 연간의 구개음화는 8.23%, 과도교정이 6.41%가 나타난다.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구개음화 중에서 ‘ㄷ>ㅈ’인 경우는 956회 중에서 61회가 발생하여 6.38%의 비율을 보인다. ‘ㅌ>ㅊ’은 186회 중에서 33회로 17.74%로 나타난다. 과도교정은 ‘ㅈ>ㄷ’이 639회 중에서 52회로 8.14%이 나타나며, ‘ㅊ>ㅌ’은 219회 중에서 3회로 1.37% 정도만이 보일 뿐이다. 이와같이 19세기 사대부가의 연간에서는 구개음화가 대부분 이루어졌음에도 이 연간에서는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들은 표기의 보수성과 발신자의 지위, 세대, 연령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확산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수신자와의 관계나 어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확인된다.

이는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구개음화를 거부하려는 의식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순원왕후는 12세부터 69세까지 궁중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궁중 언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순원왕후의 언어에는 음운 변화에 보수적인 궁중 언어의 특성이 발견되고, 당시 문헌에서 보이는 음운변화의 보수성의 영향이나 궁중 생

활을 통한 개인어의 형성과 의고성으로 구개음화 비확산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원순모음화이다. 기존의 연구에 언급된 원순모음화의 예는 이미 17세기 말에 중앙에서 간행한 간본 자료에도 나타나고, 18세기 말이 되면 이미 원순모음화는 상당 부분 확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19세기 중엽의 <순원왕후언간>에서 원순모음화가 반영된 용례의 빈도와 비율이 현저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전혀 그러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 특징이 드러났다. 구체적인 <순원왕후언간>의 원순모음화 특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ㅁ, ㅂ, ㅍ(ㅍ) + ㅅ, ㅌ, ㅊ, ㅍ, ㅑ, ㅓ, ㅕ(ㅕ)의 결합이 가능하지만, ‘ㅍ’은 ‘ㅍ디(지)-, ㅍ이-, ㅍㅍㅎ-’에서만 보여짐으로 원순모음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환경에서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ㅍ’은 ‘ㅑ’와도 순자음과의 연쇄가 나타나지 않는다. (2) 원순모음화 또는 비원순모음화는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한다. 어두 음절, 어휘별로 주로 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3) 원순모음화 또는 비원순모음화는 한자어에서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한자어 ‘붕우’ 예외) (4) ‘ㅅ>ㅌ’는 현대국어 ‘아무’가 포함되거나 관련된 어휘에서만 나타난다. (5) ‘ㅌ>ㅕ’는 ‘무순’, ‘무ㅍ-, 무ㅑ-, 무ㅓ-’ 등과 ‘부디, 관작붓치, 붕우’으로 나타난다. (6) ‘ㅕ>ㅌ’는 ‘므든’을 제외하면 ‘므-(問), 므-(뉘거나 입다, 被)’과 ‘브절없-, 블상-’ 등에서 나타난다. 이때 ‘ㅕ’를 유지한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띄어’(空)도 나타난다. (7) 원순모음화 또는 비원순모음화는 비어두 음절(아모, 관작붓치 등 제외)와 형태소 경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형태소 경계는 주로 ‘명사형 어미 -ㅁ + 은, 을’와 결합해 나타난다.

제4장은 문법적 특징이다. 주격 조사는 ‘이’와 ‘가’가 쓰인다.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이’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가’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중세국어 이래로 대명사 ‘나’, ‘누’, ‘저’에는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하였으나, ‘내’, ‘뉘’, ‘제’에는 다시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한 양상도 보인다.

그리고 존칭의 주격 조사 ‘긔셔, 겨오셔/겨오샤’의 예가 보인다. ‘긔셔’는 중세국어에서 ‘띄셔’로 나타나는데, 이 자료에서는 항상 ㅅ이 탈락된 ‘긔셔’로 나타나고 있다. ‘띄셔’는 “존칭의 여격”을 표시하는 부사격 조사 ‘-띄’와 동시 ‘잇/이시-’의 활용형 ‘이셔’에서 기원한 ‘-셔’의 결합형이 높임의 주격 조사로 발전한 것이다. 부사격

조사 ‘띄’는 높임의 관형격 조사 ‘스’와 지시대명사 ‘거기’의 결합으로부터 문법화한 것이기 때문에 ‘띄’나 ‘띄셔’에서 ‘스’는 수의적으로 탈락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이들이 모두 각각 ‘기’와 ‘기셔’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 언간에서 주체 높임의 ‘-시-’와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엇-}이 결합하는 경우는 ‘섯’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아/어 겨시-’의 구성을 취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미래, 추측, 의지를 나타내는 ‘-겻-’은 선어말 어미로 문법화되어 쓰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게 흐-’ 구문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상대경어법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친족관계, 신분관계, 사회적관계에 따라서 높임등급인 ‘흐느이다’체, 예사높임등급인 ‘흐니’/‘흐읍’체, 안높임등급인 ‘흐다’체가 나타난다. 이 언간에서는 두가지의 특징적인 것이 발견된다. 하나는 순원왕후가 사위인 윤의선에게 보낸 것으로 모두 30건이다. 이 중에서 ‘흐니’체는 28건, ‘흐다’체는 2건으로 교체를 보이고 있다. 윗세대인 순원왕후가 1세대 낮은 아랫세대인 사위에게 보낸 것으로, 순원왕후가 사회적으로 높은 직책이라도 사위에게 ‘흐니’체로 존대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전통은 16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하지만 왕실 언어에서 사위에게 ‘흐다’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언간은 사위에게 보낸 답서로, 전날 헌종의 비 효현황후의 관례식에 사위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적혀 있다. 그렇다면 편지를 쓸 당시의 순원왕후 마음이 화계에 영향을 주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언간은 글로써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경어법을 사용하게 된다. 사위가 헌종비의 관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했던 마음이 이 언간의 경어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상대경어법은 화자가 자신과 청자와의 상하 관계를 파악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흐니’체의 경우 상하 관계가 구분되어 이전 시기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흐다’체의 경우 상하 관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순원왕후가 사위 윤의선에게 고정적으로 ‘흐니’체를 사용하다가 ‘흐다’체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이는 그만큼 셋째 사위 윤의선과 친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 다른 하나는 재종동생인 김홍근에게 보낸 것 중에 ‘흐니’체만 쓰인 것이 이 있는 반면 고정적인 ‘흐니’체와 ‘흐느이다’체의 교체를 보이는 두 편지 사이에는 김홍근의 신분 변동이 화계에 영향을 주었다. 평소에는 ‘흐니’체를 사용하다가 관

직이 변동된 좌의정 이후부터는 ‘흐느이다’체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계층의 지위, 성별, 나이, 친족 관계, 친밀감 등 경어법 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왕실 특성상 일반 사대부가에서 사용되는 경어법보다 좀 더 엄격했을 것이고, 우리 사회가 신분이 엄격히 구분되는 사회였으므로 상대경어법 등급의 결정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는 엄격한 경어법 사용을 하면서도 친밀도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으로, 순원왕후가 상위자이기는 하지만 동생이 좌의정의 반열에 오른 상황에서는 지위에 대한 배려와 왕실의 어른으로서 대우하여 썼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순원왕후연간>은 국어학 측면에서는 왕실 및 사대부가에서 사용한 언어와 표기법 및 19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형태나 표현들이 나타나는 한편, 표기법이나 음운론적 특징, 형태 등에 있어서 19세기 이전의 특징을 많이 보여준다. 그러므로 19세기 왕실 언어의 보수적인 성격을 잘 드러 내고 있어 국어학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자료

- 『순조실록』 권1, 부록 순조대왕 묘지문.
『순조실록』 권1, 부록 순조대왕 행장.
『순조실록』 권1, 부록 순조대왕 천릉지문.
『列聖王妃世譜』 권9, 「순조대왕비 순원왕후」, ‘父祖淳-御製神道碑銘’, “正廟乙巳登
文科 上召見.
『日省錄』 憲宗 卽位年 11月 18日 己卯.
『정조실록』 권53. 정조 13년 5월 15일.
『철종실록』 권1, 철종 2년.
『헌종실록』 권1, 헌종 즉위년 11월 18일 己卯.
『헌종실록』 권4, 헌종 3년 8월 17일.
김안국(1518), 『창진방언해』

2. 단행본

- 강규선 외(2003), 『중세국어문법론』, 도서출판 청운.
곽충구(1990),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고영근(2006),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_____(2010),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국립고궁박물관(2017), 『조선의 왕비와 후궁』, 가나씨엔피.
국립한글박물관(2016), 『1837 가을 어느 혼례 날』, feelcom.
국립한글박물관(2019) 『공주글시덕으시니-덕온공주집안 3대 한글유산』, 국립한글
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2019) 『덕온공주가의 한글 1-2019 소장자료총서 6』, 국립한글박
물관.
김수지(2013), 『대비, 왕위의 여자』, 도서출판 인문서원.

- 김일근(1959), 『이조어필언간집』, 신흥출판사.
 _____(1972), 『이조어필언간집』, 경인문화사.
 _____(1986), 『언간의 연구』, 건국대학교 출판부.
 _____(2011가), 『국어의 음운현상과 음운변화 연구』, 역락.
 _____(2011나), 『음운변화와 국어사 자료 연구』, 역락.
 _____(2015), 『구개음화의 통시성과 역동성』, 태학사.
- 김일근·황문환·이종덕(2004), 『추사 한글 편지』,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나찬연 외(2014), 『중세국어문법의 이해』, 주해편, 교학연구사.
 남광우(2015), 『고어사전』, 교학사.
 _____(2011), 『근대국어 청자경어법 연구』, 태학사.
 남성우(2012), 『구급방언해와 구급간이방의 동의어 연구』, 도서출판 지식과교양.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편(2012),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가의 유물』, 단국대학교출판부.
- 박병천(2007), 『조선시대 한글 서간체 연구』, 도서출판 다운샘.
 박시백(2014), 『조선왕조실록 사전』, 휴머니스트.
 박영규(2017), 『조선왕조실록』, 웅진씽크빅.
 박재연(2010), 『고어대사전 1~6』,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도서출판 학교방.
- 박현모(1986), 『정조 사후 63년』, 창비.
 _____(2007), 『훈민정음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서울서예박물관(2002), 『朝鮮王朝御筆』 예술의 전당, 우일출판사.
 신승용(2013), 『국어음운론』, 도서출판 역락.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유병학(1998),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유창돈(1974), 『이조국어사연구』, 선명문화사.
 육수화(2008), 『조선시대 왕실교육』, 민속원.
 이기문(1963), 『국어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국어학연구총서3, 한국연구원.
 _____(1972), 『국어사 개설(개정판)』, 탑출판사.
 이래호(1972), 『국어사 개설』, 탑출판사.

- 이승녕(1981), 『중세국어문법』, 乙酉文化社.
- 이승희(2007), 『국어청자높임법의 역사적변화』 국어학총서 59, 태학사.
- _____ (2010), 『순원왕후의 한글편지』, 푸른역사.
- 이유기(2001),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문장종결형식의 연구』, 역락.
- 이익섭(1997),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진호(2005), 『국어음운론강의』, 삼경문화사.
-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 조성자 외(2013), 『순원왕후 편지글』, 다운샘.
- 조용선(1997), 『봉서』, 다운샘.
- 지두환(2009a), 『정조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 _____ (2009b), 『순조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 _____ (2009c), 『헌종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 하현강(1983), 『목적』, 명문당.
- 한국문원편집실(1995), 『문화유산 왕릉』, 한국문원출판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9a),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6 - 의성김
씨 천전파·초계정씨 한글 간찰』, 태학사.
- _____ (2009b),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 영인본 3』, 태학사.
-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I)』 국어학신서①, 태학사.
- 황문환(2002), 『16, 17세기 언간의 상대경어법』, 국어학총서 35, 태학사.
- _____ 외(2004), 『한국어의 역사』, 보고서.
- _____ 외(2013),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1, 2, 3』, 역락.
- _____ (2015), 『조선시대의 한글편지 언간』, 역락.
- _____ (2016),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1 - 6』, 역락.

3. 논문

- 고홍희(2013), 「<순원왕후 한글편지> 한자어에 대한 고찰-‘한자 어기+-다’ 구성
의 한자어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8, 한중인문학회, 45
~74쪽.

- 곽충구(1980), 「18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28쪽.
- _____ (2001), 「구개음화 규칙의 발생과 그 확산」, 『진단학보』 92, 진단학회, 237~268쪽.
- 김경순(2013), 「추사 김정희의 한글 편지 해독과 의미」, 『어문연구』 75, 어문연구학회, 5~31쪽.
- 김무식(1997), 「순천김씨 묘 출토 인간자료의 국어학적 연구」, 『문학과 언어』 19, 문학과언어학회, 2~27쪽.
- 김상돈(1990), 「근대국어 표기와 음운변화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47쪽.
- 김성옥(2017), 「18~19세기 한글간찰의 표기법적 고찰-동춘당 송준길가(家)의 미주해 한글간찰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91, 어문연구학회, 40~50쪽.
- _____ (2018), 「주제격 ‘은/은/는/는’과 목적격 ‘을/을/를/를’의 단일화에 대한 일고찰」, 『국어국문학』 183, 국어국문학회, 5~35쪽.
- 김완진(1979), 「<선세언적>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5·56·57 합집, 국어국문학회, 129~142쪽.
- 김일근·황문환(1998), 「김노경(추사 부친)이 아내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1791)」, 문헌과 해석 통권5호, 태학사, 46~55쪽.
- 김주필(1993), 「진주 하씨 묘 출토 한글 필사 자료의 표기와 음운현상」, 『진단학보』 75, 진단학회, 129~148쪽.
- _____ (2004), 「18세기 중·후기 왕실 자료의 ‘·’ 변화」, 『어문연구』 1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1~68쪽.
- _____ (2005), 「18세기 어제류 문헌과 왕실 문헌의 음운변화 -ㄷ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12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31쪽.
- _____ (2006), 「18세기 왕실 문헌의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정신문화연구』 29, 127~157쪽.
- _____ (2011), 「조선시대 한글 편지의 문어성과 구어성」, 『한국학논총』 43, 127

~160쪽.

- _____ (2011ㄴ), 「송준길가 한글 편지에 나타나는 구개음화의 양상과 특징」, 『국어학』 61, 국어학회, 61~92쪽.
- 김한별(2017), 「19세기 전기 국어의 음운사 연구<의성김씨 학봉 종가 언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92쪽.
- 김현주(2013), 「주격 표지 {-께서}의 형성에 대하여」, 『어문연구』 41-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33~159쪽.
- 남미정(2007), 「근대국어 청자경어법의 형태원리와 체계」, 『시학과 언어학』 14, 시학과 언어학회, 153~189쪽.
- 박부자(2008), 「은진송씨 송준길 후손가의 언간첩 『선세언적』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157~200쪽.
- 박재연(2008), 「진주 유씨가 묘 출토 언간의 어휘론적 고찰」, 『동방학지』 14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31~270쪽.
- 박지은(2015), 「19세기 조선조 순원왕후와 순명효황후의 언간서체의 심미적 특징」,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10쪽.
- 박진호(2008), 「구결 자료 해독의 방법과 실제」, 『한국문화』 4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39~348쪽.
- 박형우(2010), 「15세기 특이처격어에 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57, 한민족어문학회, 163~188쪽.
- 배영환(2011), 「조선시대 언간의 어휘 성격과 특수 어휘에 대한 고찰-용언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51, 한국어학회, 57~92쪽.
- _____ (2012), 「현존 최고의 한글편지 ‘신창맹씨묘출토언간’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국어사연구』 15, 국어사학회, 211~239쪽.
- _____ (2015), 「언간에 나타난 경어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영주어문』 29, 영주어문학회, 79~108쪽.
- _____ (2017), 「음운 변화에 대한 과도교정의 양상 고찰」, 『한국언어문학』 100, 한국언어문학회, 35~66쪽.
- _____ (2018ㄱ), 「은진 송씨 가문 한글 편지에 나타난 방언형에 대하여」, 『어문연구』 96, 어문연구학회, 33~67쪽.

- _____ (2018ㄴ), 「언간 자료의 특징과 대중화 방안」, 『어문논집』 76, 중앙어문학회, 7~39쪽.
- _____ (2019), 「언간 연구의 국어사적 성과와 전망」, 『한말연구』 53, 한말연구학회, 61~96쪽.
- 배영환 외(2013),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의 국어학적 연구」, 『장서각』 30, 한국학중앙연구원, 222~254쪽.
- 백두현(2000), 「<현풍 광씨 언간>의 음운사적 연구」, 『국어사자료연구』 1, 국어사자료학회, 97~130쪽.
- _____ (2004),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 생활 연구-조선왕조실록 및 한글 필사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7, 진단학회, 139~187쪽.
- _____ (2010), 「어문생활사로 본 언간과 한글고문서의 연구 방법」, 『국어사연구』 10, 국어사학회, 41~72쪽.
- _____ (2015), 「조선시대 왕실언간의 문화중층론적 연구」, 『한국학논집』 5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349~404쪽.
- 서태룡(1996), 「16세기 청주 간찰의 종결어미 형태」, 『정신문화연구』 64, 한국학중앙연구원, 58~93쪽.
- 성인출(2004), 「18세기 후기 국어의 표기법 연구 : 운음언해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90쪽.
- 소강춘(1991), 「원순모음화 현상에 의한 모음체계의 통시성과 공시성」, 『국어국문학』 105, 국어국문학회, 1~29쪽.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편집부(1968), 「경인 : 순원왕후 어필 - 부 전 인목대비 어필」, 『아시아여성연구』 6,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350~368쪽.
- 신성철(2008), 「격음의 이중 표기와 음성적 특징」, 『국어문학』 45, 국어문학회, 25~48쪽.
- _____ (2014ㄱ), 「근대국어 유음화 재고」, 『어문연구』 4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5~79쪽.
- _____ (2014ㄴ), 「발신자의 사회적 성격에 따른 19세기 한글 편지의 표기와 음운」, 『어문논집』 57, 중앙어문학회, 107~135쪽.

- _____ (2015), 「근대국어 순행적 유음화 재고」, 『국어학』 73, 국어학회, 109~139쪽.
- _____ (2017ㄱ), 「ㄹ 비음화의 통시적 고찰」, 『한국언어문학』 102, 한국언어문학회, 53-89쪽.
- _____ (2017ㄴ),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음운론적 특징」, 『영주어문』 35, 영주어문학회, 5~35쪽.
- _____ (2019), 「어두의 어중 ㄹ→ㄴ 현상의 통시적 고찰 : ㄹ 비음화와 통계적 방법론」, 『국어문학』 71, 국어문학회, 63~96쪽.
- 신성철·배영환(2018), 「<정조의 한글편지>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영주어문』 39, 영주어문학회, 33~59쪽.
- 안귀남(1996), 「언간의 경어법 연구 : 16~20세기 언간 자료를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20쪽.
- 안병희(1999), 「왕실자료의 한글필사본에 대한 국어학적 검토」, 『장서각』 1, 한국학중앙연구원, 1~20쪽.
- 안예리(2010), 「근대국어 ‘-ㄴ가’와 ‘-ㄴ지’의 영향 관계-송준길가의 송병필가 언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21, 국어사학회, 325~354쪽.
- 오광근·김주필(2013), 「후기중세국어 원순모음화 현상의 양상과 특징」, 『반교어문연구』 34, 반교어문학회, 5~34쪽.
- 윤희선(2016), 「19세기 전기 언간의 구개음화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73쪽.
- _____ (2018), 「19세기 언간에서의 구개음화 확산 양상과 구개음화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문학논총』 37,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41~66쪽.
- 이광호(1987), 「근대국어 표기법에 나타난 분철표기의 연구」, 『어문학논총』 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95~114쪽.
- _____ (1996), 「언문간찰의 형식과 표기법」, 『한국학』 19-3, 한국학중앙연구원, 95~131쪽.
- 이경하(2003), 「15~16세기 왕후의 국문 글쓰기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국고전

- 여성문학연구』 7, 389~416쪽.
- 이기대(2009), 「한글편지에 나타난 순원왕후의 수렴청정과 정치적 지향」, 『국제어문』 47, 국제어문학회. 100~225쪽.
- _____ (2009), 「한글편지에 나타난 순원왕후의 일상과 가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315~349쪽.
- _____ (2011), 「19세기 왕실 여성의 한글 편지에 나타난 공적인 성격과 그 문화적 기반」, 『어문론집』 48, 중앙어문학회, 260~277쪽.
- 이래호(2001), 「장서각 소장 유일본 『어제』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장서각』 5, 한국학중앙연구원, 246~252쪽.
- _____ (2004), 「송규렴가 전적 『선찰』 소재 언간에 대하여」, 『어문연구』 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13~136쪽.
- _____ (2012), 「언간에 나타난 지명의 용법 고찰」, 『한국언어문학』 83, 한국언어문학회, 37~68쪽.
- _____ (2014), 「조선시대 한글편지에 나타난 청자경어법의 특이례 고찰」, 『한국언어문학』 91, 한국언어문학회, 59~87쪽.
- _____ (2017ㄱ),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문법적 특징」, 『영주어문』 35, 영주어문학회, 37~64쪽.
- _____ (2017ㄴ), 「근대국어 험라체 의문형 어미에 대한 연구—언간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02, 한국언어문학회, 117~142쪽.
- 이병근(1996), 「16·17세기 언간의 표기에 대한 음운론적 이해」, 『한국학』 19-3, 한국학중앙연구원, 3~27쪽.
- 이병기(2013), 「추사가 한글 편지의 국어학적 고찰」, 『국어학』 66, 국어학회, 197~231쪽.
- 이상호(2002), 「국어생활사의 관점에서 본 언간의 특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0쪽.
- 이승희(2000), 「규장각 소장본 ‘순원왕후 한글편지’의 고찰」, 『규장각』 23,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113~140쪽.
- _____ (2004ㄱ), 「명령형 종결어미 ‘-게’의 형성에 대한 관견」, 『국어학』 44, 국어학회, 109~131쪽.

- _____ (2004), 「국어의 청자높임법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280쪽.
- _____ (2005), 「조선시대 한글편지에 나타난 친족 간의 청자높임법 사용 양상」, 『국어국문학』 141, 국어국문학회, 253~276쪽.
- _____ (2008), 「‘순원왕후 한글편지’의 자료적 특성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 44,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원, 31~47쪽.
- _____ (2013), 「조선 후기 왕실 여성의 한글 사용 양상」, 『한국문화』 61,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원, 301~325쪽.
- 이이숙(2011), 「<순원왕후연간>의 서예미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9쪽.
- 이익섭(1990), 「근대국어 문헌의 표기 체계」, 『한국문화』 11,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23쪽.
- 이재림(2015), 「<김성일 종가 한글편지>의 표기와 음운현상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쪽.
- 이종덕(2005), 「17세기 왕실연간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58쪽.
- 이진호(1998), 「국어 유음화에 대한 종합적 고찰」, 『국어학』 31, 국어학회, 81~140쪽.
- 이현희(1994),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 15,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원, 57~82쪽.
- 임혜련(2005), 「조선후기 현종대 순원왕후의 수렴청정」, 『한국인물사연구』 3, 한국인물사연구회, 198~234쪽.
- _____ (2008), 「19세기 수렴청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96쪽.
- _____ (2013), 「철종초 순원왕후 수렴청정기의 관인 임용 양상과 권력관계」, 『사학연구』 66, 한국사학회, 286~322쪽.
- 장윤희(1998), 「중세국어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283쪽.
- 전경미(1999), 「근대국어 평서법 종결어미 ‘-다’와 ‘-라’에 대한 형태·통사론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5쪽.

- 최명옥(1992), 「19세기 후기국어의 연구 : ‘모음음운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55~90쪽.
- 최어진·박재연(2015), 「정순왕후 편지의 내용과 가치」, 『열상고전연구』 44, 열상고전연구회, 5~39쪽.
- 최전승(2009), 「19세기 후기국어 방언에서 진행중인 음성변화와 과도교정의 개입에 대한 일 고찰」, 『국어문학』 46, 국어문학회, 9~34쪽.
- 한소윤(2014), 「한글 궁체의 변모 양상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49쪽.
- 한영균(2015), 「한글 필사 자료의 국어사를 위하여 - 후기 근대국어 시기를 중심으로 -」, 『국어사연구』 20, 국어사학회, 167~191쪽.
- 한주희(2017), 「18세기 이후 한글 편지에 나타난 ‘- 습 -’의 변화 양상」, 『어문연구』 92, 어문연구학회, 97~127쪽.
- 허원기(2004), 「한글간찰 연구사」, 『국제어문학』 32, 국제어문학회, 297~324쪽.
- 허재영(2006), 「한글 간찰[언간]에 대한 기초 연구」, 『사회언어학』 13, 한국사회언어학회, 257~277쪽.
- 홍윤표(1976), 「비교 구문에서 격어미와 후치사」, 『학술원 논문집』 15, 201~226쪽.
- _____ (1985), 「구개음화에 대한 역사적 연구」,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43~158쪽.
- _____ (1986), 「근대국어의 표기법 연구」, 『민족문화연구』 1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13~141쪽.
- 황문환(1993), 「진주하씨묘 한글편지에 나타난 경어법」, 『성균어문연구』 29,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회, 99~124쪽.
- _____ (1998), 「‘흐니’, ‘흐리’류 종결형의 대우 성격에 대한 통시적 고찰」, 『국어학』 32, 국어학회, 77~106쪽.
- _____ (1999), 「근대국어 문헌자료의 ‘흐읍’류 종결형에 대하여」, 『배달말』 25-1, 배달말학회, 113~129쪽.
- _____ (2003), 「조선시대 언간자료의 소개실태와 연구현황」, 『‘조선시대 한글 서간의 서예적 재조명’ 학술대회 발표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_____ (2004),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연구 현황 전망」, 『어문연구』 122, 한국어
문교육연구회, 69~94쪽.
- _____ (2007),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부부간 호칭과 화계」, 『장서각』 17, 한국학
중앙연구원, 121~139쪽.
- _____ (2010ㄱ),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현황과 특성」, 『국어사연구』 10, 국어사
학회, 73~131쪽.
- _____ (2010ㄴ), 「근대국어 ‘흐읍’체의 형성과정과 대우 성격」, 『국어학』 58, 국어
학회, 29~60쪽.
- _____ (2013),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종합화와 활용 방안」, 『한국어학』 59, 한국
어학회, 39~74쪽.
- 황은영(2011),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명칭 고찰」, 『한국학』 34-2, 한국학중앙연
구원, 305~331쪽.

<Abstract>

A Korean Linguistic Study on Queen Sunwon's Eongan(Korean old vernacular letters)

Kim, Soo-a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19th century in Korean language history is known as the bridge era between modern Korean and contemporary Korean. That's becaus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contemporary Korean appeared in this period. Nevertheless, there are difficulties to understand the appearance of the 19th century Korean properly. Especially, the language in the royal court of that era is not known until present. In this sense, the eongan(Korean old vernacular letters) of Queen Sunwon(1789~1857) show not only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ose days but also the appearance of the royal court.

This study is intended to comprehend the state of Eongan from 96 cases of <Queen Sunwon's Eongan> and to review the Korean linguistic characteristics. This study identifies the senders and recipients of total 96 letters, which consist of 33 letters of <Queen Sunwon Eopilbongseo(奎27785)> and 25 letters of <Queen Sunwon Eopil(古貴2410-21)> possessed by Gyujanggak Library, 4 letters possessed by Seok Juseon Memorial Museum of Dankook University, 30 letters possessed by National Hangeul Museum, 4 letters privately possessed by Jo Yong-seon and 1 letter possessed by Konkuk University Museum, and reviews the orthography, phonological features and grammatical characteristics.

First, the senders and recipients of <Queen Sunwon's Eongans> are

identified along with the years of transcription. Queen Sunwon and figures around her are discussed. The life of Queen Sunwon and the political incidents of those days for two generations of the regency by the queen mother are reviewed. <Queen Sunwon Eongan> vividly and realistically shows the lifestyle of the royal court, the combination of political incidents and frank and personal emotions and treatment acts. These contents, which do not appear in official historical records such as <True Record of the Joseon Dynasty> and <Seungjeongwon Ilgi(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show the importance of data of letters between individuals.

<Queen Sunwon's Eongans> also show the attitude of forming the feeling of solidarity as family in the process of inquiring after relatives and families out of royal court. This is the example of formal characteristics of the 19th century eongan and has high value as data. Unlike eongan of noble ladies, envelopes still remain in many cases. Therefore, these are very important resources to research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envelopes of the 19th century royal court women's eongan. In addition, the inserted paper separated from the envelope contains the respect for the sender's social status.

Meanwhile, the style of Queen Sunwon's handwriting is the typical court style of writing the Korean script. well showing elegant Jinheulimche(Genuine Cursive Font). Especially, it is cursive Chinese characters, which is dynamic and sophisticated due to quick strok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cluding parts are broad space between the lines and open space, which express the dignity in combination with the purity of ink black. She could be considered as a master calligrapher at the status of queen. It also has formativeness and aesthetic features enough to be the basis of the calligraphy history of Hangeul. All numerous practices and narrative processes are revealed at the tip of the brush through all the situations Queen Sunwon went through, and her style has become the core penmanship of the calligraphy history of Hangeul until today.

Regarding the notation characteristics of <Queen Sunwon's Eongans>, first, there are ㅅ, ㅆ and ㅈ, which are the compound characters of ㅅ, ㅆ and ㅈ, which are compound characters of ㅅ, but there are no double consonantal letters. Second, there is a strong continual writing form compared with other eongans. This means the writings of <Queen Sunwon's Eongans> are very conservative. Third, regarding aspirated sounds, ㅍ has remarkable aspect of methods of partial double spelling, and ㅑ has remarkable aspect of double phoneme writing. Fourth, the Palatalization Rule, which is shown in most noble families' eongans in the 19th century, does not appear in these letters. This seems that the intention to resist the Palatalization Rule rather excessively is revealed. Fifth, there are hardly vowel rounding cases, displaying the conservative tendency in the phonological phenomenon.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involve case particles, auxiliary particles and the prefinal endings. The subject case markers are '이(i)' and '가(ga)'. After nouns with consonant endings comes '이(i)', and with vowel endings comes '가(ga)'. While the pronouns '나(na)', '누(nu)' and '저(jeo)' were combined with the subject case marker 'ㅣ' in middle age Korean, in <Queen Sunwon's Eongans>, '내(nae)', '누(nui)' and '제(je)' are combined with the subject case marker '가(ga)' again. There are examples of the honorific subject case markers '긔셔' and '겨오셔/겨오샤'. Among them, '긔셔' appears to be '띄셔' in middle age Korean, but in these letters, '긔셔' appears with ㅅ eliminated. '띄셔' is the honorific form of the subject case marker developed from the combination of '-띄', which is the adverbial case marker that displays 'the dative of honorific', and '-셔', which is originated from '이셔', the application of '잇/이시-'. Because the adverbial case marker '띄' is grammaticalized from the combination of the genitive case marker 'ㅅ' and demonstrative pronoun '거긔', 'ㅅ' can't be eliminated voluntarily in '띄' or '띄셔'. However in these eongans, these are expressed with '긔' and '긔셔' respectively. There is subject case marker '의셔(uisyeo)' identified, which is

similar to ‘에서(eseo)’ in contemporary Korean used as a subject case marker by being combined with group noun. The objective case markers are ‘을’, ‘을’, ‘를’ and ‘를’, and the dominating appearance frequency is ‘을’ and ‘를’. It is interesting that this tendency is the opposite aspect of the typical late modern Korean. In addition, the adverbial case marker for place is mostly ‘의(ui)’. Other adverbial case markers are ‘의게’, ‘의’ and ‘드려’. The adnominal case marker is uniformed to ‘의(ui)’.

Among auxiliary postpositional particles, the subject auxiliary postpositional particles are ‘은/은/는/는’. ‘은’ and ‘는’ are mostly used according to the phonological environments of preceding substantives, and ‘은(eun)’ is used in syllabication in most cases. However, ‘것(geot)’ is the only one used in liaisonism.

The object honorific prefinal ending {-습-} is only used as the function of hearer honorific prefinal ending, which is the general feature of late modern Korean. In case ‘-시-’ of subject honorific and {-엇-}, the past tense prefinal ending, are combined, all ‘-아/어 겨시-’ forms appear instead of ‘섯’. While ‘-겟-’, which expresses future, assumption and intention, is grammaticalized as the prefinal ending, sentences with ‘-게 헛-’ are still used. In these eongans, ‘-게 헛엇/게 헛여시-’, which are the original form before abbreviation, appear more often than ‘-겟-’ and ‘-게시-’.

Regarding the relative honorific expressions, ‘헛는다’ of very honorific level, ‘헛읍/헛니’ of ordinary honorific style and ‘헛다’ of non-honorific appear according to kinship, social status and social relationship between narrator and hearer. In these eongans, unusual aspects are identified in the relative honorific expressions. The first one is ‘헛다’ in letters sent to her son-in-law. In eongans of Joseon Dynasty, letters sent to son-in-laws were generally written in the ‘헛니’ form, but among 30 letters sent to Queen Sunwon’s son-in-law Yun Ui-seon, 28 letters have ‘헛니’ form, and 2 letters have ‘헛다’ form. Even though the social status of Queen Sunwon was very

high, it is general to use honorific words in the ‘હે નિ’ form to son-in-law, but interestingly, she used the ‘હે 다’ form. There was coming-of-age ceremony of Queen Hyoyeon, the wife of King Heonjong, on the previous night. The letter contains resent and disappointment towards her son-in-law who didn’t attend the ceremony. In that sense, it is possible that the mental state of Queen Sunwon when she wrote the letters affected the speech level. Her disappointment at her son-in-law’s absence from the ceremony affected the honorification of this letter. It also shows how close she was with the third son-in-law Yun Eui-seon.

Another interesting feature is that the relative honorific expressions are different depending on status. In the letter sent to her second cousin Kim Heung-geun, ‘હે 니’ and ‘હે 는 이 다’ forms are used, which was identified to be involved with the change of Kim Heung-geun’s social status. In other words, when the status of the recipient was a minister, she used ‘હે 니’ form, and when he was promoted to the first vice-premier, she used ‘હે 는 이 다’ form. This aspect of changing honorific expressions while using them strictly indicates that she considered her cousin’s higher position even though she was at higher status.

As shown above, <Queen Sunwon’s Eongans> have languages and the orthography used in royal court and noble families along with new forms and expressions that appeared in the 19th century. However, the orthography, phonological features and forms are characteristics before the 19th century. Therefore, <Queen Sunwon’s Eongans>, which reveal the conservative characteristics of the 19th royal court language, have high Korean linguistic value.

Keyword: Korean Old Vernacular Letters, Queen Sunwon, Princess Dukwon, Yeonchul·Bunchul, Palatalization, Relative honorific System

■ 부록

1. <순조대왕의 친인척 연 보>

순조대

- 순조 00년(1800) 07월 04일 순조가 즉위함
- 순조 00년(1800) 07월 10일 김조순이 장용 대장이 됨
- 순조 00년(1800) 07월 15일 정조의 산릉 터를 정함
- 순조 00년(1800) 08월 02일 김조순이 병조판서가 됨
- 순조 00년(1800) 11월 06일 정조를 장사지냄
- 순조 00년(1800) 11월 18일 정조의 출궁제를 지냄
- 순조 00년(1800) 12월 12일 장용영의 재정을 호조와 양서로 옮김
- 순조 01년(1801) 01월 01일 홍국영의 관작이 추탈됨
- 순조 01년(1801) 01월 10일 정순왕후가 사학 엄금에 대해 하교함
- 순조 01년(1801) 01월 11일 서얼 허통이 시행됨
- 순조 01년(1801) 01월 24일 김조순이 형조판서가 됨
- 순조 01년(1801) 03월 16일 은언군 이인의 처와 며느리가 사사됨
- 순조 01년(1801) 04월 20일 주문모를 죽이고 김여, 김종억 등은 유배감
- 순조 01년(1801) 04월 25일 은언군 이인과 홍낙임이 처벌됨
- 순조 01년(1801) 10월 05일 황사영 백서 사건 발생
- 순조 01년(1801) 12월 18일 김조순이 선혜청 제조가 된
- 순조 01년(1801) 조만영이 사마시에 합격함
- 순조 02년(1802) 01월 20일 장용영이 폐지됨
- 순조 02년(1802) 01월 26일 장용영 내영의 별고와 외영의 각 창고가 내탕에 환속됨
- 순조 02년(1802) 06월 28일 정조의 대상제를 지냄
- 순조 02년(1802) 08월 09일 정조의 종묘의 15실에 부모함
- 순조 02년(1802) 09월 06일 삼간택을 하여 김조순의 딸을 왕비로 고름
- 순조 02년(1802) 10월 13일 김조순의 딸이 왕비에 책봉됨
- 순조 03년(1803) 12월 28일 순조가 친정을 시작함
- 순조 04년(1804) 02월 10일 정순왕후에게 존호를 올림
- 순조 04년(1804) 11월 23일 홍재민을 영암군 추자도에 안치함

순조 04년(1804) 11월 24일 정순왕후에게 존호를 올림
 순조 05년(1805) 01월 12일 정순왕후가 승하함
 순조 05년(1805) 01월 15일 정순왕후의 영상을 환경전으로 옮겨 봉안함
 순조 05년(1805) 01월 17일 정순왕후의 시로, 휘호, 전호, 능호를 정함
 순조 05년(1805) 06월 21일 정순왕후를 장사지냄
 순조 06년(1806) 01월 12일 정순왕후의 연제를 지냄
 순조 06년(1806) 01월 26일 송시연이 졸함
 순조 07년(1807) 01월 12일 정순왕후의 상제를 지냄
 순조 07년(1807) 01월 27일 흥낙임의 관작이 복구됨
 순조 07년(1807) 04월 02일 정순왕후를 부모함
 순조 09년(1809) 01월 22일 혜경궁에게 치사·전문·표리를 올림
 순조 09년(1809) 08월 09일 익종 탄생
 순조 10년(1810) 10월 13일 명은공주 탄생
 순조 10년(1810) 12월 12일 김현근 출생
 순조 12년(1812) 06월 02일 원자의 이름을 정함
 순조 12년(1812) 07월 06일 원자를 왕세자로 책봉함
 순조 13년(1813) 01월 13일 왕대비의 주갑이라 치사·전문·표리를 올림
 순조 13년(1813) 06월 09일 정조의 어제를 봉인하는 것을 명함
 순조 13년(1813) 06월 28일 정조의 어제를 '정종대왕어제'로 정함
 순조 14년(1814) 03월 22일 규장각에서 홍제전서와 경모궁예제를 올림
 순조 15년(1815) 01월 15일 혜경궁의 81세를 맞아 경과 정시를 명함
 순조 15년(1815) 04월 11일 세자에게 사략을 진강하게 함
 순조 15년(1815) 12월 15일 혜경궁이 승하함
 순조 15년(1815) 12월 18일 성복함
 순조 16년(1816) 02월 27일 순조가 친히 혜경궁의 시책을 올림
 순조 16년(1816) 12월 15일 혜경궁의 연제를 지냄
 순조 17년(1817) 03월 11일 세자의 입학례를 행함
 순조 17년(1817) 05월 11일 순조의 1녀가 명은공주에 봉작됨
 순조 17년(1817) 10월 10일 궁인 박씨가 딸을 낳음
 순조 18년(1818) 03월 08일 고려임금의 능을 조사하여 보수하게 함
 순조 18년(1818) 10월 26일 복은공주 탄생

순조 19년(1819) 03월 20일 왕세자의 관례를 행함
 순조 19년(1819) 10월 11일 세자빈의 책빈례를 행함
 순조 19년(1819) 10월 13일 세자빈의 친영례를 행함
 순조 20년(1820) 01월 19일 중궁전에 산실청을 설치함
 순조 20년(1820) 02월 23일 대군이 탄생함
 순조 20년(1820) 05월 26일 대군이 출서함
 순조 21년(1821) 01월 20일 조만영이 금위대장이 됨
 순조 21년(1821) 02월 14일 세자의 시강책을 시전으로 함
 순조 21년(1821) 03월 09일 효의왕후가 승하함
 순조 21년(1821) 09월 10일 효의왕후의 영가를 발인함
 순조 22년(1822) 02월 19일 순조가 화성의 행궁에서 유숙함
 순조 22년(1822) 02월 20일 순조가 건릉과 현릉원에 제사를 지냄
 순조 22년(1822) 02월 28일 은언군의 자녀들을 잘 보살피도록 하교함
 순조 22년(1822) 06월 10일 덕온공주 탄생
 순조 22년(1822) 12월 22일 수빈 박씨가 보경당에서 승하함
 순조 23년(1823) 03월 09일 효의왕후의 대상제를 지냄
 순조 23년(1823) 06월 02일 명온공주의 남편을 김한순의 아들 김현근으로 정함
 순조 24년(1824) 03월 09일 황단에서 재숙함
 순조 24년(1824) 03월 10일 황단의 춘향을 행함
 순조 24년(1824) 09월 20일 순조의 2녀 복온공주에 봉작됨
 순조 27년(1827) 02월 09일 왕세자에게 서무의 대리를 맡김
 순조 27년(1827) 윤05월 11일 세자 빈궁에 산실청을 설치함
 순조 27년(1827) 06월 10일 순조의 서1녀를 영온옹주로 삼음
 순조 27년(1827) 07월 18일 세손(헌종) 탄생
 순조 27년(1827) 09월 09일 왕세자가 존호를 올림
 순조 29년(1829) 01월 01일 순조가 즉위 30년 세수 40을 맞아 하례를 받음
 순조 29년(1829) 02월 16일 김현근이 숙마를 받음
 순조 29년(1829) 03월 06일 순조의 3녀가 덕온공주에 봉해짐
 순조 29년(1829) 04월 08일 영온옹주가 출함
 순조 30년(1830) 04월 04일 어진 두 분이 완성됨
 순조 30년(1830) 05월 06일 세자가 승하함

순조 30년(1830) 09월 15일 왕세손을 책봉함
 순조 32년(1832) 04월 03일 김조순이 졸함
 순조 32년(1832) 05월 12일 복온공주가 졸함
 순조 32년(1832) 06월 13일 명운공주가 졸함
 순조 34년(1832) 04월 22일 조만영이 보국에 가자됨
 순조 34년(1832) 11월 13일 순조가 승하함

헌종대

헌종 00년(1834) 11월 18일 순원왕후가 대리청정을 함
 헌종 00년(1834) 11월 19일 순조이 시호와 전호, 묘호, 능호를 정함
 헌종 01년(1835) 04월 19일 인릉에 장례를 치름
 헌종 01년(1835) 11월 13일 순조의 소상을 지냄
 헌종 02년(1836) 10월 11일 순원왕후가 존호를 받음
 헌종 02년(1836) 11월 13일 순조의 대상을 지냄
 헌종 03년(1837) 01월 07일 익종을 종묘에 부묘함
 헌종 03년(1837) 02월 26일 김조근의 딸을 왕비로 정함
 헌종 03년(1837) 08월 13일 윤의선과 덕온공주가 혼인함
 헌종 04년(1838) 01월 01일 순원왕후가 오순이 되어 하례를 받음
 헌종 06년(1840) 12월 06일 강시환을 석방하게 함
 헌종 07년(1841) 01월 13일 순원왕후가 존호를 받음
 헌종 07년(1841) 윤03월 09일 조만영이 호위대장이 됨
 헌종 09년(1843) 08월 25일 효현왕후가 승하함
 헌종 10년(1844) 05월 24일 덕온공주가 졸함
 헌종 10년(1844) 09월 10일 헌종의 계비를 홍재룡로 함
 헌종 10년(1844) 11월 19일 순원왕후가 존호를 받음
 헌종 12년(1846) 10월 14일 조만영이 졸함
 헌종 13년(1847) 01월 01일 신정왕후가 치사와 전문, 표리를 받음
 헌종 15년(1849) 01월 01일 순원왕후가 진하를 받음
 헌종 15년(1849) 06월 06일 헌종이 승하함
 헌종 15년(1849) 06월 08일 이원범을 덕완군에 봉함

철종대

- 철종 00년(1849) 06월 09일 철종이 즉위함
- 철종 02년(1851) 05월 25일 순원왕후와 신정왕후가 존호를 받음
- 철종 02년(1851) 윤08월 24일 김문근의 딸을 왕비로 정함
- 철종 02년(1851) 09월 27일 철종의 친영례를 함
- 철종 03년(1852) 01월 12일 순원왕후가 존호를 받음
- 철종 04년(1853) 02월 19일 김병주가 졸함
- 철종 08년(1857) 08월 04일 순원왕후가 승하함
- 철종 08년(1857) 08월 05일 순원왕후를 목욕시키고 염습함
- 철종 08년(1857) 08월 08일 순원왕후의 대렴을 함
- 철종 08년(1857) 12월 16일 순원왕후의 영가를 발인함
- 철종 08년(1857) 12월 17일 순원왕후의 재궁을 순조와 같이 부장함
- 철종 08년(1857) 12월 29일 순원왕후의 줄곡제를 지냄
- 철종 09년(1887) 08월 04일 순원왕후의 연제를 지냄
- 철종 10년(1859) 10월 03일 순원왕후의 담제를 지냄
- 철종 10년(1859) 10월 07일 순원왕후를 부모함
- 철종 14년(1863) 11월 27일 신정왕후가 존호를 받음
- 철종 14년(1863) 12월 08일 철종이 승하함

고종대

- 고종 00년(1864) 01월 06일 궁경의 잉여 도봉, 도장을 혁파함
- 고종 03년(1866) 02월 13일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둠
- 고종 08년(1871) 05월 28일 윤의선이 판의금부사가 됨
- 고종 13년(1876) 07월 23일 윤의선이 판돈녕부사가 됨
- 고종 27년(1890) 04월 17일 신정왕후가 승하함
- 고종 27년(1890) 04월 22일 신정왕후의 시호, 휘호, 전호, 능호를 정함
- 고종 27년(1890) 08월 29일 신정왕후의 영가를 발인함
- 고종 27년(1890) 08월 30일 신정왕후의 재궁을 수릉에 하관함
- 고종 29년(1892) 06월 10일 신정왕후를 부모함
- 고종 29년(1892) 12월 29일 윤의선이 졸함

2. <판독문>155)

<순원어필-01, 1851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뇨우 지리호더니 수일은 청흔 듯호니 괴운 평안호시니잇가 더째 등연의 뵈오니 신관이 노상 혈식이 업고 막이 패호여 거시니 그스이 불평이논 디내여 겨신가 시브디 향념 경경 호오며 침담은 엇더호시니잇가 묘섭이나 아라 잘호셔 청견호시기 조이오며 권상은 즈작 지규로 무스티 못호니 심히 애드라운 사름이올너이다 김명회도 대횡도 여턴지은으로 별 이흔 은수를 넘어시니 고요히 드러 안자 다시 운수 트이기가 기드리어는 거시 아니라 즈 에 분수의 디내게 놀치다가 굿타야 다시 덕거호니 실노 고이흔 사름이올너이다 사름이 조조급급호니는 일이 속속호여 도흔 디도 잇거니와 희도 비경호니 믿음대로 못 될 일도 그러홀가 보오니잇가 김명회는 실노 지승덕호여 쇼년으로브터 저러호여습느니이다 물정 되여 가는 거슬 보아 오니 거의 미리스를 알 듯호디 씨티디 못호기 썸긋스오이다

<순원어필-02, 1851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출일이 환창호니 괴운호시고 이스이논 견비통은 엇더호시니잇가 브리디 못호오며 교관은 오늘 방방이 되니 든든호오이다 이 압흔 믿음에 더 늙어 미리 엇더호여시리라 못호디 아직은 이를 조이도 아녜더니 제 스스로 호고 나니 쾌타 홀 거시오 고금이리로 독셔 공부 브즈런이 호여 도를 퍼자 호기는 공즈 흔 분이실 듯 이외는 거의 이것 호여 스업호라는 일이니 인정이 응당 그러홀 거시니 깃브고 구차티 아니케 쉽스리 호고 나니 괴특호디 여 러 집이 과경이 년면호니 지정으로 위호여 성만을 궁축호는 믿음에 압셔니 더드려도 깃 브다 일코티 아니코 형님은 녀편 니니 응당 묘화호실 거시로디 이썸것 하장을 아니호여 습 대신 상각은 엇더호옵 오늘 옥당 제슈 말이 이시디 그털 묘리 업고 내 조심되여 아니 호옵느이다 옥당을 못 사름이오리잇가 일시 은영이니이다 잘 ㄴ르쳐 늙의 늙의 빠지디 아니코 가국이 태평 영화로이 디내기 브라운 그 아히 너모 나 짝으로 노숙호니 이상호옵 더이다 두 오라바님 아라미 겨신디 비감호오이다 나도 문져 던문의 교관과 홍석종 과거 호엿다 호기 의심을 과연 호여 날드려도 니르디 아니코 호엿는가 미안호더니 추후야 알고 그러티 아닌 줄 아라시니 나도 이러홀 제 남들이 썸 이리 의심홀 거시나 의심은 모르고 호는 거시오 신명은 아니 관겨홀 거시 업습마는 조심호는 믿음이야 다르미 업스오이다

<순원어필-03, 1849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일한의 엇디 디내논디 향념 브리디 못호더니 봉셔 보고 든든 반가오나 신질노 당 성티 못호가 시브니 답답 브리디 못호니 일월이 무정호여 인봉이 얼프시 디나시고 스우ㄴ디

155) 황문환외(2013),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1-3』, 국립한글박물관(2019) 『덕은공주가의 한글 1』을 참고하였다.

디나시니 원확 통운하기 그음업고 텃품의 명민 괴이하시던 거시 그린 썩이 되며 네일이
 되여시니 이제야 뉘가 본성의 비상하시던 줄을 알 니가 업스니 앓갑고 원통하기 죽기 전
 었디 이질고 혼갓 물욕의 므든 님군으로만 알 일이 원통원통히 나는 완독하여 시식이 여
 전하니 이러한 정니는 다시 업는 듯히 주상괴셔 태평하시고 오월이나 보니 텃성이 순전
 이 착하시니 잘만 보도하면 아모 넘너가 업슬 듯하디 그러할 수가 업스니 속의 시름이로
 세 조상님디 성덕스 말습 혼 므디 어더 듯고 닐너야 아니 아는 거시 아니 잇게하였는가
 답답히 늑월 이후 도령 디난 일은 다 소문 드러시려니와 었디 된디 이제껏 가부를 모르
 게 하였디 요스이 또 인산 후는 또 므슨 일 잇다 하니 므슨 일인디 귀경이나 흘 밧 업니
 그스이 봉셔나 하자 하여도 편지 혼 당도 썩 일위여 쓰디 못하여 못고 므음의만 굶거이
 디내엿디 게가 칩디나 아닌가 하니

<순원어필-04, 1842-1850년, 순원황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다른 말 아니하니 불행이 내 집의 폐약한 즈식이 나 이 남의 업는 소조를 당하니 무어시
 라 말할 길 업니 어제 녁부스가 던혼 말을 듯디 아니커든 혼가지로 오라 하더라 하니 더
 는 죽일 거시라 하고 혼 던 혼는 말노 결단혼는 거시 었더홀고 게 의심이 업스면 녁형의
 초관을 조상과 부모를 이욕추락혼는 거슬 술너 둘 길이 업스니 큰 결단 흘 밧 업스니 판
 셔가 강괴 업셔 결단을 못 하여 두쥬하여 가면 시방 명을 도망하려 춤으로 이더로 드러
 나면 그는 이에서 더하니 혼가지로 처치호소 었디 내 집 골육이 이러홀 줄 아라실고 즈
 녁들 이 일에 어이 혼가지로 하고져 홀고마는 가문을 생각하여 판셔와 보와 처치호소

<순원어필-05, 1841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일괴 화란하디 평안이 디내는가 시브니 깃브나 지명일은 스도한다 하니 전과 스이 더욱
 섭섭홀 분이 아니라 미리 헤헤하고 심히 고단스러워 므음이 야릇히 느려가 국스도 진심
 하고 몸도 평안이 디내다가 오소 가국의 일이 업스면 다행이게 하였디

<순원어필-06, 1842-1850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오래 미류하던 질양이 쾌건하야 출슈크디 하니 다행 깃브기 측량업니 출한이 오히려 심
 하고 브도하니 지친 근녁이니 요스이 었디 디내놓고 브리디 못하니 하 깃버 두어 줄 덕
 으니 평안 평안이 디내기 밋니

<순원어필-07, 1851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일괴 청낭하니 괴운 평안하신 일 아옵고져 호오며 안희셔도 대례 박두하니 든든 혼헿
 오이다 별궁 가서 장속혼 양 보아 겨실 거시오니 었더호습더니잇가 나는 부원군을 보니
 그 속은 알 길 업스나 외양이 그만홀 제는 심지도 브경티 아닐 거시니 심히 므음이 혼연
 호습기 이 말을 대신기 자랑코져 하디 날마다 분분 다스하니 하디 못하여스오며 니인의

언니로 드러도 다 칭도호는 말이오 똥궁던 막이 무겁고 어려도 샹업디 아니타 호오니 이
빳 만항이 업스오이다 정낭의 혼인의 뻘 되디 아니터니 썩가 다다라 오늘 혼이 되고 일
기도 청낭호니 다항호고 집이 이제야 덩호게시니 식훤 깃브오이다 스연 ㄱ득호나 다 못
호읍느이다

<순원어필-08, 1850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일전 답봉서 보고 평안이 디내는 일 알고 든든 깃브며 무결의 창방 보고 즉시 교외로 나
갓다 호니 쇼동누의 즈미를 막이 드렸는가 시브니 옷너 진스의 관복호 모양을 보니 동당
호 풍의가 교관 직명이 가즈니 외양과 니지가 ㄱ기 브라고 든든 깃브기 측낭업니 병계는
넙호로 잠간 보아시디 즈니 아들은 지금 보디 못호여시니 교관을 보니 더 굼거운 막음이
잇너 늑가 늑종형데 슈복이 당원호고 화목 일가 ㄱ기를 조이더 내 막음 ㄱ기는 아막 쉽
디 못홀 듯호니 내가 홀노 착호 듯호니 이 말이 엇더호고 웃게 뻘 보내니 교관 보고 깃
거 줍 덕너

<순원어필-09, 1840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춘한이 오히려 심호니 평안이 디내는디 알고져 호며 밧셔브터 봉서나 호고져 막음은 이
시나 호디 못호엿너 향너 드르니 즈부를 잘 어더 숙성호여 지어미답더라 호니 인가의 며
느리를 잘 어더야 데일 가스가 흥성홀 일이니 깃브고 이제야 뒤늦게 치하호너 오라바님
괴셔 더째 막이 블평호시다 호더니 이스이는 쾌초호신가 막음이 도티 못호셔도 술에 붓
치시고 식스는 브히 아니 겨신가 보니 그리호신즉 뒤히 번번이 병환이 나신다 호니 아니
답답호나 모리 몬져 가신다 호니 브리웁디 못호니 엇더호면 그리 마르실디 민망히 나는
태산ㄱ티 의양호읍던 오라바님을 여히니 통원 무익호 빳 금옥 ㄱ트신 즈품이 앓가오시고
블샹 원통호온디 세월이 물 ㄱ트여 어언지간의 장소가 박근호시니 새로이 설운 심장이
여할ꄱ골호니 엇더타 형필홀고 님후는 무결이로 호니 그 밤 그 경상이야 늑의 업는 일이
니 다시 말호여 므엿홀고 상인 니외가 숙성호고 무결이가 관후호 틀이 뵈더라 호니 다항
깃거호니 산디는 호디로 되시니 평일 아바님 호오시던 말슴이 샹샹호이와 친구 감통이
새로와 호니 갑오화변 후 호갓 설움분 아니라 브당지스를 당호여 쥬쇼의 어느 썩 막음과
좁이 평안홀 적이 업더니 성산이 덩명호셔 가당티 아닌 짐을 버스니 위중샤호여 경축호
외 내 몸의 한가함과 집을 위호여셔는 홀노 만항분이 아니니 썩썩 싱각홀수록 식훤히 내
가 이리식훤호여 호는 샹을 겨셔 보디 못호시니 그도 썩데 즈너도 일 잇는 썩마다 잘 호
여 내라 심히 보채여시니 이제 싱각호여도 즈질티 아니호나 쾌호 스연을 호 번 베플고져
벼르기는 호고도 못호엿더니 이제야 덕너 나는 당 곤곤호니 츠마 괴로워호너

<순원어필-10, 1851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말춘 일ꄱ 심히 브덕호니 기도 평안호시고 그스이 견갑 답선 인호여 괴로이 디내시른 엇
더호시옵 어제는 출스호셔 정석이 비원호고 진면스의도 절지호여 아라드르시기도 쉽고

도호니 깃브고 든든호기 측냥업스오며 풍의도 명상 단녀호니 보상을 득의이 호 일 만형
 이오며 아모도록 아는 거손 다호여 보도호고 구확의 든 빅성을 건져 태평을 날위게 호시
 기 브라운 남이라도 이째 브라미 이 일이니 더욱 내 공스로 유광코져 호른 내 말을 기드
 리디 아녀 아르실 거시니 브디 정의를 다호옵 대던의셔 결단코 그른 일은 아니실 거시오
 바히 충도 업디 아니시고 순실호신 즈품이니 그대로만 보도호면 태평이 오리이다 썩썩호
 고집은 약간 겨시나 춘츄 더호시면 그도 나오시오리이다 억척호여 일변 심스가 엇더타
 흘 길이 업습더이다 녀편니 스업이 어이 잇스오리잇가마는 하늘기 명도 타기를 괴구이
 호여 이 터를 거둡 당호여 흥쇠가 여긔 이째 달녀시니 상감 성취의 내 죄 잇고 업기 띠
 여시니 여의호면 조종의 뵈을 안면이 이실 거시니 이거시 내게는 스업이니 슈미지간이나
 닛고 호리라 엇디 막음 노하 디내오리잇가 브라는 막음은 내 기출 즈손의 비호여 몇 비
 가 더호 줄 모르게습는다 깃븐 막음으로 덕스오나 정신이 흐릿흐릿호니 낙즈도 이실
 듯호오이다

<순원어필-11, 1851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녕상은 양쥬ㄴ디 가시니 돈척호여 아직 올 길은 업스니 이리호여 침식 진덩이나 되게 ㄴ
 라 주자 호여 내려시디 대관 거취가 심히 경술호디 당자의 소견이 그러나 호고져 호였는
 디 그는 모르게습 이러티 아니면 괴로와 밧비 노히코져 호미오 곱히 생각은 아녀실 듯호
 읍 이는 그러커니와 대신은 쏘 어이 병 말노 시작호옵 당 슈상만 쓰라든니시라 호옵더니
 잇가 몸소 일이 다르니 그령성 닛는 거시 아니 되옵느니잇가 좌상 아니 뿌다 호고 외간
 의셔 내 시비가 만타 호고 우원 범스가 갑오년 ㄴ디 아니니 노흔호여 그러호가 보다 남
 으라기 측냥업다 호나 드르면 우슬 분 디내옵느이다 오감저은 생각 마르시고 정성으로
 국스 호시옵

<순원어필-12, 1851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이 말 호 번 호고져 호디 아디 날이 잇기 아니호여습 진던 환안이 오월 십칠일이니 그째
 대상 전이시니 대상 전이라도 불과 이십 일 못 되니 늑실을 호디 봉안호면 새 일이 쏘되
 디 아니실 듯호디 혹 무슨 네문의 구의호는 일이 될가 즈더호니 엇더호게습 내 생각은
 그럴 거시 업술 듯호여 판서기도 호여 보아시디 의심되여 이리 덕습 상감괴셔 능형 께
 묘소의 든녀오며 대원군 궁의 거동을 호시라 호시니 그째는 아디 말노 어랑 치기 호여시
 디 스친으로 정은 그러호디 종묘 춘츄 던알쳐로 힘마다 호시기는 아니실 일인 듯호니 이
 째의 옛즈와 간년이 되게 호거나 호실 일이니 엇더호옵 늑상궁 선희궁 거동은 엇더홀디
 그는 아니호셔도 엇덜 것 업스디 모도지 내 생각은 상년의 늑상궁 호실 제 선희궁 지적
 인디 아니 가신 일과 올히 다 가시는 거시 심히 상반호니 츄기는 두시고 녀년으로 다 호
 시면 묘홀 듯호디 브디 호고져 호면 엇덜디 나도 모르게습

<순원어필-13, 1837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연형으로 사패를 하니 섭섭한 빛 원노 병당의 왕반 었디홀디 녀녀 브리디 못하며 완빅 시에는 병이 만하로라 하더니 온 후는 고공의 구실을 면하니 식환하야 괴운 강건헌가 오라바님기로 듯기능 하디 오늻 삭 험노니 브리디 못하니 그스이 가국이 평안홀 거시니 잘 둔너오소 집의 므손 연고들이 잇던가 시브디 말 아니하니 브디 만길이 둔너오게 호소 도 강만 하면 성식이 솟게 하였기 두어 즈 덕니

<순원어필-14, 1844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일한이 두극하니 평안이 디내논디 브리디 못하며 직작월 드르니 씨긋디 못하여 디낸다 하더니 이스이는 쾌소헌디 즈로 그러툃 디내니 답답히 세월이 무정하여 오라바님 상스 디나셔 거연이 종상이 되시니 확연 통운하기 새로오라 비창하기 측냥업고 오십여 년 디 나신 일 흐르밤 꿈 꺾투시니 한심 늦거울 분이로세 나는 국가 대스를 평안이 디내고 곤던 숙성 복되시니 경형 만만하고 억만세 히로호시고 수년 스이 원냥을 탄싱호셔 국분이 반터 꺾기 웅축하니마는 넷 며느리 지극히 완순 즈인하던 일 익척기 새롭고 부부 인일하며 늑칠 년 었디엿디 디낸 거시 므손 뜻인디 턴의를 알 길이 업니

<순원어필-15, 1851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세월이 틀 꺾타야 어언지간 호딩던 상스를 디내고 상하 관상이 변제하니 인확망극호미 관털궁양호으며 턴즈의 특이호시미 춘츄가 더호시고 지량이 느시면 영명지츄가 되실너니 원통 앓갑고 불상 한심하니 국골홀 분이오며 일기 기드리던 비는 렬읍의 쥬홉헌가 시브니 깃브오나 음습하기 심하니 이동안 평안호시오니잇가 브리디 못하며 그스이 봉셔홀 일이 만하시나 실노 이제는 편지 쓰기 극간호고 정신이 사오나와 스연을 역거 쓰디 못호오니 다 고이호 일이업 다른 말 길게 말고 부모 후 도천스가 지뉘호며 천만 심신호을 일이니 슈의 말은 다 각각 드렷거와 네도 이런 일이 업습더니잇가 본디 녀편니 둥도 무식 혼암헌디 이제는 스스로 말홀 일도 아조 니즈니 현의 잠간 드러시나 귀 센 문즈간 말이 속의 담겨 엿디 아니니 기억 못 하니 녀상은 엿더하여 못 호실 말이오니잇가 모르면 모르터 그 말이 친진티 아녜다 말은 올호니 아조 못된 말은 아닐 듯호옵터이다 한당송의라도 이제와 꺾투여 엿디호 일이 잇습더니잇가 선유들이 남으라 호엿다 하니 인종 명종 도 천호신 현묘도 째 말이오니잇가 기러 다 즈셔히 덕든 못호셔도 알기 쉽게 덕어 주시옵 프르면 속이 식환티 아녀 더 킨킨 굽굽하니 썩호옵

<순원어필-16, 19세기 중반,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문안은 작석 계절은 일양이오시라 호옵고 오늘은 아딧 못 듯즈와습늬이다 전츄 서습이오 시라 말습 올스오니이다 본디 더위를 그리 어려워 아니호오시더니 이번 드러가스올 적

뵈오니 못 견디여 호오시니 속막음의 괴력이 쇠호오시니 즈연 그러호오신가 호오며도 므
 슨 탈은 죠끔 나오실 듯하여 뵈오시옵터이다 대던의셔도 셔증후오신디 드러가스올 췌에
 도 즈셰이 아읍든 못호오디 노상 아니 잡스오시고 췌긋디 아니호오신가 보오디 둥난호오
 니 놀드려 못즈음도 어렵습고 눈척가 용여들 호오시는가 보옵터이다 일일 더위도 전후
 업는 듯 고이호오니 탈이 나올 밧 업스오니 어셔 디나고 성냥이나 호오면 낮즈올가 그저
 둥둥호오니 엇디호면 쇠훤호올디

<순원어필-17, 1843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순원어필-2-01>

뇨염이 극하니 평안이 디내는디 브리디 못하니 내 이번 당헌 바는 지원통골호미 날마다
 모르고져 원이나 이리 사라 이시니 하늘이 엇디 내게 이리 박호신고 므스 권디 아디 못
 호게호엿디 이듬이나 민익호 일이 이셔 줌 덕니 공주의 묘디로 여러 곳을 보디 다 맛당
 헌 더가 업고 예는 다른 폐 업고 뵈 만타 말을 듯고 게로 덩호기는 신니가 업다 호면 모
 르디 잇게 되면 므춤 이셔 호디 모히는 거시 텨니 인정의 함호기 그리로 완딩호여 셔계
 7디 호여 치료 덩호7디 호 일리오 췌는 가지 구기라 호니 그 즈손이 도화홀 니는 업스
 디 엇디 일가지둥의셔 치순 시가무근지설노 감히 왕기 잇다 호며 이왕의 능 간산으로 능
 소도 유의호며 혹 참망도 호엿다 호니 어느 췌의 유의호고 참망호엿다 호던고 나는 듯디
 못호여시니 그런 밧낭호 말을 호여 사름을 속이며 듯는 자로 모골이 구송크 호니 그런
 말을 경선이 호니 그런 도리가 어디 이실가 본고 초두의 이리 완딩티 아녀셔 말을 호거
 나 이제 다 된 일의 이리호니 므어시 엇더호기 못 호노라 다시 입게혼다 말인고 남이라
 도 이러호 췌 박익히 못 홀디 호믈며 일가지둥의셔 이는 의스 밧기니 그런 인정이 잇는
 가 날노 닐너도 췌이 아모리 귀호들 능 운운호고 참망호던 디를 쓰라 홀 니가 업스니 싱
 각호여 보소 췌 구기 님즈가 늑의게 꼭라먹은 것 아시오 므춤 그곳이 다른 폐 업고 뵈
 만호여 우히셔 쓰라 호여 거시니 척춘지디가 왕토 아닌 디 업스니 뵈즈리 뵈 만호 디 선
 현 구기라 호여 못 쓰는 법이 어디 이실고 윤시 집으로 호여도 세교요 즉금으로 보나 인
 정이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그럴 길이 업스니 이는 벽벽이 구기로 휘방호는 말인 거시 일
 이 순 도위 집의 가실 제 게가 므어시 도화 게를 쓰러느냐 호고 선현 구기니 말나 호디
 니 어제 홀연이 이런 고이호 말을 호니 그러면 왕기 잇다 호고 치순이는 구기를 아니 내
 러 호고 왕녀는 못 쓰니 텨하의 그런 법던이 어디 실니엿노고 어훈이 엇디 도라가는디
 모르고 그런 망패로운 말을 경이히 내니 도로혀 어히업고 한심히 그 엇디호 췌인고 내
 췌은 결단호여 더 갓잡고 도흔 디 잇더라 호여도 아니 쓰고 여기 쓰게 호여시니 장스 디
 낸 후 뵈여 내거나 아모리나 호라 호소 췌는 내가 즈너들이 7르췌다 호는 거시 아니라
 처음 와서 이 말을 내거든 어이 두 번째나 꼭라 우리 집 터히된 밧 이때 엇디 인스 도리
 의 못 호리라 홀가 보니 호고 준절이 호여시면 이러티 아녀실터 즈너들 췌도 그러티 아
 니케 디답호엿기 이리호는 거시니 도모지 생각호면 선대왕 부즈 아니 거시기로 집안

<순원어필-18, 1850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순원어필-2-02>

신원의 괴도 평안흔 일 알고져 하며 거동이 과관하여 그러헌디 눈감과 희소가 대치하여 무인블통하고 혼 번 알고 낫디 아녀 이삼 초 대통들 하니 즈니 감구나 디나디 아니흔가 일코너 나는 희가 밧고이고 선대왕 유갑년이 되시니 감구신비 엇더타 업셔 통원 망극홀 분이로세 그스이 감히로 괴로이 디내고 편지나 홀 막음이 어느 때 업셔실고마는 과연 필력이 긴 스연 홀 길 업셔 못 하였니 작하로 즈니를 니즌 때 업스디 혐의의 갓가와 이제 7디 와시니 이러한 줄 아는가 즈니 엇디하라 호는고 디형도의셔 겨셔도 필경 닛든 아녀 인하여 그만호실 니는 아니 겨실 거시오 즈니가 거관페딕홀 일이 업스니 엇디 거취를 덩헌디 모르디 이러한 때가 왕텝의 업고 위협하기 엇더하고 스스로 말홀디라도 김가가 과연 만호디 집으로 일을 정으로 의논케 되면 고단하기 말 아니 되여시니 이 아니 민망흔가 이런 썰스록 괴탄호는니 이셔야 견디여 같디 안호로 대던 날을 뒤 저허호는가 미세흔 일이라도 관망이나 호고 흥이나 잠을 막음분일 거시니 나라 모양이 그러하고 엇디호는가 낸들 팔즈 험흔하여 이러한 터을 당하여 중샤를 위하여 마디못 이 거조를 하니 곳터 평안코져 막음이 듀야로 동동호디 한편은 위구지심이 이와 곳트니 이는 든든흔 힘이 업셔 일이 잘되논디 그릇호는디 날노셔는 용널하여 질정을 못 하니 위인이 이러하고 어이 이 터을 당흔 줄만 설우니 견딜 수 잇는가 긴 말 다 쓸 길도 업고 형언티 못홀 말을 니르다홀 길 업셔 아니하니 드러와셔 보아주어야 호게시니 지리히 구지 말고 드러오소 칙교는 이시려니와 묻져 알게 하니 이왕의 막음을 다시 입명 아니키로 단덩하여셔도 그러티 못홀 거시니 그리 아소 후세라도 아모가 슈렴 두 번 하여 나중은 첫 번만 못호였다 꾸지람 듯디 아니케 호소 속의 7득흔 말을 다 못 하니 이번 묘궁 던알은 가부가 엇더하고 그도 알고 시비 이 편지 삼일야로 쓰나 말이 못 되여시니 짐작 보소

<순원어필-19, 1851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순원어필-2-03>

기드리던 비는 두루 족흡다 하니 다형호옵더니 근일 당마가 되니 민스의 걱정이나 아니 될가 민망호오이다 일과 어느 스이 증습기 심하니 엇디 디내시옵느니잇가 녕상은 공연이 독당풍파하니 7이업고 말이 밋쳐 업셔실 제는 소견이 각이호미니 관겨하라 하며도 넘너는 하였더니 죄목이 무상흔 더도라가니 7이업고 고집이 세고 우적우적하야 친구 간 물니는 말을 아니 듯고 즈취흔 익이니 심히 애통스오이다 이 사름이 삼도의셔 뽈 인지로 아르시고 순종도의셔는 더욱 권우가 겨시고 현종괴셔도 이마작 그리하여도 대신 둥 낫다 호시던 거시니 거의 대신도 성의를 양탁하여실 거시니 이러티 아녀 겨신들 츠마 프손 고이흔 막음먹고 브러 이리호든 아닐 사름이니 내 생각도 야속흔 생각이 업기 저리 지목호는 줄이 애들나 호으며 좌상 말이 올희여 뽈솔이 보던 자들이 말을 그리 붓터 호라면 그리홀 만흔 일이니 그 말이 올흔 말습이오이다 녕상이 근간 소문을 드르면 상똥하로 인심을 만히 닛혀 예성은 업고 웨언이 만하 들니기 어인 꼭절인고 의심하여습더니이다 대간 연차7디 나시니 그만이나 하면 다형호온디 엇더홀디 몰나 넘너가 되오며 사름을 업수이

보고 험계하는 싸닥으로 띄워들 하는 듯하니 이거시 녁상의 흥이오 붕패가 되어습는니이다 판셔드려도 관유들 일 나기도 판셔 타시라 하여습 방촌지디의셔 대신 휘척하려는 기미를 모를 제는 엇디 진압할 량이 이시면 이러하라 하여습 그 사름이 엇디 소위 세도 다 명식을 가질가 보오리잇가 그도 고집이 못된 고집이 잇고 불통헌 흥이 만흐니 당 엇덜고 시버 근심이오며 동성의 말을 지종의게 이리 빨 거시 올티 아니더 대신도 모르디 아니키 속의 잇는 일이기 흡 대신은 그 사름의 성품이 그러하다 하고 엇더이 아디 마음 아모 일이 업셔는 건디여 간다 하여도 응당 함염즉헌 일을 못 하여도 일이 그릇쳐 가는 거시니 큰일이 잇고야 엇디 감당할 녁냥이 이실가 보옵 즉금 당하여는 판셔가 고도 훈장 곳 더면 시븐 생각 이시니 엇디 아쉬워 그 생각이 잇습 만일 녁상이 좋시 아니 드려오면 엇더케 처분을 하여야 도케습 내 언교 말을 하였기 좌상기 의논하여 잘 초하여 드리면 도켓다 하여시니 그 말 흡더니잇가 오죽디 아니케 잘하여야 무스홀가 시브옵 위션 왕대 비던 오늘 슈직하니 진묘 도전 아니면 냥도의셔는 쇼목 외가 되시게습 하시니 슬컷 다 드른 말이시올너이다 소견이 닥닥 달나 그러히디 무슨 다른 뜻이 이셔 그럴가 보옵 하여 습 촉하 정신 휘리휘리 다 못 덕습 낙즈 만홀 거시니 짐작 보시옵

<순원어필-20, 1851-1857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순원어필-2-04>
 포습으로 어린 잘 조처하시라 하디 막음 늦티 못흡더니 조건조건이 즈셔히 분당헌신 거슬 보니 알기 쉬오니 보기 데일 정신이 쓰이디 아니니 그도 도습고 네티로 회복하고 판셔 텅구 폐와 송민이 칭원이 업고 더히들 즐겨 하면 다행하니 다 그대로 하시고 나는 다시 거리끼는 막음 업스오며 별장 주인도 인정의 거리껴 하나하나 하여 주어서는 게 솟출 다라 누고는 시기고 누고는 못 한다 공평헌 일도 아니 되고 말이 설 길이 업스니 혼 사름을 위하여 새로 큰일을 바로 하고져 하논디 흠이 되게 할가 보오니잇가 미슴은 네 이만 근 갈 제 드러가던 거시라 하고 각각 제 궁의 니코져 하여 더히도 띄이는 말을 듣고 하는 말로디 미슴의 간계가 이러툃 하여 명식 업는 지물을 드리며 말고져 할 제는 더히들이 붉이 보고 디내는 일노 폐를 막고져 하는 일이니 그는 둥간 미슴 아니 터 준 일노 시행하면 걱정이 업슬 일이오이다 송만 두 곳 큰 폐가 슈고 업시 일노 제하고 삼농 하던 송인이 낙업으로 도화하면 내 막음은 편호오이다 위험티 아닌들 신명을 엇디 아니 도라볼가 보옵 데일이 지리 침침하면 냥반이 아니오니이다 다 이대로 덩하고 역관들 각 별 신칙 엄납과당하여 영구둔항하게 흡쇼셔 대신괴셔도 이리하여 노호시면 청턴벽일 확호쇼명이라 칭예를 드르실 거시니 깃브오이다 대던의셔도 어제 판셔 가지고 드러와 보아 드르시게 하여습는이다 이 즈상 금하는 던교는 막이 잘하여야 하게시니 초하여 주옵 쇼셔 이 편지를 세 번을 쉬여 쓰는 거시 조오노라 이리하니 고이호외다 상감 외손 봉스 하리 업셔 홀일업시 엄중슈로 하라 하나 막음은 빠디 아니호외다 관겨호오리잇가마는 참티 아니나 홀일 업스오이다

<순원어필-21, 1849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순원어필-2-05>

그스이 평안이 디내는데 둥춘 일순이 넘으나 오히려 남은 치위 이시니 침담지절이 일양
안순흔디 브리디 못흐니 성됨도 여러 집이 무고흔가 시브니 깃뵈 집 형님이 게 가서 보
앗노라 하고 신관이 나아 뵈더라 하여시니 양호의 한가흔 몸이 되어 분별이 업스니 심기
안정하여 그러흔가 다행이로쇠 내 혼 말 흘 거시니 보소 근일 몽방지인이 스인 둥 모모
는 탕척이 되고 빠지니는 시비간 불예하시미니 즈니가 상궁의 유익디 아닌 일과 빅성 유
익지스는 결연코 아닐 거시니 이 두 말이 분수의 넘은 생각인 줄 아로디 이 죄가 이시면
죄별이 맞당흔디 이는 그러토 아니□ 무슨 일인고 밧바 흐는 말이 아니라 의괴하여 이
말이로세 엇더흔디 봉우 간이라도 말을 삼가 조심하여 디내소 드르니 녀쥬로 가서 혼
동안 잇고져 한다 말이 이시니 게 집이 잇는가 하니 상후 안녕하시디 진어를 보히 못
하시니 답답히 군신은의가 부즈일테니 아모리 내게 노호운 일이 잇고 막음의 업는 일노 쭈
지저도 원흔는 일이 업스니 내 이 좀쳐엿 뺏은 말이 아니라도 세디 튕정으로 절노 익군
지성이 이실 거시니 상감 뵈옵고 시브가 만일 뵈옵고 시브 막음이 업셔도 이 말 보고 상
각하여 꿋즈와 하고 무원이면 하늘이 빅상을 누리서 즈니 즈즈손이 여국가로 만년 태평
하리 고적흔디 이 스연 보고 웃기도 우슬 거시오 오감저이도 알 거시로디 튕정으로 난
말이로세 나는 무스이 디내니 평안이 디내게 호소 휴지 즉 세초호소

<순원어필-22, 1851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순원어필-2-06>

춘환이 심하니 괴운 평안하시오니잇가 브리디 못호으며 상덕을 하시니 일노브터 민국이
반태지안이 이실 거시니 든든 만행호오이다 지작동으로 지우금 좌상을 미복 아닌논고
하며 혹 한다 하며 너외로 둥망이 울연흔디 이롱흔 체 줍줍흐기는 이 벼슬이 엇디 어려운
디 보국으로 이실 제는 칭경이 잇다가도 대광 두 글즈의 오른측 이러타 저러타 헛던디
흐믈며 이때 이 정승을 하여 더 버라는 막음을 다 맛출 길이 업슬 거시니 이 무서운 인
심의 쏘 니어 휘언이 날가 위하여 앓기고 아쳐로와 이때그디 왔더니 대신너들도 점점 년
노하고 여러 번 청하고 실노도 권상 말 꺾투야 묘무도 하여 보아야 너을 터이니 여러 그
디로 노랑하여 좌우상 신복하여시니 내 지인지감은 업스디 이때 내 속으로 독단하여시니
밋고 바람이 둥흔 줄을 거의 짐작호오리이다 모르는 일은 홀일업셔도 아는 것과 올흔 일
은 진명갈력하여 어지리 주상을 도아 착흔 님군이라 일크라 종사 태평하고 나도 이러나
하여 타일 조종의 뵈을 안면 잇기을 응망하고 대신도 현상 위명을 바라옵는다 요스이
어득 눈이 킁킁흔 때 만하 봉서를 못하더니 오늘은 크게 정신 모화 덕습는다

<순원어필-23, 1851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순원어필-2-07>

신원의 괴도 평등하신 일 아옵고져 호으며 드르니 눈감으로 청건티 못하시다 하더니 엇
더하시니잇가 신년브터는 괴력이 월월일일 강건하며 나라희 현상이 되며 여국가로 동남

흐시기 축호오며 대던의셔도 춘츨 더호시고 태평이 디내시니 혼만호오며 털념을 하니 외
 견 과연 식훤타 호더 속은 것만 꺾디 못호여 답답호오이다 엇디 만긔지무를 급죽이 다
 잘호실 길이야 잇스오리잇가마는 보도를 잘호여 그르쳐 드려야 될 일이니 속이 답답호오
 이다 이 막음은 언제나 식훤히 트일디 모르게스오며 판셔는 내 말대로 호려니와 전혀 당
 신으로만은 호실 길 업스니 아덕 보아 드리면 잘 아라 공스의 무폐무탈호면 도쿄 건더여
 가려니와 이와 상반호면 엇디홀디 삭호오이다 속의 그득흔 말이 잇스오나 다 호디 못호
 읍이다 털념 후 즉시 봉셔나 호려 호더니 날이 가 새히 되여습기 과세 평안이 호신 일이
 나 아자 줌 덕스오며 어제 공폐로 소회흔 거시 열시민인가 보오니 홀 만흔 거손 잘호여
 주시옵쇼셔

<순원어필-24, 1838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순원어필-2-08>

일전 입시의셔는 보앗거니와 타국 원당의 몸은 무스이 왕반호여시니 만헝호나 환가호여
 허확 창도홉과 아히들 회둥을 날고 혈혈흔 경상을 더호니 비량 처창흔 심스 오죽홀가 브
 리디 못호고 막음이 도티 못흔 사릅이라 참절호기 그이업니 헝둥 듯고 하 천만 쫓밧기니
 죽히 경악호여실가 몇 돌 길에 빗쳐 와 안헝티 못호고 그러툷 디내니 엇더호고 넘녀며
 오라바님긔셔는 평안호신가 시브니 깃브나 집의셔 납월의 민망이 디내신 일 슬히여 다시
 일궂디 아니나 그째의 비호여는 다 나오신 헝이로디 종시 여긔 쾌티 못호시니 민망호고
 뵈완 디도 빅십여 일이 되니 당신 봉셔의 뵈완 디 오래다 말은 호디 아니나 그리온디 디
 나 췌 도티 아니코 췌 넘녀가 종시 노히디 아녀 민망 삭호여 디내니 와시니 든든호고 상
 처호여시니 그이업손 인스도 츠루려 곁호여 덕니

<순원어필-25, 1834-1849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순원어필-2-09>

수일은 화창호니 년호야 평안이 디내고 부평도 평안호가 안부를 듯기호 호더 즈셔티 못
 호니 곁곁호여 알고져 덕니 나는 환절 췌라 성성티 못호나 늙든 아니코 디내니 내 가서
 증손녀를 생각 밧 보아시니 상감 곁출이니 깃브고 작인이 췌 완비호니 곁특호니 외간의
 셔는 엇더이들 아논고 이 일이 저근 경스로 비르셔 곤던긔셔 너년의 원냥을 탄싱호실 징
 상이니 그리 아소

<순원봉서-01, 1850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호엿니 이제는 무고지인이니 당흔 국스나 잘호소 나도 거리길 거시 업셔 식훤히 막막 곁
 곁던 거손 나올 거시니 집의 드려와 안쳐시니 든든히 내가 엇디 못 되엿는디 정신은 즉
 금 흔 일을 즉지로 닛고 갑오년 후 브즈런이 구던 막음이 삼분지일도 못 남아시니 그째
 로 즉금 비호면 십 비나 더호여 울홀 일인디 이러호니 스스로 그런 줄 아디 그째 꺾디
 못호니 아니 고이호가 간택 단즈가 이십여 당 드려와시니 데왕가 비필이 응당 덩호니 이
 시려니와 시방브터 동동호기 니를 짓 업는 거시 쳐즈는 눈으로 보니 알녀니와 스돈 지복

이 극난한 거시 문혹이나 잇고 심지나 튕후하고 상감을 잘 도아 드릴 지목이야 홀디 아
 모리 하여도 궂초 그 속을 알 길이 업스니 이 상각을 하면 속이 갑갑히 내 뜻이 우리 김
 시와논 아니코져 하며 두 후와 냥 도위가 분수의 과한 거시 두려워 슬흔 일로세 판서
 드려도 이 말 여러 번 하였니 언마 세월이 가 내년 추동이 되게 하였노고 내 소견은 이
 번은 노쇼를 분별티 말고 하고져 하니 엇더한가 이 대답호소 밤이 조용히 봉서 쓰더니
 이 말디 한디 뻗니 노라고 다 니졌하며 쇼라고 사름마다 노만 못홀가 디난 일노 취이
 하여도 쇼가 감스 하나토 엇더한 일이 업스니 아니 기특들 한가 썩썩하니가 만흔가 시브
 니 그러한가 이 봉서 보고 즉시 세초호소 나는 감히가 오히려 쾌히 낫디 아니니 괴로와
 디내니

<순원봉서-02, 1850년, 순원왕후(재종누나) →김홍근(재종동생)>

춘일 브도한디 그스이 여기더기 노신하여 디내어시니 계절이 평안한가 브리디 못하니 진
 강디 츠니 내 막음 든든하기 측량업스디 괴유 이전 네일이 되고 번역하여시니 감회 그
 음업서실 듯 척감하기 엇디 다 덕을고 처음으로 뵈오니 용의는 엇더하시며 강경은 은 또
 엇더하시고 든든하시던가 드러와시니 진강의 든니고 강혹 말씀을 주로 호소 아모리 질실
 하셔도 춘추가 아덕 아기너오 보고 드른 것 업스니 무어술 비흔 거시 이실가 본고 이십
 디 붉고 새면 작난이나 하고 저드도록 집안으로 다녀 형습이 되었는데 급작저히 괴운
 을 주리고 글이나 넓으라 하니 굵굵지아닌 때도 업디 아닐 거시니 내 역 일변 아쳐로운
 막음이 때때나니 어디 잘 그르치게하였는가 이리하여도 넘너요 저리하여도 넘너니 심지
 가 굵디 못하여 그런가 시비 즈니가 문혹이 업셔 강관의 당티 아니타 하기 대답을 강관
 의 가하기 하여실라 하고 시버도 또 무어시라 홀디 몰나 아 하였노라 하시기 우섯니 아
 모 말이라도 요신이 하거든 잘 대답하던디 조금 잘 대답디 못하여도 홍보디 아닐 거시니
 소견의 잇는 디로 호쇼서

<순원봉서-03, 1846년, 순원왕후(재종누나) →김홍근(재종동생)>

일기 한난이 블일하니 평안이 디내는가 요스이 소문으로 드러니 탈황증으로 괴로이 디낼
 분 아니라 블평타 하니 엇더한디 브리디 못하니 판서는 우연한 병이 대단타 하니 심흔이
 산난하여 아므라타 업시 디내더니 수일간은 저기 동정이 잇다 하니 만행하나 소세하고
 내 눈의 피여야 막음을 노케 하였니 알고 시브 스연도 잇고 그리 긴히 거복하다 하니 넘
 너되어 좀 덕니 세식 다 그므러시니 흐르는 물 궂타야 칩기도 칩고 심스는 척연히 여러
 집 과세 평안이 하고 태평이들 디내소

<순원봉서-04, 1846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향년 민달용의 일은 대강 아라시디 즈셔히 듯디 못하여시니 외도 물의가 원통타 호는가
 저리된 거시 가타 호는가 고가세신의 아조 망흔 험이니 바히 모른는 집이라도 죄는 엇디

하던디 참측홀디 모모하여 모르논 터이 아니니 그러티 마더면 시븐 막음이 잇더니 수처
 의셔 내게 봉셔하며 이번 청경 광탕지던을 브란다 하고 텃청하시과져 혼 스연이니 즈니
 도 짐작하려니와 내 말 성스도 될 줄 모르고 쏘는 판셔나 내게 하여 입 빈 줄 아르실 거
 시니 그 일이 엇더하며 판셔게 듯디 아니면 어더로 드렀다 하실가 본고 즉금 말고 세알
 동가런디 능형이런디 되실 때 걱정은 아니코 통곡하거든 우흐로셔 므르시면 원정을 하게
 시니 므르시게 하여 달나 하고 도당의셔 다 원통이 아라 원정곳 누리면 잘하여 준다 하
 여시니 실노 무죄홀딘대 심술이 도티 못하데 이제는 세도가 달나지고 익미하여 신설이
 되게 하였는가 이 봉셔와 조각 도희가 심각이 궁진하여 안흐로 혼 일이로더 내 소견은
 막출내 올흔 줄을 모르기 판셔드려도 움기디 아니코 업시 하였더니 즉금은 두 곳의셔 와
 시니 판셔드려 물정도 과연 그러하며 그 일이 엇더하리 못고져 하디 드러오디 못하니 므
 를 길 업셔 이리 덕으니 그 일이 엇더하고 즈니만 보고 움기디 마소 성스도 못하고 당자
 의게는 막이 브절업술 듯하니 이 말이로세 별입시는 당 된다 하니 극한의 종일 밤7디
 디낼 때는 실시도 여러 번 하여실 거시니 답답하고 공스의 일부 나온 것도 업스니 민망
 하나 할 수 업스니 엇디홀가 본고 종년토록 소문 여간 드르나 듯고 보디 못하던 일이 만
 코 쏘 답답 민망한 말이야 뼈 므엇홀고 인심은 극악하고 원망은 빠져시니 엇디홀디 괴기
 괴괴한 소설은 쓴히일 적이 업스니 심히 고이하니 내 터는 시방 이 도라가는 거시 맛당
 맛당 도흐나 임의로 하디 못하고 절통히 총위영으로 빅성절통히 총위영으로 빅성이 더
 살 길 업다 한다 하니 대장은 다 드룰디 엇디하여 버려두 녁부스는 병이 고희무상타 하
 니 우국지증인가 실권지병인가 엇더하던디 이 사툼은 상감 성덕이 해는 업술 줄노 알고
 풍은 도라간 후이나 어릿스러운 막음으로 더 살고져 막음이 업디 아니터니 이러타 저러
 타 하니 유병 후 보아실 거시니 증형이 엇더하던가 유스지심 무심지괴한다 하데

<순원봉서-05, 1849년, 순원왕후(7촌 고모)→김병덕(7촌 조카)>

네 어른은 원노 한덩의 평안이 회환 상봉하니 환턴회지홀 거시니 쇠환 깃브기 측냥업다
 이제야 네 아버지 드리고 과세 평안평안이 하여라

<순원봉서-06, 1853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 동생)>

금년 더위는 소무전고혼 듯하니 늑십여 일 엇디 디내엿는디 일크라 디내니 여름 디낸 서
 독이 처 7시도 못하여 녁변 등덩하여시니 내내 평안이 득달혼가 녁 브리디 못하옵 녁변
 은 회갑이 되니 근항이 처음이니 혼귀 경헿하고 녁변으로 비롯하여 다 회년을 디낼 거시
 니 든든 경회호오이다 모하여 이락하신 둥 일변 감구지회 새로오라 일콧스오며 그스이
 녁변 공무의 번극이 업셔 안한하고 년스의도 걱정이나 업는가 브리디 못하며 더위 하 몫
 시 디내여 정신이 모손흔디 스연 츠셔 업스니 짐작 보시옵 가실 제도 편지 못하엿기 줍
 덕습는이다

<순원봉서-07, 1849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운수를 뜨락와 회환고토히여 동괴 즈딜이 관낙히여 디내니 이왕스는 일당춘몽이오 일가의 새로이 환흠히미 측냥티 못히니 감격히미 엇더타 홀 길 업니 동란이 여춘히더니 근일 줄연한 풍한이 극심히여시니 무스이 온 줄은 대강 아라시터 원노 병병의 엇디 오고 수일 쉬니 노독이나 아니 나고 평온히디 향념 브리디 못히니 이제는 걸닌 거시 트이고 아모 걱정도 업는 듯 석환석환 깃비 즈니가 공명이 낫븐 것 업시 다 히여 보아시니 이제야 신선의 청복을 누리면 도흐리 나쁜 길은 헤아려 호소 깃불 분이오 다른 말 업스니 환세 만 길이 히기 밋니

<순원봉서-08, 1855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기춘 후 한온이 불일히오니 기력이 엇더히신디 근일 휴손히심도 겨실 듯 브리옵디 못히오며 삼위 천봉은 희포 운운히는 말이 잇스오디 막둥초대히오신 대스오니 한 부인으로 결단홀 이 아니니 은우은통이 되어 디내더니 디난 일 다 생각히면 놀납고 두녀워 아모려도 춤을 길 업서 상감기 말습히고 내 나히 점점 만하 가니 세 분을 평안한 길디를 어더 피시는 거술 보고 죽어야 므음을 노켓노라 히니 당신기셔도 스저의 겨실 제브터 흠쳐 거시다 히기 당신 므음 우원이 므음이 겨셔로라 히시기 인히여 결단한 일로디 그 이후로 일심이 동동 황송히기 줌든 외의는 이 일분이시니 무상 대길지디를 엇즈와 테빅이 안온히시고 즈손이 먼원히며 억만년 태평 영당히신 디를 엇줍기 축턴히옵는이다 아모 췌니 능디 덩홀 제 뉘 도쿄져 히는 므음이 업스며 디스들이라도 다 그러히여스오련마는 므양 피신 후 그 뒤 오라디 아녀 이러타 저러타 히오니 그도 인덕으로 못히고 운수요 하늘이니 누고를 닷히며 누고를 원홀가 보오니잇가 그져 설울 분이오니 이번은 아모조록 길상지디를 점복히기를 축턴축슈히니 제대신브터 일심으로 정성을 다히여 히시게 히옵 후릉 희릉이 므이 도흐시다 히고 창능 국니는 셋재 간다 디스의 말도 드리스오며 동팔능 봉포터 둥 달마동이 므이 도타 히고 다 니룬다 말습이 희포 잇습디이다 유릉골이라 히는 디는 엇디히여 그리 지명히였다 히옵디니잇가 왕대비던기셔는 동팔능 국니를 브라시니 도흔 디곳 거시면 죽히 다형히오리잇가 스연 그득히나 다 못 덕고 내 정신이 상년 여름만도 못히더니 겨울 봄은 너모 고약히 되어 보잘 거시 업스니 고이히오이다 상의는 달마동의 만히 거시오니이다 즈손 손세를 탁실이 보아 히옵는 거시 올스오니이다 영묘 경모궁 혈손이 상감이니 성즈신손으로 니어 가시기를 축턴히옵 디스들이 변변티 못히다 히니 데일 민망히오이다

<순원봉서-09, 1855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안약의 상변 천만 의려 뱃기니 오죽 참석 비절히시랴 홀 말이 업습고 경악히고 위인이 앓갑고 불상히니 어인 일인디 지금 거줏말 꺾투여 고이히오이다 상히 병 잇다 말은 듯디

못하고 마시는 거시 과하다 헛디 더 지경이 될 줄은 몰나습더니이다 밥은 변변 먹디 아
니코 그리 디내여시니 스스로 알며 저즌 일이니 절통 애통스오이다 드리고 간 칩직 저문
손이라 하니 큰일을 당하여 초종을 었디하여 었디디내며 형님 경상 춤아 생각디 못하게
습늬이다 덕각도 었디 갖는디 불상 닛디 못하게습 응당 올라오며 바로 묘하로 가게시니
짐작의 하월 어느 날이나 오게습늬니잇가 길히셔 흥보를 드르시고 경참 비통하여 겨실
거시오니 괴력도 손상하여 겨실 거시니 녀너 노히디 못호오며 다행이 유치의 아들이 잇
는 줄이 괴라도 만행호습더니이다

<순원봉서-10, 1849년, 순원왕후(7촌 고모)→김병덕(金炳德)(7촌 조카)>

네 부공은 은사를 드르와 오게 되니 즐겁기 비할 더 업슬 거시니 만행하기 셔스로 다 덕
우리 성은 여턴하시니 너희들이 다 착하여 이 은덕을 보답하여라 더째 드르니 토질노 마
이 성터 아니케 디낸다 헛디니 그스이 괴별 드룬가 한다 오기 목전의 잇고 일기 봄날 곳
탁야 심흔 치위 아니니 더욱 다행 깃브다 치하로 수항 덕는다 너도 무스이 디내는가 시
브니 다행하다

<순원봉서-11, 1849-1850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일기 극열하니 이 동안은 었디 디내논디 평안타는 헛디 밍양 브리디 못하니 나는 근니
즈로 현과 와 늣고만 시브니 괴로와하니 판셔기 혼 스연은 보고 낸들 그 일이 의외오 어
척업손 줄 모르디 아니나 이 쫓치 나시니 었디하논고 보고 스는 브지어턴하고 공은 아모
째 가서라도 사름의 성이이면 엄척하리 이실 거시니 내 마음은 조일 것도 업고 겁낼 것
도 업니 그러헛디 었디하여 가 거시니 아딕은 일이 급히 업슬 듯히 괴푹 년간 상소와 그
째 말도 다 드리시디 과연 그때는 밋는 바 둥하니 그리 유심헛디 아녀 그러헌디 녀녀흔
생각이 업스니 정신이 고이히 집의 오라바님 아니 거시고 대신 오라바님 아니 거시니 이
제야 마음 펴고 나는 혼 늣은 형세 업는 홀어미니 내 이리흔들 뉘 뜨어시라 헛디 하여
이리하니 절분하기 측량업니 만일 슈작이 다시 잇거든 다시 말하려 하니 회셔 말고 이런
휴지는 즉시 쇼화호소

<순원봉서-12, 1849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황궁이 브조하여 대헌왕이 신민을 브리시니 이러흔 화변은 왕텝의 소무하니 망극 원통함
과 그때 경식이야 었디 다 형언하며 수계 더스라도 두어 거시면 이리 지원 극통이 덜하
여 겨실 거시니날이 갈수록 심신이 텝터 못하며 우리 순묘 익묘 혈뭍이 쫓터 거시니 선
대왕 지즌지인하신 성덕으로 더창텝이 춤아 었디 이러툷 텝니 이실고 도모지 내 죄역 심
둥하여 이 고이흔 날만 살니시고 춤아춤아 당터 못홀 화고로써 느리시니 내가 었디하여
상년의 죽디 못하여논고 목석 곳튼 명을 쓴터 못호고 명이 붓터시니 종샤 부탁이 업스니
갓가운 혈뭍으로나 승통코져 신왕을 대통을 니으니 설움 궁텝하나 신민의 넘즈가 이시니

일변은 경헝헝고 턱성이 순실헝시고 극진이 어지러 뵈니 혼도곳 잘헝여시면 현군이 될
 듯헝디 내가 무식 혼용헝니 성취헝기 어렵고 터이 즉금 집안 부즈분인디 인기가 그러헝
 러니 밋는 듯 마는 듯헝니 듀야 심간의 열화가 오르니 엇디헌다 말인고 글도 비혼 거시
 업스니 흑문이 이셔야 티정이 나는 거시니 뉘가 그르치논고 화가여성으로 디내기를 보고
 드른 거시 업스니 칙망홀 길도 업고 속만 각식 성각이 쓸흐니 내 근력은 공연이 진탈헝
 여 견딜 길이 업스니 이러헌 고이헌 팔즈가 고금 턱하의 업는 듯헝 대헝왕 턱즈가 총명
 영예헝시고 즈인헝신 앓가온 품성이 지원지원 망극망극 무익홀 분이로세 갑오화변은 지
 금 성각헝면 그뻐 엇디헝여 설워헝엇던고 시뵈 오라바님괴셔야 뉘가 업수이 보니가 이실
 가 본고 그러헝니 밋는 디가 잇더니 지금 당헝여는 누를 힘이 업스니 도당 일이 프스 쓸
 이 될디 모르게 헝여시니 내가 업고져만 시뵈 어줄 이만 곳티니 짐작 보소 휴지 쇼화헝
 소

<순원봉서-13, 1850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흥근(재종동생)>

일기 증습헝니 엇디 디내논디 일콧더니 셔감을 대통헝가 시브니 괴롭게 헝엇니 일기로
 그러헌디 잡병들이 만타 헝니 두루 방심티 못헝이니 예는 세월이 물 곳트야 효당던 연스
 가 디나시니 확연지통이 무익헝니 오래 사랏다가 갓갓 경녜이 지정의5 춤디 못홀 일이니
 이 몸이 세상의 성헝 줄이 천만 번 혼이로세 나는 큰 병은 업스나 극열 당헝여 곤곤헝기
 는 측낭업넌 입시의셔 보니 반갑기 측낭업스나 혼만디 말을 못헝니 섭섭헝데 대던의셔
 셔테감으로 밤의 긴헝시더니 쉐 후는 신열도 덜헝시니 수이 나오시기 축슈헝니 이 봉셔
 몇 날 별너 이제야 덕니

<순원봉서-14, 1842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흥근(재종동생)>

드르니 상경타 헝니 든든헝나 돌포 니점으로 민망이 디내고 지금 소성티 못헝가 시브넌
 수일 풍환은 더헝여시니 엇디 오고 근녜 괴거가 엇디헌디 녀너 브리디 못헝니 봉디 무탈
 이 헝고 승즈헝여 오니 인정이 깃브다 홀 거시오 샹니 수삼 지의 형테 회우로 보면 도흔
 일일디 오라바님 병환이 그비압디 아니시다 헝니 드런 디는 오래러니와 죽히 놀납고 민
 박홀가 오라바님 병환은 아모려도 당신 닷 아니라 못 홀 거시니 엇디 애뵈고 야속디가
 아닐가 본가 방달간 출입도 못 헝시며 면네의 가시기 의스 밋기오 즉금인들 의원도 널니
 보실 길 업시 이십 니 밋기 거시니 아모리 성각헝여도 이상헝 일이시니 상임 면부헝시다
 헝니 안환이 도섭이나 헝며 나오시기 브라니 판관과 아히들 애빨 일 답답 민망헝니 즈니
 오기를 날마다 조엇더니 오니 그는 식환헝나 다시 의려 번난헝니 모르게 헝엇니 뵈오니
 엇디헝시고 즈넌도 일일 삼십 니식 앓다 헝니 근녜이 여러 십 니 올 길 업셔 그러헝여실
 거시니 엇디헝고 굶겨워 덕으니 수이수이 쾌복헝기 밋니

<순원봉서-15, 1848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흥근(재종동생)>

직작월 발명 시 노염이 더욱 극심하니 근 천 니 원도의 엇디 작형홀고 병둥이나 일념이
 노히디 아니터니 무스이 득달하여 큰 탈은 업시 디낸다 하니 불행 둥 다형이나 게 슈토
 가 노상 도티 못하디 하니 본시 덩고지중이 있다 헛던디 엇덜고 녀이로세 당설하니 쥬년
 을 너며 근밀의 즈로 추주하니 아모리 근신하여 디내더라 하여도 밋양 스려 업술 적이
 이셔실고 의외 홀연 디스가 나다 말이 들니니 밋쳐 소스논 듯디 못하고 놀나오미 측냥티
 못하디니 츠츠 드르며 웅당 하염죽흔 일노 비로셔시니 놀납디 아닌 배 아니로터 숨을 내
 쉬엿니 관환의 잇는니 시비 간 이 길이 쉬오니 속담의 코 아니 흘니고 유복하면 도타 말
 꺾터여 이런 익이 업시 디내면 상하의 허물이 업술 일이니 과연 도흐터 운익이오 관구흔
 일노 면티 못하랴이면 즈니 이 길이 즈니 일신의는 정대하며 향언 덕간이니 빗날 분이
 아니라 일문의 광치가 공연이 므슨 일에 이러홀가 본고 남즈의 스업이 이에서 쾌대흔 거
 시 업술 듯하니 혼 번 투비 관겨홀 거시 업는니 이전 그리 든닐 쟈 므슨 일에 걸닐가 녀
 녀하던 므음으로는 요스이는 도로혀 폐간이 퍼이니 내 이 말을 박절 무정이 알넌디 모르
 디 혈심 툽곡으로 하는 거시니 그리 알고 노호와 마소 즈니 녀스로 심각하여도 공명의
 못 하여 본 거시 거의 업고 쏘는 세상 사롭이 만만이 아든 아니코 무지흔 빅성디라도
 웨언이 업셔시며 형은 대관을 디내시고 즈덜이 다 등과하며 심지어 의식의 어려오미 잇
 는가 인스가 이러툃 극진하니 엇디 혼 쟈 계탁하미 업술가 본가 어제날의 놓흔 초현을
 득며 추중이 운집하며 가로가 환관하여 영요하미 극하나 벼슬이 높홀수록 칙망 둥하고
 오늘은 낙척하여 쇠잔흔 듯하디 둥흔 짐을 벗고 심기 안한하여 좌와괴동이 거리낄 거시
 업고 눈의 거치는 것과 귀에 거스리는 말이 들니디 아니하니 신선이 아닌가 이런 일도
 디내고 더런 일도 디내여 보니 조화의 현스하물 아라 이더가 다 쏘이니 도모지 므음의
 두디 마소 날마다 텃안을 우러러 디넌 일 심각하여 통이하는 뜻이 혼갈꺾티 하며 엄견을
 므릅디 아닌 쟈와 꺾티 하여 심게 평탄이 디내면 부국흔 죄 업스니 신명이 도울 거시오
 우리 상감괴셔 성심이 도로혀시면 양춘이 도라와 여전홀 거시니 잇는 동안 병이나 나디
 말고 평온이 디내소 그스이 평문 드린 디 쏘 날포 되니 침담지절이 엇더하디 추기 꺾긴
 하니 굵거오며 브리디 못하디 더고 간다 하니 먼 길 질치 녀녀 되나 일변 든든하디 주셔
 오니 거류 낭정이 그음업술 거시니 민망히 나는 알키 골몰하여 썬날 쟈 봉셔 혼 줄도 못
 하엿니 요스이는 나이 디내니 더고 간다 하기 덕으니 내내 무고 만둥하기 밋니 스찰궁위
 하엿다 하니 즈니 상히 편지 혼 당이나 하엿던가 서로 므슨 셔찰 왕복이나 혼 줄노 억탁
 으로 말하여도 하 괴괴 쾌심하니 제가 뿌디 뉘가 뿌디 망측 인스로세 이 말을 아니려다
 가 뻗니 이 봉셔 소화호소 무신 팔월 녀칠일

<순원봉서-16, 1848-1849년, 순원왕후(7촌 고모)→김병덕(7촌 조카)>

너는 가서 수삭이나 잇는가 하엿더니 장기와 슈토 도티 못하여 녀되어 올녀보넌가 시브
 니 썬나는 정니 보는 듯 일꺾는다 네 어른은 큰 탈은 업는가 시브니 만형만형하나 회셔

를 보니 든든한 둥 한번 쳐창한 심회 아모라타 엇다 머뜨는 집은 엇더하고 쓰어스로 날
을 보내며 슈토 그리 고이하니 본병이나 긴히 나디 아니했더냐 내가 힘쓸 만한 때면
네 숙달의 말을 기다리디 아닐 거시니 무스무려한가 아든 마라 노독이나 업시 잘 디내는
가 알고져 덕는다

<순원봉서-17, 1846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마음이 심하니 년하여 빗치는 둥 엇디 디내논디 브리디 못하며 내 이제 심스는 새로이
원통 망의혹은 일컫디 말고 힘포 각식으로 운운된 천능이 되시고 지혜는 전 듯고 저히던
심각과 스이 아조 업는 혐이니 망극 둥이나 만행하기 무손 도흔 일이나 잇는 듯히 이 일
의 그스이 은근이 애쓰고 스려가 만던 말이야 엇디 다 홀고 남은 날이 적으니 스오 일
청명하여 태평이 필스하기 바라니 이번 대던 효성이 응당 그러하시려니와 미스의 안흐로
셔도 하시는 일이 진효진성하시니 흠탄하고 컷좁고 또 깃븐 둥도 이번 선대왕 초상을 심
각하니 심스 버히는 듯 형언디 못하니 슈여하시는 일노 정청ㄴ디 되다 하니 그 비답의는
엇디하시던디 예셔 낭 즈던 용녀하고 말나시기 아니노라 하시면 순편호실디 부디 가서서
봉서 보고 말너노라 하신다 하니 엇디하신 정의신디 아디 못하게 하였니 그 일이 정청ㄴ
디 되여실 제는 우리가 모르디 아녀실디 능소의 가신 후 봉서로 마르쇼셔 하여 아니시는
일이 내 소견의는 정의가 더 될디 모르게 하였니 그러하디 그리 작당하여 겨시면 봉서는
엇디하고 뉘게로 던하며 대던의 드리라 홀고 예셔 던키는 승던빋츠로 던홀 듯하니 뉘게
로 던하라 홀고 말이로세 판셔 봉서 왓기 보니 즈가기로 내가 봉서하여 제 대신의게 봉
셔 스의를 던하라 하여 겨시다 하니 그 말씀은 또 엇디하신 말씀인고 다 즈시 알게 호소
어제 와 겨실 제 슈여 말 하고 예셔 아조 작당하여 아니시기로 호쇼셔 하니 못한다 하시
기 그리면 엇디호리잇가 훈즉 던동 판셔기 다 하여시니 프러 하라시니 슈작이 이러하
시던가 너일 가신 후 이리 왕복홀 길 업스니 즈셔히 덕소

<순원봉서-18, 1856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원노 형역을 평안이 하여 겨시니 다행하디 회환 시는 신석이 과량하여시니 환테 후 노독
업시 테력 강건하신디 브리웁디 못호오며 형테 들포 상니지회로 만나 호뭇 든든하심 오
죽하여 겨시오리잇가 또 주갑 경일의 가너지인이 반이나 모히여 환형 비무하여실 겨시니
내 막업도 든든 훈귀하여 일크라스오며 디각 언니의 녁변 기력 평안하고 금년 식스도 풍
념하여 아딕 걱정 업더라 하니 다행다행 깃브오이다 일전 일강의 드리와 겨실 때 보니
신관이 향너보다 너도이 씨긋하여 뵈시니 정승들은 아모디 출입도 못하니 괴울타가 이번
형츠가 일낭기청흔 때 도로 강산 풍경을 완담하시며 놀며 가시니 심게 활연하며 거목의
쇄락하여 나오신 듯 깃브오이다 너형 입경하다 하니 든든호오이다 예는 일양 디내나 삼
남 년스 글너진 둥 녁남이 말 못 되다 하니 민망 답답호오이다

<순원봉서-19, 1846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봉서호와 스연은 보아시니 이대로 흐려니와 공판의게 봉서하여 대신의게 돌리는 거손 심히 성신탈 아니히 당신과 하여시니 게 드르시니만 못홀 듯히 이리하시기 상의로 나신가지니도 그리하시면 도켓다 하였는가 그 도건 득당홀 줄 모르게 하였니 승지가 봉서 가지고 가시면 절노 아래로써 알 일이 아닌가 덩순 왕후 고스는 왕손 보라 가시는데 그리하시다 하디 굿터여 그런 일은 다 본바다 하실가 곳터 뼈 제 보내려 하니 이리 쓰더니 대비던의셔 봉서 왔는데 녕부스 말이 대던 슈여 일노 대신이 정청하디 근허하시니 이 만당신노의 초박흔 빛 이때 극열의 최마로 종일 슈여하시는 거시 엇디 성태의 휴손터 아니하실가 보오니잇가 시방 스세는 급박호와 만일 동도 구던 하교로 빈팅 대신의게 제택디 아니하시면 호스의 나옵신 턴의를 도로혈 길이 업스니 처분하옵시면 만행이라 하기 알외노라 하여 겨시기 내가 대던의 봉서하여 마르시고 우리가 말나 하며 못 호노라 하시고 허호쇼셔 하고 대비던의는 상감 허락 바다 빈팅의 널 말을 녕부스기 아조 뼈 보니라 회답 하였더니 뼈 왓기 내어시니 보아실 듯히 이리하시는 거시 순편하디 누일 아니 드르신 일을 우리가 어디 가고 줌줍코 잇다가 가신 후 거동소로 비온 둥 보내는 일이 아니 괴이홀가 본가 상감의 봉서하고 공판의게 봉서하여 대신에게 포유하라신 말 필경 대비던 모르실 일 업기 짜로 뼈 대비던만 보쇼셔 하고 보내엿니 범스가 다 순실흔 거시 올흐니 괴이 못하시기로 덩흔 빛 저리들 홀 제 드르시디 그리하실 이 아니로세 나는 본디 질번기병이니 이러흔가 시비

<순원봉서-20, 1855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한운이 브덕하디 이스이 테절이 만듬하신디 브리웁디 못호오며 근간은 하혈이 쾌츠하시오니잇가 녕녀 노히디 아니호오며 녕변괴셔는 초싱 상경하신가 보오니 든든하시라 깃브고 노력의 평안이 오며 일양 디내시는데 일콧스오며 성천 아둥 평안흔 안부 드르신가 호오며 대너셔는 안녕들 하시니 축슈호오며 나도 일양 디내오며 덕각 어능 날 온다 호옵느니잇가 옥동 판셔의 일은 지금 허언인 듯 허우룩 비감하고 디교는 엇더하디 모르디 질실 튕후키는 극진하던 터이니 앓갑고 심히 서운호옵터이다 조하만의 문집 일노 선비들이 만히 상소하여시니 비답이 대신 소견은 엇더호옵터니잇가 다시는 말이 업슬는가 녀이오며 녕변이 대국 소문이나 더러 드르시고 게 인심은 엇더하더라 호옵터잇가 하 오래 봉서도 못 하여 섭섭하기 줌 덕습느이다

<순원봉서-21, 1855년, 순원왕후(7촌 고모)→김병덕(7촌 조카)>

너히 부공은 의외에 업건을 므르와 원니흔 정니 오죽하라 내 막음도 악연 헤헤하여 지금 엇더타 못 혼다 발행홀 제 노염이 극심하니 녀 노히디 못하더니 평안이 득달하다 하니

불행 등 다행이나 슈토 도티 못하다 하고 본질 이시니 죽히 심우되랴 브리디 못한다 주
상괴셔 텃즈가 극히 어지시니 하 오래 두든 아니실 듯하니 공순이 기다리면 도흔 썩가
이시리라 그스이 또 소식 드룬가 한다 너는 엇디 디내느니 불상 닛디 못 즘 덕는다

<순원봉서-22, 1841년, 순원왕후(7촌 고모)→김병덕(7촌 조카)>

천만 몽미 밧 둥계를 만나니 덕을 말이 업다 시일이 불뉴하여 오늘 성복ㄹ디 되시니 비
운 통박하기 새로오랴 창확하기 아모라타 업스며 너히 부친은 들포 니점으로 쾌소티 못
헌터 공회지통을 만나 비이 과절하여 디내는 일 죽히 민답하랴 브리디 못한다

<순원봉서-23, 1853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신세의 괴운 평안하신 일 알고져 호오며 새희의는 가국이 태평하고 신민이 안락하여 일
호반점 흠이 업서 디낼 거시니 깃브오이다 대신괴셔도 강건 녀장하여 슈고무강하시옵 올
히 녀변 갑년이니 희귀하시랴 든든호오나 요원이 디낼 일이 섭섭호오이다 과세 평안이
하여 거시다 호옵더니잇가 예는 상후 태평하시니 축슈오며 나는 큰 병은 업스나 점점 쇠
로하여 늙으니 모양을 혼 가지도 빠지디 아닌는 줄이 스스로도 알니니 춤아 괴괴 가쇼롭
스오이다 쇠흔 소치로 겁은 점점 느러 가고 소견은 점점 킁킁하여 각식 만흔 소설 듯는
터로 은근이 애가 쓰이니 썩호오이다 대신도 즈로 보디 못하고 감스도 보디 못하니 막막
호오이다 헉 밧고여 이십 일이 되여시나 봉셔도 못하여습 견비통이 긴하여 심히 괴롭스
오이다

<순원봉서-24, 1855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환세 평안이 하시고 신경 괴운 평온하신디 알고져 호오며 신세 가국 평안하여 년풍 민안
하고 금년은 방경이 이셔 국도 억만년 반태지경을 응축호오며 상후 안강하시고 나도 일
양 디내옵느이다 더째 드르니 승지 감괴 잇다 호더니 이스이논 쾌차하니잇가 집 대신이
혜경궁 마마 삼촌 린환의 말습 홀 거시니 심상이 듯디 마르시고 히포 골슈의 박힌 죄명
을 신설하여 두면 지원극통을 유명지간의 즐거워할 거시오 마마겨오샤도 열에 쾌할호실
거시나 우리 집들의셔 이런 생각 아니면 뉘가 손 붓치랴 할가 보오니잇가 진실노 죄가
이시면 엇디 용이히 이 생각이 잇스오리잇가마는 이는 인정 텃니 밧기오 정묘겨오셔도
둥간은 만히 회오하시논 성념도 겨오시디 뵙 호디 아니신 말습이올너이다 튜상이 되시니
내 막음이 심히 죄를 지은 듯 감회 비원호옵더이다

<순원봉서-25, 1850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드르니 어제 드러와 든너나 가다 하니 또 어느 때나 드러와 이시랴 호는가 내 즈너를 집
의 잇고져 호미 비단 스정분 아니라 강연 출입이나 즈로 하여 흑문의 유익고져 하고 즈

너 먹음인들 남이에서 정성이 압셔지 뒤질 니는 업슬 거시니 이를 버라고 쏘는 내 막막
 함미 낮고져 흠도 국스를 위함미러니 봉셔 스연을 보니 내 생각과는 다른 거시 이왕 내
 한 말은 그때 스세가 필경 었디 될디 탁냥티 못함여시니 당자 그때 먹음이 분명 도티 아
 니키는 인정의 당연함니 무슨 말도 즈너를 위면할가 보며 쏘 실노 위함는 먹음으로 다시
 관환의 분주함을 권할 뜻이 업셔시나 이제 와 일이 망극히 환역함여 바로 기벽을 함여
 시니 더 만고풍상을 디내여 거의 촛동이나 다름업슨 상감을 즉금 아딕 칩망할 길이 업셔
 국지안위가 날을 칩망할 일이 아닌가 갑오년이 설은 줄 아랏더니 예 비함면 호스니 그
 형세가 이러함고 위험함 쟈 이때 꺾튼 쟈 업셔시니 이러함디 이런 용넬 혼잔함 내게 당
 함기 하늘 뜻을 알 길이 업스디 아모리도 할 수 업셔 담착함고 나시니 일본이라도 일에
 낮고져 할 제 놀과 더브리 할가 본고 즈너 흑식 지조 업셔 내 말이 칭당티 아니타 함여
 시나 칭당티 아닐디라도 내여셔는 낮고 판셔의 혼자 소견보다는 나올 거시니 그런 생각
 뜻은 다시 내디 마소 아딕 일이 업슨 듯함나 미양 일 업슬 줄을 었디 괴약함며 아모리
 되던니 관망함고 놀과 꺾티 안져시라 쥬면이면 그는 대단이 그른 사름이니 즉금 모양이
 것춘 아딕 변변함나 속은 뻑은 나모가 되여시니 시시로 각식 스려가 요요함여 망망대해
 의 한 조각 널에 안즌 듯 위터함니 이 말이 과함 말인가 아닌가 내 속의 잇는 말은 다
 함여시니 생각함여 보고 종형데 동심함여 대쇼스의 의논함여 미스를 공덩이 함고 일이
 업게 함소 대던이 순실함시니 그릇 돕느니 업스면 녀너 업시 착함실 거시니 이나 버라는
 바와 꺾트야 타일 조종의 뵈올 늦치 잇기를 축슈함니 스연 그득함나 다 못 덕으니 즈셔
 생각함소

<순원봉서-26, 1850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거일 답찰 보고 든든 반가오나 근일 풍세 출환이 무이동일이니 기도 안똥함며 침담지절
 이 었디함디 쇠병이 만흔가 시브니 년세로도 쇠증이 바히 업든 아닐 거시니 향념 브리디
 못함니 나는 요스이야 희소가 저기 낮게 디내니 별지 보소

<순원봉서-27, 1847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더적 먹이 불평함은 나으나 당 청명티 못함여 디내는가 시브니 쇠년이 되여시니 그러도
 함고 먹음 평안함 거시 사름의게 웃듬인디 공스로 뜻과 꺾디 못함니 그러함가 시브니 그
 리함고 었디할가 본가 아모리 민망함여도 세월이나 가기 기드릴 뵈 업느니 즈너 었디함
 면 도흘 일을 날드려 그르치라 말을 보니 도로혀 웃고 도쿄 득당지스가 이시면 내 얼연
 이 말할가 소견도 업슬 분 아니라 하늘이니 여툼의 한지 이셔 비 오고져 함고 슈지 이셔
 희 나고져 함여도 하늘의 함고져 함시는 대로 함고 인녀으로 함디 못함과 쏙꺾트니 민망
 함여도 견딜 거시오 쏘 거스리는 말은 이때 함여 몸의 유익디 아니믄 불고함고 우함도
 불긴함고 가운데로 썬리는 거시 분명 될 거시니 우함 덕 되디 아닌 말숨은 대쇼 간 말고
 함혀도 빠이는 자의 저근 허물이라도 함디 마소 그는 급함 해가 이시리 도흔 말숨을 니

아기처로 풍유하여 드르시게 하면 듯기도 도하하실 거시오 말 듣기 나으리 턴즈 총명하
 시니 더도 도하하시는 썩기 다 도화 드르시는 듯하나 계도 썩 분간이 겨시고 인품 선악
 이 뭇아하며 다 올흔 줄노 아니 아라셔 내 뜻 밧노라 겨리한다 이 믿음은 분명 겨시리
 이는 보 두고 그러하시니 허물 뵈옵디 말고 조심하여 디내소 그 사롭 기리는 말도 하여
 듯게 하시는 것도 브절업스니 이 상하의 첨으로 아라시리 유시로브터 눈치와 상담으로
 넘겨집 슈가 신통하시나 니관하여 말슴을 뵈옵 못 하시느니 잘만 도와 드려시면 일디 명
 군 말은 드르실 거시나 어려 겨실 적브터 니수의 붉으시믄 타시 선도 시의 업디 못허리
 그러나 이 압 썩 엇디 변하실디 알쑤 즈고 데왕이 석기 업스니 드므니 이도 조금 겨시니
 가령 도신의 집이라도 무어시 유여하고 엇더하다 하면 귀준부가 천승이로디 아쳐하시
 므더가 겨시니 다만 요스이 입시하느니 잘하여다가 먹어도 말슴이 잘한다 하시디 당신키
 셔 하여 먹이는 것보다 나온가 이 믿음은 겨시리 즈니 쥬년을 뵈와 오니 거의 다 아라시
 리 아덕은 도당의 므슨 일 이실가 빅성이 평안티 못홀가 이런 믿음은 아니 겨시고 외물
 의 뜻이 겨시니 아모리 답답하여 말고져 하나 엇디 턴심이 도로혀기 전은 홀일업니 데일
 민망한 일이 니외 엄격게 하며 당신 진어하시는 것 다쇼간 알 길이 업고 홀연이 과음하
 신다 말이 외간ㄴ디 자자하여 안호로 드러오니 못 잡습는 술을 엇디 일도의 그리 과히
 진어하실가 본고 실상 그러면 걱정이오 체한다 미양 하시니 귀 넘너로세 금술노 닐너도
 아덕은 감감하니 이순 이제야 넘어 겨시니 아기가 밧븐 거시 아니로디 그져 사롭과 다라
 시니 기드리는 믿음이 밧븐 듯하니 어셔 정궁의 탄혹을 브라디 점은것들 이시니 엇더홀
 년디 그도 추억 턴의니 엇디홀고 아모 디라도 튼튼이 나흐면 대형이게 하였니 츄츄
 라니 번거흔 스연이 만호니 전후 이 휴지 압히셔 살나 브리소 녁부스는 내 믿음과 즈니
 생각이 꺾트니 엇더턴디 살면 대형이오 업스면 불행이니 관계가 적다 못히 민달용의 말
 은 못홀 줄노 밧셔 하여 보내여시나 후 하여 보아 관겨티 아닐년가그 곤절이 브라는 거
 술 혼 휴지로 보고 디답을 혼가 하여 즈니 소견 듯자 혼 말이러니 스의가 심히 절당하여
 속이 석환하여 하니 이만 곳치니 평안이 디내소 나는 엇디흔 믿음인디 인스블성인디 노
 호은 믿음과 남을 블워하느니 믿음이 아조 업느니 꺾트니 아니 고이혼가 그러하기 업수이
 는 아데경우궁 가례 회년이 이히 이월 십이일이신디 작헌네하신다 호고 날드려도 가라느나
 하시고 가자 하시나 집 우환으로 믿음 요요하여 대풍의 토스 꺾트니 나설 믿음도 업고
 방달 간은 든니나 안고 날기도 어려오니 텅티 못하였니

<순원봉서-28, 1854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수일간 량의 우긴하니 귀운 엇더하신디 브리디 못호오며 도당 집 상변은 천만 의외오니
 경참 비석하심 오죽하시랴 참달흔 밧 덕을 말슴이 업스오이다 작성 므이 입전 무던하던
 가 보오니 더욱 앗갑고 대신 년세 늑순이 거의신디 도당이 편노 시하의 너당이 공허하니
 이 압 현필 취터라 호고 도시 금은 망연 민망홀 듯 답답호오이다

<순원봉서-29, 1848년, 순원왕후(7촌 고모)→김병주(7촌 조카)>

금년 여름 꺾튼 무전 흑염이 업셔시니 엇디들 디내엿느니 근일은 청냥흐니 여러 집 무고
하고 네 소술도 잘 디내논디 브리디 못흐다 네 삼촌 덕거는 지금 의외 썸꺾트니 홀 말이
업다 즈고로 공명흐느니 시비 간 이런 일이 종종이오 만일 슈익흐여 먼티 못흐량이면 올
흔 일노 이리되논 거시 신인의 붓그리오미 업술 거시오 세상의셔 죄가 가타 흐논디 비티
못홀 거시니 네희가 내 말을 박절이 알 듯흐디 밧양 근밀의 출입이 즈즈니 므슨 탈이나
업술가 관심흐이던 므음으로논 블헝티 아니미 아니로터 빗치 잇고 밧양 오래 두실 일은
아니 겨실 듯흐여 처음 놀납고 어히업던 므음이 진정흐이나 게 슈토 도티 못흐다 하니
넘녀된다 동성 즈질 정니야 그 측냥이 이실가 보냐 무관이 무모흔 정니 너모 슬허홀 듯
블상블상 닛디 못흐다 평안이 갓다 말은 드러시니 그스이 쏘 쇼식 드릿느냐 평안이 디내
기나 밧는다 허수 헤헤흐여 아모라타 업더라 나는 지금 글시 쓰려 흐면 안시 현황 고이
흐여 일절 편지도 못 흐엿더니 오늘이야 덕는다 각 집 봉서 던흐여라

<순원봉서-30, 1842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일한이 업혹흐니 이스이는 신질이 엇더흐고 즈셔튼 못흐디 혼가지오 즈로 테흐여 민망흐
가 시브니 그만흐여도 나올디 들포 미류흐니 답답 넘녀 노히디 아니흐니 일월이 무정흐
여 어느덧 오라바님 발인이 되며 지숙 업슨 형츠시니 새로이 확연 통박흐기와 그러툷 디
내니 가도 못흐고 심스 오죽홀가 내 므음 비창 한심흐기 아모라타 업고 날은 이리 흑널
흔터 여러 날 병덩 형상이 동동흐고 상인들과 판관은 엇디들 가논디 블상 비려 무궁히
큰집의셔도 삼상을 얼프시 못차 아조 깊고 먼 일이 되시니 통확흐기 측냥업고 세상스 다
일야 썸이니 제겐들 언마 올 일 아니니 도모지 싱각디 마자 흐여도 그는 잠간이오 축스
의 상비티 아닌 일이 업스니 고이흐여 하니 알픈디 회셔 말고 병이나 쾌히 낫기 바라니

<순원봉서-31, 1853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동일이 과란흔 썸 만흐니 괴운 평안흐신디 드르니 더째는 감기와 인후로 불안이 디내신
다 흐더니 일전 의호의 드러와 겨시더라 하니 실섭이나 아니 흐신디 브리디 못흐오며 향
너는 유의흐시던 일노 리왕 천 니나 작형흐시다 하니 슈고흔 표나 이셔 여의 구득흐고
허헝이나 아니흐여습느니잇가 일꺾스오며 녁변 도입 후 녁흐여 평안흔가 넘어러니 정언
상경 편 드르니 무스흐터 점점 근력이 독노흐니 꺾더라 하니 근간 환갑이 쇼년들 꺾튼디
어이 그러흐고 브리디 못 흐오며 근일 내 결단흔 일이 소위 세도라 칭흔 일이디 가부도
뭇디 아니흐고 셔역도 어렵고 번다흐여 말도 못 흐여스오며 춘하 간 소문이 점점 도티
아니흐터 무비회터 관작붓치 괴괴흔 험담이 무소브지흐니 일일마다 다 잘흐다 흐든 못흐
여실디라도 다 여러 어른의게 의논흐여 흐여실디 그스이 모스흐고 공도는 적고 스정이
만하 그러흐엿느디 그는 모로터 엇더흐던디 녁천흐여 더 업수이 아라 그런 듯도 흐고 쏘
는 가례꺾디 흐여 쥬년이 넘어시니 그 괴괴괴괴흔 시비를 몽피흐고 이실 묘리 업기 결단

하여 보아 드리라 하여시더 일변으로는 일심이 동동호오이다 노성하니들이니 응당 조심
 하여 홀 듯으나 스려가 만하 이러호외다 감스 일도 나는 말고져 혼 일이 었디었디하여
 그리되어시니 전 감스가 지켜도 나올터 이째 폐도극쳐하여 인심은 불 거시 업다 호는 디
 가서 었디 디널고 민망 단녀 무궁호오며 잘이나 디내기 조이오며 상감괴셔는 근간은 글
 을 막음 드려 넓으시고 문니도 나오시다 하니 흑문이나 잘하며 만괴 총관이 광명하며 이
 러타 저러타 시비 업고 태평 반석 갖기 듀야 웅축호오며 이 편지 몇 날 벌너 평부 듯고
 섭섭한 거시나 띄고져 덕습누이다 이런 휴지는 업시 하시옵쇼셔 나는 큰 병은 업스나 당
 스려가 만하 썩호외다

<순원봉서-32, 1850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일간 견비통 었더호가 막이 괴로울 거시니 브리디 못호니 덤게나 하여 보소 일전 회답은
 다 츠셔히 보았니 이 초를 잡아시니 판서괴도 보내려니와 므슨 잘못 쓴 말이나 었더호
 말 었거든 험셔하여 곳터 주소 즈니도 츠셔히 보소 이거시 내 속의 잇는 말을 썩 하여시
 니 정니가 이러하여야 울터 아니호겟나 그째 비하여는 원통 국골하기 었디 이째 갖틀가
 본가 판서는 이리 던교 느리고 대신 입시 나중 홀 줄노 것집어 생각호였는가 보디 됙스
 테오 소견이 전후가 판이하니 아모리 아는 일이라도 니더하여 보고 호는 거시 올키 그리
 홀 줄노 호였니 두 말 됙 보소

<순원봉서-33, 1855년,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근일 청화 도균하니 괴운 평안호시고 침담지절이 었더호신디 브리옵디 못호오며 녕변셔
 도 평안호신디 노인이 공관이 어려울 듯 일콧스오며 병시는 대과를 하니 외오셔 괴회호
 고 대신괴셔 갖거하시라 갖브터 늑중형테 빠디니 업시 계화롤 다 쏘져시니 인인마다 흙
 선홀 거시니 실노는 아모 막음 업시 갖븐 줄은 아디 못호고 불안호오이다 영은 즈 병필
 의 과거도 의외니 선음으로 그러호가 보니 선음 밧은 후손들이 또 슈국후은을 간폐의 삭
 여 대신들노브터 말관기디라도 정승은 정승 직임을 잘호고 판서 참관은 그 직스롤 다호
 고 하관의 잇는니는 썩 그 직칙을 잘하여 감스 슈령기디라도 남 괴이고져 호는 일 업스
 면 이거시 올흔 일이니 즈덜들 상상 경계하여 귀눈에 너게 호옵 튕후 관인 즈혜 힘쁘디
 익삭 블인은 늑이 모르리라 호고도 아닐 거시 사름은 모르나 하늘은 썩 보시니 었디 무
 썩디 아니호오리잇가 조상괴셔는 국가의셔 블망지혈통으로 그 즈손 되느니로 현발 탁용
 하시거니 실즉 후손이야 므슨 일크랄 일이 업시 이러특시 흰혁하여 남이 브라도 보디 못
 홀 듯호니 블상하시믄 그째 조상이시고 흰혁하기는 이째 아닌가 하늘이 녑뻥 거손 띄워
 하시기는 반듯호니 그져 집안 아히들 공검 근신하기를 브라디 다 막음대로 가는 일이 업
 스니 늑구하기 측량업습 편지 썩노라 하니 당황호디 내 막음의 잇는 말을 오히려 다 썩
 디 못호옵 이제는 눈이 어두어지고 정신이 흐릿흐릿하여 글즈도 되디 못호고 스연이 니
 어 되디 아니니 짐작하여 보시옵 병시는 약호도 아니코 임전하여 뵈니 다항호옵터이다

어제 처음으로 영은을 보니 든든하디 그뉘의도 조심하는 심회가 만습더이다

<순원한글박-01, 1839년, 순원왕후(어머니)→덕온공주(셋째 딸)>

아기가 막이 민망하가 시브니 굵굵하니 승지 괴셔 나오셔 보시고 약이나 의논이라도 하여 보면 시브다 엇디하면 도홀고 굵굵하다

<순원한글박-02, 1837-1844년, 순원왕후(어머니)→덕온공주(셋째 딸)>

오딩 봉셔 막 보내려 하더니 글시 보고 잘 디낸다 하니 깃브다 문영진의 일은 나는 모른다 성지의 가담으로 말시 잘못흔 죄로 우히셔 패심하여 밧그로 죄를 엄쳐하려 하시다가 그리하신 일을 엇디 잘할가 보니 텅덕이마다 별감의 씨이여 말이 되니 아마 다 외입장인가 보다

<순원한글박-03, 1841년, 순원왕후(어머니)→덕온공주(셋째 딸)>

두 순 봉셔 보고 작일 창황이 출문하는 스연 보니 갖득 비원흔 심스의 악연 억식하여 홀 말이 엇다 너히 집의 이런 일이 이실 줄은 생각디 아넛더니 그져 불행홀 분일다

<순원한글박-04, 1837-1844년, 순원왕후(어머니)→덕온공주(셋째 딸)>

글시 보고 든든하며 일양들 디내는 일 알고 깃브며 나는 입시 든너왔다 스연은 보고 덩희상드려 연유를 이르고 슈본을 드리라나 하여 물너 보내여 주라 혼죽 어느 썬지 망 든 거슨 제가 하고져 하엿기 밧그로서 망이 드러 별감을 혼 후 남영위게셔 싸여 달나 말이 드러와 곳셔도 연유 알외고 싸여더니 또 어제 췌외 당신이 성지의 망 너히 드리라 이르셔서 하엿는디 부마의게셔 어제 스알의게로 싸여 달나 청이 오니 스알이 어느 니장드려 싸여지라 하여 알원죽 남영위 청직이는 못 식히라 이가지 하시고 식혀 겨시다 하는디 니가 대스로이 전갈을 하여 느려간다 하여도 부마의게 미안되어 그만 일의 황송하게 그리 혼가 보니 한동안 든니다가 병장을 하거나 하고 ㄱ려 게나 하라 하여라 디셔로 덕는다 슈라는 아직 아니 먹어다 스알이 걱정걱정하더란다

<순원한글박-05, 1837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밤 디설이 장히 오고 일기 칩기 조금 나오나 요스이 일기 브도키 이상하디 근친형도 명일노 혼가 시브니 넘너 브리디 못하디 길히 평안평안 가며 반가이 피시고 평안이 디내다가 회환하기 밋니 여기는 상후 안녕하시고 나도 일양 디내니

<순원한글박-06, 1837-1844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봉서 보고 든든 반가오나 감기와 헐소가 긴헐가 시브니 일후 한란이 고르디 못헐여 그러
헐 듯 답답 브리디 못헐며 신앙이 잇는디 도석 찬물이 더욱 구미의 맛디 아녀 먹디 못헐
듯 민망헐여 헐니 예는 헐가지로 디내나 오늘날을 당헐니 심스 새로오며 덕온은 드러와
디내니 든든헐여 헐니 수이 쾌츠허기 밋니

<순원한글박-07, 1837-1844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스연만 덕으며 무스이 디내는가 시브니 깃브며 즈겨는 오늘도 헐가지니 답답헐여 헐니
상지다를 상지를 붓가 깃 검은 겁질을 벗겨 브리고 속 프른 겁흘 잇는 지 들히면 약이
되고 맛도 관겨티 아니타 헐니 니일은 그리 달히라 헐소

<순원한글박-08, 1838-1844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초춘 일기 온화헐니 무스이 디내는 일 알고져 헐며 나는 헐가지로 디내니 즈겨 유도는
신성병 두 분이나 그져 드러가고 치가시의 곱이 조금식 무더 나고 모히여 든든헐던 거슨
덜헐여 뵈고 들은 듯헐고 통통헐여 뵈기는 창구 좌우로 그러헐여 뵈니 획이 풀니라 헐면
브르고 주러 적어질디 엇더헐여 그러헐 줄 모르게 헐엇니 담비 춤을 그스이 년헐여 불나
보니 그는 해롭든 아닐 듯히 곱거워홀 듯 덕니 치가시도 들의 블니디 아니코 뵈버 붓치
니

<순원한글박-09, 1838-1843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봉서 보고 무스이 디내는 일 든든 깃브나 비는 아니 오고 무더워 일기 심히 거북헐니 조
심헐여 평안이 디내고 앓가 편지헐엇더니 거의 보아실 듯헐며 묻져 스연의 다 헐엇니 나
도 처음으로 온체를 먹기 유의헐여 보니 쇼당도 느리 더운 거시 아니라 썩썩 짜근짜근
보독보독헐고 귀밋 핫핫헐기는 수삼 일 되여시디 마춤 그러헐가 더 보고 말헐려 아니헐
엇더니 잘 제 보아도 더워 해왔는 일 업고 상히의셔 별노 알외는 거슨 업는 거시 분디
더워 타 남 덤디 아녀도 덤다 헐는 자이니 홀노 더워헐는 거슬 약이라 말헐 길 업니 그
러헐디 스스로 귀밋히셔 핫핫헐 기운이 난다 홀 제는 그는 전에 업던 일이니 그만치 먹
어서니 곳치고 다른 약을 먹을넌디 못고져 말 이르게 그스이 드러오셔 잘 제 썩이 궁의
셔브터 그러타 헐고 종야 상업시 나 등 다흔 디는 뇨기 디 젓고 두루 다 축축이 나더니
그제 어제 저녁브터는 슈건 두 번을 그라 너헐니 이러헐기 덜 연다 말 이르게 먹기는 궁

의셔는 엇디흐던디 혹 조금 낮게 먹을 제도 있니 희소는 흐디 드물 썩도 잇고 담이 되다
흐니 묽은 담은 아니니 나으랴 그러흐디 그 말도 프러보소

<순원한글박-10, 1838-1843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마염이 심흐니 브리디 못흐더니 셔증으로 썩긋디 아니흐가 시브니 오늘은 엇더흐디 녀이
며 덕온도 일전 은진 귀운 잇고 날이 더워 그러흐디 프어서 돛쳐기고 마른 안질도 잇고
조하여 뵈기 오창열이게 프러 약방문을 내여 그제 어제그디 두 텃 먹어시나 은진은 묵던
날 밤부터 관겨티 아녓는디 이 약은 은진 말흐고 년 거시니 관겨티 아닐디 의심스러워
방문 보내니 보고 프러 보소 안질은 붓고 식기 한가지오 피피간 듯기도 그져 그러히 합
조는 판서가 락이 꾸짖고 올흔 그리 못 흘 줄노 흐고 쏘는 진정 권미니 길순이 올라오면
칭원이 되겠다 흐고 올분이라 흐니 나도 판서의게 줌 아니 닐너시니 두고 보소 이리 덕
더니 봉셔 보고 든든 반가오나 증습기 이상흐니 브리디 못흐니 선즈는 도흔 거시나 잇는
가 하여 보니 다 혼 모양이로디 본 거시기 보내엿디 나도 일양 디내니 [협지]안질이 노
열이 만히 성튼 아니나 붓고 식여흐니 황계피 염밀 발나 구어 빼스니 저녁은 저 시 황년
이나 넣어 빼너코 자려 흐니 다른 약은 브절업스니 보아 가며 흐면 도흘 듯히 돌임이었
나 흐니 그러흐디 풍열인디 보아 알게 흡시

<순원한글박-11, 1840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궁으로 안부는 대강 아나 궁궐기 측냥업더니 봉셔 보고 든든 반갑고 무양흔 일 다행흐나
오래 보디 못흐는 스연을 보니 역식 감비 흐기 엇더타 못 덕니 친환이 대이 긴흐신가 시
브니 어득흔 심스로 용녀흐는 일 브리디 못흐고 쏘 잇는 집이 노상 칙박홀 분이 아니라
과동흐기도 어려온가 시브니 그러흐면 엇디 디별고 답답하여 흐며 봉셔나 즈로 흐고져
막음은 이시나 공연이 날마다 요요 한가티 못하여 친히 빠디 못흐고 더셔는 섭섭하여 날
포 되엿디 도위나 즈로 흐면 아모 제나 회셔허리 한만흔 출입은 못 하여도 궁의야 제제
드러오디 못홀가 아릅 업는 사름이 쏘 인정이라 블상흐니 어인 일인디 애끓기 측냥업니
나는 계요 디내나 이제 당흐니 감오 통원흐미 비홀 디 업니 지작 쥬부가 나가 보았노라
흐고 신관이 더 수패 흐엿더라 흐니 녀녀 노히디 못흐니

<순원한글박-12, 1841-1844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일간 무스흐가 본덕괴셔도 엇디 브지하시는데 이제 심스 오죽흐실가 일크라 디내니 즈겨

유도로 말하고자 하디 그스이 어디도 둔니고 또 친구세지제의 분요도 홀 듯 아니 하였더니 여전이 합창이 되었시나 여러 번 속은 고로 밋브디 아니터니 홀연이 본 잇던 획이 성하고 흥운하고 가운데는 말낭말낭하더니 오늬 일 후 창구 나며 적은 술바닥으로 놓이 하나히나 나고 창구는 두어 번 나 보던 때보다 크기 담뱃대 물부리 구무만이나 실하나 다시 놓은 나는 일 업고 누르면 진물이나 나더니 곱이 끼이고 창구는 요스이 답히여 초두 곳디 아니터 곱 끼인 엉엇치 붓두집 언저리만 하고 성하던 기운 주러져시나 땡땡한 획은 그 상디로 이시니 보기에 주저안줄 듯하디 속으로 짜금짜금하고 풀은 그져 무거워 알프다 하고 신성병이 두 분은 드러가니 그 속이 엇더하디 알 길 업니 치가시 느리 붓치디 곱 무더날 줄도 업고 미주룩하기 곱이 무더나게 설면즈를 붓쳐시니 낮즈음 보려 하니 그 만저만 합창되러나 하여도 후내가 또 업디 아닐 거시니 엇디하면 거근홀디 준흔 약은 알파 이기디 못하니 아니코 미양 이러하니 세월 노 괴로와 성가시고 아니 민망흔가 알파흔 것 보면 아쳐롭고 굵굵히 육초의 소금 너히 붓쳐 두면 도타 하니 지나 상약이로디 하여 보고져 하니 장지 오년이니 아니 이상홀가 본가 7려워하던 거손 낫다 하니 혹 뺏기는 상회슈로 뺏기니

<순원한글박-13, 1841-1842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일한이 줄극하니 무스이 디내는가 일기도 하 브도하니 조심하여 디내소 이히로는 마즈막 망던이 되어시니 망극 미체하려 브리디 못하니 사랑이 칩디 아니흔가 나는 희소로 괴로와 디내니 잘 디니게 호소

<순원한글박-14, 1841-1844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점열의 무스이 디내는 일 알고져 하며 그스이 일기가 고르디 못하고 7물 의스가 만흐니 답답히 즈겨는 나가니 섭섭도 하고 그 유도논 그 상으로 한가지오 수삼 일 담이 만히 성하여시니 미안히 나는 한가지로 디내고 오래 봉서 못 하였기 좀 덕니

<순원한글박-15, 1841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작일 봉서 보고 든든 반가운 밤 일후 땡열하디 무스이 디내는가 시브니 다형이며 드르니 본턱 괴서 낙혈도 하시고 늑털이 디내신다 하니 죽히 초견하랴 브리이디 못한다 어제는 곤던 관례를 순성하시니 경헿하기 엇디 다 덕으리 그스이 도위들 드러오면 도위 즈리는 비여 섭섭하기 측냥업더라 덕온은 합창이 뺏 되디 아니터니 약 썬 후야 나오니 받서 썬히디 못흔 줄 애들나 하였다 나는 당 청성티 못하니 늑노라 그러하디 괴롭다 일기 덤

덤 더워 올 거시니 무스이 디내기 밋는다

<순원한글박-16, 1842-1844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일기 브도흐니 일양 무스이 디내는 일 알고져 흐며 오늘은 싱도니 든든흐나 도위는 심스 감통이 새로올 듯 브리이디 못흐니 섭섭흐여 조반 보내니 먹게 흐소 즈겨는 의원 보고 약 열 텃 더 먹는가 보니 과히 훌치든 아니타 흐던가 흐니

<순원한글박-17, 1842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일월이 블뉴흐여 쇼기 격쇼흐시니 망극 익모 여신흐라 브리이디 못흐며 이때 대부인긔셔는 엇디 브지흐시논디 일궂고 드러니 도위 두통이 낫다 흐니 크디나 아니코 엇더흔디 녀며 관비흐여 디내기 밋니

<순원한글박-18, 1843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수일 눈감으로 대이 블평타 흐니 녀며 브리디 못흐더니 오늘은 나아 소세흐엿다 하니 것 브나 그 감기 낫다가도 도로 실섭 되면 무섭다들 흐니 답답히 구미도 업서 괴로운 일 민 망히 대귀 머디아녀시니 도섭홀 스이 업스나 수일이나 더 도리흐고 부디 트람 빼이디 마소 즈겨는 오래 잇다가 나가니 섭섭히

<순원한글박-19, 1844-1845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이 음식이 도병기 과정으로 부부인 가묘의 치제흐신다고 박동셔 드렛기 보게 보내나 곁어 먹엄죽든 아니히 회셔 마소 저녁째 드러오소

<순원한글박-20, 1848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작석 봉셔보고 든든흐나 본덕 숙환이 위돈흐시다 흐니 오죽 초전 우려흐라 답답 브리디 못흐며 오늘은 엇더흐신디 근심 둥 텃텃 스연보니 감회흐기 엇더타 못흐고 친환도 그러흐고 나도 늑섭이 넘어서니 어이 보고져 급흔 므음이 혈혈가 본가마는 즈연 스세가 순홀 길이 업서 이리흐여 간 거시니 내 즈니를 닛고 싱각이 업슨 줄노 아디 마소 내 역 즈니 봉셔를 보면 민망흐고 감창히 이 봉셔 보앗다고 일이 삭니의는 될 길 업스니 그리 알고 잇게 흐소

<순원한글박-21, 1850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초춘이 거의 다흐고 일기 온화흐니 그스이 진후 범절이 여상흐며 구미도 나 진식이 감미

잇는가 이 병이 잘흔 후는 먹기 조심하니 낭대로 못 먹으니 역정이나 아니 낸가 웃니 근 삼십의 아히 구실을 하니 녀녀 노히디 못히더니 태평이 디나치니 다행 깃브기 날이 갈수록 측냥업니 소세하고 방달간의셔나 출입흔디 굶거워하니 예는 상후 미감으로 날포 디 내시니 이째 조심이 되더니 어제부터는 소세하여 겨시니 축슈흐나 노상 진어를 잘히디 못히시니 답답히 나도 일양 디내니 굶거워 줌 덕니

<순원한글박-22, 1850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세환하여 둥춘 일 순이 되디 보디 못히니 암연 굶거울 분 아니라 스십 일이나 되니 범절이 었더흔디 즈셔히 알 길은 업고 경경 브리디 못히더니 봉셔 보고 보는 듯 든든 반갑기는 측냥업스디 발반 초두부터 먹이 둥히 디내여 지금 여증이 잇고 기력이 대탈하여 소성하기 아덕도 먼가 시브니 디는 일이로디 아스롭고 죽히 괴로올가 민망 답답하여 하니 일기 점점 준화하니 묘섭을 잘하여 수이수이 청건하기 조이니 여기는 상후 이 순이나 감기로 디내시디 지작이야 와 겨시니 축슈히디 진어는 베타 못히시니 답답히 나는 일양 디내니 오늘이 바람도 잇고 도로 츠니 조심하여 디내게 호소

<순원한글박-23, 1851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수일은 여름날노 더우니 었디 디내고 더적 테하여 먹이 괴로이 디내더니 저기 낮기는 허디 쾌티 아니타 허더니 일간은 었더흔디 녀이며 오늘은 환안히시고 현종 계봉 하시니 씬인 듯 친구지비와 한심 늦겁기 었더타 형언티 못히고 대기 이십 일도 남디 아녀 겨시니 망극 원통 하기 아모라타 업스며 도위 하정이 그러헌 줄을 모르디 아니디 유부옥즈니 칙교로 드러오디 아닐 거시 늬의 시비가 이실 거시니 그는 도위를 위하여 아니헌는 일이니 년전 일을 생각하여 먹음을 늬여 헤아리소 내가 도위 불상하믈 흔째나 니즐가 본가 과연 편지 회셔의 묘흔 말이 업셔 낙막홀가 진작 답장 못히엿디 기다리게 호소 나는 었더엿더 췌긋디 아니키 혼가지로세

<순원한글박-24, 1855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봉셔 보고 기간 일기 묘화티 못히나 평안이 디낸가 시브니 깃브나 험소를 허더니 나온가 하며 여기는 상후 만안히시고 나도 혼가지로 디내니 도위 형은 외임을 하니 본턱 전성 지양을 바드실 거시오 즈니 민망헌 스정을 일우니 내도 깃거 일궜고 디내엿디

<순원한글박-25, 1844-1857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춘한의 년하여 괴운 평안헌 일 알고져 하며 수일 칩기 심동이에서 못히디 아니하니 브리

디 못흐니 오늘은 싱도니 든든하고 섭섭혀여 전골 하여 보내니 먹을가 하니 여기는 상후
안녕하시고 나도 일양 디내니

<순원한글박-26, 1844-1857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봉서 보고 든든 반가오나 일후 우양 브도흐니 엇디 디내는디 글월은 묘석이시디 즈셔히
아디 못흐니 굶겨워 디내여시며 나는 거월 념후부터야 담성하기와 희소가 나으나 공연이
탓 업시 그러흐니 또 엇디 알가 본가 나는 오늘을 당흐니 한심 싫다 하기는 예스 말이니
답홀 말이 업니

<순원한글박-27, 1845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춘일이 브도흐나 평안이 디내는가 시브니 깃브며 덕 경일은 평안이 디내신 일 깃브고 일
크라나 그날 싱각이만하 한심 비감하기 측량업스니 도위도 혼창이 교집하여실 듯히 나는
일양 디내니 감허가 쾌히 낫디 못히 음식 먹고져 하여 이리 정결이하여 드러시니 갓초다
먹엇니

<순원한글박-28, 1837-1844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봉서 보고 야간 평안이 디내니 든든 깃브며 이 방문은 보고 수일 쉬여 먹이게 하여시니
녹용은 어더 보낼 거시니 궁의셔 오 텃식 지어 드러보내소 지료 도흔 거스로 호소 공심
이 어려오니 식원복이 엇더홀고 하니 그 익괴탕은 희는 별노 업는 듯호디 이후 열기 오
른다 하니 더 먹어 엇더홀 줄 몰나 괴별한 거시니 삼 텃 남앗니 녹용은 여러 번 엇기 어
려워 두 지를 어더 보내니 두고 쓰소

<순원한글박-29, 1789-1857년, 순원왕후(장모)→김병주(둘째 사위)>

야간 평안한일 알겨져하며 오늘은 싱도니 든든하 향슈무강하기 축하며 며느리는 어제
왔는가하니 일기거북하니 잘 디니게 호소 나는 일양 디니니

<순원한글박-30, 1789-1857년, 순원왕후(장모)→김병주(둘째 사위)>

작일 빠틀시니 평안이 쉬겨 일양디니는디 알겨져 하며 오늘은 싱도니 시봉 하며 즈부 거
느려 든든이 일콧니 오늘 드러오올가 하였더니 남녕만 보니 섭섭하여하니

<순원석주선-01, 1840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석주선, 8173>

야간 평안이 디내는 일 알고져 하니 나는 한가지로 디내니 즈겨 태화탕을 그 스이 먹는

더 혼 텃식 두 텃식 먹었더니 머리가 알프다 하여 겨요 세 번 굶치고 드리기를 더더로
 한다 하고 그러듯하여 시작하키는 근 이십 일이나 되디 아홉 텃을 먹고 어제 또 두통이
 이셔 아니 먹었더니 늑늑하여도 하기 이경의 담텐가 하여 정괴산 먹었더니 토하여 보니
 담을 만히 토하는디 담 빗치 붉은 슈박 먹고 토한 빗 굶터여 정괴산 <뒷면> 씻겨 나온
 것도 아니오 빗치 슈상하니 어인 일인디 넘너로세 아모려도 태화탕 그만 먹이게 하였니
 오창열이드려 이 말을 하고 무려 보소 아츰 도문안의 보내련마는 너모 느껴 의원 브르키
 하고 저므러 질 듯 묻져 보내니

<순원석주선-02, 1840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석주선, 8175>

직작일 봉서 보고 든든 반가오나 이 스이는 씨긋디 못흔 신긋 엇더흔디 근일 화창하니
 브리디 못흔디 예는 인능 흥흥도 태평이 왕환하시고 안녕하시니 만흥하여 하니 나는 누
 어 알는 일은 업스나 당 두루 알프고 괴롭기 측냥 업디 일 업시 골몰하여 회셔 진즉 못
 하였니

<순원석주선-03, 1840년, 순원왕후(장모)→김병주(둘째 사위)> <석주선, 8176>

봉서 보고 야간 평안하니 깃브며 나도 혼가지로 디내니 이 말은 다 아랏니 죄가 용샤터
 못홀 터이면 엇디홀고 앓가 두 번 편지 보고 고이하여나 아니혼가 하니

<순원석주선-04, 1840-1843년, 순원왕후(어머니)→덕온공주(셋째 딸)> <석주선, 8178>

오늘은 싱도니 든든하고 슈복 영당하기 축하며 야간 평안하고 조반 먹은가 알고져 한다

<순원봉서개인-01, 1834-1841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봉서 보고 일긋 증울하기 심하니 일양 디니는 일 깃브나 친환이 더 못 디니시는가 시브
 니 민박홀 일 일크라며 스연은 보고 내 생각도 업디 아니디 던갈노 하기도 엇더하기 못
 하였더니 도위 뜻이 이러하니 하여 보니는 하니

<순원봉서개인-02, 1834-1841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친환으로 날포 초전하여 디낸다 하니 답답 민망하더니 수일은 저기 동정이 겨시다 하니
 죽히 만흥 웅축하라 위하여 깃브기 7이업다 응당 그러하러니와 신식이 밋이 패하고 감
 괴도 긴터라 하니 세나디나 아닐가 넘너 브리이디 못하며 오늘은 판판괴셔 감세 더 겨시
 고 즈너도 신긋 엇더흔디 알고져 하며 그스이 봉서나 하고져 하나 경황이 업시 디내게

흐엿기 못도 못흐엿다 본턱괴셔 이번 그 심녀가 오죽 오죽흐여 겨실가 보냐 엿디 디너시
는디 두루 브리이디 못흔다

<순원봉서개인-03, 1837-1844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갈망흐던 희우는 꽤연흐나 덩기 심흐니 엿디 디내논디 브리이디 못흐더니 니변을 보논가
보니 서슴인가 테흐여 그러흐가 복통이 막이 괴로울 거시니 답답 넘너며 오래디 아녀 나
아야 지치디 아니케 흐엿니 니질처로 괴운 휘잡히는 거시 업느니 상약 울당 작설차 진히
달히고 사당 설 타셔 혼 탕기가 되던디 삼스 츠식 먹으면 설변이 되여 나은 일도 이시니
덩약도 먹으려니와 이것 시험흐여 보소 즈셔논 약 순강흐니 다헿흐여 흐니

<순원건국-01, 1802-1856년, 순원왕후(장모)→윤의선(셋째 사위)>

수일 일괴 치운디 년흐여 무스이 디내니 깃브나 종삭 삭일이 되니 익은 망극흐미 새로울
가 브리디 못흐니 나는 혼가지로 디내고 즈가도 감괴논 낮게 디내니 깃브며 가화논 보고
져 드러시니 귀흐여 압히 노코 보니 괴절흐고 진짓 거시에서 다르미 업니

